차 례

서 장 ……………………………………………………………… (2)
제1장 우연인가 필연인가 ………………………… (17)
제2장 두줄기 레루 ………………………………………… (81)
제3장 탈 선 ………………………………………………… (104)
제4장 불협화음 ……………………………………………… (144)
제5장 접근하는 쌍곡선 ………………………………… (175)
제6장 삶의 가치 ………………………………………… (204)
제7장 사랑의 힘은 크다 ……………………………… (241)
제8장 위 기 ………………………………………………… (286)
제9장 행복송가 ……………………………………………… (335)
종 장 ………………………………………………………… (379)

서 장

하늘도 산도 들도 강도—모든것이 몽몽히 서려오르는 짙은 재빛 안개속에 묻혀 수묵화처럼 검은빛으로 물들어버렸다. 방금 동녘에 솟은 태양마저도 낡은 은전처럼 희뿌연 빛을 띠고 차겁고 희미한 수은광택을 뿌리고있었다. 안개속에서 원시인들이 돌벽에 그린 숯그림처럼 흐릿한 륜곽만이 느껴질뿐인 저 멀리 산발들도 침울한 생각에 잠겨있는듯 했다.

자욱한 안개속을 뚫고 화물자동차 한대가 강기슭으로 달려와 멈춰서더니 거기에서 열서너명의 간호원들이 뛰여내렸다. 고요하던 강변에 웃음소리, 말소리, 웨침소리, 도끼질소리가 메아리치더니 얼마 안있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벌려놓은 야전가마들의 밑굽을 휘감으며 세개의 연기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리정순은 이를 악물고 도끼질을 계속하였다. 땅이 빙빙 돌고 눈앞이 아찔아찔해질 때마다 발등이라도 찍을가봐 겁이 났지만 일손을 멈추지는 않았다. 이슥고 나무를 다 팬 정순은 휘청거려지는 발걸음을 겨우 가누며 물가로 향했다. 그는 물가에 거의 이르러 저도모르게 폴싹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주위가 쥐죽은듯이 고요해지는것이 마치 천길암흑속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피를 뽑은 뒤마다 나타나는 빈혈증세였다.

어제밤 위생렬차가 ㅂ역에 도착하였다. 부상병들의 태반이 불타는 전선의 전투원들이였다.

리정순이 간호장으로 복무하고있는 이곳 후방병원의 군무자들은 모두 떨쳐나서 그들을 실어들이고 치료전투를 벌렸다. 무엇보다 요구되는것이 피였다. 군의, 간호원들은 서슴없이 팔을 걷었다. 정순이 역시 많은 량의 피를 바쳤다. 그런데다가 온밤 처치요, 수술이요, 점적이요 하면서 팽이처럼 돌아쳤더니 새벽이 되여오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잠시도 눈붙일 짬이 없었다. 이렇게 렬차로 부상병들이 들어올 때면 그들이 입었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군복과 속옷류, 백포와 모포 같은것들을 인차 빨아서 창고에 바쳐야 하는데 몇명 안되는 세탁공들만으로는 손이 모자랐다.

그래서 병동별로 엇바꾸어 간호원들을 여기에 인입시키군 하였는데 이번에는 정순이네 제12호병동차례였다. 그래서 정순이네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강가로 나온것이다.

한참후 정순은 얼굴에 찬물을 몇번 끼얹고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다시 되돌아온 정순은 도끼를 잡고 새로 끌어다놓은 통나무들을 패기 시작하였다. 온몸에서는 더운땀보다 식은땀이 더 많이 흘러내렸다. 한동안은 땔수 있을만큼 장작을 무져놓은 정순은 전반적인 작업형편을 알아보았다. 삶아낸 빨래를 헹구는 일에 손이 딸렸다. 다시 물가로 나간 그는 맞춤한 빨래돌을 끌어다놓고 잠시 허리를 폈다.

눈앞으로는 강이 흐르고있었다. 이 강기슭에 나올 때마다 정순은 부대실험실 실장이며 민청위원이며 예술소조책임자인 신장범이 예술공연때 무대에서 읊은 자작시 《불타는 강》을 되새기며 깊은 사색과 흥분에 잠기군 한다.

부상병후송렬차가 들어오기만 하면 장범은 어김없이 중환자들에게 피를 바치러 왔다. 어제 저녁에도 그는 정순을 찾아왔었다.

정순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안됩니다. 이건 부대장동지의 명령입니다. 이번엔 정말 안됩니다.》

부대장은 실험실성원들에게서 피뽑는것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현미경이나 비색계 등 정밀한 광학계기를 다루며 일해야 하는 그들에게서 시력의 보존은 필수적인 문제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장범은 으르기도 하고 사정도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순은 끝내 이번에도 지고말았다. 매번 이런 식이다. 장범은 다른데는 갈념을 못하고 그중 약한 고리로 보이는지 정순이에게만 왔다.

《이거 매번… 하여튼 고맙소.》

으를때와는 달리 미안한듯 히죽이 웃으며 돌아가던 그의 모습이

정순의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정순은 호— 한숨을 내쉬였다. 그리고는 한동안 주위를 잊고 강물만 바라보았다. …

갑자기 뒤쪽에서 퍽— 무엇인가 부딪치며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구머니》하는 비명이 들려왔다. 급히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김이 문문 이는 삶은 빨래를 한버치 가득 담아 이고오던 한 간호원이 몇걸음 뒤에 쓰러져있었다.

정순은 황급히 달려가 안아일으켰다.

《어디 다치지 않았어요?》

뜨거운 물을 뒤집어쓴 그의 옷과 모자에서는 김이 피여오르고있었다.

《이놈의 돌때문에 미끄러졌댔어요.》

정말 그럴가? 그럴수도 있지… 하지만 보다는 빈혈때문일것이다. 어제밤 수혈과에서 피를 뽑을 때 이 간호원은 정순의 바로 앞에 섰었다. 《조금만 더 뽑아주세요.》하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가 다시금 정순의 귀가에 쟁쟁히 들려왔다. 후방병원의 군무자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모두들 부상병들을 위해 자기들의 피를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많이 아낌없이 바치고있었다.

아, 링게르액처럼 피도 쾅쾅 만들어낼수는 없을가?

정순은 가슴이 아파 무거운 버치를 이고 미끄러운 강변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한참동안이나 바라보다가 일손을 잡았다. 정순은 방금 날라온 김이 문문 이는 뜨거운 빨래를 하나 집어 돌판우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슬쩍슬쩍 뒤집으며 조심히 방치질을 시작했다. 불에 끄슬리우고 구멍이 뚫어지고 오리오리 땀에 삭아버린 옷들은 방치질마저 마음놓고 할수 없을 정도였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강가에 자리잡고앉은 간호원들이 울리는 방치질소리가 짜락짜락 강가에 메아리쳤다. 방금 헹구어낸 빨래를 비틀어 짜서 옆에 놓인 큼직한 돌판우에 사려놓은 다음 새 빨래감을 집어들고 펼쳐보던 정순의 손이 저절로 굳어졌다. 여름군복 웃옷이였는데 겨드랑이에서부터 허리까지 군복의 절반이 적갈색으로 물들어있었다. 피자욱이였다.

정순은 전선에서 지금 얼마나 가렬한 전투가 진행되고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손이 떨렸다. 떨리는 손에서 떨어진 군복웃옷이 물속에서 너울거렸다. 불현듯 귀가에 탄환이 울부짖는 소리와 무한궤도의 아츠러운 굉음이 들려오고 하늘로 솟구쳐오른 흙기둥이 그의 온몸에 쏟아져내리는것만 같았다. 가렬처절한 전선의 싸움터들이 이 강변으로 옮겨오는것만 같았다.

이리떼처럼 밀려온 침략자들의 대포와 땅크, 비행기에서 뿜어나온 철알들이 이 나라의 강토를 불바다로 만들고있었다.

그러나 전사들은 굴함없이 싸우고있었다.

정순은 피에 젖고 불에 타고 땀에 절은 다 해여진 그 군복을 조심히 물속에서 꺼내들었다. 그 옷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내려 맑은 강물속으로 구름처럼 퍼져가는듯한 환각이 정순을 사로잡았다. 아니, 그것은 환각이 아니였다. 지금 실제상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의 붉은 피가 푸르르 물결속으로 흘러들고있지 않는가.

쥐고있는 옷자락에 스며있던 이름모를 전사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쿵쿵 정순의 심장에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혹시 이 옷이 한몸이 육탄이 되여 적들속에 뛰여들었던 어느 전사의 옷인지도 모른다. 눈앞이 흐려왔다. 정순은 입술을 악물었다.

그러나 눈굽에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은 마침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후송되여온 수많은 부상병들중에서 누구부터 수혈을 시작할것인가, 또 수혈의 량을 얼마로 할것인가 하는것은 아무리 유능한 군의라고 해도 부상병의 상처와 얼굴빛만 보고서는 알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실험을 통하여 혈색소의 농도가 얼마로 저하되였는가 등을 정확히 알 때만이 규정할수 있는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퍼릇퍼릇 이끼가 오르고 댕댕이덩굴이 파도무늬를 그리며 기여오른 자그마한 단층벽돌건물을 차지하고있는 부대실험실의 임무는 군의들의 밝은 눈과 귀로 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역에서 부상병들이 도착하자 실험실에 일감이 쌓이기 시작했다.
실험실장 신장범은 두명의 실험수들과 함께 온밤을 꼬박 새웠다. 새벽이 되여오니 눈이 뿌옇게 흐리면서 작업을 계속 하기가 어려웠다.
잠간만이라도 눈을 붙였으면 좋으련만 그럴수가 없었다.
아침식사전까지 긴급한것들은 거의 끝냈다. 그는 식사를 하고온 실험수들에게 두시간동안 눈을 붙일것을 지시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험결과를 잘못 판정할수도 있다는것을 알기때문에 그들은 아무말없이 실험실옆에 붙은 침실로 들어갔다. 현미경작업을 하도 오래동안 한탓에 장범은 두눈을 동시에 뜨거나 감을수는 있어도 한눈만 가지고 무엇을 할수가 없게 되였다. 그때문에 사격을 할 때도 몹시 불편을 느끼군 하였다. 전선으로 탄원할 때만 해도 장범은 자기의 무기가 현미경으로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항의도 떼도 통하지 않았다. 조국의 운명이 위험에 처한 지금 각자의 위치는 당이 부르는 곳이라고 두말도 못하게 했던것이였다. 장범도 자기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부대정치부장이였다. 정순동무와 함께 자기 방으로 오라는것이였다.
왜 찾을가? 퇴원하여 전선으로 나가게 되는 동무들을 위한 환송공연때문일가?…
장범은 여기 후방병원의 민청위원장으로서 부대예술소조를 책임지고있었다. 부대예술소조공연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는 대단하였다. 회복기에 있는 어떤 환자들은 자작시의 랑송이나 독창, 독주 등 출연을 요구해오기도 하였다. 중환자들은 담가에 실려 회관에 들어왔고 지어 두눈을 못보는 부상병들까지도 간호원들의 손을 잡고 왔다. 그래서 공연을 할 때마다 회관은 터져나갈듯 사람들로 차넘쳤다. 그때마다 장범은 가슴뿌듯한 긍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군 했다. 장범은 대학때에도 학부예술소조책임자로 있었다. 그는 시랑송을 즐겨했고 시를 쓰기도 하였다. 그림과 붓글씨에 솜씨가 있는 정순은 부대의 직관사업을 하는 한편 공연의 대본도 쓰고 시랑송에도 출연하는 등 장범의 적극적인 방조

자로 활동하였다.

정치부장이 자기를 정순이와 함께 부른것을 보니 틀림없이 공연때문인것 같았다.

장범은 즉시 12호병동쪽으로 갔다.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 정순은 대원들을 데리고 빨래를 하려 강으로 갔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장범은 다시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

잠시후 장범은 정순이와 함께 정치부로 향했다.

정치부건물이 바라보이는 둔덕에 올랐을 때 장범은 물었다.

《아까 왜 울었소?》

《언제 말이예요?!》

《빨래를 하고있던 때 말이요.》

《…》

《무슨 일이 있은 모양이군.》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

《빨래를 하면서 보니 군복들마다가 다 피에 젖었더군요. 가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고지들의 전경이 눈앞에 선하더군요.》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였다.

장범은 그런 정순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정순은 천천히 걸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전 이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싸우는 고지들에 군의나 위생병들이 부족해서 후방병원들에서 인원을 증강하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정치부장동지가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는것은 아닐가요? 렬차도 아직 되돌아서지 않았으니 그걸 타면 싸우는 고지에 가닿을게 아니겠어요.》

《?!》

정순은 장범의 번쩍이는 눈빛과 붉어진 얼굴, 거칠어지는 숨소리를 들으며 그도 자기의 생각에 대뜸 공감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잠시후 그들은 천만뜻밖에도 정치부장으로부터 싸우는 고지가 아니라 대학으로 가라는 명령을 전달받게 되였다. 대학 재학

중에 원쑤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조국보위의 전선으로 탄원해나섰던 장범과 정순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 대학으로 불러주신것이였다. 그들은 꿈이나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으며 커다란 격동과 흥분에 휩싸였다.

불길에 휩싸인 고지들에선 지금 조국의 운명을 건 판가리결사전이 벌어지고있는데 대학으로 불러주시다니!

정치부장의 감격에 젖은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렸다.

《동무들, 그뿐만이 아니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평양시를 웅장화려한 인민의 대도시로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평양시복구건설 총계획도를 설계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다고 하오.

이 모든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겼다는것이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승리한 래일을 설계하고계시오.

동무들은 이제부터는 붓을 든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들이요. 나는 동무들이 새로운 초소에 가서도 포화속에서 단련된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들답게 잘 싸우리라고 굳게 믿소.》

붓을 든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 그들은 자기들앞에 어떤 새로운 임무가 지워졌는가를 이 부름을 통해 깊이 깨달을수 있었다. 미제와의 싸움은 불타는 고지들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치렬하게 벌어지게 되는것이다. 총창으로만이 아니라 펜으로도 원쑤의 가슴팍에 맞창을 낼 때에라야 미제를 종국적으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을수 있는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앞에 지워진 새로운 엄숙한 사명을 깨달으면서 들어설 때보다 훨씬 커진 심장을 안고 정치부장방의 문을 나섰다. …

평양을 향해 종일 걷던 정순과 장범은 어슬무렵 어느 다리목에서 전선으로 간다는 포탄수송차를 만났다. 정순과 장범은 마지막차에 탄 그들은 포탄상자우에 예비위장그물 한조를 리용하여 푹신한 자리를 만들어놓고 앉았다. 12대의 자동차가 불도 켜지 않고 달리였다. 높이 쌓은 포탄상자우인지라 가로수의 가지들이 가끔 그들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래서 그들은 포탄상자에 기대여 반쯤 누워버렸다. 하늘의 별들이 뒤로뒤로 끊임없이 흘러갔다.

정순은 눈을 감았다. 자동차는 맹렬히 앞으로 달리고 세찬 바람은 머리칼을 흩날리며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손길로 뺨이며 볼을 어루만져주었다. 그 애무는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면서 끝없는 생각에로 이끌어갔다. 정순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람에 나붓기는 머리카락들로 인한 간지러움때문인지 아니면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던 대학생활에 대한 갖가지의 즐거운 예측과 기대들때문인지 자신으로서도 잘 알수 없었다.

장범을 건너다보니 그도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듯 했다.

부대예술공연무대에서 읊어진 합창시와 대화시들은 대체로 장범이 직접 쓴것들이라는데 생각이 미쳐 정순은 불쑥 물었다.

《장범동진 전쟁전에도 시를 써서 발표해본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해방된 이듬해에 한편 써서 보냈는데 통지가 왔더군요. 보름후 저녁 9시에 방송으로 내보낸다고 씌여져있더군요. 그때까지 우리 마을엔 유선방송이 없었지요. 그날 아버지와 같이 현물세를 바치려 읍에 갔지요. 아버지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나는 읍거리 전주대에 매단 확성기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기다렸지요. 추운 날이였지만 난 추운줄을 몰랐지요. 시간이 되니 내 이름이 소개되고 내가 쓴 시가 랑송되더군요.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련지… 앞으로 그런 기쁨을 다시는 맛볼것 같지 못합니다. 설사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자동차는 어떤 령길에 접어들고있었다. 사방 어디에도 불빛 한점 없었다. 지금은 전쟁중이라는것이 새삼스레 느껴졌다. 자동차 두대가 겨우 어길만한 길이 산중턱을 따라 댕기오리처럼 감겨올라갔다. 내려다보면 천길나락이요, 올려다보면 첩첩층암인데 당장이라도 차가 벼랑아래로 굴러떨어지든지 아니면 머리우로 바위돌들이 무너져내릴것만 같았다. 이런 험한 길로 불도 없이 차를 몰아가는 운전사들의 심정이 오죽하랴.

드디여 차가 령마루에 올랐다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정순은 불쑥 물었다.

《그런데 왜 생물학부에 갔습니까. 어문학부에 가지 않고.》

장범은 앞을 바라보며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난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군집의 자식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싶었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싶었습니다. 만풍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농업이 과학적토대우에 올라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난 다수확강냉이나 벼종자를 발명해내려고 했습니다. 훌륭한 다수확품종을 연구해낸다는것은 곧 수만정보의 경지를 거저 얻어내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난 종이장우에가 아니라 드넓은 전야에 〈만풍년의 서사시〉를 창작하려고 했댔지요.

전쟁만 아니였다면 서사시는 드넓은 대지에 씌여졌을겁니다. 그러면 조국의 온 대지가 더 큰 황금물결에 설레이게 되였겠지요. 농민들은 기쁨속에 나의 그 시를 읽게 되였을것입니다.》

정순은 황홀한 감동에 휩싸였다. 아니, 장범이 펼쳐보이는 미래의 아름다운 꿈에 취해버렸다. 무겁게 드리운 누런 나락이 보이고 알찬 벼바다의 설레임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대지에 시를 새기는 시인! 얼마나 아름다운 희망이고 포부인가!

장범은 갑자기 한손으로 두눈을 가리우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다.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것 같았다. 이윽고 그는 손을 내리우고 머리를 똑바로 쳐들면서 정순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대학에 가면 다른것을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예?!》

장범은 눈길을 돌려 하늘가 멀리를 바라보며 심각한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상병들에게 돌려주시는 가슴뜨거운 은정들은 나의 가슴을 마냥 격동시키며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합니다. 정녕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친어버이사랑이 아니였다면 사경에 처하였던 수많은 부상병들이 어떻게 다시 소생하여 원쑤격멸의 성전에 나설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늘 어떻게 하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부상병들을 하루빨리 회복시킬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을가 하는 문제를 두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고있습니다. …

나는 이번 전쟁기간을 통하여 부상병들에게 수혈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는 너무나도 귀하고 부족한것이니 회복기환자들에게까지 줄수는 없지요.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의학계와 약학계에서 꿈꾸어오고있는 〈ㅈ〉약물을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다행히도 나는 생물학을 전공하였고 심한 출혈을 한 부상병들의 이상생리에 대해서도 다소나마 파악이 있다고 할수 있지요. …

나는 해보겠습니다. 〈ㅈ〉약물을 개발해내게 되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을겁니다. 난 〈ㅈ〉약물개발을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직접 받은 전투명령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면 전투를 벌리겠습니다. 전선의 전사들이 피로써 얻어내는 한초한초가 아닙니까. 정말이지 대학은 나의 최전선이며 나는 거기로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고 가는 전사입니다.》

《!》

정순은 한없이 숭엄하며 아름다운 정신세계앞에서 커다란 감동과 함께 자책을 느꼈다. 나도 그 크나큰 은정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체험해왔으며 나 역시 그런 약물의 절박성을 폐부로 느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왜 장범동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가. …

장범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또글또글 여문 별들이 온 하늘가득 바글바글 끓고있었다.

《저 별들이 보입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 나라에 재더미밖에 없지만 저 별들처럼 반짝이는 무수한 도시와 마을들이 조국의 대지우에 솟아오를 날은 올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밤하늘을 날은다면 아마 땅과 하늘을 분간하기 어려울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불빛막이가 무엇인지, 반토굴집이 어떤것인지, 폭격과 굶주림이 어떤것인지 모르고 자라게 될겁니다. 그들은 백화만발한 사회주의락원에서 태여나고 살아가게 될겁니다.

그 락원을 위하여 지금 우리의 전우들이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있는것이며 그 락원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대학으로 가고있는게 아닙니까. 그때에 가서 우리는 후대들앞에 떳떳이 말하게 될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 우리의 청춘을 바쳤으며 일생을 참되게 바쳐왔다고!》

정순의 마음은 하냥 부풀었다. 그때가 언제일가? 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 나라의 면모는 과연 어떠할가?

가슴이 벅차올랐다.

장범의 흥분한 그러면서도 깊은 사색이 느껴지는 목소리는 계속 울리였다.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의식하든 못하든…

나도 역시 행복을 바랍니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것을 자기 일생의 사명으로 간직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만난을 박차고 굴함없이 투쟁해나가는 그것이 아닐가요? 그런 사람의 일생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의 추억속에 길이 남을 행복스럽고도 보람찬 한생이 아니겠습니까!》

정순의 눈길은 별들이 빛을 뿌리고있는 밤하늘에로 향해있었지만 높은 정신세계에 휩싸인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밤 장범이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한데 뒤엉켜서는 령롱한 오색구름이 되여 그의 정신을 휩싸안았다. 정순은 그 이야기들이 점차 자기의 머리속으로 스며들어와 덩어리로 굳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사위가 대낮같이 밝아졌다. 조명탄이 터진것이다. 그들은 그때에야 적비행기의 동음을 들었다. 10리가 넘는다는 내리막길의 중턱에서 적기와 맞다들린것이다. 저 앞쪽에서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치솟더니 령길의 한귀퉁이가 뭉텅 무너져내렸다. 선두차는 다행히도 그앞에서 급정거할수 있었다. 그뒤를 따르던 자동차들이 밀집해 멈춰서는것이 보였다. 기총사격을 하고 폭

탄을 던지며 련속 내려꽂히는 적기를 향해 저격무기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그들이 차에서 뛰여내리려고 엉거주춤 일어서는데 눈앞에 새빨간 불줄기들이 한순간 언뜻거리고 무시무시한 휘파람소리 비슷한것이 들리더니 쨍가당— 유리가 부서져나갔다. 기총탄이 운전칸을 명중한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곤두박질하면서 자동차운전칸지붕에 머리를 호되게 짓찧었다. 여기저기서 화광이 충천하고 폭음이 온 골안을 뒤흔들었다. 번쩍 머리를 든 정순은 난생처음 느껴보는 무서운 공포에 온몸이 졸아드는것만 같았다. 자동차가 천천히 왼쪽의 천길나락으로 향해 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운전사가 잘못된것이 분명하였다. 정순은 저도모르게 악— 소리를 치며 눈을 감았다. 《뛰여내리라!—》하는 장범의 고함소리가 귀청을 쳤지만 다리맥이 탁 풀려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다. 장범은 정순을 닁큼 안아들고 오른쪽으로 집어던졌다. 정순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아픔같은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땅바닥이 발밑에 느껴지는 감촉에 그렇게도 강한 감명을 받아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발밑에서부터 뻗쳐올랐다. 그러나 다음순간 정순의 온몸의 피가 삽시에 얼어드는것만 같았다. 운전칸으로 날쌔게 뛰여오르는 장범을 보았던것이다. 왼쪽 앞바퀴가 벼랑가에 얼마쯤 내밀리우고 차체가 그쪽으로 비스듬히 기운듯이 느껴지는 자동차에 그가 오른것이 아닌가. 정순은 눈을 감아버렸다. 천길벼랑으로 곤두박질하는 자동차, 강가의 바위에 부딪쳐 산산쪼각이 난 자동차의 잔해들…

한참후에야 정순은 가까스로 눈을 가느스름히 떴다. 차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꺾어돌며 아슬아슬한 고비를 벗어나고있었다. 내가 꿈을 꾸고있는것이 아닐가. 실지 차는 굴러내리고 저것은 나의 기대가 빚어낸 환영이 아닐가. 정순은 두눈을 문질렀다. 틀림없었다. 드디여 자동차와 한차분의 포탄이 구원된것이다. 전선으로 가야 할 포탄이!

자동차가 도로의 중심에 들어섰을 때 운전칸에서 비명에 가까운 장범의 웨침소리가 울려나왔다.

《돌을 고이라!》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정순은 한동안 깨닫지 못하였다. 벌떡 일어서긴 했는데 악몽에 가위눌린것처럼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것인가?

《제동기가 고장이다. 돌을 고이라!》

재차 울려나오는 장범의 고함소리에(그것은 꽉 쉬여버린 목소리였다.)정순은 찬물을 들쓴듯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제서야 정순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았던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큰 돌을 얻는단 말인가. 정순은 눈앞이 아찔하여 허둥지둥 손더듬을 하며 헤매였다. 창황중에 얼핏 눈을 들어보니 자동차는 여전히 계속 내려오고있었다. 정순은 저기 앞쪽에서 대가리를 비죽히 내민 바위를 보았다. 엎어지며 달려가 그것을 부둥켜쥐였다. 마른 울음을 울며 있는 힘을 다하여 잡아채고 또 잡아챘다. 손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는것도 몰랐다. 그러나 그 바위돌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급강하하는 적비행기의 아츠러운 공기째는 소리가 귀청을 때리더니 기총탄이 바로 몇걸음앞에 들여박히면서 땅바닥을 파헤쳐올리였다. 돌쪼각들이 얼굴을 때리였다. 등골로 차디찬 전률이 스쳐지나가며 무릎이 절로 접혀졌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을 뜨겁게 후려갈기는 열풍에 정순은 머리를 들었다. 적재함앞에 실었던 휘발유도람통에 기총탄이 명중하면서 불이 당긴것이다. 시꺼먼 연기가 검은 걸레쪼박처럼 하늘을 향해 너울거리고 그밑에서 검붉은 불길이 미친 사자처럼 날치고있었다. 아니, 온몸에 피칠을 하고 검은 머리칼을 산산이 풀어헤친 악귀의 무리가 너털웃음을 웃어대며 차우에서 란무하는것만 같았다. 차둘레의 땅바닥과 오른쪽절벽에 뻘건 그림자가 너울거리고있었다. 그 불덩어리차가 정순을 향해 육박해오고있었다. 정순의 뒤에는 11대의 포탄차들이 빽빽이 밀집되여있었다. 이제 몇초후면 이 《불덩어리》가 그것들을 들이받아 하늘로 날려보낼것이다. 전선에서는 얼마나 이 포탄을 기다리고있겠는가. 만일 12대의 포탄차들이 련이어 폭발하게 되면 령길이 뭉텅 무너져내릴것이다. 전선에로의 보급로가 끊어지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겉보다도 속이 먼저 까맣게 타버리고마는듯

한 그 순간 문득 번개처럼 뇌리를 때리는것이 있었다. 이 몸이 그대로 바위돌이 되여 저 바퀴밑에 처박힌다면! 하여 정순은 미친듯이 허우적거리며 앞으로 내달렸다. 눈섭조차 태워버릴듯 확—확—내뿜는 수백도의 고열도 느끼지 못했다. 차앞에 바싹 다가간 정순이 왼쪽바퀴밑에 힘껏 몸을 던지려는 순간 《피하라—》하는 벽력같은 웨침소리와 함께 운전칸에서 뛰여내린 장범이 어깨로 정순을 사정없이 밀쳐버렸다.

정순은 허양 나뒹굴고말았다. 다시 몸을 가누며 일어서던 정순은 두눈을 흡뜨고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다시 운전칸에 뛰여오른 장범이 있는 힘을 다해 운전대를 돌리고있는것을 보았던것이다. 벌써 자동차는 왼쪽의 낭떠러지를 향해 방향을 돌리고있었다. 장범은 불덩어리가 된 자동차를 벼랑아래로 굴려버리기로 결심한것이였다. 적재함에 불이 달렸으므로 운전칸도 불도가니로 되여버린지 오래였다. 장범의 군모와 군복에서도 불길이 타오르고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리고있었다. 그는 계속 운전대를 돌리면서도 정순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무슨 말인가 하려고 입술을 벌렸으나 뜨거운 열풍에 헉— 흐느끼며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정순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수 있었다.

다시한번 《피하라!—》하고 웨쳤을것이다. 정순은 그것을 들은것이 아니라 장범의 눈에서 읽었다.

빨리 뛰여내리지 않는다면 그는 1～2초 내에 타죽고말것이다. 얼굴까지 끼쳐오는 화염앞이건만 차디찬 오한에 정순은 전률하였고 등골에는 식은땀이 쫙 내배였다.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듯이 아팠다. 장범을 운전칸에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함께 죽을 결심을 하고 정순은 불덩어리가 된 차를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자동차가 절벽아래로 비스듬히 나자빠지기 시작하자 장범은 운전대를 놓고 차문을 박차며 문밖으로 몸을 솟구쳤다. 순간 요란한 폭발이 일어났다. 불달린 상자들때문에 포탄들이 일제히 터졌던것이다. 정순은 폭풍에 휘 날리는것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다. …

그때로부터 이틀후 정순은 그 근방에 주둔하고있던 부대의 군의

소에서 정신을 차렸다. 담당군의는 11대의 포탄차가 무사히 전선으로 떠나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시계 하나를 내보이며 낯이 익은가고 묻는것이였다. 심한 뇌진탕으로 흐리마리한 의식을 가다듬으며 정순은 그것이 무엇일가 하고 오래동안 기억을 더듬었다.

한참만에야 정순은 그것이 장범의 시계라는것을 알아보고 흠칫 몸을 떨었다. 정순의 타는듯한 눈길을 피하며 군의는 얼굴을 돌렸다. 얼마후에 장범이 이 시계 하나만 남겨놓고 시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군의의 말을 듣고 정순은 까무라치고말았다. 많은 출혈을 한데다가 심한 정신적타격으로 하여 정순은 꼬박 하루동안 혼수상태에서 헤매였다.

한달후 겨우 걸을수 있게 되였을 때 정순은 그 령길로 갔다. 장범의 온 가족은 이미 폭사하였다. 정순은 그의 묘주로 되여야 했다. 그러나 어디서 그의 시신을 찾겠는가.

어설픈 해빛아래 조는듯이 누워있는 령길우에 정순의 눈물은 하염없이 떨어졌다.

깎아지른듯 아찔한 벼랑아래서는 폭넓고 물살 느린 강이 바위기슭을 치며 목메여 흐느끼고있었다. 검푸른 물결도 그에게는 붉게만, 피처럼 붉게만 느껴졌다.

장범의 온몸은 이름없는 령길에, 이름없는 산과 강에 산산이 뿌리워졌지만 그의 숭고한 넋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할것이다.

제1장 우연인가 필연인가

1

일반적으로 산업병원인 경우 외과가 제일 바쁜 법이지만 성룡구에 있는 ××공장은 손꼽히는 현대적인 공장이므로 공장병원의 외과는 비교적 할 일이 없었다.

그대신 예상외로 소아과가 눈코뜰새없이 몹시도 볶이웠다. 그것은 공장종업원들의 나이상구성이 특이하기때문이였다.

공장건설이 끝나갈 때에 당에서는 전국각지의 공장들에서 선발된 천명이 훨씬 넘는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군대에서 그만한 수의 군인들을 제대시켜 공장에 보내주었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나이는 대체로 마흔살이상이였고 그 자식들의 나이는 9～13살 범위에 있었다. 제대군인들은 그사이 거의 다 장가를 갔고 새로 생겨난 가정들에서 아이들이 태여났다. 지금 그애들의 나이는 1～4살사이에 있었으며 그 수는 수천명에 이르렀다. 그러니 5～9살사이의 어린애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공장유치원은 텅텅 비다싶이 되였고 탁아소는 초만원을 이루었다.

이러한 특이한 주민구성의 영향을 제일 강하게 받는 단위는 유치원이나 탁아소보다도 공장병원 소아과와 약국이였다.

소아과치료에서 주되는 약제는 물약인데 그것을 보장해야 하는 부서가 약국, 더 정확히 말해서 주사약제제실이다.

소아과가 바쁘면 주사약제제실도 함께 바빠진다.

아이든 어른이든 물약치료를 해야 할 정도이면 상태가 위급하다

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물약제제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어떤 병원이든지 주사약제제실성원들은 늘 긴장한 상태에 있는것이다.

그러니 공장병원 약국사업을 책임지고있으면서 동시에 주사약제제를 맡고있는 김준수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는가!

정봉철은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제대되여 공장병원 당비서로 배치되여온지가 40일정도밖에 안되였지만 준수의 수고를 충분히 헤아려보고있었으며 그의 높은 책임성에 감복하고있었다. 한달전에 약내주는 일을 맡아보던 약국성원이 멀리 시집을 가는 바람에 가뜩이나 부담이 큰 약국에 이제는 인원이 통털어 두명밖에 안남았다.

할수없이 고려약제제를 하고있던 두 아이의 어머니에게 약내주는 일을 맡기고 준수가 고려약제제까지 걸머지게 되였다.

약내주는 일을 맡은 성원은 그칠사이없이 약을 타러 오는 많은 환자들을 대상해야 하므로 다른 일을 시킬수가 없었다. 자연히 고려약제제, 주사약제제, 약품인수, 약초재배의 조직, 채취한 약초의 보관관리 등 약국의 많은 일감들이 거의 준수의 몫으로 되였다.

약국에서 생산하는 주사약과 고려약제제의 품종이 수십종이나 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지금 준수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있는가를 정봉철은 잘 알수 있었다. 정봉철은 초급당비서로서 병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약국에 비여있는 한명의 인원을 빨리 보충해주며 앞으로는 부담이 적은 과의 인원을 줄이고 그대신 약국성원을 4명으로 늘여주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며칠전에 원장을 만나 그러한 의견을 말했더니 원장은 인원보충문제에 대해서는 군보건과에서 8월에 도에 있는 고등의학전문(당시)학교 졸업생들이 오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인데(지금이 7월초이니 적어도 한달이상은 걸려야 했다.) 4명으로 늘여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리유를 들면서 반대립장을 취했다.

지금 약국편제인원은 3명이라는것, 그리고 준수가 이 병원에 배

치되여온지 거의 1년이 되여오지만 그사이 물약제제가 떨어져 애를 먹은 일은 한번도 없었고 또 본인이 인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제기한적도 없었다는것이다.

원장에게서 느껴오군 하던 보신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협애한 사업태도와 작풍을 다시금 엿보게 되였다.

준수는 회의때마다 원장의 그러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을 하군 하였다.

준수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정봉철은 이 젊은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것을 직감하였다. 준수가 자기보다 스무살은 더 아래였지만 선뜻 《하게》가 나가지 않았다. 그를 보는 첫순간 정봉철의 머리속에 어느 책에선가 본 비상한 두뇌와 완강한 의지, 철분이 풍부한 피를 가진 사람이라는 문구가 떠오르는것이였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앞에서 나약한 사람들은 까닭없이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겁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도모르게 말을 조심하게 되는 법이다.

무엇때문에 그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것일가? 남달리 큰 키와 쇠덩어리처럼 다부진 몸때문일가? 짙고 검은 눈섭때문에 그늘이 진 눈확의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빛발을 뿜고있는 정기도는 눈동자때문인가? 깎아다듬은 바위처럼 느껴지는 억센 턱의 모가 난 륜곽때문인가?…

준수는 입이 무거웠으며 앉을자리, 설자리를 똑똑히 가려볼줄 아는 사람이였다. 그가 원장의 사업에 대하여 비판한 문제들을 보면 옳은것이였는데도 원장은 그에 대하여 은근히 고깝게 여기고있는 기색이였다.

정봉철은 원장의 주장에 대해 다시금 의견을 말하였다.

《물론 규정의 요구를 지켜야지요. 하지만 국가규정을 지키는데서 근본원칙으로 되여야 할것은 국가적리익의 견지에 서는것입니다. 규정에 대한 일면적인 해석과 기계적인 적용은 오히려 사업에 더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것과 본인이 인원을 늘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것은 절대로 리유가 될수 없습

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성실한 마음을 리해해주어야지요.

지금 실정에서 준수동무의 부담이 다른 종업원들의 몇배나 된다는거야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물론 바쁘겠지요… 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준수동무는 무슨 연구까지 한다고 합디다.》

《예?! 어떤 연구말입니까?》

《모르지요. 내가 언젠가 한번 그에 대해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잡아뗍디다.》

처음 듣는 말이였다.

연구를 한다?… 무슨 연구를 하는가? 그런데 왜 그것을 부인하는가?

정봉철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본인이 아니라면 아니겠지요.》

원장은 미간을 찌프리고 머리를 저었다.

《아니, 내 눈은 못속입니다. 무엇인가 하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준수동무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보았는데 웃방에다가 굉장히 차려놓았다더군요. 그 방에는 꼭꼭 쇠를 채우는데 누구도 들여놓지 않는답니다.

그저 괜히 들떠서 그러는거지요… 하긴 병원일에 지장만 주지 않는다면야 상관할바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요?… 어쨌든 그건 별문제로 하고라도 약국의 편제인원을 늘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화제가 뜻밖의 방향으로 번져지는 바람에 정봉철은 이야기를 그쯤에서 끝내버리고말았다.

자기 방에 돌아와서도 정봉철은 준수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원장의 말을 듣고보니 짚이는 점들이 있었다.

정봉철은 아직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였고 림시로 공장합숙에 들어 생활하고있었다.

공장합숙과 준수네 아빠트는 철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있었는데 그사이의 거리가 그닥 멀지 않았다.

그래서 호실의 창가에 서면 《굉장히 차려놓았다.》는 그 방의 창문이 빤히 바라보였다.

정봉철이 이따금 불면증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태우면서 바라보느라면 그때마다 그 방의 창가에 불빛이 환하였는데 그 불빛이 새벽 2～3시전에는 꺼질줄을 몰랐다.

언젠가 한번은 새벽에 어디 갔다가 병원으로 가던 도중 역앞에서 준수를 만난적이 있었다. 그는 방금 도착한 통근차에서 뛰여내려 역구내를 빠져나온 길인데 어깨에는 열댓권은 실히 될 책꾸레미가 지워져있었다. 도에서 책을 빌려다 본다는것이였다.

전날 저녁 분명히 그를 본 기억이 있는 정봉철은 의아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새벽 1시 30분에 성룡구를 떠나 새벽 3시에 도에 갔다가 돌아서 오는 길이라고 설명을 했다.

물론 역에서 돌아선것은 아니고 책이 있는 고영동까지 갔댔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까지는 100리이고 역에서 고영동까지는 15리이다.

그는 새벽 1시 30분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5시간동안에 책을 빌리러 왕복 230리를 다녀온것이다.

그중 30리는 달리기를 했을것이다. 책꾸레미를 보니 그중에는 영문, 일문, 로문원서들도 있었다.

낮에는 도저히 다녀올 틈을 낼수가 없으니 이렇게 밤시간을 리용한다는것을 정봉철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다.

정봉철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것이다.

책을 빌리러 밤사이에 230리를 달려갔다온 준수를 보니 그 시절의 자기가 눈앞에 서있는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젊은이가 몹시도 대견하고 기특하게 여겨졌다.

어쨌든 그때에는 그것을 그 무슨 연구와 결부시켜 생각해보지는 못했었다.

그리고 준수의 표정이 특이했다.

사랑에 빠진 련인에게서 볼수 있는 주위에 대한 망각, 눈앞을 떠나지 않는 환영에 대한 응시가 가끔 그의 얼굴에 실려있었던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것이 하나로 련결되면서 원장의 추측이 결코 무근거한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다.

그를 만나 그 문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비서로서의 의무였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당자가 비밀에 붙이고있다니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했다.

맞춤한 기회를 기다리던중 그는 뜻밖에도 준수자신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원래 공장이 한참 건설중에 있을 때 공장의료기관의 급수는 지금처럼 병원이 아니라 종합진료소였는데 제일먼저 완공된 강철직장 휴계실 1층의 절반 즉 5개의 방에 림시로 전개되여있었다.

그후 종합진료소가 병원으로 승격하였으며 공장구내밖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조치에 의하여 구내안의 본래 쓰던 방들도 그대로 병원에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병원에서는 그 5개의 방을 현장구급치료소, 주사약제제실 , 고려약제제실, 보철실, 렌트겐실로 쓰고있었다.

그런데 최근 보철실을 병원 본건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제기되였다. 정봉철은 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리유가 타당했던것이다.

어제 아침모임에서 원장이 그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아침모임이 끝나고 모두들 돌아간 다음 정봉철이 원장과 마주앉아 공장에서 석탄을 받는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있는데 준수가 들어왔다. 원장에게 제기할것이 있다는것이다.

《뭐요? 어서 이야기를 하시오.》

준수는 그답지 않게 망설이다가 독촉을 받고서야 입을 열었다.

《원장선생님, 그 방을 제가 좀 쓸수 없겠습니까?》

《무슨 방말이요?》

《보철실로 쓰던 방말입니다.》

《어데다 쓰자는거요?》

《…》

《어서 말을 하오.》

《제가… 말하자면… 뭘 좀 해보고있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그럽니다.》

《그렇다… 하지만 안되오. 우리 병원의 일체 설비와 비품, 자재, 건물들은 병원에 부과된 임무외의 용도에 리용할수 없게 되여있소. 그 방은 고려약재창고로 쓰자고 하오.》

《그 방은 환기가 잘되지 않아 고려약재창고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그럼 환기가 잘되며 고려약재창고로 쓸만한 빈 방이 어디 있소?》

《…》

《대답해보라는데.》

이윽하여 준수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지금은 없습니다. 만일 제가 큼직하고 통풍이 잘되는 창고를 하나 짓는다면 그 방을 리용할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동무가 혼자서 창고를 짓겠단 말이요? 세멘트, 블로크, 모래, 기와 그리고 목재와 로력은 어데서 나고?》

《병원에다가는 로력이건 자재이건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일내로 아주 든든하게 하나 지어놓겠습니다.》

《롱담이요?》

《롱담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 방을 리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3일내라?… 글쎄 어쨌든 그때 가서 봅시다.》

반승낙은 받은셈으로 된 준수는 즉시 물러갔다.

정봉철은 지금이야말로 준수를 만나 그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때임을 느꼈다.

그가 준수를 자기 방으로 부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공교롭게도 군당에 급히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다.

다음날 저녁 정봉철은 읍에서 돌아오는 길로 원장을 만나 준

수가 창고건설을 시작했는지 알아보았다. 원장은 코웃음을 치면서 준수는 어제도 오늘도 제시간에 출근하고 제시간에 퇴근하는데 그저 자기가 맡은 일만 수걱수걱 할뿐이지 창고같은것은 생각지도 않는것 같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래일엔 당장 그 방에다 고려약재들을 날라다넣도록 해야겠습니다.》

《원장선생, 좀 기다려봅시다.》

《아니, 그럼 비서동무는 그 사람이 이제 남은 하루동안에 창고를 지어놓으리라고 믿습니까?》

《어쨌든 약속한 3일동안만은 기다려봅시다.》

원장방을 나서면서 정봉철은 종잡을수 없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된 영문일가? 허풍을 칠 사람은 아닌데…

정봉철은 즉시 준수네 집으로 향했다.

2

김준수는 아들 삼형제중의 막내였다. 맏형은 도에 있는 기계공장병원 약제제실에서 일하고있으며 둘째는 많은 제대군인들과 함께 ××공장에 배치되여와서 일하고 있었다. 맏형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둘째는 작년에 장가를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있었다. 그는 공장대학에 다니고있었다.

준수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준수네 집은 수산물직매점과 붙은 7층 고층살림집의 4층에 있었다.

그 집은 세칸인데 둘째형네가 한칸을 쓰고 나머지 두칸은 어머니와 준수가 각각 한칸씩 리용하고있다고 한다. 준수의 어머니는 오래동안 성룡구병원 약국장으로 일해왔는데 지금은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서 쉬고있었다.

준수네 집 문을 두드리니 안경을 쓰고 허리가 약간 굽은 나이 60쯤 되여보이는 준수의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니는 반가와하며 그를 안으로 안내하였다. 녀인의 일거일동에서는 고상한 인품이 느껴졌다.

준수는 집에 없었다. 둘째형과 함께 저녁밥을 먹자마자 삽과 곡괭이를 들고 밖에 나갔다는것이다.

《비서동지 안됐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갔어야 했겠는데…》

정봉철에게서 찾아온 사유를 듣고 이야기를 시작한 준수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였다.

《준수가 〈ㅈ〉약물연구에 착수하게 된것은…》

…방안에 전쟁시기 이름모를 령길에서의 폭음이 다시금 울리고 화광이 충천하였다. 전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유언으로 받아안고 한생을 《ㅈ》약물연구에 바쳐오는 준수 어머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깃들어있었다.

이윽고 추억의 세계에서 깨여난 준수 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여있었고 눈가도 젖어있는듯이 느껴졌다.

준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보여줄것이 있다면서 정봉철을 준수의 방으로 안내하였다. 준수 어머니의 뒤를 따라 그 방에 들어서서 방안을 얼핏 둘러보고난 정봉철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방의 세 벽은 수백권의 과학기술도서들로 꽉 차있었으며 보통책상 4개를 나란히 붙여놓고 그우에 두꺼운 누런색의 비닐레자를 씌워놓은 실험대우에는 크고작으며 각양각색인 유리그릇들과 기구들, 처음 보아 그 용도를 알수 없는 설비들이 그야말로 빼곡이 놓여있었다.

그 광경은 정봉철의 예상을 완전히 초월하는것이였다.

처음 한순간 정봉철은 어리둥절해있었지만 인차 가슴을 쿡 찌르는듯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정봉철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준수에게만 특별히 무거운 짐이 실려있는데 대해서 걱정해왔었다. 사실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이였다.

그런데 그 짐은 준수가 스스로 어머니에게서 넘겨받아 걸머진 《ス－1211》호(준수 어머니는 자기가 개발하려는 《ス》약물에 1211고지를 상징하여 이런 이름을 붙이였다.)연구라는 짐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이 방전체에서는 안타까운 모대김이라 할지, 절절한 념원이라 할지, 운명적인 비장함이라 할지 이름하기 어려운 그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이 방에는 공기가 아니라 숭고한 정신이 꽉 차있는듯 하였다. 창고를 3일내에 짓겠다는것이 롱담인가고 원장이 물었을 때 《롱담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던 준수의 눈빛에도 그러한 감정을 내비치는 불꽃이 번뜩이였었다.

한쪽 바람벽엔 어떤 젊은 군관의 사진이 걸려있고 그밑에는 싱싱하고 아름다운 생화들을 꽂은 꽃병이 놓여있었는데 그것이 정봉철을 다시금 놀라게 하였다. 그 사진속의 젊은 군관은 몇년전에 최전연에서 복무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정봉철의 맏아들이였던것이다.

정봉철은 떨리는 손을 들어 사진을 가리키며 속삭이듯 물었다.

《저 사진은?…》

준수 어머니는 그윽한 눈길로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 군관동무는 준수의 옛 정치지도원이였습니다. 오늘이 정치지도원동무가 희생된 날입니다. 이날이 되면 준수는 소중히 간수해두고있던 저 사진을 꺼내서 걸어놓고 옛 정치지도원을 추모하군 합니다.》

준수가 아들의 전우였단 말인가! 아들이 희생된지도 이제는 6년이 되여오건만 준수는 잊지 않고있는것이다.

정봉철은 가슴이 후더워졌다.

아무런 눈치도 차리지 못한 준수 어머니는 계속하여 준수의 군사복무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깊은 밤 상급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고 최전연으로 간 다음날 새벽 귀에선 간지러운 노래소리에 깨여난 준수는 병실밖으로 나와 산마루에 올랐다.

산마루에는 적들이 뿌린 삐라가 한벌 덮여있었다. 준수는 인

차 그 역겨운 노래소리가 적들의 악랄한 심리모략선전으로 설치한 방송국에서 내보내는것임을 깨달을수 있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어린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성벽같은것이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어나갔는데 그 《검은 성벽》우로 끝없이 길고 알락달락한 빛발을 뿜는 독사 한마리가 꿈틀거리며 기여가고있는듯한 괴이하고 소름끼치는 광경이 준수의 눈앞에 펼쳐져있었다. 준수는 한참후에야 그 《검은 성벽》이 군사분계선에 바싹 다가붙어있는, 적들이 차지한 련련히 이어진 산줄기들이며 《알락달락한 독사》로 착각했던것은 바로 적들이 그 산릉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켜놓은 빨갛고 파랗고 노란 색갈의 무수한 장식전구들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준수는 그때까지 군사복무를 해오지만 최전연에 나와 적진을 이처럼 눈으로 바라보기는 처음이였다.

저것이 바로 적진이란 말인가… 저것이 바로 민족의 원한이 어린 군사분계선이란 말인가…

그때 준수는 한달후면 평양으로 대학시험을 치러 가게 되여있었다. 그에 대한 련대정치부의 결정을 전달받았을 때 준수는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준수는 심각한 자책에 빠져있었다.

그 기쁨속에 수도에서의 화려한 대학생활에 대한 유혹은 없었던가, 그 기쁨이 저도 모르게 해이해진 나의 정신상태의 반영은 아니겠는가… 판가리결전장은 눈앞에 있고 나는 직접 적들과 총을 맞댄 초병이다. 내가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간단 말이가. 그렇다, 나는 저 원한의 군사분계선을 들어내치고 조국통일의 광장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기 전에는 절대로 군복을 벗지 않으리라. 정치지도원동지가 강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나의 결심을 이야기하리라…

준수는 그날 새벽 산마루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며칠후 강습에서 돌아온 정치지도원은 영원히 군사복무를 하겠다는 준수의 결심을 듣고 《가야 하오. 동무는 최전연에서 최전연으로 조동되는것이며 붓을 들고 싸우는 전선은 여기보다 더 어

려울수 있소.》라고 간곡히 타일렀다. 그러나 그의 간곡한 당부는 그대로 준수에게 남긴 그의 유언으로 되고말았다. 그는 그날 오후 위기일발의 순간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적들을 제압하고 준수를 비롯한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던것이다.

정치지도원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의 배낭에서 붉은 보자기에 싼 꾸레미가 나졌는데 그안에는 크고 두툼한 학습장 2권과 고급만년필 1개가 들어있었다.

학습장속에는 《대학으로 떠나가는 준수동무에게. 정치지도원으로부터》라는 글쪽지가 끼워있었다. 만년필에는 준수의 입대년월일이 불에 달군 바늘 같은것으로 써넣었는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있었다.

그날밤 비발치는 적탄을 한몸으로 막으면서 기관총을 휘두르던 정치지도원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여 준수는 자정이 넘도록 잠자리에 들수가 없었다.

그 어떤 심각하고 절박한 느낌이 그의 심장을 꽉 그러쥐고 놓아주지를 않았다.

30여년전 어머니가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선에서 대학으로 떠나오던 때와 얼마나 비슷한 정황에 나는 처해있는가. 나는 정녕코 대학으로 가야 하는가? 가야 한다면, 대학이 나의 새로운 최전연이라면 나는 거기서 어떤 전투명령을 수행해야 하는가.

준수는 그 전투명령을 생각해보면서 뜬눈으로 새웠다. 온밤 가렬한 전화의 나날 그 이름모를 령길에서의 폭음과 어제 오후의 기관총소리가 뒤섞여울리면서 준수의 정신의 온 공간에 끝없이, 끝없이 메아리쳤다. …

준수는 다음날 련대지휘부에 찾아갔다. 대렬참모는 몹시 난감해하면서 의학부문은 신의주고등의학전문학교 파견장이 하나 남아있을뿐이라고 했다.

준수는 한순간 당황했다. 다른 큰 대학에 가지 않는 경우에도 평양의학대학 약학부나 함흥약학대학에는 갈수 있을것이며 새 약을 개발해내려면 적어도 그런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실력을 쌓지 않고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준수는 인차 자신을 다잡았다. 우리 나라에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여있지 않는가. 의학전문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대학을 통신으로 마치자.

준수는 주저없이 거기에라도 가겠다고 하였다.

준수는 그날로 어머니앞으로 편지를 썼다.

얼마후 준수는 동시에 어머니와 맏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서로 상반되는 견해와 주장이 담겨진 두 편지는 준수를 심각한 생각에 잠기게 했다.

어머니도 형님도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행복이란 무엇이겠는가. 그 군의—영웅전사가 령길에서 소리높이 웨친 그런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나는 언제나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서라도 기어이 《ス—1211》호를 성공시키고야말리라.

나는 오로지 그길에서만 행복을 찾을것이다!

준수는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켜 오늘도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나가고있었다. …

말을 마친 준수 어머니는 두툼한 책 몇권을 실험대우에 꺼내놓았다.

《이건 준수가 제대후 〈ス—1211〉호 연구에 착수하면서부터 써온 일기장들입니다. 남의 일기를 주인의 허가없이 보아서는 안되겠지만 저는 비서동지가 이것을 보는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전 다녀올데가 있어서 그만 실례합니다.》

준수 어머니가 나간 다음 정봉철은 일기책들을 주르르 번져보았다. 그 서슬에 갈피에 끼워있던 편지장들이 정봉철의 발치에 떨어져내렸다. 그는 그것들을 주어들고 읽어보았다. …

《사랑하는 아들 준수에게!

너의 편지를 받아보고 나는 커다란 정신적충격과 무한한 감격에 휩싸였다.

너도 아다싶이 나는 〈ス—1211〉호연구에 한생을 다 바치다싶이 하고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전망이 없이 갈팡질팡하고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성공을 해야겠고 그러자면 할 일이 산더미같은데 네가 말한것처럼 어느덧 나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눈병도 해마다 점점 악화되기만 하는구나. 이러다간 정말 나의 작은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아주 훌륭한 동무라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에 끝내 보답을 못하게 되지나 않을가, 〈ㅈ〉약물연구에 대한 꿈을 유언처럼 남기고간 그 전우의 념원을 끝내 이루지 못하게 되지나 않을가 하는 생각때문에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아 뜬눈으로 긴긴밤을 새울 때가 많다.

물론 윤수(준수의 맏형)는 기어코 성공을 하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애는 쓰고있지만 나는 늘 아슬아슬한 심정이다.

이러한 때 뜻밖에도 너의 편지를 받아보게 된 나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는지에 대해서는 네가 충분히 짐작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나의 기쁨은 단지 이제부터는 나의 연구에 또 한명의 믿음직한 방조자가 생기게 되였다는 안도감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이번 편지를 통하여 너의 정신적인 성장을 확인하게 되였고 바로 그때문에 이처럼 크나큰 환희에 잠기게 되는것이다.

수도 평양의 중앙대학에서 어릴 때부터의 꿈이던 문학에로의 길을 닦느냐 아니면 집과 멀리 떨어진 낯선 지방도시의 전문학교에서 〈ㅈ－1211〉호연구에 뛰여드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너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것이며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을 했다. 네가 당과 혁명, 시대와 인민의 가장 절박한 요구를 잘 알며 또 그 요구를 자기의 운명과 결부시키는데서 주저를 모르는 참된 인간으로 자라났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긍지로 부풀어오르는구나. 그건 참으로 인간으로서 고귀한 품성이다.

그런 품성을 지닌 사람만이 진정으로 큰 일을 할수 있으며 일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보낼수 있다.

넌 정말 군사복무를 헛하지 않았다. 굴함없이 네가 택한 길로 나아가거라. 하지만 탐구의 길은 누구나 걸을수 있는 쉬운 길이 아니다.

일단 그길에 들어서면 일생의 한초한초를 초인간적인 노력으

로 이어가야 하며 남들이 누리는 범속한 쾌락들을 결연히 밀어버릴줄 알아야 하며 겹쌓이는 난관앞에서도 추호도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길에서 남다른 행복과 긍지, 보람을 느낄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그길을 걸을수 없으며 처음 품었던 뜻을 쉽게 내던지게 된다.

나는 네가 창공을 날아예는 수리개처럼, 절벽우에 우뚝 솟은 푸르른 소나무처럼 일생 높은 뜻을 지니고 억세게 굴함없이 살아나가기를 바란다. 나도 힘자라는껏 윤수와 너를 돕겠다.

정치지도원동지의 령전에 너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로병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삼가 드린다.

그럼 오늘은 이만 쓴다. 부디 건강에 주의하거라.

1986년 7월 ×일 어머니로부터》

《보고싶은 동생 준수에게!

어머니앞으로 보낸 너의 편지를 주의깊이 읽었다. 네가 수도의 중앙대학을 포기하고 지방의 전문학교에 가기로 했다는데 나는 절대로 찬성할수 없다. 너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생활경험도 없으니 충분히 그럴수 있겠다고 리해는 한다만 이것은 일생에 관한 문제이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너는 지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어느 길을 택하는가에 따라 너의 일생이 결정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네가 끝끝내 〈ㅈ－1211〉호 연구에로 나가는 경우는 수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될것이다.

두말할것도 없이 어머니가 그렇게 되지 않았니. 너도 편지로 알고있다싶이 네가 군대에 나간 다음해에 어머니는 실험도중 뜻밖의 폭발로 눈을 상했는데 그로 해서 지금은 두눈을 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

사람의 값이 천냥이라면 그중 눈값이 팔백냥이라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시는것을 곁에서 지켜보느라면 차라리 전쟁때 어머니가 예능대학에 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저도모르게 들군

한다.
그랬더라면 적어도 폭발사고로 눈을 상하는 일만은 없었을게 아니냐.
눈에 부상을 입고도 〈スー1211〉호의 연구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보다못해 그리고 어머니의 부탁도 있고 하여, 더우기는 까짓것 5～6년이면 어떤 결실을 볼수 있겠지 하는 젊은 혈기에 나 역시 연구에 뛰여들었지만 그리고 몇년째 있는 힘을 다해 악전고투를 하고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걷어쥐지를 못했다. 절망과 허무감때문에 한숨이 나갈 때가 많지만 나는 일단 내짚은 걸음이니 되든 안되든 끝까지 나가볼 결심이다.
하지만 너만은 어머니와 나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우리 가정은 어머니와 나의 희생만으로도 사회앞에 얼마든지 떳떳할수 있다.
너까지 나서지 않아도 된다. 누구든지 혈육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법이다. 원래대로 중앙대학에 가되 어문학부가 아니라 외국어학부에 응시해라. 너만한 실력이면 틀림없이 붙는다. 나는 너를 잘 안다. 그래서 장담하는거다. 자신심을 가져라.
외국어를 전공으로 한다면 너의 열성에 대학기간 몇개 나라 말쯤은 완전히 소유할수 있을것이다.
사람은 우선 실력이 있어야 한다. 야심을 품고 도를 닦아라. 나는 너에게 타고난 어학적재능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물을 들고 산에 가고 도끼를 들고 못에 간다는 말도 있는데 절대 다른데 헛눈을 팔지 말아라.
그리고 경험자로서 덧붙여 충고를 한다면 일하면서 배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네가 이 형의 당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난 맏형으로서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다. 본질적으로는 어머니의 심정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니. 어쨌든 생활에 대해서는 어머니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 제발 내 말대로 해라.
어머니의 건강도 말이 아니지, 철수(준수의 둘째형)도 얼마 안

있어 제대되여오겠지, 너는 인차 대학에 간다지,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어깨가 저절로 무거워진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 않니. 나는 어머니와 두 동생앞에 지닌 나의 의무에 대해 늘 생각하고있지만 현재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구나.

차라리 외과의사를 그냥 했더라면 그 계통으로 발전도 했을것인데…

거듭 말하지만 너는 나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그럼 오늘은 이만 쓴다.

1986년 7월 ×일 형으로부터

※어머니에게는 나의 편지에 대해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너무도 〈ㅈ-1211〉호에 포로가 되여있어 나도 차마 어머니앞에서는 이런 말을 꺼내지 못한다. 그러나 어머니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 … …

1991년 6월 ×일

혁신이 없는 창조에 대해 생각할수 없듯이 계승이 없는 창조도 있을수 없다. 나는 〈ㅈ-1211〉호를 창조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먼저 계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무엇을 계승하여야 했는가? 수학, 물리, 화학 등 일반기초과학부문들과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조혈기학 등 인체의 구조와 생리에 대한 부문 그리고 생화학, 유기화학, 생물약품화학, 고려약재학, 분석화학 등 약학의 각 부문들에 대한 무려 50～60개에 달하는 과목들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여야 했다. 이것은 참으로 방대한 과제였다.

그뿐인가, 거기에다가 적어도 영어, 로어, 일어 즉 세개의 외국어는 소유해야 했다.

제대되여 지난 5년동안 신의주고등의학전문학교(당시)에서의 교육과정과 공장병원에서 일하는동안 나는 책의 페지페지를 전

호로, 펜을 총창으로 삼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왔다. 나는 적어도 수백권의 책들을 읽었을것이다. 글줄들이 하나하나의 침목이라면 나의 눈길은 그우로 쏜살같이 내달리는 기관차였다.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글줄들이 눈속으로 휙휙 빨리워들어오는것 같은 감을 느끼군 한다. 나는 수많은 과학적학설들과 가설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의 우결함을 따져보았다. 나는 흥미있는 가설이 떠오르면 즉시 실험에 착수하군 한다.

비상한 예감이 번개칠 때면 그 예감의 뒤를 따라 한걸음, 한걸음 끝까지 집요하게 파들어가군 하였다. 범속한 세계에서 벗어난듯한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성스러운 생각에 휩싸인듯한 감동속에서 날과 날, 달과 달들이 흘러갔다.

나는 그동안 행복했는가?…

그렇다, 나는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을 살아왔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를 향하여 만난을 헤치고 굴함없이 전진한 나날들이 아니였던가!

1991년 6월 ×일

오늘 저녁 나는 농류산을 희석하다가 증류수의 적가속도를 조절하지 못하여 폭발을 일으켰다.

튀여난 농류산방울들때문에 우에 덧입었던 실험복은 물론이고 안의 샤쯔와 바지까지 몽땅 못쓰게 되였다. 다행히 얼굴을 날쌔게 돌렸기망정이지 곰보가 될번 하였다.

팔뚝과 손등의 류산방울이 튀여오른 자리마다가 띠끔거렸다. 지독한 류산증기와 냄새가 삽시에 실험실안을 꽉 채웠다.

나는 급히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실험대우로 꺼멓게 번져나가기도 하고 바닥으로 줄줄 흘러내리면서 유독한 흰 안개를 피워올리는 농류산을 훔쳐내였다. 걸레마저 타버렸다. 물이 질벅하고 깨진 유리쪼박들이 널린 방 한복판에 걸상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왔다.

어머니는 실험실안을 둘러보더니 힘들지 않은가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하소연하였다.

《어머니, 힘들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좀 단순하고 명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곡괭이와 삽만 가지고 큰 산밀을 통과하는 100리 굴길을 판다고 합시다. 그 일은 힘들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연 이 일이 성공할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과 위구, 초조만은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매일매일 전진하는것만은 사실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내가 매일매일 전진하고있다는 확신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천리숲속에서 잃어버린 바늘찾기와도 같습니다. 천리숲속의 어느쪽에서부터 탐색을 시작해야 할지, 바위밑까지도 다 들춰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있음직한 곳만 골라서 보아야 하는지, 그것이 흙속에 묻혀있는것이나 아닌지, 그러면 흙까지도 다 채로 쳐보아야 하는지, 그런데 그 바늘이라는것이 채에 과연 걸리기나 하겠는지, 혹시 그것이 이미 훑어나온 그 어딘가에 배겨있는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녹쓸어 없어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그렇다면 나는 공연히 헛고생을 하는것이나 아닌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땐 내가 수천척지하의 캄캄한 미궁속에서 등불도 없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듯한 초조와 안타까움,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것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같은 심정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심중히 듣고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네 심정이 충분히 리해된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도 너의 심정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것으로 하여 겪는 정신적인 고충은 그 어떤 육체적인 부담과도 비길수 없다.

하지만 준수야, 너도 그리고 나도 힘을 내자. …

올해 페르샤만전쟁에서의 〈승리〉로 하여 극도로 기고만장해진 미국놈들은 이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듯이 날치면서 우리 나라를 기어코 고립압살하려고 이를 갈며 덤벼들고있지 않니. …

〈ス－1211〉호가 성공하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적으나마 기쁨을 드릴수 있을것이다.》

그렇다, 분발하자, 이겨나가자! 이쯤한 난관에 굴한다면 어찌 나를 제대군인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정치지도원동지도 《붓을 들고 싸우는 전선은 더 어려울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난을 박차고 기어이 《ス－1211》호를 성공시키자!

순간도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말자!

1991년 7월 ×일

오늘 역앞에서 동산소학교 영순선생을 만났다. 통신입학수속때문에 군행정위원회(당시)에 갔다오는 길이라고 한다. 영순선생은 교원대학을 졸업했는데 사범대학통신에 다니려고 한다는것이다. 7월 10일전으로 통신입학수속이 끝나고 7월 하순부터는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들에서 일제히 통신지망생들의 입학시협이 실시된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손맥이 풀리고 마음이 허전해진다. 7월 10일까지라면 기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다음해에, 그러니 올해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약학대학통신에 가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약국실정에서 어떻게 통신에 가겠다고 제기를 할수 있겠는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할수 없지… 래년으로 미루어야지. …

나는 약학대학통신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로 그 기간에 실력을 한계단 더 높이자는것이고 둘째로 통신을 계기로 해서 로어학습에 착수하자는것이다. 로어때문에 나는 지금 《ス－1211》호연구에서 얼마나 큰 지장을 받고있는가. 결정적으로 로어를 배워야 한다. 인민대학습당에 신청만 하면 자료는 얼마든지 얻을수 있다.

셋째로 그 기간에 더 많은 약학부문의 관계자들과 련계를 맺자는것이다. 약학대학은 우리 나라 약학과학의 중심지이다. 대학에는 수많은 교원, 연구사들이 있다. 그속에는 교수, 부교수, 박

사, 등 수많은 학위학직소유자들이 있다.

통신기간에 그들과 낯을 익히는것이 《ス－1211》호 연구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 필요할 때 편지로 물어볼수도 있고 찾아갈수도 있다. 또한 대학에는 최신식분석설비들을 비롯하여 각이한 실험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춘 수십개의 실험실들이 있다. 나는 통신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와 기구, 시약이 어느 실험실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리용할수 있고 얻을수 있겠는가를 알아볼것이다. 물론 나도 힘자라는껏 대학을 도울것이다. 또한 통신생들은 전국각지 약학부문의 연구소들과 약무기관들에서 일하는 현직일군들로 구성된다. 한학급에 30명, 한학년에 4개 학급이 있다고 하면 나는 거의 120명에 달하는 약학부문의 벗들을 가지게 될것이다. 그것은 결국 《ス－1211》호 연구라는 나무에 새로 120개의 뿌리가 생긴다는것을 의미한다. …

하지만 올해는 갈수가 없다. 1년! 1년을 기다리지 않을수 없다. 무슨 방도가 없을가?… 있을수가 없지. …

1991년 7월 ×일

오늘 아침모임에서 원장은 보철실을 철수시켜 본건물로 올려온다고 발표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는 흥분하였다. 그 방을 연구실로 쓸수 있다면! 주사약제제실과 고려약제제실이 공장구내에 있으므로 나는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된다. 더구나 내가 《ス－1211》호연구를 위하여 하는 여러가지 실험들은 대부분이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이러저러한 조작들을 가해주어야 하거나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반응을 중지시켜야 하는것들이다. 그러니 연구실을 지금처럼 집이 아니라 작업장과 붙어있는 곳에 꾸리면 아주 리상적일것이다. 그리고 집은 아무래도 독서와 사색, 실험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다. 나는 요즘 귀에 솜을 틀어막고 문을 안으로 건 다음 연구에 몰두하고있기는 하지만! 보철실을 연구실로 쓸수 있게 된다면 나는 숱한 시간을 절약할수 있을것이다. 연구실의 한구석에다 침대를 놓고 식사는 구내식당

에서 하면 된다.

더군다나 일체 실험을 죄다 집에서 한다는것은 여러모로 불편하다.

원장은 그 방을 고려약재창고로 쓰려고 한다면서 나의 청원을 거절하였다. 절망에 빠져 멍하니 서있노라니 피끗 한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만일 강냉이창자식으로 그 방과 같은 규격의 창고를 병원마당의 한귀퉁이에 짓는다면! 나는 흥분하였다. 공장 원료장에 가면 수천톤의 파철이 문자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찌그러진 화차며 자동차, 뜨락또르 등의 잔해들, 끊어진 무한궤도, 뻘겋게 녹쓴 석유곤로며 구멍탄집게, 각이한 크기에 각이한 모양의 철판들과 철근들…

그속에서 쓸만한 철근들과 철판들을 골라내여 필요한 규격대로 붙일것은 붙이고 자를것은 자른 다음 자동차로 병원마당에 실어다가 용접으로 붙이면 제꺽 훌륭한 창고가 생길것이다. 하지만 귀중한 파철을 그냥 달라고 할수는 없다. 아니, 공장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로 보아도 반출증이 없이는 단 한키로의 파철도 공장울타리밖으로 내갈수 없게 되여있다.

그때 문득 언젠가 나루터근방의 강기슭에서 땅속에 묻혀있는 보이라본체를 본 생각이 났다. 그것을 파낸다는것이 간단치는 않겠지만 해야 한다. 둘째형의 도움이 필요하다. 퇴근해서부터 파내야 하니까 이틀은 걸릴것이다. 파철더미에서 맞춤한 감들을 골라낸 다음 병원마당에 실어와 용접으로 자르고 붙여서 세우는데는 하루밤이면 넉넉하다. 원장에게서 3일동안에 번듯한 창고를 하나 세운다는 조건부로 반승낙을 받아냈다.

나는 그길로 강철직장에 가서 둘째형을 만났다. 둘째형은 걱정말라고 장담을 한다. 보이라본체를 파내면 기중기차로 날라오자고 한다. 마침 기중기차가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운전사와 친한 사이라는것이다. 나는 둘째형을 버쩍 들어안고 서너바퀴 돌았다. 이제는 됐다. 3일후에 병원 뒤마당에 통풍이 아주 잘되고 대단히 견고한 창고가 일떠설것이며 나는 나의 작업장가까이에 연구실을 가지게 될것이다. 이것은 《ㅈ－1211》호 연구를

위해 획기적인 사변으로 될것이다!

… … …

일기의 마지막장을 덮은 정봉철은 밖으로 나왔다. 벌써 밖은 캄캄하였다. 4층계단의 앞 바람벽에 있는 창문을 통해 나루터쪽을 바라보았다. 아닐세라 그 근방에서 한점의 불꽃이 타오르고있었다. 두말할것도 없이 그것은 준수네가 피운 우등불일것이다. 거기서 준수와 그의 둘째형이 지금 땀을 흘리며 삽질을 하고있을것이다. 그리고 준수의 어머니는 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나무를 주어다가 던져넣기도 하고 싸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식지 않도록 그것들을 불가까이로 밀어놓기도 하며 함께 있을것이다.

그 맞은켠 저 멀리 앞에는 찬란한 불바다가 펼쳐져있었다. 옹근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공장은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 보는 멋이 참으로 장쾌하고 황홀하였다. 철과 불을 다루는 대공업기지의 위용은 낮보다도 오히려 밤에 더 뚜렷이 부각된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근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반만년이라는 장구한 민족사와 비교해볼 때 40년이란 그야말로 한찰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그 기간에 얼마나 놀라운 창조와 건설의 세기적변혁이 이 땅우에 이룩되였는가! 저 공장이야말로 그에 대한 하나의 뚜렷하고 생동한 실례가 아니겠는가. 그 기간에 무수하게 육성된, 삶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지닌 고상하고 아름다운 새 인간들의 대부대는 이 땅에 솟아오른 그 모든 물질적재부들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미국놈들의 우리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은 절정에 달하고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며 오로지 그길에서 더없는 생의 희열을 느끼는 믿음직한 대부대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만일 오늘 저녁 준수네 집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준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준수의 일기장을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쯤 합숙의 창가에 서서 저 우등불을 무심히 바라보았을것이다.

저 우등불은 무엇때문에 타오르고있는지, 저 우등불을 피운 사람들은 누구들이며 그들의 생애에는 과연 어떤 사연들이 얽혀있는지, 그들의 가슴속에서 과연 그 무엇이 끓고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으리라. …

정봉철은 홀로 고요히 깜박거리고있는 그 불꽃을 깊은 감동과 흥분을 안고 바라보면서 저 불을 피운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으며 얼마후에는 그 우등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하여 강가로 나갔다.

3

준수는 제일 견디기 급한것이 이발쏘는것이라는 소리는 들어왔지만 실지 체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일주일전에 실험장치를 조립하다가 집게를 찾지 못해 어지간히 굵은 동선을 왼쪽 이로 물어끊은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거기가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니 끝내 말썽을 일으킨것이였다. 며칠전부터 뜨겁거나 찬 자극이 가해지면 그 어방이 약간 시려들군 했었는데 련 이틀째 밤을 새우다싶이하며 몸을 혹사하다나니 오늘 아침부터는 거기에서 무서운 아픔이 발생하여 전류처럼 귀쪽으로, 뇌수쪽으로 올리뻗쳤다. 그야말로 무서운 아픔이였다. 불에 달군 쇠끄챙이를 박아넣고 올리쑤신다한들 그보다야 더 고통스러우랴. 신음소리가 절로 나가고 정신이 다 가물가물해지군 했다.

하지만 준수는 오늘 저녁에도 둘째형과 함께 삽과 곡괭이를 들고 강변으로 나갔다. 밤 12시쯤에 기중기차가 오기로 약속이 되여있기때문이였다. 어떻게든 그전에 보이라본체를 말끔히 드러내야 했다.

준수는 세차게 삽질을 하다가도 아픔이 발작하면 왼볼을 두손으로 싸쥐고 새우처럼 몸을 꼬부린다. 한 5분쯤 무서운 고통에 몸부

림을 치다가 그것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이악스럽게 다시 일어나 삽과 곡괭이를 잡는다. 둘째형은 쉬라고 자꾸 말하지만 준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대답을 하느라 입을 놀리기만 해도 어금이부위가 띠끔거리기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는 그 서슬에 약간의 자극만 가해져도 아픔의 발작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보다 몇백배나 더 센 자극으로 되는 삽질, 곡괭이질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삽날이나 곡괭이끌머리가 웬만한 돌에 부딪치기만 해도 왼쪽어금이부위가 텅—텅— 울리기때문에 삽질, 곡괭이질 한번한번이 끔찍스러웠지만 준수는 결사의 각오로 땅을 파헤쳤다. 런닝그마저 벗어버린 준수의 온몸에서는 삽질, 곡괭이질로 인한 더운땀보다 이발의 아픔으로 인한 식은땀이 더 많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쓰러져도 창고를 다 지어놓은 다음에 쓰러지자, 준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만큼 준수에게는 《ス—1211》호를 위하여 공장구내에 연구실을 마련하는것이 절실했다. 더우기 원장은 반승낙을 했다. 3일동안에 혼자서는 도저히 건물 한채를 일떠세우지 못하리라 생각했기때문에 그런 반승낙이나마 했는지도 모른다. 이 빈틈을 바싹 틀어쥐고 잡아채야 한다. 죽으나사나 래일 아침까지는 병원마당의 귀퉁이에 고려약창고를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원장도 할 말이 없게 될것이다.

준수는 확신하고있었다. 아직 12시가 안되였지만 보이라본체는 거의다 드러난 상태이고 둘째형은 조금전에 기중기차를 부르러 그쪽으로 달려갔다. 용접봉은 벌써 충분히 구해놓았고 용접공들도 정해진 시간에 병원마당에 나타나기로 약속이 되여있다. 원료장의 한구석에는 맞춤한 파철들이 이미 선별되여 쌓여있다. 이쯤하면 다 된것이나 같지 않은가!…

그런데 이 무슨 눈앞이 아뜩해지는 소식인가! 뜻밖에도 둘째형이 기중기차가 기관고장으로 래일 저녁에야 올수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던것이다.

준수가 정신이 아찔해서 어찌할바를 몰라하는데 둘째형은 코

노래를 부르며 다시 삽을 잡다가 날벼락을 맞고 망두석처럼 굳어져버린 준수를 힐끗 쳐다보더니 배포유하게도 한마디 던졌다.

《아니, 3일이면 어떻고 4일이면 어떻단 말이냐. 기껏해서 하루 늦추어지는것이 아니냐?》

《에익!》

준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저도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곡괭이를 팽개치고 두손을 허리에 얹은채 둘째형을 노려보았다.

《아니, 너 왜 그러니?!》

둘째형은 아연해서 입을 하 벌렸다.

《그래, 그 고려약창고가 그렇게도 시간을 다투는거냐? 하루 늦어진다고 무슨 큰일이 날거야 없지 않니. 그렇지 않아?》

《형님에게는 그 하루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겠지만 나에게는 큰일이란 말이예요.》

준수는 자기의 복잡한 심정을 더이상 드러내기가 싫어 거칠게 숨만 톺아쉬며 씨근거렸다.

래일아침 출근하면 원장은 《어떻게 됐소, 고려약창고는?》하고 물을것이고 나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대답해야 할것이다. 죽기보다 싫기는 하지만 애원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나에게는 공장구내의 연구실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존심을 꺾이우면서라도 빌붙어야지 별수가 있는가. 그러면 원장은 어떻게 나올것인가. 쓰겁게 웃으며 《아니, 그렇게는 할수가 없소.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니까. 난 일구이언 하는 사람을 싫어하오. 오늘중으로 당장 그 방에 고려약재들을 날라다 넣으시오.》 이러지나 않을가. 만일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그런 상상을 해보니 눈앞이 아뜩했다. 준수는 남에게 사정하는것이 딱 질색이였는데 더우기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무슨 애걸을 한다는것은 도저히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이틀전에 원장에게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3일동안에 해내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꼴인가.

준수는 자기를 이런 궁지에 몰아넣은것이 마치 둘째형이기나 한듯 여전히 씨근거리며 그를 노려보고있었다.

둘째형은 그러고있는 준수를 어이없는 눈길로 한참동안 바라보고있다가 허구프게 웃었다.

《야, 이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로구나. 난 너때문에 3일째나 이 고생을 하고있는데 수고한다는 소린 못할망정 그렇게 노려보아야 하겠니? 그래, 기중기차가 고장난게 내 잘못이냐?》

하긴 둘째형의 말이 옳다. 둘째형은 오늘까지 3일째나 낮에는 직장에 나가서 맡은 일을 하고 밤에는 밤대로 준수와 함께 거의나 꼬박 새우다싶이 하며 죽을 힘을 다했다. 눈에는 충혈이 졌고 입술은 터갈라졌으며 목소리까지 꽉 쉬여버렸다. 준수로서도 둘재형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지만 너무나도 큰 절망으로 해서 자기자신을 걷잡을수가 없었다. 정확히 말한다면 준수가 지금 노려보고있는것은 둘째형이 아니라 오늘저녁의 자기의 불쾌한 운수였다.

이 본체를 가져가지 않으면 원료장에서 단 1g의 파철도 내올수 없다. 파철반입증을 떼야만 그만한 수량의 반출증을 뗄수가 있고 그 반출증이 있어야만 공장정문의 검열초소를 통과할수 있다. 이것은 공장에 세워진 누구도 어길수 없는 철칙이다.

공장에 한대밖에 없는 기중기차가 고장이라니 이젠 끝장이다.

래일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다. 다른 화물자동차를 불러올수는 있겠지만 몇톤은 실히 되는 이 중량물을 한두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적재함에 들어올리겠는가. …

얼마후 마지막으로 깊숙이 박혀있던 삐죽한 쇠판까지 파제껴 드디여 일을 끝낸 준수와 둘째형은 사그라져가는 모닥불을 가운데 놓고 마주앉았다. 둘째형은 어떻게든 준수의 기분을 호전시켜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걸어왔지만 준수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침묵만 지켰다.

조금 있다가 삭정이를 주으러 멀리 산기슭까지 갔던 어머니도 돌아왔고 밤참을 잔뜩 싸가지고 형수도 나왔다. 둘째형도 형수도 어머니도 좌중의 분위기를 돋구려고 이모저모로 애를 썼지만 준수가

시꺼매진 얼굴로 기가 죽어있으니 도저히 흥이 나지 않았다.

갑자기 둘째형이 어머니에게 올리려고 삶은 닭알의 껍질을 까고 있는 처에게 다급한 소리를 지르며 그 닭알을 빼아냈다. 그리고는 그 닭알을 준수앞에 내밀며 능청스럽게 물었다.

《준수야, 이건 먹어도 되는 닭알이니?》

그 광경을 의아해서 바라보는 어머니와 형수에게 둘째형은 마침이라는듯 일장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어머니, 어제 새벽에 어떤 우스운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한참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 보자기를 뒤져보니 먹다 남긴것들이 얼마간 있더군요. 그래서 삶은 감자 몇알과 삶은 닭알 한알로 시장기를 때우고 다시 일에 달라붙었지요.

그런데 날이 다 밝아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이 준수가 닭알 한알이 없어졌다고 큰일이나 난것처럼 떠들어대는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먹었다. 어쨌단 말이냐.〉하고 쏴주었더니 준수의 말이 밤참이 끝난 후에 그 닭알의 껍질에다 자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중요한 계산식의 요점을 써놓았다는거예요. 그랬었다면 마땅히 그 닭알은 따로 놓았어야지. 그건 그렇다치고 이렇게도 재수가 없다고야, 닭알이 몇알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바로 그놈의 닭알을 먹어버렸을가요.

그런데 다행히도 바닥을 샅샅이 훑어보니 그 수식을 써놓은 닭알껍질들이 나타나더군요. 난 간난신고를 해가며 껍질을 벗긴 다른 닭알의 겉면에 그것들을 몽땅 주어붙여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어놓았지요.

그때 준수가 환히 웃으며 뭐랬는지 아세요? 뭐, 내가 고고학자가 되여 단군시기의 유적발굴을 하면 아주 잘하겠다나요, 하하하.》

둘째형은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어머니와 형수도 배를 그러쥐고 따라웃었다. 그러나 준수는 도무지 그럴 기분이 나지를 않았다.

준수에게 이것저것 음식들을 다정스레 권하던 형수는 파내는 일이 성과적으로 끝난것을 축하하여 노래를 불러드리겠다면서 자

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둘째형은 마치 대관현악단의 지휘라도 맡은듯 머리칼을 뒤로 추슬러넘기기도 하고 막대기를 우습강스레 흔들어대기도 하며 신파극의 배우같은 몸짓, 손짓으로 너스레를 떨었다.

그제, 어제 저녁만 해도 강변에서 벌어진 이런 가족오락회가 얼마나 흥에 겨웠는지 모른다. 둘째형은 만담과 요술을 했고 형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고음으로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불러 좌중의 절찬을 받았으며 어머니도 노래를 몇곡씩이나 했다. 준수는 세번, 네번씩이나 형수에게 재청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기분이 나지를 않았다. 둘째형이나 형수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래일 아침 원장을 만날 생각을 하기만 하면 기가 막혔다.

이때 저 멀리 공장쪽에서부터 강기슭을 따라 자동차 한대가 어둠속에서 전조등의 빛발을 이리저리로 휘두르며 그들쪽으로 다가왔다. 점점 가까이로 다가옴에 따라 적재함에 가득 타고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씩씩한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이윽고 그 자동차는 모닥불가까이에 와서 멎었고 운전칸에서는 정봉철초급당비서가, 적재함에서는 병원성원들이 뛰여내렸다.

준수네는 모두 어리벙벙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후에 알게 되였지만 준수네 집을 떠나 강변의 작업장으로 나온 정봉철은 어둠속에서 준수와 둘째형의 말다툼을 듣게 되였다. 어떤 불의의 정황이 조성되였는가를 알게 된 그는 즉시 공장당위원회로 가서 토론을 한 후 병원 청장년들을 동원했고 공장운수과로부터 화물자동차 한대를 배정받았던것이다.

모두는 열어제낀 적재함에 거의 열대나 되는 철판들을 사선으로 비껴놓고 그우로 보이라본체를 굴려서 올렸다. …

얼마후 병원마당에서는 웃음소리, 고함소리, 함마로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퍼졌으며 여기저기서 용접의 불보라가 날리고 시퍼런 용접불빛이 번개처럼 쉽없이 번쩍거렸다. 세시간도 안되여 병원마당의 한귀퉁이에 든든하면서도 환기가 아주 잘되는 리상적인 고려약재창고가 일떠섰다. …

모두들 노래를 부르며 기세가 나서 흩어져간 다음 정봉철은 준수를 마당의 한복판에 세워놓고 호되게 비판했다.

《동무에게는 개인영웅주의, 소총명이 있는것 같소. 어째서 중요한 연구를 하고있다는것을 숨기고있소. 약학대학통신에 가는 문제도 왜 속에만 품고있고. 연구실문제도 왜 조직에 의거하여 조직적으로 해결받으려 하지 않소.

연구실문제는 동무와 원장사이의 개인적문제일수 없소. 그건 조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요.》

준수는 정통을 찔리운 기분이 되여 고개를 푹 수그렸다. 준수는 우선 정봉철당비서의 예리한 통찰력에 놀랐다. 준수자신으로서도 거의나 느끼지 못하고있던 결함의 싹을 정봉철당비서는 단마디로 밝혀냈던것이다. 준수는 어째서 좀전에 자기가 둘째형에게 그처럼 신경질을 부렸댔는지, 또 찡그린 얼굴을 해가지고 어머니와 형수의 기분마저도 흐리게 했었는지 그 리유를 지금에야 명백히 깨달았다. 그것은 나에게 크든작든 개인영웅주의, 소총명이 있었기때문이다. 나는 이번 기회에 나를 우습게 보고있는듯한 원장을 깜짝 놀라게 하고싶었으며 나의 본때를 한번 보이려 했던것이다. 공장구내에 연구실을 가지는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나의 자존심을 건 일종의 내기처럼 보고있었다.

다시말하여 원장과 나사이의 개인적문제로 생각했었다. 그것을 조직에 제기하여 풀 문제로 견해를 세우고있었더라면 하루 늦어지는것을 가지고 그토록 발칵 성을 내지는 않았을것이다. …

정봉철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있는 준수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물론 동무의 심정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것은 아니요. 아직은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연구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달라, 저걸 보장해달라 떠들지 말자, 될수록이면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말고 혼자 힘으로 해보자, 이런 심산이겠지.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그 연구가 어찌 준수동무 혼자의 일이겠소. 당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소. 그것이 조국과 민족의 장래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이요.

그리고 동무의 완강한 투지와 지칠줄 모르는 열정은 인정하오. 내가 인정하든말든 저 강변에 산더미처럼 파올린 흙무지와 파헤쳐진 커다란 구뎅이가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소. 누가 그걸 단둘이서 3일밤도 안되는 사이에 해제낀것이라고 믿을수 있겠소. 정말 놀라지 않을수가 없고 감탄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명심하시오. 우리 사회에서 조직과 집단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영웅주의와 소총명으로는 아무런 일도 해낼수 없소.》

정봉철당비서가 어둠속으로 사라진 다음에도 준수는 고마움과 깊은 자책에 잠겨 오래동안 그자리에 서있었다.

다음날 아침 준수는 원장으로부터 정식으로 공장구내의 보철실을 연구실로 리용할데 대한 승인을 받았다.

4

영북구에는 영북철도병원이 있다. 이 병원의 약국성원은 둘뿐이다. 약국장은 32살에 벌써 세 아이의 어머니이고 약국성원인 명희는 23살의 처녀이다.

하루일이 끝나자 명희는 사업보고를 하려 약국장이 있는 방으로 갔다.

약국장은 약내주는 일과 기타 약국의 전반사업을 맡았고 명희는 주사약제제, 고려약제제, 외용약제제 등 약품생산을 맡고있었다.

명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약국장은 그날의 처방전을 한장한장 번지며 하루 약소비정형을 종합하고있었다. 약국장은 들어서는 명희를 보더니 걸상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약국장앞의 책상우에 펼쳐진 월종합용지에는 가로세로 줄이 빼곡이 그어져있었는데 세로줄의 맨 웃칸마다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날자들이 빠짐없이 적혀있었고 가로줄의 왼쪽으로부터 첫번째 칸들에는 약국에서 내주는 약들의 이름이 쭉 내리적혀있었다. 약국장은 종합된 하루의 약물별소비수량을 7월 5일

이라고 씌여진 칸의 해당한 란들에다가 하나하나 적어넣기 시작하였다.

잠시후 일을 다 끝낸 약국장은 명희에게로 둥실한 얼굴을 돌리고 미소를 지었는데 거기에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뜻이 비껴있었다.

명희는 하루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명희의 보고에서 중요한것들을 사업노트에 적어넣고있던 약국장은 명희의 말이 끝나자 래일 사업에 대해 몇가지 지시를 주더니 습관적으로 물었다.

《제기할것이 없어요?》

명희는 말을 할듯말듯 하면서 쭈밋거렸다.

약국장은 의아한 빛이 어린 눈으로 재촉하듯 명희를 바라보았다.

명희는 어제 오후 우연히 얼마 안있어 대학통신입학시험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명희는 고등의학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할때부터 다음해에는 대학통신에 가리라 마음먹고있었다. 대학통신에 가려면 먼저 약국장과 합의를 보아야 한다.

통신가는 문제를 지금 제기해야 오늘저녁중으로 원장에게까지 상정될수 있었다. 대학통신에 붙으면 년중 적지 않은 동안 본신사업에서 떨어지게 된다. 물론 병원적으로 조절해서 인원을 한명 보충해주기는 하겠지만 약국장에게 어쨌든 부담스러운 일이였다.

하지만 약국장은 마음씨가 어질고 명희의 일이라면 친언니의 심정으로 나서서 적극 도와주군 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제기만 하면 인차 승낙해주리라는것을 명희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명희는 드디여 입을 열었다.

《약국장선생님, 이번 약학대학통신에 갔으면 해서 그럽니다. 전국적인 통신입학시험은 7월 하순에 있지만 수속은 7월 10일까지 끝내야 한답니다.

오늘이 벌서 5일입니다. 승인이 되면 래일은 일요일이니 할수 없고 모레부터는 수속을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명희는 잘 나오지 않는 소리를 짜내며 힘들게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 같지 않게 떨리면서 크게 울렸다.

약국장은 리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기웃거렸다.

《명희동무야 벌써 약제사자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학대학통신에 갈 필요가 뭐예요?》

고등의학전문학교 약학과를 나오면 조제사자격을, 약학대학을 나오면 약제사자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명희는 수십개에 달하는 전과목에서 우수하여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할 때 약제사의 자격을 받았던것이다.

그래서 약국장에게는 약학대학통신에 가겠다는 명희의 제기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설사 명희가 아직 약제사의 자격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약국장은 선뜻 승낙할수가 없었다.

명희의 어머니는 몇년전에 돌아갔고 아버지는 한팔과 한다리에 의수와 의족을 한 영예군인인데 외딸인 명희가 모시고있었다. 명희가 통신에 가면 그동안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겠는가. 명희가 의학전문학교에 다닌 4년동안에 아버지가 그 몸으로 얼마나 불편을 느끼셨으랴. 동네사람들이 많이 돌봐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찌 친딸만이야 했으랴. 고등의학전문학교에 다닌것은 불가피한 일이였다고 쳐도 지금에야 무엇때문에 명희가 아버지에게 고생을 시켜야 한단 말인가.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온지가 1년도 채 못됐는데 명희는 통신이요, 뭐요 하면서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집을 떠나있을 작정인가? 명희의 처사가 옳은것 같지 않았다.

약국장은 다시한번 따져물었다.

《그래, 약학대학통신에 가야 할 필요가 뭐예요?》

명희는 눈길을 떨군채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문득 약국장은 무엇때문에 명희가 대학통신에 가려고 하는지 짐작이 갔다. 본인은 비밀에 붙이고있었지만 약국장은 오래전부터 명희가 무슨 연구에 몰두하고있다는것을 어렴풋이 느끼고있었다. 그게 어떤 연구인지 알수 없었으나 명희가 거기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치고있다는것만은 확실하였다. 가끔 집에 찾아갈 때마다 꼭꼭 쇠가 채워져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명희는 웃방에다가 대학의 실험실 못지 않은 요란한 연구

실을 차려놓았다는것이다. 그리고 명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하여 여러가지 시약, 용매 그리고 실험기구들을 구해들이는것을 약국장은 여러번 목격하였다.

한달전쯤에는 고려약제제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책상우에 펼쳐진채로 있는 실험일지를 보았는데 그제서야 약국장은 명희가 강력한 《ㅈ》약물을 연구해내려고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약국장은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모로 깊이 생각해보면서 명희가 과연 성공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곰곰히 따져보았으나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명희는 전문연구소의 연구사로서 국가적인 과제를 맡아 수행하고있는것이 아니였으므로 하루 8시간동안 병원에 나와서 맡은 일을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였다. 그리고 영예군인인 아버지도 돌봐드려야 했다. 게다가 명희는 벌써 23살이다. 이제 얼마 안있어 시집도 가야 한다.

시집을 가면 명희의 어깨우에 결코 가볍지 않은 가정이라는 덧짐이 실리게 된다. 명희는 이러한 짐을 끝까지 견디여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모든것을 뒤범벅으로 만들어버리고말것이며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게 될것이다.

약국장 역시 명희보다 10년선배로서 의학전문학교때부터 학위론문을 준비해오다가 가정을 이룬 후에 점차 줴버리였으므로 명희의 앞일을 방불히 예상할수가 있었다.

고등의학전문학교의 졸업학년에 올라갔을 때 약국장네 학급은 약초실습을 나갔었다. 약국장은 들어있던 집의 뒤울안에서 낯선 식물이 자라고있는것을 보았다. 집의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부자라는것이였다. 아무리 보아도 부자는 아니였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두 딸이 모두 랭이 심해 임신도 못하고 몇해동안 애를 먹었는데 그것으로 약을 해서 먹인 후 모두 임신을 했을뿐아니라 지금은 겨울에도 발이 너무 달아올라 양말도 신지 않고 다닌다는것이였다.

하도 이상해서 다음날 담임선생에게 물으니 그것은 독각련이라는 식물인데 민간에서는 부자대용으로 쓰고있다고 알려주는것이

였다. 그럼 두 고려약재의 약효가 같은가고 물으니 선생은 아직 그에 대해서 검토해본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독각련의 유효성분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것과 부자의 유효성분인 아코니틴의 약리작용이 같다는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재배가 힘든 부자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완전히 풀수 있고 국가에도 큰 리득을 줄수 있으며 학위도 받을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약국장에게는 그것이 그닥 어렵지 않을것으로 생각되였다. 처녀시절에 학위를 받으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그래서 인차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거기에 시집가기 전까지 꼬박 6년을 바쳤으나 고생만 실컷 하고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가정을 이룬 후 1년만에 딸애가 태여났다. 그러자 남편과 시부모를 비롯한 시집식구들이 가정의 대를 잇자면 아들이 있어야겠는데 하며 어찌나 걱정들을 하는지 약국장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오르기도 하였다. 그후 연거퍼 두 아이를 낳았건만 시집사람들 기대와는 달리 모두 딸들이였다. 연방 태여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학위론문에 대한 생각은 점차 뒤전으로 밀려나고말았으며 지금에 와서는 그 생각이 서글픈 생각만 자아낼뿐이였다.

약국장은 명희 역시 자기의 전철을 밟게 되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더군다나 자기가 택했던 과제에 비해볼 때 명희의것은 대비조차 할수 없게 힘이 드는것이였다.

약국장은 명희가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공연히 맥만 뽑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더우기 그런 가운데서 영예군인인 아버지만 고생을 하게 될것이 아닌가. 명희는 약국에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아버지를 잘 모시기만 해도 남들의 존경을 받을수 있는 그런 처녀였다.

입을 꼭 다물고 말없이 앉아있는 명희를 한동안 바라보고있던 약국장은 《안돼요. 난 승낙할수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잘라말하였다. 그는 월요일에 따로 만나서 진지하게 설복을 하리라 결심하면서 과장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

설겆이까지 끝낸 명희는 얼른 웃방으로 올라갔다.
명희가 《ㅈ》약물연구에 착수하면서부터 웃방은 명희의 실험실로 아래방은 연구도 성심성의껏 돕는 한편 시도 쓰는 아버지의 창작실 겸 살림방으로 되여있었다.
명희는 실험대우에 놓여있는 번쩍번쩍 윤기가 도는 불수강우림통에 달린 교반기의 스위치를 껐다. 그러자 우림액을 휘저으며 빙글빙글 돌아가던 교반막대기들이 멈춰섰다.
명희는 그 우림액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하였다.
세 벽을 꽉 채운 수많은 책들중에서 이 책, 저 책을 꺼내며 벌컥벌컥 뒤져보기도 하고 메스실린더로 각이한 비률의 혼합용액을 만들기도 하고 약절구에 무엇인가를 보드랍게 봏기도 하면서 실험을 계속해나갔다. 어찌나도 긴장해있었는지 명희는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망각하고있었다. …
드디여 새벽 2시경에, 그러니 실험을 시작하여 옹근 5시간만에 목적하는 검체용액을 분리해냈다.
명희는 긴장과 불안, 초조로 하여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그 용액의 성분을 알카리로 해준 다음 시안화나트리움을 넣었다. 하지만 보라색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우림액속에는 명희가 안타까이 찾고있는 《ㅂ—5》호가 들어있지 않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명희는 온몸의 맥이 탁 풀려 쓰러지듯 곁에 놓인 걸상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두팔로 그러안은 무릎에 이마가 닿을 지경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았다. 온몸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지면서 땅속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출근해서는 평위산을 만드느라 고려약재절단기를 가지고 삽주, 후박, 진피 등을 하루종일 썰었고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서부터는 염소젖도 짜고 닭모이도 주고 터밭의 김도 매고 오이김치도 담그고 양배추절임도 해놓느라 팽이처럼 돌아갔으며 실험에 착수해서부터는 초긴장속에 있었으니 피로가 쌓일대로 쌓였던것이다. 그 피로가 실패의 좌절감과 함께 무겁게 온몸을 내리눌렀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것은 고등의학전문학교 졸업후부터 지

금까지 1년동안 연구를 해오지만 전혀 전망이 보이지 않는것이였다.

《ㅈ》약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명희는 연구의 중심을 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ㅂ—5》호의 가장 리상적인 원천은 무엇이며 가장 효과적인 추출방도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밝혀내는데 두었다. 그래서 십여종에 달하는 집짐승들의 간장이나 콩팥, 골수, 알 등을 각이한 방법으로 추출해보면서 그 성적을 비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간단치 않은 일이였다.

《ㅂ—5》호의 추출에 어느 용매가 가장 리상적이겠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만도 수십가지 단일용매와 수십가지의 혼합용매를 검토해보아야 했으며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도 수백가지의 각이한 물질분리방법들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연구고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명희는 정량분석중에서 할수 있는것들은 자체로 했고 할수 없는것들은 가깝게 지내는 렬차승무원들을 통하여 과학원 함흥분원에 분석을 의뢰하군 하였다. 그런데 분석결과들이 명희를 실망하게 하였다. 분석을 진행한 대상물들의 《ㅂ—5》호 함량이 매우 적었던것이다.

그후부터는 집짐승들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그밖의것들에로 조사를 확대해나갔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신통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명희는 점차로 당황하게 되였고 불안을 금할수 없게 되였다. 아버지로부터 처음 《ㅈ》약물연구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명희는 결코 가볍게 여긴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에 대해서 다는 몰랐었다.

요즘에 와서 명희는 어쩌면 이 연구에 한생이 걸릴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한생을 바치고도 성공을 보지 못하게 되지나 않을가 하는 불안과 위구를 자주 느끼군 하였다. 지금도 역시 집요하게 갈마드는, 이러다가 끝내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때문에 가슴이 떨리였다.

잠시후 명희는 저도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머리를 들

었다.

내가 무슨 나약한 생각을 하고있는가. 그래 이 연구가 성공해도 좋고 성공하지 못해도 할수 없는 그런 연구란 말인가. 내가 벌써부터 주저하고 동요하다니… 지금이 어느땐가.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복귀, 페르샤만전쟁에서의 《승리》 등으로 해서 분별을 잃은 미국놈들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오겠다고 이를 갈고있지 않는가!…

명희는 급히 책꽂이로 다가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자자구구마다에 스며있는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한줄한줄 글줄을 읽어나갔다. 명희는 점차 주위와 자기자신을 잊고 숭엄한 경지로 승화되였다.

명희의 눈앞에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우렷이 떠올랐다. 그리고 《명희동무, 굴하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시오.》하고 말씀하시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교시집의 마지막페지를 덮었지만 가슴은 마냥 흥분으로 뒤설레이고 정말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크나큰 고무와 격려를 받은듯 새힘과 용기가 용솟음쳤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의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7월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하였다.

어느 책에선가 아름답고 고귀한 생을 마친 인간의 넋은 하늘의 별로 되여 영원토록 빛난다는 구절을 읽은 생각이 나서 명희는 별들을 주의깊게 바라보았다.

그럼 저 별들은 차광수, 김혁동지들일가? 저 별들은 오중흡, 최희숙? 또 저 별들은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 저기 저 별들은 락원의 그 녀당원과 태성할머니, 6만톤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밀어낸 강선의 로동계급들, 터지는 수류탄을 온몸으로 덮어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한 김광철영웅?…

그들은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당과 수령, 인민의 추억속에 길이 남아있다.

그들은 모두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쳤지,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연구를 하고있는가. 적들에게 체포구금되여본적도 없고 통행금지의 고동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지. 눈을 움켜쎕으면서 눈보라속을 행군해본적도 없고 팔다리에 부상을 당하거나 비발치는 탄우속을 기여나가본적도 없어. …

따뜻한 온돌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하루 세끼 따끈따끈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그마한 난관에 부닥치자 우는 소리를 하며 절망에 빠졌댔지.

명희는 자기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도 혁명선렬들과 같이 별처럼 빛나게 살리라!

그는 당분간 연구를 중지하고 약학대학통신에 가서 더 배워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금 굳히였다.

그런데 약국장이 왜 나의 약학대학통신을 승낙하지 않을가?

명희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흘러나왔다.

명희는 보름전에 암풀세척기, 병세척기 그리고 반자동고려약재절단기를 제작해달라고 설계도면을 그려가지고 군농기계작업소 공무반에 부탁을 해두었다. 그것만 있으면 제제실의 일이 한결 헐해지게 된다. 오늘은 일요일이니 손달구지를 끌고 읍에 가서 그것들을 실어오리라 마음먹었다. 영북읍까지는 거의 40리가 된다. 아침에 떠나면 저녁쯤에는 돌아올수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퍽 넘었다.

밤은 그 커다랗고 포근한 검은 나래밑에 수억만의 뭇생명들을 품고 평온과 안정의 자장가를 들려주고있었다.

명희의 눈앞에는 두다리사이에 대가리를 파묻고 잠든 누렁이며 게슴츠레해진 눈을 반쯤 감고 절반 졸면서도 아드득 아드득 새김질을 하고있는 염소들이며 자그마한 대가리를 짓수굿이 한 암닭들이며가 눈에 선히 보이는듯 하였다. 저 아래마을에서 이따금씩 들려오는 컹컹 개짖는 소리도 한밤중의 고요한 안정을 더욱 뚜렷이 느끼게 해주었다. 동네에서 아직까지 잠들지 않고있는 사람은 명희뿐인듯 하였다. 허나 명희마저도 인차 뙤창문을 닫고 읍에 다녀와야 할 일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

폭양이 내려쪼이는 속에서 손달구지를 끌고 왕복 80리길을 걸어 돌아오던 명희가 약국장을 만난 곳은 영북로동자구로 들어서는 길목 체신소앞이였다.

약국장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명희의 얼굴과 땀에 푹 젖어버린 짧은 샤쯔 그리고 손달구지에 실려있는것들을 한동안 번갈아 찬찬히 살펴보고나서 아무말없이 명희와 나란히 서서 손수레의 채를 잡고 끌기 시작하였다.

약국장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명희동무, 약학대학통신에 꼭 가야겠어요?》

한참후에야 명희는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예. …》

《난 명희동무가 무엇때문에 약학대학통신에 가려고 하는지 알고있어요. 그러나…》

계속하여 약국장은 자기의 지나간 일들을 실례로 들면서 공연히 들뜨지 말라고 충고를 주었다.

명희는 멀리 앞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초연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전 학위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한것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전 이 연구에서 물러설수가 없습니다. 만일 가정이 그렇게 무거운 부담으로 된다면 저는 성공하기 전에는 시집을 가지 않겠습니다.》

약국장은 놀람과 의혹이 실린 눈길로 명희를 바라보았다.

《그럼 무엇때문이예요? 나한테 이야기해줄수 없어요?》

명희는 심각한 표정이 되여 한동안 말없이 손달구지를 끌고가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닌게아니라 이 문제때문에 약국장선생님을 한번 만나려던 참이였습니다. 그러면 약국장선생님이 저의 마음을 리해해주시리라 믿기때문입니다.

제가 〈ㅈ〉약물을 연구하기로 결심한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전 중학교졸업을 앞둔 때였습니다. …》

이렇게 허두를 뗀 명희는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명희가 중학교졸업을 앞두었을 때 군에서는 상급학교추천과 관련하여 군적으로 졸업학년 학생들의 학과경연을 조직하였는데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본인의 지망대로 상급학교에 보내주겠다고 공포하였다. 그 학과경연에서 명희가 1등을 하였다. 명희는 하늘로 날아오를것 같은 기분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명희는 어느 대학에 갈지 그때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있었다. 수학도 몹시 흥미를 끌었고 화학이나 물리에도 자신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문학도 좋아하였고 어학에도 취미가 있었다.

아버지의 견해는 어떠할가? 어머니는 또 얼마나 기뻐하실가?

희디흰 뭉게구름과도 같이 피여오르고 또 피여오르는 행복의 꿈에 잠겨 날듯이 달려왔건만 집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가 명희를 기다리고있었다. 명희가 아침에 학교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설때만 하여도 정정해서 두마리의 염소를 끌고 뒤산에 매러 가던 어머니가 부엌에서 절구질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간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런것이긴 하지만 외딸이며 아버지는 영예군인인 명희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사망은 실로 청천벽력같은 타격이였으며 명희의 일생에서 실로 충격적인 사변이 아닐수 없었다. 명희는 하루사이에 세대주로 되여버렸다.

《얘, 명희야. 이 늦잠꾸러기야, 지금이 몇신줄 아니? 시집을 가서도 이러겠니?》

이불밑에 손을 넣어 발바닥을 간지럽히며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에게 캐득거리면서 《엄마, 난 시집을 안가.》 하고 응석을 부리던 그 시절은 영원히 사라져버린것이였다. 명희는 지붕처럼 눈비를 가리워주고 네벽처럼 찬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한 온돌과 이불처럼 온몸을 포근히 감싸주던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어머니의 사랑을 더는 받을수 없게 된것이다.

아버지네 온 가족은 전쟁때 폭사하였고 어머니 역시 외딸이였으므로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희는 어머니의 어깨로부터 자기의 어깨로 옮겨진 의무—특류영예군인인 아버지를 돌보아드려야 할 의무를 내세우면서 그 누구

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을것이다. 한팔과 한다리를 잃고 심한 출혈로 인해 시력까지도 거의 희미해져가고있던 특류영예군인인 아버지를 위하여 바쳐진 어머니의 한생이 명희에게는 더없이 소중하였던것이다.

명희는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 훌 대학으로 가버릴수가 없었다.

처지의 급변은 명희에게 모든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뒤산의 푸른 풀밭에 드러누워 새김질을 하고있는 두마리의 염소를 보면서 시흥에 잠겨 《푸른 하늘로 고요히 떠가는 두송이의 구름같아라.》 하는 따위의 시구절을 곧잘 지어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염소들을 두고 더는 시구절같은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대신 아침이면 염소젖을 짜고 우리를 청소하고 뒤산에 내다 매야 한다는것, 장마철이나 겨울전에 그 기간에 먹일 사료를 장만해야 한다는것, 가을철이면 쌍을 붙이고 봄에는 새끼낳이를 보살펴야 한다는것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마당에 푸른 지붕인양 하늘이 안보이도록 무성한 포도넝쿨도, 터밭의 팔뚝같은 이삭이 달린 강냉이들도, 해빛에 번뜩이는 살찐 보라빛가지들도, 벌써 꺼멓게 독이 오르기 시작한 고추들도, 열마리나 되는 알낳는 닭들도 포함하여 어머니의 손길에 의지해있던 수십가지의 크고작은 일감들이 명희의 손을 기다리고있었다. 전에는 절로 크는것만 같고 절로 밥상에 오르는듯이 느껴지던 모든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물론 특류영예군인인 아버지에 대한 당의 은정은 각별하였다. 리당에서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훌륭한 문화주택을 지어주었다. 집둘레에는 배나무, 사과나무, 추리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등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어주었으며 마당에다가는 받침대를 세우고 포도넝쿨을 올려주었다. 사철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말라고 터밭도 넉넉히 떼주었고 울타리까지 번듯하게 둘러주었다.

그리고 땔나무가 떨어질세라 늘 관심을 돌려주었다.

그럴수록 아버지는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으며 명희의 심정 역시 다를바없었다. 더우기 아버지에게는 곁에서

손발이 되여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였다. 명희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이 아니라 집가까이의 맞춤한 직장에 다니며 아버지를 잘 모시리라 결심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길가에서 담임선생을 만나 명희의 속생각을 알게 된 아버지는 처음으로 딸에게 자기의 일생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기회마다에 토막토막 들은 이야기들이 전혀 모르고있던 사실들과 서로 이어지면서 명희의 눈앞에 아버지의 전생애에 대한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졌다. 명희는 이날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깊이 리해할수가 있었다.

《…나는 네가 왜 대학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잘 안다. 그러나 너는 이 아버지의 딸이기 전에 먼저 조국의 딸이다. 강물로 떠내려가던 나를 건져낸 때로부터 회복기에 들어설 때까지 내 몸에 흘러든 피가 수십키로그람이 넘는다고 한다. 그때 내 몸의 피가 전부 새것으로 교체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을 어찌 단순히 피만으로 생각할수 있겠니. 죽지 말고 기어이 살아나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달라는 전우들의 절절한 부탁이 내 몸에 흘러들었다.

그래서인지 의식을 차렸을 때 제일먼저 나의 머리속에 떠오른것이 어떻게든 살아서 기어이 〈ㅈ〉약물을 연구해내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심이였다. 한팔과 한다리가 없어지고 시력도 혹심하게 저하되였지만 나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후 검은색과 흰색밖에는 아무색도 분간할수가 없는 완전색맹이 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는 절망하고말았다. 없어진 팔다리는 의족과 의수를 하면 되고 잘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끼든 확대경을 리용하든 하면 되겠지만 색맹만은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는것이다. 색맹에 걸렸다 해도 기계공학, 농학 그리고 건축학 등에는 그런대로 종사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약물은 절대로 개발해낼수 없다.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자면 불피코 수천번의 화학실험을 해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화학반응과정이란 변색과정이다. 그 변색과정을 인식할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고 리해하며 거기에서 의의있는 결론을 끌어낼수 있겠니. …

그러나 나는 후에 너의 외할아버지로 된 보양소당위원장의 원칙적인 비판과 방조를 받아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수도 없었다. 시를 쓰면서도 나는 한편으로는 숱한 약학부문의 책들을 구해들이면서 독학으로 〈ㅈ〉약물에 대한 리론적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그에 대해서 네가 고개를 기웃거리고있다는것을 알았지만 지금껏 입을 다물고있었다. 네가 태여났을 때 물론 아들이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나는 크게 고무되였다.

왜 그랬겠니? 너를 믿었기때문이다. 네가 나의 소원을 실현시켜주기를 바랬기때문이다. 내가 지금껏 약학공부를 해온것도 앞으로 때가 되면 너를 힘껏 방조하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부상병들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는지 모른다.

나는 〈ㅈ〉약물연구를 군의시절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안은 전투명령으로 여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실현하여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 일에 자기의 한몸을 바치는것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이 어디 있겠니. 이 아버지의 행복은 지금 네가 생각하고있는 그런 효도에 있는것이 아니다. 네가 아버지의 절절한 소원은 외면한채 아버지에게 깨끗한 옷가지나 기름진 음식을 마련해주려고 뛰여다닌다고 해서 내가 과연 행복해질수 있겠니. 네가 진정으로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ㅈ〉약물을 연구해내야 한다.

나는 네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길에서, 〈ㅈ〉약물연구의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참된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

명희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의 어깨로부터 자기의 어깨에로 넘어온 짐이 결코 가벼운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아버지의 어깨에서 자기의 어깨에로 넘어온 새로운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다. 명희는 이

두개의 의무를 어느것 하나 포기할수가 없었다. 명희는 온밤을 뜬 눈으로 밝히다싶이 하며 궁리하고 또 궁리하였다. 함흥약학대학이나 평양의학대학 약학부에 가는 경우에는 몇년동안 집을 떠나있어야 했다. 그렇게는 할수가 없었다. 고등의학전문학교 약학과에 간다면?

고등의학전문학교의 학제는 대학보다 적다.

그러니 두가지 의무에 대한 일종의 타협책으로 될수 있다. 몇년후에는 연구소가 아니라 집가까이에 있는 철도병원 약국으로 와서 일하면서 동시에 연구도 하자. 그러면 두가지 의무를 다같이 수행할수 있게 될것이다. 약학대학은 통신으로 다니면 된다. 비록 헐치는 않겠지만 아버지도 잘 모시면서 연구도 해내리라!

명희는 그때 이렇게 굳게 결심하였고 그것을 실천해나가고있었다. …

명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그의 이야기는 약국장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깊은 자책에 잠기게 하였다.

약국장은 한동네에서 살며 한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있는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명희는 나보다 10살이나 아래지만 정신적으로 늘 얼마나 높은 수준에 올라있는가!

약국장에게는 명희가 산악처럼 큰 존재로 느껴지고 자기자신은 모래알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되였다.

그는 진심어린 어조로 말했다.

《명희동무, 날 용서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말고 가서 공부를 많이 해요. 내가 그 기간에 힘자라는껏 아버지를 돌봐드리겠어요. 명희동무의 연구를 나도 적극 돕겠어요.》

명희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약국장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약국장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 고맙다는 말은 내가 명희동무에게 해야겠어요. 나는 오

늘 정말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는군요.》

《…》

두사람은 말없이 손달구지를 함께 끌며 걸음을 옮겼다. 저앞에서 저녁노을에 붉게 물든 병원건물이 보였다.

5

드디여 약학대학 통신입학생들을 위한 입학시험은 끝났다. 마지막날에 수험생들은 모두 대학강당에 모여 시험과 관련한 총화모임을 가지게 되였다.

수백명이 꽉 들어차있었건만 강당안은 물속처럼 조용하여 바늘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듯 하였다. 모두들 긴장으로 하여 몸이 굳어져가지고 연탁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있는 부학장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통신교육의 의의와 목적에 대하여 강조하고있었다. 한쪽벽엔 전혀 창문이 없는 강당안은 대낮인데도 어지간히 어두웠다.

그래서 연탁우엔 탁상등을 켰는데 빨간 비닐갓을 비쳐나온 빛때문에 그의 이마가 빨갛게 물들었다. 그의 음성은 수백명의 학생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여러명의 학생들과 자그마한 방에서 이야기하듯 나지막했다. 게다가 말을 끝맺을 때마다 웅웅거리는 마이크의 공명음때문에 그의 마지막말마디들은 잘 가려들을수 없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모두들 과연 붙기나 했을가 하는 근심에 잠겨있었으므로 부학장의 이야기에는 그닥 귀를 기울이고있지 않았다.

준수 역시 자기가 속한 시험조에서 서너번째 순위에는 들었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는터였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혹시나 시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야단인데…

나를 통신에 보내주기 위해 그처럼 뛰여다닌 초급당비서동지를 무슨 낯으로 만난단 말인가.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정봉철은 준수네 집에 왔다간 다음날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대장을 뒤졌다.

천명이 훨씬 넘는 제대군인들이 왔으니 그만한 수의 그들의 안해들도 있을것이 아닌가. 그중에 틀림없이 제약부문 관련자들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명을 찾아냈고 3일만에 그들의 입직수속을 끝냈다. 그때문에 그는 원장을 진지하게 납득시키고 보건과에도 불이 나게 뛰여다녔다. 통신입학신청기일이 지난것 때문에 대학모집과에도 두번씩이나 갔댔다.

그 생각을 하느라니 저도모르게 준수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등이 찡하니 저려올랐다. 이제는 약국성원이 4명으로 늘었다. 준수는 정말이지 날개라도 돋힌듯한 기분이였다.

비서동지의 그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꼭 합격이 되여야겠는데…

불현듯 자기때문에 마음을 조이고있을 어머니와 둘째형, 둘째형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통신입학시험을 위해 함흥으로 떠나올 때였다.

기차가 막 떠나려는 순간 둘째형수가 다가서는것이였다.

《도중식사는 구럭에 넣었어요.》

《밥곽이 오르겠는데 그건 뭘 …》

형수의 얼굴에 웃음이 어렸다.

《그건 뜻이 깊은거예요.》

《?…》

어머니는 며느리를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

함흥으로 떠나오기 전날 준수는 도에 가서 맏형을 만났다.

준수의 맏형은 도의학대학을 주간으로 졸업하고 도소재지에 있는 기계공장병원 외과에 배치되여 일을 했었다.

맏형이 외과의사로 거의 1년쯤 일했을 때 어머니가 실험도중 뜻밖의 폭발사고로 눈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더이상 독자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할수 없게 되였다. 어머니는 심각한 고민속에서 몸부림쳤다. 맏형은 자기가 해내겠다고 나섰다. 물론 어머니의 부탁도 있었다.

사실 맏형의 이 결심은 쉬운것이 아니였다. 맏형은 약국의 약제

제실에서 일하면서 연구실 및 침실로 리용할 방을 얻기 위하여 약국의 밤경비도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그해부터 약학대학통신에 입학하여 약학공부를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연구에도 착수하였다. 대학통신을 졸업한 다음에는 박사원에서 2년째 공부하고있는데 래년에는 졸업이라고 한다.

오랜 기간 모든것을 잊고 오로지 《ス－1211》호연구에만 전심전력하고있는 맏형을 준수는 진심으로 존경하고있었다.

둘째형은 작년에 장가를 갔지만 맏형은 아직 독신으로 있었다. 준수가 보기에 맏형은 그런 문제에 그닥 큰 관심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언젠가 준수가 슬그머니 말을 비쳐보니 맏형은 《글쎄, 박사원이나 졸업한 다음에는 가야겠지. …》 하고 별로 흥미없이 대답하는것이였다.

준수가 이번에 찾아갔을 때는 이른새벽이였다. 맏형은 그때까지도 자지 않고 탑그로마토그라프를 설치하고있었다.

서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교환한 다음 준수가 래일 약학대학통신입학시험을 치러 간다는것을 말하고 《그런데 붙기나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덧붙였을 때 맏형은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라고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는듯 웃어버리는것이였다.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그들모두가 얼마나 실망할것인가. 준수는 실지로 그렇게 되기나 한듯이 후— 길게 한숨까지 내쉬였다.

이때 갑자기 부학장의 말이 귀전을 울리면서 준수의 상념을 깨버렸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가 커진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때문이였다. 절실한 리해관계가 담겨진 말은 한결 더 크게, 더 명확히 들리는 법이다.

《…통지서는 보름후에 발송하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동무들중 예과생들은 다시 부를 때 올라오면 되지만 1, 2학년에 편입한 동무들은 즉시 올라와야 합니다. 20일동안의 예비교육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수험생들은 일제히 일어서는것으로써 답례했다.

약간 고개를 숙여보인 다음 주석단 뒤문쪽으로 두어걸음 향해가

던 부학장이 갑자기 되돌아서면서 오른손을 쳐들었다.
《잠간만!》
그는 연탁의 마이크앞으로 다가와 다시한번 곱씹었다.
《잠간만!》
걸상 부딪치는 소리, 가벼운 기침소리, 속삭이는 소리로 술렁거리던 장내가 마침내 조용해졌다.
《한가지 잊은게 있습니다. 성룡구에서 온 김준수동무, 있습니까?》
준수는 처음에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같은 시험조에 속해있던 여러 동무들의 눈길이 자기에게로 집중되는것을 보고서야 틀림없이 자기를 찾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없습니까?》
그때에야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 있습니다.》
《영북구에서 온 신명희동무!》
앞쪽에서 어떤 처녀의 대답소리가 들려왔다.
《두 동무는 남으시오.》
수험생들은 출입구로 밀려나갔다.
텅빈 강당안에 두사람만이 우뚝 서있었다.
부학장은 그들을 자기쪽으로 불렀다.
《동무들은 학장선생을 만나고 가야겠소.》
학장선생님을?! 준수는 저으기 놀랐다. 나란히 선 처녀도 같은 심정인듯 했다.
강당밖으로 나서니 강렬한 해빛에 눈이 부셨다.
여름의 태양, 그것도 정오에 가까와오는 태양은 몹시도 찬란하였다. 시험총화모임에 참가하려 강당에 들어갈 때만 해도 보슬비가 내렸었다. 그런데 불과 한시간사이에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인것이다. 밤새 내린 비에 말끔히 씻긴 마당의 돌비늘쪼각들이 용접광처럼 반짝반짝 빛났고 강당건물의 좌우에 솟아있는 두그루 백양나무의 청신한 푸른 잎새들이 은빛으로 번뜩이며 호화로이 뒤설레고있었다.

마당에서는 수험생들이 아직 헤쳐가지 않고 법석 떠들어대고 있었다.

《잘 가세요!》

《다시 만납시다!》

《붙기나 했겠는지…》

《평양—청진행은 정시랍니다.》

《난 흥남외삼촌집에 들렸다 래일 가겠소.》

《내 차표도 부탁합니다.》

《뒤로부터 두번째 렬차칸에 타게나.》

일주일사이에 정이 든것이다. 결과는 알길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두려운 시험은 끝났고 오늘은 집으로 가게 되였으니 모두가 명절기분이였다.

쑤어놓은 죽이 이제 밥이 되겠느냐 하는 대범한 기색들이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름동안 그들이 발편잠을 잘수 있겠는가.

나이도 각이하고 옷차림도 각양각색이고 말씨마저 서로 다른 수백명의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은 볼만 하였다. 그들의 머리우에서 수십마리의 잠자리들이 낯익은 사람이나 찾아내려는듯이 이리 기울, 저리 기울 낮추 떠돌고있었다. 대도시의 복판에서 보는 농촌잠자리들이 준수에게는 몹시 신기스러웠다.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물결속을 헤치며 부학장의 뒤를 따라 강당왼쪽모서리를 꺾어도는데 키가 크고 몸집이 뚱뚱한 교원이 그들을 멈춰세웠다.

《부학장선생님, 이동강의를 이달로 당겨주실수 없습니까? 신의주제약공장에 급히 갔다올 일이 있는데 …》

《그건 이미 비준을 받은거요.》

부학장이 단마디로 잘라버렸으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이야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자 부학장은 그들에게 먼저 학장방앞에 가서 기다리라고 일렀다.

준수는 뒤따라오는 처녀와 나란히 걸으려고 천천히 강당앞계단을 내렸다. 그 눈치를 차렸는지 처녀는 걸음을 멈추고 어딘가를 바라보는척 했다.

준수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불쑥 전날의 일이 상기되였던것이다.

마지막시험은 외국어였다. 어찌된 일인지 외국어시험만은 수험생전부를 강당에 모아놓고 치르었다.

준수에게 있어서 이번 시험에서 제일 자신있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한것은 외국어였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외국어에는 론리란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사색해볼 여지가 없는것이다. 준수는 손에 땀을 쥐였다. 그런데 시험표를 받아쥐고보니 허거픈 웃음이 나갔다. 솜마대를 쌀마대로 알고 힘껏 추켜올렸을 때와도 비슷한 심정을 체험하였다. 대학입학시험치고는 예상했던것보다 너무나도 기초적이였다. 10분도 안걸려 시험지를 빼곡 채웠다.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멋하여 시험지를 들고 앞에 나와보니 내다놓은 여러개의 책상들중의 하나에 《1학년편입, 영어》라고 쓴 표쪽이 놓여있었다.

준수는 거기에다 시험지를 놓고 밖으로 나왔다.

써낸 답을 확인해보고싶어하는것은 시험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이다. 준수 역시 례외가 아니였다.

강당앞 둔덕에는 구내공원이 자리잡고있었다.

그 한가운데를 꿰지르며 세멘트포장을 한 걸음길이 아득히 뻗어나갔다. 걸음길의 좌우에는 잎새 풍만한 은행나무들이 명예위병대의 위병들처럼 줄지어섰는데 저 멀리 끝쪽의 하늘은 은전처럼 보이고 그속에선 여름의 해빛마저 흐려지고있었다.

책을 들고 그속을 걸어가는 대학생들은 마치 록음의 동굴을 거니는것 같았다. 준수는 그 동굴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강당을 향하여 출입구쪽에 놓인 걸상에 앉았다. 발치를 내려다보니 푸른 비단같은 잔디우에 나무들의 그림자가 얼룩얼룩 암록색의 무늬처럼 또렷이 새겨져있었다.

교과서를 금방 펼쳐들었는데 눈앞의 꽃나무에 앉아 재재거리던 참새 한마리가 해빛에 날개를 번쩍이며 가지를 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깜짝 놀란듯, 아니면 나무라는듯 꽃나무가지가 급히 흔들렸다. 참새를 뒤쫓아 눈길을 들던 준수는 한 처녀가 시험장에서

나오는것을 보았다. 왼손에는 갈색대학생가방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눈이 부신듯 손채양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처녀의 몸매는 매혹적이였다. 경쾌한 걸음으로 강당 왼쪽모서리에 솟아있는 백양나무쪽으로 사뿐사뿐 걸어가는 처녀의 아릿다운 자태를 준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전문학교 교복이면 그중 수수한 옷차림인데도 이 처녀에게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무엇이라고 딱히 말하기는 어려웠으나 인차 눈길을 돌리고싶지 않고 다시한번 더 보고싶은 그런것이 있었다.

생기있고 민첩한 걸음새, 걸으면서 머리칼을 쓸어올리는 오른손의 가볍고 날렵한 동작… 백양나무그림자밑에 들어선 처녀도 역시 책을 펼쳐드는것이였다.

준수는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이 활발히 고동치는듯한 기분좋은 감각을 느꼈다.

진리와 정의, 미덕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아름다움, 이 역시 우리들의 정신적요구가 아니랴.

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식하든 못하든 언제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닐가. 그렇지 않다면 처녀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준수에게 아무런 공명도 일으키지 못했을것이 아닌가.

아름다움이란 각이한 현상이나 대상이 가장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것이리라. 처녀의 키가 지금보다 더 컸거나 작았더라면, 처녀의 몸집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풍만하거나 가냘팠더라면, 몸의 각 부위들의 균형과 조화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달랐더라면 아쉽게 생각됐을것이다.

불현듯 언젠가 맏형과 나눈 이야기가 상기되였다.

형은 보던 책을 방바닥에 휼 밀어던지고 자기 연구실의 침대 한끝에 개여놓은 이불에 반쯤 기대고 누웠다.

《저런 글에 진절머리가 났어. 그저 나오는 처녀마다 다 수재이고 미인이고 도덕적완성의 표본이고 아버지는 지배인이 아니면 대학교수지…》

준수는 소리내여 웃었다.

《실지로 그런 처녀가 있을수도 있지요.》

《없어. 애당초 누구나 우점과 결점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단 말이야. 만일 미인이고 수재라면 꼭 그에게 무슨 다른 결점은 있는거야. 거짓이 없는 솔직한 글을 읽고싶어.》

형은 입을 쩝 다시며 이렇게 말했다.

《거짓만 없다고 해서 곧 소설이나 시는 아니지요. 예술작품인 이상 반드시 예술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가요. 태여났다, 살았다, 죽었다는 식의 흔해빠진 이야기라면 구태여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리도 없지요. 예술은 허구를 하게도 되는것이 아닐가요.》

형은 몸을 일으켜세웠다.

《허구와 거짓말하는것 사이엔 아무런 인연도 없어. 예술의 가치는 객관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는가에 따라서 평가되는 법이야. 그건 예술이 세계의 인식에 복무하기때문이지. 인류문학사가 전하는 훌륭한 주인공들은 우선 평범한 사람들이였어.》

준수는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들이 평범했는지, 비범했는지, 예술이 세계의 인식에 복무하는지, 개조에 참여하는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수긍이 되였다. …

저 처녀는 틀림없이 수재일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나올수 없을것이다. 그러니 형의 견해대로 한다면 그 우점과 함께 어떤 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할것이다.

준수는 왜서인지 마음이 통쾌했다. 그는 인차 책에 눈길을 떨구었다.

바로 그때 중키의 교무과 부과장이 시험장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매 수험생들의 시험지를 확인하고는 거기에다가 둥그렇고 시뻘건 대학교무과 확인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러나 이미 주석단아래의 긴 책상에 놓여진 두장의 시험지에 대해서는 어느 시험관도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수백장의 외국어시험지중에서 도장이 안찍힌것은 그 두장뿐이였다. 확인도장도 없는데다가 단 하나의 철자도 틀림이 없이 완전무

결한 그 시험지들은 채점하던 교원들의 의혹을 샀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학장방으로 불리워가고있는것이였다.

2층에 있는 학장방앞에는 넓은 홀이 있었다.

홀의 세 벽에는 대학에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물들과 대학이 낳은 학위학직소유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구성과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게시판만 들여다보았다. 처녀의 눈길이나 일거일동에는 준수의 접근을 경계하는 쌀쌀한 기운이 풍기고있었다. 준수 역시 처녀쪽으로는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잠시후 부학장과 함께 그들은 학장방에 들어섰다. 학장은 나란히 줄지어놓은 대여섯개의 키높는 참대화분으로 이루어진 진록색의 참대숲을 배경으로 상반신이 거울처럼 비쳐지는 알른알른한 붉은 밤색의 커다란 책상에 마주앉아있었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은 활짝 열어젖힌 창문을 통해 사선으로 진하게 비쳐드는 해빛에 은실오리처럼 반짝거렸다.

넓고 길다란 방의 한쪽벽을 거의나 가리우며 키를 넘게 무성한 참대숲에는 힘차고 억센 기상이 어려있었다.

학장은 왼손의 두번째와 세번째손가락을 이마에 뻗치고 엄지손가락으로는 흘러내릴듯 코끝에 걸린 은테안경의 한쪽다리를 받친채 책상우에 놓여있는 종이장들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자기들의 시험지들이였으나 준수와 명희가 그것을 알리 없었다.

아래로 향한 시선때문에 감은듯 해보이는 눈시울이 안경알우로 다 드러나보이였다.

한참동안 긴장하여 서있노라니 문득 전문학교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고려약재학과목을 맡고있던 선생은 오미자의 유효성분인 시잔드린을 연구해낸 연구사가 (강의당시, 그러니까 3년전) 약학대학 학장으로 사업하고있다고 여담삼아 말해주었던것이다. 그 학장의 성이 오가였는데 그는 자기의 연구가 성공한 해에 출생한 딸에게 《미자》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는것이다. 그래서 딸은 어렸을 때 제또래들사이에서 《오미자》로 불리웠다는것이다. 그 이야기에 모두들 즐겁게 웃던 기억이 났다.

이 학장이 시잔드린을 연구한 분일가? 이런 생각에 잠겨 호기심어린 눈길로 바라보고있는데 안경알을 꼼꼼히 손수건으로 닦고있던 학장이 대뜸 영어로 묻는것이였다.

《웟쯔 요 네임?》(당신의 이름은?)

너무도 뜻밖의 정황이여서 준수는 일순 당황했다. 그러나 인차 자기자신을 수습하고 갑자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는 자기의 영어지식전부가 학장의 천평눈금같이 예민한 물음마다에 닿아지고 있는듯한 초긴장을 체험하였다.

그의 간단한 경력을 료해한 학장은 계속하여 옆에 선 처녀와 로어회화를 시작하였는데 처녀의 류창하고 거침없는 대답은 준수를 놀라게 했다.

로어를 전혀 모르는 준수는 처녀의 이름이 신명희라는것밖에는 아무것도 가려들을수 없었지만 높은 수준의 회화가 진행되고있음을 능히 짐작할수 있었다. 떠듬거리는 자기와는 간단히 이야기를 그쳐버린 학장이 처녀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활발하게 이야기를 끌고나가고있음을 느끼게 되자 준수는 부끄러웠다. 그는 가까이에서 처녀를 바라볼수 있었다. 처녀는 학장과의 대화에 열중해있는지라 준수에 대해서는 잊고있었다. 단정히 서있는 몸전체에서는 안정감과 자신심이 느껴졌다.

가볍게 주먹을 쥔 손등과 머리칼을 땋았기때문에 흰눈처럼 드러난 귀뒤의 정맥이 파란 시내물처럼 곱게 비쳐보이고있었다.

학장은 그들에게 전문학교졸업증과 성적증을 요구했다.

《역시 10점(당시)최우등생들이였구만. …》

그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학장으로서는 무심히 입밖에 낸 말이겠지만 그 한마디가 처녀에 대하여 이것저것 알고싶은것이 많았던 준수에게 큰 도움으로 되였다. 최우등과 10점최우등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체험자로서 준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있었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도 있지만 전문학교의 수십개 과목중에서 단 한과목의 9점도 없었다는것은 실로 많은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학장은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시오.》
그들 역시 영어와 로어로 《감사합니다》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이쯤되면 입학은 확정적일것이다. 학장이 실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가. 화가 복으로 된셈이다. 준수의 마음속에 떠돌던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찼다.
대학청사의 현관을 먼저 나선 준수는 잠시 처녀를 기다렸다. 처녀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그 처녀는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준수의 곁으로 스스럼없이 다가왔다. 둘사이를 흐르던 랭랭한 공기는 훈풍으로 바뀌였다. 준수는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기나 한 사이인듯이 처녀를 대하기가 헐하고 유쾌함을 느끼였다.
《로어공부를 많이 했더군요.》
준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아니, 겨우 넘겼답니다. 그래도 저에겐 마음을 다잡을 여유가 있었으니 좀 유리했지요. 전 벌써 경력을 물어본다는것을 짐작하고 미리 준비를 했던거예요.》
이 말에는 진실성과 소박성이 어려있었다. 꾸며낸 겸손과도 달랐다. 그것이 호감을 주었다.
《아버지가 교원입니까?》
이것은 준수의 머리속에서 문득 떠오른 짐작이였으며 저도모르게 튀여나간 질문이였다.
말끝을 맺자마자 아차,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초면의 처녀에게 집안형편을 묻다니. 준수는 그만 무안해져서 얼굴을 가볍게 찌프렸다.
아닌게아니라 명희는 그 질문의 성격을 어떻게 리해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를 얼핏 바라본 명희는 준수의 심정을 십분 짐작할수 있었다. 그의 약간 못마땅해하는듯 찌프린 얼굴에는 무례가 아닌가를 걱정하는 섬세한 마음씨가 잘 나타나있었다. 사람을 안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하여 인간의 전모를 꿰뚫어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것이다. 명희는 교양있고 민감한 상대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저의 아버진 특류영예군인이랍니다.》
처녀의 얼굴은 밝았으며 어조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긍지가 따뜻이 감돌고있었다.
《그런걸 저는 로어교원이 아닌가 생각했군요.》
《거의 맞혔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방금 교원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문 제가 로어습득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걸 알자는것이겠지요?》
《옳습니다.》
《그렇다면 짐작이 맞았습니다. 아버진 집에서 시도 쓰고 번역도 한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저는 시를 놓고서 번역의 질에 대해 밤깊도록 론쟁했답니다. 번역이란 재창조인데 저에겐 형상적사유능력이 부족하다고 아버진 불만이예요.》
명희가 부러웠다. 《ㅈ－1211》호에 착수한 이후로 준수는 로씨야약학계에서의 《ㅈ》약물의 개발실태를 알기 위해 로문약학잡지들을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모아들이고있었지만 로어를 모르다나니 단 한줄도 읽어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이 처녀는 로어로 된 시까지 번역을 하는 수준이라니!…
《그래도 번역이란 정확해야 하지 않는가고 제가 우겼지요. 그랬더니 아버진 한글자 한글자 따라가며 번역하는것보다 그의 큰뜻을 번역하는것이 실제상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실례를 들면서 주장하시더군요. 글자의 번역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형상의 번역은 그렇지 않다는거지요. 그러면서 아버진 외국어의 기초는 모국어인데 저에겐 그것이 약하다고 늘 비판한답니다.》
《그 모국어란 문학을 의미하겠지요?》
《물론이지요. 아버진 외국어뿐만아니라 모든 학문에로의 길은 문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계십니다. 지금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과학자로 키운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외국어단어를 암송하게 하거나 음악가로 키운다면서 바이올린켜는 법을 배워주지요. 아버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겁니다. 먼저 옛

말을 들려주고 이야기책에 흥미를 가지게 하여 문학의 길에로 이끌어주어야 한다는거지요. 음악가에게 절실한것은 손재간보다도 예민한 예술적감수성이고 과학자에게 필요한건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색력인데 그것은 문학이라는 뿌리에서만 자랄수 있는 줄기며 잎이라는거지요. 피라미드의 정점에 그 무엇이 놓이든, 그것이 예술이나 과학의 어떤 분야이든 그 밑바닥엔 동일한것 즉 문학이 놓인다는거지요.》

《그렇다?!》

준수는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의혹이 아니라 경탄이였다. 준수도 늘 막연히 생각하고있던 문제를 처녀의 아버지는 간명하게 말하였던것이다.

처녀는 준수의 태도를 반신반의로 오해하고 흥분하였다.

《아버진 그렇게 생각하고있으며 저를 그렇게 가르쳤지요. 또 실제로 인류력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은 례외없이 훌륭한 문장가들이였습니다. 남이장군이나 을지문덕장군의 시를 보십시오.》

《반짝인다고 해서 다 황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준수는 반짝이는 처녀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지만 이런 처녀는 처음이였다. 준수는 처녀의 손에서 정신의 근로가 박아준 굵직한 《못》을 감촉하였다. 준수는 처녀의 지성에 놀랐다. 그것은 학장방에서 느낀 놀람보다는 훨씬 큰것이였다. 또 그것이 자기의 유식을 뽐내자는 의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옹호하여 이것저것 재여볼새도 없이 튀여나온 말마디들이라는것을 준수는 충분히 느꼈다. 론쟁을 하느라면 흔히 저도모르게 흥분될 때가 있는 법이다.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문학에 대한 처녀의 깊은 애정이 준수의 마음에 준 충격은 작은것이 아니였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들은 서로 친밀감을 느끼였다. 처녀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고 재치있게 했을뿐더러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고도 허심하게 들을줄 알았다. 이야기가 동강나서 억지로 화제를 찾아내야만 하는 어색함따위는 서로가 아예 느껴보지를 못했으며 오히려 마음속에서 련이어 샘솟아오르는 하고싶은 말도 미처 꺼낼 사이가 없었다. 놀랍게도 누가 어떤 화제를 꺼내든 례외없이 그

것이 서로의 공감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으므로 얼마든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며 얼마든지 즐겁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자신들도 명확히 이름할수 없는 환희에 잠겨있었다.

아름다운것이란 드문 법이다. 따라서 그것들끼리 만난다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 거주지와 활동구역을 달리하는 사람들사이의 물리적인 접근도 자주 있을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적인 가치를 확인할수 있는 기회란 더욱 그렇다. 두장의 철판을 갖다댄다고 해서 붙는것은 아니다. 수천도의 높은 열이 필요한것이다. 두사람의 마음속에는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자기와 비슷한 인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바로 그 갈망과 갈망이 접촉한것이다. 순간 불꽃이 튀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환희에 휩싸인것이다. 설사 그들이 천번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 갈망이 없었더라면 무심히 헤여졌을것이다. 이런 견지에서라면 그들의 사귐은 필연이였다. 그러나 준수와 명희중에서 누구든지 한해 먼저 혹은 한해 늦게 대학에 왔더라면, 뜻밖의 모를 단어때문에 어느 한명이 시험장에서 불과 5분이라도 더 지체했더라면 , 또 학장이 한사람씩 불러다 담화를 했더라면 그들은 일생동안 서로 모르고 지냈을수 있는것이다. 그들의 상봉에 우연적인것도 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력사적인 사건이나 일개인의 신변잡사중 어떤것은 그것이 필연인지 우연인지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들의 《불꽃》은 이미 일어났으며 《용접》은 계속되고있었다.

이야기에 열중하면서도 준수는 처녀의 모습을 살폈다. 명희는 매력있는 눈길을 가끔 그에게로 돌리면서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나갔다. 처녀는 몹시 재빨리 말하군 하였다. 그때마다 가쯘하고 눈부신 흰이가 드러나군 하였는데 그런 때의 그의 입술을 바라보느라면 마치 흰눈우에 앉은 빨간색을 띤 나비가 날개를 급히 파들거리다가 단정히 접는것처럼 느껴졌다. 처녀는 말을 마친 다음 가끔 입술을 꼭 다물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입가의 량쪽에 고집스러워보이기도 하고 애교도 느껴지는 자그마한 우물 두개가 옴폭 패였다가 사라지군 하였다. 그런 때는 꼭 무슨 중요

한 말을 한 뒤였다.

자동차들의 흐름이 길을 막아 눈을 들어보니 경기장앞 건늠길이였다. 그제서야 준수는 은행나무가로수의 잎새에 손을 뻗치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준수에게는 맑고 푸른 하늘에서 은빛수정처럼 빛나고있는 태양도 자기들처럼 즐거움에 넘쳐있는것만 같았다. 어찌 태양을 단순히 광원이나 열원만이라고 하랴! 그것은 약동하는 생의 환희를 대지에 줄곧 뿌려주는 열정의 불덩어리였다. 해빛은 진록색으로 번뜩이는 가로수의 잎새들우에서 사랑스레 어리광치는가 하면 뻬스나 승용차의 차창에로 달려가 그들에게 눈을 끔벅이듯 사진기의 섬광처럼 번쩍번쩍 빛나고있었다.

그 눈부신 쪼각들보다 더 명랑한것이 어데 있겠는가! 해별에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여오르고있었다.

그들은 건늠길을 건넜다.

준수는 처녀의 나이를 알고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묻겠는가. 그런데 한가지 방도가 떠올랐다.

《언제 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까?》

《작년입니다.》

그러니 22살쯤 되였을것이다.

준수는 처녀가 의아하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인차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의 수고가 크겠군요.》

사실 준수는 별생각없이 한 말이였는데 처녀는 표정이 달라지며 감촉하기 힘든 한숨을 내쉬는것이였다. 처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어머니는 몇년전에 돌아갔습니다》

준수는 처녀에 대하여 스스로도 이상스러운 련민의 정을 느꼈다.

《형제는 몇이나 됩니까?》

한참후에 준수는 물었다.

《전 외딸이랍니다.》

《그래요?!》

처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준수에게로 얼핏 서글픈 눈길을

돌렸다. 그 서글픈 눈길속에는 친근하고 다정한 그 무엇이, 난 어쩐지 동무를 믿고싶군요 하는 의미의 형언키 어려운 애틋함이 질게 어려있었다.

《저마저도 이 세상에 태여나지 못할번 했답니다. 심한 부상을 당한 아버진 거의나 죽은 목숨이였대요. 옹근 석달동안 의식이 없었다니까요. 영예전상자병원에 온지 거의 5년만에야 아버지는 의족을 하고 겨우 걷는 련습을 시작했대요. 그 병원근처의 교원이던 어머니는 그즈음에 시를 쓰는 아버지를 많이 도왔대요. 그때로부터 실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제가 태여났대요. 어머닌 일생을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바쳤답니다.》

준수는 지금껏 처녀들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들과의 가장 옳은 교제방법은 가벼운 롱담이라고 생각해왔다. 의무를 지지 않는, 하면서도 량심에 꺼리지 않는 웃음, 모든것을 암시로서 그치는 재치있고 기지있는 롱담만이 처녀들과의 관계의 전부로 되여야 한다고 간주하고있었다. 그런데 처녀에게서는 심각한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처녀가 한 이야기의 내용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깊이 신뢰하는듯한 그 진지한 태도에서였다.

일반적으로 녀성인 경우에 미에 대한 자의식은 어느정도 그를 도고하게 만든다. 불과 한시간전까지만 해도 명희는 얼마나 쌀쌀했던가. 지금에도 처녀의 태도에는 그 어떤 긍지가 있었고 동작에도 자못 유유한데가 있었다. 그런데… 설사 도고한 처녀가 아니더라도 초면의 총각에게 가정사를 상세하게 이야기한다는것은 어딘가 례의에 벗어나는 일이였다.

그러나 지금껏 느껴본적이 없는 특이한 감정상태에 놓여있던 준수는 이것을 자연스러운것으로 받아들였다.

준수는 자신에 대한 많은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였다. 이 처녀앞에서는 과장하고싶지도 않았고 겸손을 꾸미고싶지도 않았다.

붐비는 거리의 한복판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일체 주위세계를 의식하지 못하였다.

명희도 역시 준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처녀는 자기가 준수와의 이야기를 퍽 즐거워한다는것을 깨닫고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아직까지 처음 만나는 총각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본적이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한가지만은 리해가 되지 않았다. 2학년에 편입할수 있는 학력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에 응시하다니. 더우기 그는 전과목 10점최우등생이 아닌가.

마침내 명희는 자기의 의문을 터놓았다.

《그런데 왜 1학년에 응시했습니까?》

《로어를 배우자는거지요.》

《2학년 로어반에 편입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래년봄쯤에 로어과목졸업시험을 치르어야 하는데 그건 너무 힘에 부칩니다. 반년이라고는 하지만 그중에서 로어를 위해 짜낼 시간은 기껏해야 석달도 되나마나 할겁니다. 그래서 일단 뒤로 물러서기로 하였습니다.》

명희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로어가 그처럼 절실한가요?》

《절실합니다. 뭘 좀 해보자니까…》

《?… 》

명희의 눈길에는 호기심과 의아스러움이 어려있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ㅈ〉약물을 한번 연구해보자는것이지요.》

《예?!》

명희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그래서 명희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이런 물음이 튀여나갔다.

《무슨 연구를 한다고요?!》

《〈ㅈ〉약물을 연구하고있는중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랍니까?》

그제서야 명희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단히 힘든 대상을 택했다는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꽤 해낼수 있을가요?》

준수는 명희의 말에서 다른 아무러한 기미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만 진심어린 걱정만을 느꼈다.

《헐치 않군요. 시작한지 벌써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명희는 의문이 실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5년이라구요? 작년에 고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런데 5년이라는건?…》

《난 고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연구를 시작한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

명희는 준수도 자기와 같이 《ㅈ》약물을 연구해낼 결심을 품고 약학에 발을 들여놓았으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자기들 두사람은 꼭같은 결심을 품고 같은 년도에 고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것이였다. 한사람은 함흥에서, 다른 한사람은 신의주에서. 하지만 명희는 준수와는 달리 지금껏 자기가 연구해온 기간을 1년으로 생각하고있었다. 명희는 《ㅈ》약물에 대한 연구에서 준수가 자기보다 훨씬 앞서나갔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자기와 준수사이에 생겨난 이 달려나간 거리에서의 차이는 연구착수날자에 대한 견해상의 차이에 원인이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고등의학전문학교의 몇년기간에 누가 더 긴장하여 분초를 아껴가며 학습전투를 벌렸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였다.

명희는 준수에 대한 선망과 함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책과 흥분에 휩싸여 묵묵히 걷고있던 명희가 이렇게 물었다.

《인민대학습당 번역과제는 어느정도로 합니까?》

《매달 론문 두건정도입니다.》

《병원일이 바쁘지 않습니까?》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 당비서동지가 나의 연구를 리해해주고 적극 도와주고있어서 정말 큰 고무를 받고있습니다.》

《통신을 시작하면 더군다나 로어까지 시작하면 일단 연구를 중지해야 하지 않을가요?》

《아닙니다. 다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ㅈ〉약물에 대한 연

구는 통신공부를 더욱 실속있게 할수 있도록 나를 채찍질해주고 한편 통신수업에서 많은 지식을 섭취하면 할수록 나는 내가 내세운 연구과제를 향하여 더 빨리 나갈수 있게 되기때문이지요.》

《그러면 힘이 부치겠는데요.》

《목표가 힘을 규정하는 법이지요.》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가요?》

《사흘 일찍 일어나면 옹근 하루를 얻는답니다.》

한동안 준수의 말을 음미하고있던 명희는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입밖에 내였다.

《만일 준수동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인차 대학에 가서 그 연구에 착수했더라면 지금쯤 큰 성과를 거두었을텐데요.》

준수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 만일 내가 군사복무를 하지 못했더라면 〈ㅈ〉약물을 연구할 생각을 미처 못했을겁니다.》

명희는 준수의 이 말을 자기나름으로 해석하였다. 말하자면 준수가 군사복무기간에 어떤 일로 해서 《ㅈ》약물의 절박성을 느끼게 된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래서 준수에게 《ㅈ》약물의 연구동기에 대해서 더 묻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도 알수 없는 리유로 해서 자기도 역시 《ㅈ》약물을 연구하고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만일 명희가 준수에게 이자리에서 준수의 연구동기에 대하여 몇마디의 질문만 했더라면 그리고 자기도 역시 같은것을 연구하고있으며 그 동기는 이러이러한것이라고 몇마디만 했더라면 그것이 그들의 그후의 운명을 위하여 특히 명희자신의 운명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을것인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이날의 실수에 대해 명희가 얼마나 아쉽고 분하게 그리고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가.

두사람은 인차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준수는 처녀를 역까지 바래주었다.

제2장 두줄기 궤루

1

활짝 열려진 차창으로 쏠어들어오는 바람때문에 준수는 숨이 막힐듯 했다. 보이지 않는 기폭이 세차게 휘날리며 얼굴을 후려갈기는것만 같았다.

준수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걸상등받이에 몸을 기대면서 가슴이 뿌듯해지도록 한껏 공기를 들이마셨다. 온몸근육들이 팽팽히 살아오르면서 젊음과 건강이 새삼스레 의식되였다. 오른쪽 허벅다리에서 가벼운 아픔이 느껴졌다. 그는 저도모르게 빙그레 웃음을 띄웠다.

역전 네거리건늠길에서 명희쪽으로 자전거가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다가왔었다. 그런때는 가만히 서있어야 한다. 그런데 명희는 자전거를 피하느라 몸을 이쪽저쪽으로 움직였다. 그 서슬에 자전거를 탄 사람은 더욱 당황하였다. 준수는 날쌔게 명희를 막아서며 오른손으로 자전거의 손잡이를 틀어잡아 멈춰세웠다. 그때 자전거 앞바퀴에 허벅다리를 부딪친것이다.

그자리를 슬슬 어루쓸며 그때 광경을 생각하느라니 우스웠다.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으리라는 확신, 명희와 나눈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회상, 어머니가 부탁하던 안경알을 구해가지고 간다는 기쁨—그 모든것이 하나로 뒤엉켜 준수의 마음을 더없이 흐뭇하고 즐겁게 했다.

차츰 바람이 차졌다. 밤이 되여오는것이다.

준수는 차창을 내렸다.

어렸을 때 이사를 갔으므로 성룡구는 준수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

지만 군대에 나가있은 준수에게 있어서 기차를 타고 다른 고장에 드나든적은 아직까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그때마다 어찌된 일인지 언제나 밤차와만 맞다들리군 하였다.

준수는 기차려행의 지루한 긴긴밤을 보내기 위하여 책을 펼쳐들군 하였지만 차창밖의 회색어스름이 검은 비로도같은 짙은 어둠으로 바뀌고 흘러가는 저 멀리 농가의 불빛들이 검은 비로도에 박힌 기미처럼 또렷이 살아오를무렵이면 례외없이 잠에 곯아떨어지군 하였다.

글줄우에서 흔들리느라 피로한 눈, 고르롭고 단조로운 레루 넘는 소리, 가볍고 규칙적인 렬차의 진동은 매번 준수의 의식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면서 그를 망각과 혼돈의 시뿌연 안개속으로 천천히 밀어넣군 하였다.

그런데 자정도 훨씬 지났건만 이밤에는 어찌된 일인지 잠들수 없었다. 책을 펼쳐들었건만 글줄도 잘 들어오지 않아 마침내 그것마저 덮어버렸다. 준수는 렬차가 어떤 경사지를 오른다는것을 느꼈다. 이 지대의 높은 령인 명봉고개라고 짐작되였다. 밖을 내다보니 꺼먼 산발들뒤로 달빛이 뻗쳐오르고있었다. 그 빛발에 하늘은 동이라도 트려는것처럼 훤해졌는데 오히려 산발들은 더 검고 우중충하게 느껴졌다. 어느새 둔중한 산발들뒤로 보름달이 솟아올라 기차를 따라오고있었다. 산마루에는 고압송전철탑과도 비슷한 모양을 한 이깔들이 쭉 늘어섰는데 둥근달은 그사이로 재빨리 헤염치면서 나무숲이 성긴 곳에서는 불쑥 둥그래지며 강한 빛을 뿜는가 하면 다시 나무숲사이로 들어서며 수십갈래의 빛살로 갈라지군 했다. 그것은 강물우로 달리는 달이 잔잔한 수면우에서는 둥글게 되고 여울을 만나면 쪼각쪼각 부서져버리는것과 아주 근사하였다.

갑자기 창밖이 새까매지면서 전등빛이 창유리에 누렇게 비꼈다. 검게 물든 창유리는 차안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쳐내고있었다. 동시에 렬차의 동음이 날카로와지면서 몇십배로 확대되여 귀를 아프게 했다. 기차굴에 들어선것이다. 한참만에야 북치듯 요란한 소리는 다시 알릴듯말듯 부드러운 소리로 바뀌였고 창밖엔 엄숙한 대

자연의 모습이 펼쳐졌다. 산발들은 저 멀리로 밀려갔다. 그러나 얼마후 다시 그것들은 눈앞에 다가왔고 요란한 소리는 다시금 귀청을 때렸다. 어찌나 기차굴이 많았던지 렬차는 마치 토막토막 끊어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점선을 긋기에 여념이 없는듯 했다.

준수는 이밤 처음으로 이 《소리의 점선》을 들으면서 매번 자기가 이때쯤해서는 깊은 잠에 들어 명봉고개를 넘군 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기차는 쉬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새벽두시가 되였다. 차칸에서 자지 않고있는것은 오로지 준수뿐이였다. 그는 자기가 온밤 잠들수 없으리라는것을 예감하였다.

명희는 지금쯤 집에서 깊은 잠에 들었겠지. …

달빛 어려 하얗게 보이는 둥근 전주대들만이 규칙적으로 눈앞을 지나가고있었다.

문득 준수는 명희라는 처녀를 알게 된것이 자기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되였으며 그 여운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준수와 같이 제대되여온 동무들은 거의다가 전문학교 1, 2학년때에 결혼하였다.

준수는 당시에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있었다.

오로지 공부에만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결혼이란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에게 처녀를 소개해주겠다고 나섰을 때 준수는 어지간히 놀랐다.

나도 어른이 되였단 말인가.

자기가 잘 아는 동무들이 결혼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되는것을 보았을 때 준수의 앞에서 어른이란 말은 가리우고있던 신비의 장막이 벗겨져버리는것만 같았다. 어린 아이가 커서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이불장이니 가시장이니 그릇과 옷가지니 하는것들을 모아놓고 가정이란걸 꾸리고 살아간다는 이 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현상에서 준수는 오히려 그래, 인생의 의의란게 고작 그것뿐이냐—하는 허구프면서도 쓸쓸한 심정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던 생면부지의 남녀가 소개군의 소개로 마주앉아 선

이라는것을 보고나서는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닦듯이 와닥닥 결혼을 해치우는 경우들을 목격할 때마다 준수는 실망하군 하였다. 아무런 애정도 없이 결혼하는듯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준수는 의혹을 느끼군 하였다. 그들은 마치 결혼후에 아이가 태여나리라는것을 확신하듯이 그렇게 차차 애정도 생기리라고 믿고 있는것 같았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준수는 자기도 점점 그길에 몰리워들어간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그는 주위사람들이 권고하는 결혼에 대하여 그들의 의사는 호의적이라는것을 알고 고맙게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자기를 얽매려드는것만 같아 한편으로는 불안스럽고 성가시기도 하였다.

준수에게는 높이 세운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 하루빨리, 한시바삐 《ス—1211》호를 연구해내야 한다—하고 생각할 때면 그는 언제나 시간의 부족을 느꼈다. 그런데 가정이란게 가뜩이나 부족한 그것을 더 부족하게 만들지나 않을가 두려운것이였다. 준수에게는 남편이니, 아버지니, 안해니, 가정이니 하는 개념들이 자기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낯설고 괴이쩍은것으로 지어는 두려운것으로까지 생각되였다.

준수가 명희를 결혼, 가정과 결부시켜 생각해보지 않은것은 어느정도 당연한 일이였다. 따라서 명희에 대한 준수의 관심을 애정이라고 한다면 어딘가 좀 정확치 못한 말일것이다. 명희만한 지성을 가진 남동무를 알게 되였다 하더라도 준수는 역시 그에게 매혹되였을것이다.

준수는 온밤을 꼬박 새우면서도 피곤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책 역시 손에 쥘수 없었다.

모든것이 뒤흔들리고있다는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준수는 명희와 헤여지고싶지 않았다. 그런데 명희는 2학년생으로, 준수는 1학년생으로 되겠으니 그들은 갈라지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었다. 주간생들과 달라서 통신생들은 학년별로 등교하기때문에 서로 다른 학년생들끼리 대학에서 만난다는것은 있을수 없

는 일이였던것이다.

별안간 마음이 답답해났다.

정말 방도가 없을가?…

려명의 빛발이 차창으로 비쳐들면서 렬차전등의 가열선조가 빨간 실처럼 드러났다. 렬차는 마치 멀리의 한 구석에 웅크리고있는 새벽을 향해 온밤 어둠속을 달려온것만 같았다. 희여스름한 푸른빛이 온 천지에 가득 어려있었다.

맑고 경쾌한 기적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다. 굽인돌이를 도는것이다. 굽인돌이를 돌아 조금만 더 가면 성룡구의 공장모습이 아득히 바라보인다. 드디여 목적지를 가까이 하게 된것이다.

그러자 준수는 불쑥 병원일에 대한 근심에 잠겼다. 함흥으로 떠나면서 준수는 새로 입직한 녀선생에게 하던 일을 급작스레 인계하였다. 그동안 무슨 일이 제기되지나 않았는지, 약국일은 다 제대로 되고있는지 근심이 되였다.

일요일이긴 하지만 나가봐야지.

준수는 선반에서 가방을 내렸다.

준수가 승강대의 발판에 나서니 세찬 바람이, 청신한 새벽공기가 그의 머리칼과 옷자락을 날렸다.

승강대손잡이의 차거운 촉감도 참으로 좋았다.

마침내 기차가 굽인돌이를 돌아나서자 공장의 전모가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안겨왔다.

공장이 뿌리내린 터전을 홍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기슭에 근 20메터 높이에 수천메터의 길이로 돌을 쌓았는데 강의 폭넓고 유유한 흐름이 그 석축의 밑벽을 감돌아흐르고있어, 더군다나 강우에 새벽안개까지 진하게 어려있어 멀리에서 바라보느라니 공장이 마치 대양의 검푸른 파도를 헤치며 항행중에 있는 초대형의 선박을 련상시켰다. 그 너머의 산기슭에는 각이한 높이에, 각이한 모양에, 각이한 색갈의 외장재를 바른 훌륭한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 편의봉사시설들이 빼곡이 자리잡고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찌보면 수십줄기의 색갈분수들이 서로 키다툼을 하며 뿜어오르고있는듯 하였다. 매 세대마다 2～3칸의 살림방들과 부

억, 전실, 위생실, 목욕탕, 창고와 함께 베란다가 2～3개씩 갖추어져있는 이 훌륭한 아빠트들에서 공장의 평범한 로동자들과 각이한 직종을 가진 종업원들이 살고있다.

이 모든것을, 공장과 주택지구의 전모를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준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있을 때와 같이 황홀한 감동에 휩싸였으며 건축은 굳어진 음악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스레 실감하였다.

준수의 눈앞에 이와 대조적으로 어제밤에 직접 본 고개의 험준한 산발들과 깊은 계곡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자식을 키워서는 그 높은 고개를 넘겨 벌방으로 내보내는것이 소원이라던 이 궁벽한 산골에 이처럼 현대적인 새 공업도시가 일떠선것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이처럼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생을 바치고계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의 불빛을 밝히며 밤을 지새우군 하는것 아닌가!

동시에 준수의 눈앞에는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치던 항일투사의 모습이 어려왔다. 그리고 육탄이 되여 불덩어리가 된 자동차를 벼랑밑으로 굴려버리고 포탄수송대와 어머니의 생명을 구원해낸 영웅전사며 피투성이가 되여 담가에 실려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 정치지도원이며 눈때문에 연구를 빨리 진척시킬수 없어 안타까이 모대기고있는 어머니등 이 제도, 이 생활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으며 싸우고있는 유명무명의 군상이 숭엄하게 떠올랐다.

나도 그들처럼 살리라!

준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 불같이 뜨거운 맹세가 깊이깊이 아로새겨졌다. …

어느새 역사가 눈앞으로 육박해오고있었다.

우유빛 문들과 문틀, 거기에 끼운 대형유리들, 직선미를 자랑하며 시원스레 쭉쭉 뻗어나간 적갈색 역사의 힘찬 선들… 낯익은 화물원이 손달구지에 잔 짐과 소포들을 싣고 앞쪽으로 뛰여가고있었다.

어깨에 멘 가방을 추슬러올리며 채 멎지 않은 렬차에서 그냥 뛰여내리려던 준수는 졸리는듯 한손으로 입을 막고 하픔을 하는 출표원처녀의 맞은켠에 서서 이쪽만 바라보고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아들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머니!

그는 뛰여내리지 않고 기차가 완전히 멎기를 기다렸다.

길을 떠날 때마다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하던 어머니를 근심시키고싶지 않았던것이다.

2

명희는 잠을 깼다. 밥을 해야겠는데 선뜻 일어나기가 싫었다.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을 했겠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열흘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다. 약국장선생이 매일처럼 찾아왔다지…

아버지는 명희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명희의 연구실인 웃방에 올라가 책상에 마주앉아 글을 쓰고있었다. 탁상등에 비쳐진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래방과 웃방을 가르고있는 미닫이에 길죽하게 그려졌다.

명희가 누워있는 아래방에도 탁상등의 빛발이 검붉은 안개처럼 차있었다.

아버지의 건강상태는 지금 말이 아니였다. 그런데도 시를 쓰는데와 명희의 연구를 돕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있었다.

오래전부터 앓고있던 아버지의 위병이 요즈음 더욱 악화되고있었다. 글을 쓰다가도 동통때문에 펜을 놓고 모지름을 쓸 때면 이마에 식은땀이 쭉 내돋군 하였다. 그런속에서도 잠시도 사색을 중단하지 않고 완강히 시도 쓰고 연구도 돕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뜨거워지군 하였다.

웃방에서 달가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소화제를 잡숫는 모양이였다. 오래동안의 침묵이 흐르더니 책장 번지는 소

리가 들려왔다. 부엌에서 똘랑, 똘랑 물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에 깃든 정적을 강조해주고있었다.

수도꼭지를 꼭 막느라 했는데…

얼핏 벽시계를 보니 3시였다. 명희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무리 탁상등의 불빛이 희미해도 벽시계의 바늘을 잘못 볼수는 없었다. 몇시에 잠들었든지 관계없이 아침 5시면 일어나는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굳어진 습관이였다. 그는 눈을 뜨면 구태여 시계를 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나가군 하였다.

이상한 일이였다. 왜 3시에 일어났을가? 혹시 시계가 잘못된것이나 아닐가?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창문에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캄캄하였다. 어찌도 캄캄한지 총총히 돋은 별들만 없었더라면 뒤산과 하늘의 경계마저 알아낼 도리가 없었을것이다. 그저 눈앞에 검은 비로도장막같은것이 드리워져있는듯 하였는데 그 장막의 웃부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흰점들이 널린데까지는 하늘이요, 그렇지 않은데는 뒤산일것이라고 짐작이나 할수 있을뿐이였다. 이쯤되면 3시가 맞을것이다. 5시에 일어나 밖을 내다볼때는 이렇지가 않았다.

시계가 잘못된것이 아니다.

명희는 창가에서 물러나 자리에 가서 누웠다.

다시 잠을 청하려 모로 돌아누워 베개와 뺨사이에 포갠 두손을 밀어넣고 눈을 살풋이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무엇이 정상생활의 리듬을 깨뜨렸을가. 명희는 눈을 감은채 곰곰히 더듬어보았다. 어제 하루의 일이 흡사 안개속에 잠긴듯 어렴풋이 기억에 떠올랐다.

어제 낮 2시에 렬차로 함흥을 떠나 집에는 저녁에 도착했고 오늘은 일요일이니 병원에 나갈 필요가 없지. 래일 출근하면 원장선생과 약국장선생에게 그간 일을 보고해야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불현듯 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잠기가 채 가시지 않은 명희의 마음속에 자욱히 서리였던 안개는 삽시에 흩어져버렸다. 어제의 그 생신한 감정이 새로운 힘으

로 되살아났다.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꿈결에 눈을 뜬것 같기도 하였다.

준수의 인상적인 시선이 자기를 똑바로 주시하고있었다.

준수의 눈길—그것은 날카롭게 찌르는듯한 눈길이였다. 육체의 힘은 근육과 골격에 어려있고 정신력은 눈빛에서 나타난다. 준수의 눈길에서는 상대방의 넋을 제압하고 휘여잡는 정신적에네르기의 강력한 흐름이 느껴졌다. 그 눈길을 생각하느라니 가슴속에서 혈액인지 불길인지 그 무엇인가가 끓어넘쳐 온몸으로 퍼져나가는것이였다. 그것은 수천의 혈관벽마다를 동시에 찌르르 저려들게 하는 이름못할 쾌감이였다.

명희는 눈앞이 아찔해서 한동안 숨을 죽이고 그 전률이 서서히 사라짐을 즐기였다. 손가락마디들의 전률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는데 어찌나 나른한지 가볍게 주먹조차 쥐기 힘들었다. 명희는 문득 자기가 다 자란 녀성임을 깊이 느끼게 되였으며 왜서인지 저도모르게 호— 한숨을 내쉬였다.

웃을 때 준수의 눈은 부드러워지지만 그 부드러움은 날카로움보다 더 강렬하게 가슴을 찌르는것이였다. 만일 렌즈로 해빛을 모아 종이에 쪼일 때 그 백광이 바늘끝처럼 집중된 점에서 가물가물 연기가 서려오르다가 마침내 벙끗 불이 달릴 때 종이장이 무엇인가를 느낄수 있다면 지금 명희의 심정과 아주 비슷한것을 체험했을것이다.

명희는 이때까지 준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본적이 없었다. 그의 이야기들은 추운 겨울날 목욕탕에서 땀을 흠뻑 흘리고 밖에 나섰을 때 얼굴을 후려치는 찬바람과도 같이 그의 마음을 정열과 생신한 감정으로 충만시키는것이였다.

참인간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렇게 말할수 있겠는지… 명희는 지금까지 한학년이라도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학생은 보아왔지만 자진하여 아래학년으로 내려가려는 학생은 처음 보았다. 그의 말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깊은 의미로 안겨왔다.

명희는 대학통신을 시작하면 당분간 연구를 중지하리라 생각했었으며 그것을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던가. 또 영어를 몰

라 연구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었지만 아직까지 영어를 시작할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현재의 두개 외국어지식에 만족하면서 인민대학습당의 론문들을 번역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지식을 더욱 넓히고 외국어를 보다 더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울데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있었다.

준수를 만나기 전에 명희는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일종의 만족이 아니였는가 하는 의혹을 금할수 없었다. 불덩어리인양 정열과 기백에 넘쳐 《ㅈ》약물연구라는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고있는 준수를 보느라니 어떤 거울앞에 선듯 하였는데 어쩐지 그 거울에 비쳐진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기가 저어되였다. 준수는 순간이나마 자기 만족의 잠에 빠져들번 했던 처녀를 소스라쳐 깨여나게 한 요란한 천둥소리였으며 머리속에 끼여들려고 하던 곰팽이들을 낱낱이 드러내보인 번쩍이는 번개였으며 맥없이 드리워지려고 하던 그의 정신을 변함없이 높은 리상을 향해 기폭처럼 나붓기게 한 거센 돌풍이였다. 갈기를 불길처럼 날리는 경쾌한 준마가 자기를 아득히 뒤떨구며 달리고있는 모습이 방불히 떠올랐다. 같은 대상을 연구하고있다는 의미에서 이를테면 경쟁대상자라고도 할수 있었지만 준수에 대하여 시기심이나 질투심 같은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고 친근한 감정만이 가슴 가득히 차오를뿐이였다. 그와 헤여지고싶지 않았다. 그 준마와 함께 달리고싶었다.

그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자기의 외모에서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명희는 자기 내부에서 질적인 비약이 일어났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떤 변화인가?

단순히 정신적앙양만은 아니였다. 그것은 그 자신도 전모를 다 알수 없는것이였다.

그럼 종전의 자기는? 그것은 철부지소녀였던것 같았다. 난생처음 체험해보는 이런 감정이 마치 자기를 어른으로 만드는것 같았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사랑인가?

명희의 까만 눈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내비치는 행복스럽고 강렬한 불꽃이 확 타오르기도 하고 가뭇없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더

우기 놀라운것은 그것이 스스로 의식되는것이였다. 어둠속에서 빛나고있는 자기 눈의 밝은 빛을 스스로가 보는것만 같았다.

명희의 두볼은 빨갛게 물들었다. 그는 스스로도 무엇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똑똑히 알수가 없었다. 처녀의 가슴속에는 리성에 의해서만 얻어진것이 아닌 그 무엇이 생겨났다. 그것을 리성으로써 따져보기가 부끄러웠던것이다.

명희는 총각들로부터 도고하고 쌀쌀하다는 말을 듣는 그러한 처녀였다. 그것은 감정이 메마르거나 거만해서가 아니였다. 아직 마음에 드는 동무를 찾아내지 못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웃어주면서 자기를 조금씩 소모하기는 싫어하는 진정한 열정의 소유자이기때문이였다. 지나치게 뜨겁기때문에 오히려 차겁게 행동하는 성격의 처녀였다. 준수는 그 처녀가 처음으로 뜨겁게 대한 첫 총각이였다.

준수와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있었고 자기와 그의 관심은 완전히 공통되는것이였다. 명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마음에 든것은 준수가 자신의 용모보다도 자기와의 정신적교제에서 즐거움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의식한 바로 그 점이였다. 그가 자신의 지적높이를 알아보고 거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는 사실은 명희의 허영심을 자극하여 교만하게 만든것이 아니라 준수에 대한 진심으로부터의 존경을 품게 만들었다. 만일 준수가 자기의 용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전혀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였다면 명희는 그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였을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 벌써 명희는 그에게 반하였다. 그는 이것을 자기자신에게 고백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이 순간적인 기분에 지나지 않는것일가?

그리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버리고말 그러한것인가? 그렇게 될수밖에 없지. …

그는 1학년에 응시했으니 우리는 헤여진셈이지. 같이 달려오던 두 기차가 한 역에서 동시에 멎었어. 거기서 우리 둘은 우연히 알게 되였지. 서로 호감을 느꼈어. 이야기를 얼마 나누지 못했는데 호각소리가 울렸어. 그래서 우린 서로 타고오던 기차에 바삐

올랐지. 드디여 기차는 서로 다르게 출발했고 지금도 달리는중이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멀어질게야. 이런 경우에 시간은 우리의 리별에 복무하지. 그렇다고 그 역에서 내가 타고오던 기차를 버리고 그의 기차에 오를수는 없는게고. 난 결혼이니 가정이니 하는건 생각하고싶지 않아. 물론 때가 오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쳐오겠지. 그런데 그 기차가 무인지경의 암흑속을 달리는건 아니거든. 새라새로운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며 새라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지거든. 가까이 있는 작은 산이 멀리 있는 큰 산을 가리우듯이 오늘의 작은 사람들이나 작은 인상이 어제의 큰 사람들이나 큰 인상들을 가리울수 있는 법이야. 동녘에 떠오르는 태양은 언제나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안겨주지. 사람마다 아침에 일어나며 오늘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것이지. 어제 한 일과 그때의 사람들에 대한 추억에 잠겨있을수는 없는게야. 이렇게 생활의 기차뒤로 하루하루가 철길의 침묵처럼 사라지고 어느때인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아지랑이만 있을뿐이지. …

명희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아래쪽 집들에서 산촌의 새벽고요를 깨뜨리며 닭이 홰를 치고있었다.

《꼬끼요―》

명희네 집의 닭들도 뒤질세라 한껏 청을 돋구었다. 아득한 메아리처럼 여기저기서 닭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어린 뒤창을 바라보니 거무스레한 복숭아나무가지와 잎사귀들이 푸르러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판화처럼 선명히 드러나고있었다.

그래, 쓸데없는 생각에만 잠겨있을수 없지. 오늘은 일요일인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색다른 음식을 해야지. 무엇을 할가?

명희는 한참 궁리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천천히 가리우는것이다.

이때 갑자기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쳤다. 거울앞에 서서 머리칼을 쓰다듬

으며 수건을 쓰고있던 명희는 급히 웃방의 미닫이를 열었다.

아버지는 걸상에 앉은채로 상반신을 책상에 쓰러뜨리고있었다. 넘어진 물고뿌에서 흘러나온 물이 원고지를 적시고있었다.

아버지는 그전부터 이런 발작을 드문히 일으키군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회수가 잦아지고있었다. 그때마다 명희는 빨리 위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안타까이 설복을 했지만 아버지는 《이번 작품만 끝내고서는…》라는 말마디만 되풀이하면서 응하지를 않았다.

명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직일의사를 데려다 구급대책을 취했다. 의사가 돌아간 후 명희는 다시한번 야단을 쳤지만 아버지는 그저 이번에도 《지금은 바쁘니 틈이 생겼을 때 보자.》는 늘 하던 말을 다시한번 외웠을뿐이였다.

3

드디여 고대하던 입학통지서를 받은 준수는 지적된 날자에 함흥역에 도착하였고 지적된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대학을 향하여 부지런히 함흥의 거리를 걸어가고있었다. 그런데 별스럽게 오한이 나는감이 들었다. 감기가 들려는것 같았다.

준수는 감기쯤은 병으로 치지 않았고 그로 해서 사업에 지장을 받아본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남달리 건강해서라기보다 예방의 묘리를 알고있기때문이였다. 감기의 징조가 느껴질 때면 그는 지체없이 한증칸에 가서 땀을 쭉 내군 하였다. 《랭》을 《열》로 쫓는것이다. 준수는 이 방법에 재미를 보았다. 모든 치료방법이 그러한것처럼 여기서도 그 시기가 중요하였다. 몸이 오슬오슬해오는 그때를 놓치면 효험을 보지 못할수도 있었다.

준수는 바로 지금이 한증을 해야 할 때라는것을 알고있었지만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입학통지서에는 《×일 오후 2시까지 교무과(통신)에 도착보고를 할것》라고 찍혀있는것이다. 벌써 1시가 넘었다. 역에서 대학까지는 걷는다면 한시간은 걸린다. 그러니 효

험은 덜 하겠지만 한시간쯤 뒤로 미룰수밖에 없었다.

…그저께 아침 준수는 도에 있는 도의약품공급소에 약을 타러 갔었다. 공급받은 약들을 포장하여 창고의 한구석에 쌓아놓은 다음 그는 의료기구수리공을 찾아갔다. 수리공은 부탁했던 수증기증류장치를 만들어놓았다. 그가 하고있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설비였다. 공급소직원들이 퇴근한지도 오랬는데 전극을 실러 간 자동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달에 한번씩 약을 타러 갈 때마다 공장자동차신세를 지는것이다. 준수는 경비실에 앉아 경비원아바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다. 저물무렵에야 자동차가 왔다. 시꺼먼 구름장들이 덮인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거렸다. 소나기가 쏟아질 징조였다. 운전사는 깨질 우려가 있는 약들은 운전칸에 싣자고 하였다. 전극 6개를 한벌 깐 우에 철판을 열장쯤 덧 실었기때문이다. 증류장치의 직경은 반메터정도 되였지만 길이는 거의 사람키만 하였다. 운전칸에 실을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적재함에다 굴릴수도 없었다. 할수없이 준수는 적재함에 올라가 그것을 어린애이기나 한듯 품에 안았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졌다. 도에서 준수네 병원까지는 100여리남짓하였는데 높고 험한 령이 두개씩이나 있었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와 찬바람을 맞으며 준수는 두시간동안이나 덜덜 떨었다.

전극이라는것은 아름드리 흑연기둥과도 같다. 그우에서 몇번이나 뒹굴었더니 옷이며 얼굴이며가 온통 탄범벅이 되고말았다. 철판들이 이리저리 밀리며 쾅쾅 부딪치는 소리는 우뢰소리보다 더 요란했다.

과연 언제면 《ス－1211》호를 성공시켜낼수 있겠는지…

준수는 턱에 연신 락수물처럼 맺히는 물을 쥐여뿌리며 긴 한숨을 내쉬였다.

병원에 도착하니 저녁 9시가 다되였다. 래일은 입학통지서를 가지고 대학으로 출발해야 했다. 가기 전에 이 장치의 성능을 시험해보고싶었다.

준수는 밥을 먹고 다시 병원에 나왔다. 증류장치를 둘러메고 주사약제제실로 내려갔다. 주사약제제실은 병원건물과 떨어져 공

장구내에 있었다.

먼저 그 장치에 수증기를 불어넣어야 했는데 그러자면 수증기발생장치가 있어야 했다. 시간당 필요한 수증기의 량을 계산했다. 그만한 량의 수증기를 발생시키자면 10리터의 물을 50분만에 끓게 할 정도의 열원이 있어야 했다.

열원은 극판식가열장치를 쓰기로 했다. 그런데 야단이였다. 필요한 열량을 내게 하자면 극판의 넓이를 얼마로 해야 하겠는지, 또 극판사이를 어느만큼까지 접근시켜야겠는지 아무리 해도 계산해낼수가 없었다. 현장에 나가 아는 기사 몇명을 붙잡고 물어보았으나 그들 역시 고개만 기웃거리더니 후에 알려주겠다는것이였다. 준수는 당장 만들고싶었다. 바께쯔에 대충 짐작으로 만든 불수강극판을 설치하고 10리터의 물을 부은 다음 스위치를 넣었다. 15분이 되니 물이 극판사이로 맹렬히 순환하면서 끓기 시작했다. 준수는 장치를 해체하고 500메터쯤 떨어진 곳에 있는 제관직장에 가서 극판을 좀 잘라냈다. 다시 해보니 40분만에 끓는것이였다. 세번째는 한시간이 넘어도 끓을념을 안했다. 다시 용접으로 붙여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깊은 밤중에 불수강용접봉을 얻기가 힘들었다. 한시간동안 여러 직장을 돌아다녀서야 겨우 구했다. 이런 식으로 주사약제제실에서 제관직장사이를 다섯번 왔다갔다하여서야 요구되는 능력의 극판식가열장치를 만들어낼수 있었다. 그러다나니 밤을 꼬박 새웠다. 온밤 비가 내렸고 그때 감기에 걸린것 같았다. …

준수는 수학의 의의를 절감했다. 능력있는 기사라면 단 몇분동안에 계산해낼수 있는 문제를 준수는 온밤 고생을 하면서 풀어냈던것이다.

정신로동은 인간의 육체가 수행하는 단순로동에 비할수 없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꼈다.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정신로동을 능숙히 수행해낼수 있도록 자기의 두뇌를 부단히 련마하여야 할것이다. …

준수는 눈길을 들었다. 왼쪽으로 아아히 치솟은 화학공업대학의 청사가 바라보였다. 준수는 그쪽에 시선을 준채 계속 걸으면서 생

각에 잠겼다.
저 수백개의 방마다에서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두뇌의 숙련을 쌓고있겠지.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게고 간혹 게으른 사람도 있을지 몰라.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하겠지만 점점 그사이는 벌어질게거든. 부지런한 학생들은 앞으로 연구소와 공장이 보배로 떠받드는 능력있는 기사로 될테지만 게으른 학생들은 어디에서도 반가와하지 않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되고말것이다.
편안히 사는것보다 힘들게 사는것이 더 옳지 않을가. 당과 인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속에 나의 행복도, 존재가치도 있는것이다.
준수는 갑자기 누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명희였다.
순간 준수는 심장이 흠칫 떨리는것을 느꼈다.
명희는 어떤 중년의 녀인과 마주 서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던중인것 같았다. 그 역시 대학으로 가는 길인 모양이였다. 처녀는 준수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있었다.
준수는 멍하니 처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조차도 없었다. 눈길은 처녀에게로 향해 있었지만 명희가 웃고있다는것밖에는 그 처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굴의 륜곽은 어떠한지 알수 없었다. 잠에서 방금 깨여난 사람의 의식상태와도 비슷하였다. 처녀의 명랑하게 빛나는 두개의 까만 눈동자만은 똑똑히 의식했다.
여름날 정오의 태양을 올려다보라. 둘레가 명확치 않은 흰 불덩어리가 번쩍이고있다는것밖에는 아무것도 보아낼수 없는것이다.
명희가 물었다.
《대학으로 가는 길입니까?》
준수는 스스로도 리해할수가 없는, 내심의 흥분과 이상하게 모순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였다.
하지만 심장은 달음박질이나 하듯이 세차게 고동쳤다.
명희가 미소를 지으며 부탁했다.
《잠간만 기다려요. 같이 갑시다.》
준수는 이번에도 역시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여보이고는 대

학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왜 이럴가? 스스로 놀라는 심정이였다. 그러나 알고싶지 않았다. 아니, 그것이 두려웠다. 머리만 돌리면 볼수 있는것을 굳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와도 비슷하였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생활에서 매우 심각한것이라는것이 어렴풋이 예감되면서 마음은 몹시 두근거렸다.
하던 이야기를 마저 끝낸 명희가 인차 뒤따라왔다. 서로 이말저말 나누었지만 그것은 토막토막 부스러져버리군 했다.
여태껏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신상태에 잠긴 준수는 명희를 대하기가 어렵고 서먹서먹한 감을 느꼈다. 그는 명희가 의아해하는 눈치를 차렸으나 흥분된 마음과는 달리 우울해보이는듯한 표정과 목소리를 바꿀수가 없었다.
언제 대학에 도착했는지 교무과(통신)에 들어가서는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명희와는 어떻게 헤여졌는지 잘 기억되지 않았으며 그저 그 모든것이 꿈속에서 진행된것만 같았다.
준수는 혼자서 발길이 내키는대로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사위를 둘러보니 구내공원속이였다. 저쪽 앞에 수삼나무 한그루가 솟아있고 그옆에 긴 걸상이 놓여있었다.
준수는 그 걸상에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오래동안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좀 진정하고싶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아무 생각도 안하려고 노력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지금 준수는 마음의 창공에 높이 솟아 조용히 뒤설레고있는 《사랑의 나무》의 알아들을수 없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잊고있었다.
몽롱하면서도 짜릿하고 그윽한 정서가 노을처럼, 봄비처럼 그의 마음을 붉게 물들이고 포근히 적시였다. …
갑자기 정신을 차린 준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4시였다. 그러니 여기에 한시간가량 앉아있은것이다.
준수는 놀랐다. 그는 20분쯤 지나간것으로 생각하였던것이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란 이러한것이다. 연착된 기차를 기다릴 때

에는 매초의 흐름을 의식하지만…

준수는 시간 그 자체를 잊고있었던것이다.

대학으로 올 때만 해도 도착보고를 한 다음에는 인차 어느 한증탕에 가서 땀을 내려고 했던 그가 아닌가.

준수는 이미 땀을 낼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감기는 깨끗이 나은것이다. 오싹오싹한 랭기는커녕 온몸에서는 후끈후끈 열기가 풍기고있었다.

무엇인가가 그사이 그의 몸을 덥힌것이다. 물론 그것은 숨을 막는듯 하고 살을 익히는듯한 한증칸의 뜨거움으로 인한것은 아니였다.

가마의 물을 덥히자면 가마밖에서 열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을수 있다. 시뻘겋게 단 쇠덩어리를 가마안에 던져넣으면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쇠덩어리는 흰 솜뭉치인양 둘레가 온통 거품에 휩싸이며 물은 끓어오른다. 삽시에 뜨거워진 가마의 물 전체가 쇠덩어리둘레를 순환하면서 그물그물 김을 피워올린다.

몸을 덥히는데도 두가지 방법이 있는것이다. 만일 심장이 어떤 원인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면 그 속을 거쳐 전신으로 퍼지는 피도 역시 뜨거워질것이며 온몸도 달아오를것이 아닌가.

명희의 방긋 웃는 얼굴을 쳐다본 순간 준수의 심장은 가마속에 던져진 쇠덩어리처럼 끓어번졌다.

준수의 몸이 더워지고 감기가 떨어진것은 조금도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며 필연적인 결과인것이다.

준수는 명희와 같이 공부하면서 그와 함께 《ス—1211》호연구를 하고싶었다. 과학탐구의 어렵고도 먼길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함께 헤쳐나가고싶었다. 오로지 그뿐이였다. 이 일념에 비추어볼 때 다른 감정이란 시시하고 보잘것 없는것이였다.

그런데 명희의 생각은?

여기까지 생각하고난 준수는 허구픈 웃음을 짓고말았다.

상대방은 생각지도 않는데 제 혼자 가슴 태우는것만 같이 생각되였던것이다.

다음날이였다.

첫 강의를 시작하기 전 준수는 교무과(통신)로 향했다. 2학년 편입문제를 제기하려는것이다. 그러나 교무과(통신)가 가까와올수록 그 장벽은 높아만 갔고 그에 따라 점차 느려지던 걸음은 출입문을 몇발자국 남겨두고는 멈춰지고말았다. 준수는 한동안 그자리에 서있다가 되돌아서고말았다.

첫 강의는 인체해부학이였다. 소순환과 대순환에 대한 교원의 설명을 지루하게 들으면서 준수는 1학년에 편입하려고 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것임을 깨달았다.

시간랑비다, 시간랑비야…

누군가가 줄곧 귀가에 대고 이렇게 중얼거리는것만 같았다. 하여 그의 용기는 차츰 자라났다.

강의가 끝났을 때 준수는 다시 교무과(통신)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문앞에서 멈춰서고말았다.

되돌아설가, 들어가볼가?…

장벽은 또 까마득히 높아졌다. 마침내 되돌아서려는데 누군가가 이쪽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처음에는 검은 그림자 같던 그 모습이 차츰 가까와오면서 얼굴이 확연히 안겨왔다. 교무과(통신) 부과장이였다.

《왜 왔소?》

《…》

준수는 얼굴만 붉혔다.

《무슨 일이요?》

그는 시간이 없다는듯 재촉하였다.

준수는 용기를 냈다.

《전 전문학교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 생각하고 1학년에 응시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2학년에 편입할수는 없습니까?》

말을 하면서도 준수는 자기의 제기가 접수될수 없음을 느꼈다.

부과장은 이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하는듯이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동무, 우리 대학의 통신생이 모두 천명을 넘소. 그런데 그들을 맡은 교무일군은 두사람뿐이요.

통신생모두가 동무처럼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교무과일이 어떻게 되겠소. 또 그건 대학입학규정과도 어긋나오.》

준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의 말이 너무나도 옳았기때문이였다.

두번째 강의는 무기화학이였다. 교원은 원소주기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원자구조에 대한 량자론적개념을 주기 위하여 무진애를 쓰는 교원을 바라보며 준수는 다시금 후회에 잠겼다.

시간랑비다, 시간랑비야…

누군가가 또 중얼거리기 시작하였다.

이제와서는 로어를 얼마든지 석달동안에 해치울수 있을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나는 공연히 1년을 잃어버리는셈이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준수는 다시 교무과(통신)를 찾아갔다.

준수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한구석에 고집스럽게 두시간나마 뻗치고 서있었다.

차거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던 부과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동무는 전문학교졸업생인데 왜 1학년에 응시했소?》

《로어를 새로 배우려고 했기때문입니다.》

준수는 왜 그런지 이이상 더 설명하고싶지 않았다.

《지금은 포기했소?》

《아닙니다. 다만 1년이 아니라 몇달내에 배우기로 결심했을뿐입니다.》

부과장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혹시 2학년편입시험이 자신없어서 뒤걸음쳤다가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쾌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2학년에 올라가야 할 절박한 필요라도 새로 생겼소?》

준수는 말문이 막혔다. 내 말을 들으면 부과장은 웃을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준수가 붉어진 얼굴로 난처해하는것을 보면서 부과장은 오해를 더욱 굳히였다.

(이런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해야겠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만일 2학년에 편입한다면…》

여기서 그는 말을 끊고 상반신을 약간 앞으로 숙인채 안경너머로 준수의 얼굴을 엄격히 바라보았다.

《그래, 그 기간에 로어를 해낼수 있겠소? 욕망만으로는 안되는거요.》

《해내겠습니다.》

《그래, 재시험을 엄격하게 조직한다고 해도 응하겠소?》

《예!》

반가왔다. 사실 준수도 재시험을 요구하러 온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일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만일 거기서 떨어진다면?》

《두번다시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준수는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그것은 재시험에서 틀림없이 통과되리라는 확신에서라기보다 부과장이 자기를 어느정도 의심하고있다는것을 느꼈기때문이였다. 시험에서 억울하게 떨어질수도 있다. 허나 두번다시는 애원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부과장은 즉시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날은 마침 교무과(통신)가 조용하였다. 《회의중》이라는 패쪽을 출입문밖에다 내건 다음 준수를 가운데 놓고 일문일답식의 시험이 시작되였다.

첫 시험은 분석화학이였는데 문제는 비수적정에 대한것이였다. 전문학교때 그 문제가 잘 리해되지 않아 여러 참고서까지 구해다보면서 연구한적이 있어 어렵지 않게 대답하였다. 분석화학교원은 나이가 지숙한 녀성이였다. 눈을 감은채 묵묵히 듣고만 있던 그 교원은 짤막하게 한마디 던졌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은 무기화학이였는데 문제는 원소주기계에 대해 설명하라는것이였다. 얼핏 생각하건대 단순한 문제 같지만 사실 그에 대한 리해정도는 학생의 화학전반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가장 유력한 척도로 될수 있었다. 무기화학교원의 수준이 느껴졌다. 준수는 량자론적견지에서 매우 상세하게 대답하였다.

세번째는 수학이였는데 문제는 각이한 그라프들을 식으로 표시하라는것이였다. 준수는 수학이 제일 자신 없었는데 수학교원은 다행히도 후한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은 외국어 즉 영어였다. 영어교원은 웃으면서 부과장에게 미는것이였다. 부과장은 교무행정사업을 하면서도 짬짬이 통신생들의 외국어강의를 집행하군 하였었다. 그는 대학적으로 손꼽히는 영어의 권위자였다. 그는 철함에서 유기합성화학에 대한 두툼한 원서를 꺼내 준수에게 주었다.

준수가 뚜껑을 번지니 첫장 여백에 《애인보다도 과학을 더 사랑하시는 선생님에게. 평양외국문책방에서 1966년 봄 제자로부터》라고 쓴 영어문장이 보였다. 준수는 임의의 곳을 펼쳐들고 선자리에서 거의 조선말로 된 책을 읽어나가는 속도로 번역해나갔다. 페지마다에 괴이한 용수철처럼 늘어서있던 검은 글줄들은 즉시로 지구의 저쪽 어딘가 멀리에서 유기물합성의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미 생각해본 현명한 사람의 견해로 변하여 장내에 울려퍼졌다. 그 긴장속에서도 준수의 머리 한구석에 과학에서의 계승과 혁신에 대한 생각이 피뜩 스쳤다.

부과장은 몹시 놀랐다. 그는 사전없이 저런 속도로 번역하려면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교육자였던것이다. 부과장은 또 한페지를 넘기려는 《애군》을 제지시켰다. 그는 만년필 뒤등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머리를 들었다.

《만일 동무만 동의한다면 우리는 해당한 절차를 밟아 동무를 주간생으로 3학년쯤에 편입시킬 의향도 있소. 어떻게 생각하오?》

그의 제의는 교무과(통신)에 재시험을 위하여 모였던 5명의 각 과목교원들의 호응을 받았다. 지어 분석화학교원은 이 동무는 약제학부보다 합성제약학부가 더 적합할것 같다는 의견까지 첨부하였다.

한동안 망설이던 끝에 준수는 대답하였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통신으로 대학을 마치겠습니다.》

부과장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것도 좋지. 통신연구원도 있고 통신박사원도 있으니까. 일하면서도 공부는 얼마든지 더 잘할수 있소.》

불과 몇시간전 2학년 편입문제를 제기하러 찾아왔을 때 준수는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하였었다. 그는 복도의 한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나약해지려는 자신을 채찍질했다.

나는 10년후에라도 지금 이 순간의 일을 추억해볼 때 떳떳한 긍지감을 느낄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스스로의 비겁성에 수치를 느끼거나 나약성을 혀를 깨물며 후회하게 되여서는 안된다.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수를 피뜩 쳐다보는 부과장의 시선에 어려있던 랭담은 수천개의 바늘로 변하여 그의 온몸을 찌르는것이였다. 그 바늘들은 아마 얼음바늘들인 모양인지 몹시도 아프고 차거웠는데 몇분전에 겨우 일으켜세운 용기를 삽시에 움츠러들게 하고 식혀버리였다.

준수는 자기가 알고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 대한 일화들을 모두 되새겨보며 두시간을 서있었었다.

그러나 재시험이 끝난 지금 준수를 바라보는 부과장의 눈길은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과도 같았다. 방안에는 따사론 봄빛이 차넘치는듯 하였다.

전국의 수많은 통신대학생들을 매일같이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엄격한 대학의 교무일군과 말썽꾸러기 신입생사이의 공식적이며 딱딱한 관계는 사라졌다. 그들의 가슴속에 넘치고있는 과학에 대한 사랑은 하나로 합류되면서 두사람을 순간에 스승과 제자로 만들었다.

부과장은 준수에게 많은것을 묻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문제는 간부들과 합의를 하고 결론을 받아야 하는것만큼 그동안은 1학년 전망강의를 받으시오.》

그때 부과장의 눈길과 어조에는 준수를 안심케 하는 부드러움이 스며있었다.

제3장 탈 선

1

드디여 2학년 편입문제가 결정되였다는 기쁜 소식을 안고 준수가 돌아온지 닷새후 윤수는 통신박사원에 2년동안이나 품들여 준비한 학위론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함흥으로 출발하였다. 물론 도소재지에서 직접 떠난것은 아니고 성룡구에 있는 집에 들렸다가 거기서 함흥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속을 뚫고 렬차는 기세차게 달리고있었다.

윤수는 련속 후려치는 비바람을 맞아 시멀건 얼룩을 그리며 쉴새없이 《식은땀》을 흘리고있는 차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의 눈길은 푸르싱싱하게 잘 자란 벼로 뒤덮인 벌에 향해져있었지만 마음은 함흥역에 도착했을 때도 이런 기세로 비가 쏟아져내리면 야단인데 하는 근심에 잠겨있었다. 옷이 흠빡 젖기만 하면 야단이였다. 윤수는 대학통신이요, 통신박사원이요 하면서 오래동안 다니고있었지만 아직 함흥에 이렇다할만 하게 아는 집이 없었다. 설사 아는 집이 있다 해도 그는 비맞은 수닭처럼 꾀죄죄한 몰골로 뛰여들어 갈아입을 옷을 좀 주시오 하고 손을 내밀기보다는 차라리 기숙사의 호실에 들어박혀 체온으로 옷을 말려 입는 편을 택했을것이다.

그런데 젖은 옷쯤은 그렇게 처리한다 쳐도 가방안에 들어있는 학위론문이 문제였다. 다른 책들 즉 교과서, 참고서, 원서, 자료집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 학위론문만은 절대로 젖어서는 안되는 것이였다.

기차가 함흥시거리가 가까이 바라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에도 비

는 여전히 그칠줄을 몰랐다. 역에서 대학기숙사까지는 걸어서 한시간은 실히 걸린다. 그만한 시간동안 비속을 걷느라면 가방안의 책들은 몽땅 못쓰게 되고말것이다. 윤수는 역기다림칸에서 비가 멎을 때까지 몇시간동안이건 기다리리라 결심하고 보던 책을 집어넣기 위하여 선반에서 가방을 내리웠다. 가방의 쟈크를 연 순간 그는 처음 한동안은 어리둥절해졌고 뒤이어 가슴이 철렁해짐을 느꼈다. 모양이나 색갈 지어 무게까지도 신통히 비슷하였지만 그것은 자기의 가방이 아니였던것이다.

책들만이 가득 차있던 그의 가방과는 달리 이 가방안에는 밑에서부터 절반쯤까지는 도마도가, 그우에는 작업복 한벌과 말린 명태를 넣은 길죽한 비닐봉지, 종이에 싼 100미리 못 등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허둥거려지는 마음을 애써 누잦히며 곰곰히 돌이켜보니 짚이는데가 있었다.

윤수는 어느한 역에서 기차를 갈아탔는데 그 기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하여 이미 상당한 속도를 냈을 때 안경을 낀 중년의 사나이가 헐레벌떡거리며 달려와 겨우 승강대의 란간에 매달리는것이였다. 윤수는 비발에 흐려진 차창밖으로 그 위태로운 광경을 조마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잠시후 그 사나이는 윤수네 차칸에 나타났는데 그의 젖어서 축 늘어진 길다란 머리카락들에서는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지고있었다. 그 사나이는 두리번거리며 윤수쪽으로 다가오더니 손에 들고있던 가방을 선반우에 올려놓고 바로 윤수앞의 빈자리에 앉는것이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나이는 책을 펴들고 거기에 몰두해버렸다. 슬쩍 넘겨다보니 번역판탐정소설인것 같았다. 한시간정도 달린후 한 역에 섰던 기차가 다시 떠나기 시작했을 때에야 그 사나이는 갑자기 머리를 쳐들더니 《여기가 어디요?》 하고 묻는것이였다. 어느 역이라는 소리를 듣자 그는 덤벼치며 선반우에서 가방을 내리웠다. 그 사나이는 《미안합니다.》를 련발하며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치면서 승강구를 향해 허둥지둥 달려갔다. 꽤 내릴수 있겠는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도 내린 모양인지 다시 나타나지를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가방이 신통히도 자기의 가방과 꼭 같은것이였다.

그때 그 사람은 나란히 놓여있던 두개의 꼭같은 가방중에서 윤수의것을 집어들고 내린것이다. 혹시 가방안에 임자의 주소와 직장, 이름을 알만 한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그런것은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는 대학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사나이가 거기에 제발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윤수의 가방안에 들어있는 책들의 뚜껑마다에는 대학이름과 통신박사원 아무개라고 씌여져있었던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윤수는 손맥이 탁 풀리고 다리맥이 빠져서 걸상에 주저앉아버렸다. 이제는 비에 대한 근심같은것은 천리밖으로 날아가버렸다.

《ㅈ－1211》호연구에 착수한 때로부터 윤수는 언제 날이 밝고 지는지 모르면서 연구를 이악하게 해나갔다. 한편 통신으로 약학대학에도 다니였다. 병원일도 할래 연구도 할래 통신공부까지 할래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윤수는 연구사업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보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다. 만일 윤수가 그 기간에 그만한 정력으로 삽질을 했더라면 아마 거대한 산봉우리 하나를 쌓아올리고도 남았을것이다. 그 밑뿌리에는 자기를 기대와 안타까움이 어린 눈길로 지켜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연구사업을 도와주고있는, 난치의 눈병으로 하여 정신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어머니를 실망케 해서는 안된다는 자각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기어코 성공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떨쳐보자는 야심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전망이 내다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차츰 불안과 위구를 느끼게 되였다. 5년전 동생이 군대에서 중앙대학추천을 받고도 부득부득 《ㅈ－1211》호연구에 합세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해왔을 때 그는 단호히 반대했었다.

그러나 동생은 끝끝내 지방의 의학전문학교에 갔고 졸업후에는 성룡구로 배치를 받았다.

동생이 지금은 기어이 성공시키겠다고 기세충천해있지만 그가 자

기이상의 능력을 내리라고 윤수는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자기의 전철을 밟게 되리라는것을 그는 처음부터 내다보고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동생의 결심을 지지해나서니 윤수로서는 어쩌는수가 없었다.
윤수가 동생이 연구에 나서겠다는것을 반대했다고 해서 자기까지 물러설 생각을 한것은 전혀 아니였다. 그는 일단 내짚은 걸음이니 되든안되든 끝장을 보자는 비장한 결의를 안고 하루하루를 악전고투 하고있었다.
《ㅈ－1211》호연구에 착수해서부터 오래동안 윤수는 일정한 방향이 없이 갈팡질팡 해왔지만 몇년전부터는 연구의 중점을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ㅈ》약물생산체계내에서 거둠률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촉매의 개발에 두고 고심참담한 노력을 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성과를 근거로 하여 2년전부터는 통신박사원에 다니면서 연구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있었다. 윤수는 6개월간에 걸쳐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론문을 작성하였다.
학위론문으로 제출하자는것이였다. 그 론문이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는것은 못되였지만 거기에는 다년간에 걸치는 그의 모대김의 자취가 력력히 새겨져있었다.
그런데 그 론문이 없어진것이였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부본을 하나 만들어놓았을걸 하는 후회가 뼈속까지 갈마들었다. 이제 그 수많은 기초자료들을 다시 뒤지고 계산을 재차 하면서 론문을 새로 준비하느라면 최소한 서너달은 걸릴것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본래것보다 질이 못해질수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재치있고 명쾌한 표현들과 문장들이 많은것 같았는데 새로 쓰면 그만 못해질것만 같았다. 또 어떤 기초자료들은 이제는 쓸데없을거라고 생각하고서 쓰레기통에 구겨던지기도 했는데 경솔했다는 가책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윤수는 론문심사도 받을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수도 없는 처지에 빠져 그 사나이가 나타날 때까지 무료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기분이 잡쳐서 책이 손에 잡히지

도 않았다.

다음날 아침 할 일이 없게 된 윤수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시간이나 보내려고 거리에 나섰다. 윤수의 일생에서 특히 《ㅈ—1211》호연구에 착수한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였다. 그는 늘 1분 1초를 아껴가며 돌진하다싶이 살아왔다.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던 그는 동흥산려관앞에서 그물무늬의 짧은 샤쯔를 입은 키가 큰 젊은이와 어기게 되였는데 그 얼굴과 걸음걸이가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보았을가 하고 아무리 더듬어보아도 생각이 나지 않아 그냥 동흥산공원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에 갑자기 기억의 실마리가 잡혔다. 옳다! 그 친구다! 윤수는 급히 그 젊은이의 뒤를 따라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는 윤수의 중학교동창이였다. 그 친구는 윤수와 한책상에 앉았었는데 시험때마다 윤수의 신세를 적지 않게 졌으며 한때는 롱구소조에도 함께 다녔었다.

그 친구는 몹시 반가와하면서 윤수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다. 친구의 처는 어느 회사의 회계원이라는데 윤수를 반갑게 대해주었다. 그 친구도 같은 회사의 부원이라는것이다. 집안에는 갖가지 현대적이며 값비싼 가정용품들이 가득 차있었는데 모두 년간계획을 넘쳐 하고 우대상품으로 받은것들이라고 했다. 아닌게 아니라 바람벽에는 액틀에 넣은 표창장들이 대여섯개나 걸려있었다. 그리고 벌써 5살이나 된다는 귀여운 딸애까지 있었다.

친구의 처가 인차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서 내놓았다. 즐겁게 맥주를 마시면서도 윤수는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나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중학교때 윤수는 학업성적에 있어서나 육체적으로 그 친구쯤은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 친구자신도 윤수의 롱구공구럭을 들고다니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지어 자랑스럽게까지 여기였었다.

다음날 아침 깨여나보니 10시가 다 되였다. 아침밥을 먹고나서 그 친구는 마전해수욕장에 가자는것이였다. 출근은 안하는가고 하니 자기는 이미 직장에 가서 승인을 받고 왔다는것이였다.

마전까지 가는 통근렬차를 타러 역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어떤 상점에 들어가보았다. 그 상점에는 윤수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상품들이 꽉 차있었건만 윤수에게 돈이 있을리가 없었다. 그 친구에게 있는 돈으로 맥주 몇병과 닦은 락화생 두봉지, 고급담배 두곽을 샀다.

친구보다 한발 앞서 3층으로 올라갔던 윤수는 출납에서 표를 떼고있는 한 처녀를 보게 되였다. 이런 상점에 어울리도록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차림을 하였으며 얼굴의 피부가 피아노건반처럼 하얗고 반들거리는 처녀는 윤수의 눈길을 끌었다.

출납구에서 돌아서서 머리를 든 처녀는 불과 몇메터밖에 서있는 윤수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였다. 순간 처녀는 내짚던 발걸음을 저도모르게 멈추고 그 자리에 굳어졌다가 한동안이 지나서야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걸음을 옮기였다.

사람이 거울을 보는 기본적인 목적은 자기의 외모가 남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는가를 알기 위해서일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자기에 대한 처녀의 반응은 윤수에게 있어서 거울중의 《거울》이였다. 그 《거울》에 비쳐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나서 윤수는 마음이 들뜨는것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그들이 상점을 두루 돌아보고 밖에 나섰을 때 오른쪽에 주런이 늘어서있는 여러대의 승용차들사이에 서서 동무인듯한 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그 처녀가 윤수의 친구를 향해 다가왔다.

그 처녀는 윤수의 친구와도 아는 사이였다.

《어디로들 가세요?》

윤수의 친구가 대답하였다.

《오늘날씨가 33도입니다. 마전에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가지고가세요.》

그 처녀가 내민 구럭에는 맥주병들과 당과류봉지들이 들어있었다.

《고맙습니다.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장담하건대 며칠만 지나면 선기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욕은 인기가 폭락되지요. 오늘처럼 좋은 날씨도 흔치는 않거든요.》

《저도 거기에 가려고 이걸 샀댔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빠를 만났거든요. 오빠가 어디에 함께 가자고 해서…》

이때 키가 크고 뚱뚱하며 세련된 옷차림을 한 두 사나이가 상점에서 나와 그 처녀가 서있는 승용차쪽으로 다가왔다. 한사람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수닭의 볏처럼 불깃불깃 하였다.

윤수는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의 한토막을 들을수가 있었다.

《그 문제는 이미 협의가 있었소.》

《하지만 심사숙고해야 하리라 봅니다.》

《좋소. 다시한번 토론해봅시다.》

두 사나이와 함께 그 처녀가 오르자 승용차는 부르릉― 고르로운 동음과 함께 배기통으로 하얀 수증기같은것을 가볍게 피워올리며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나갔다.

윤수는 친구가 들고있는 그 녀자가 주고 간 구럭을 눈짓하며 말했다.

《잘 아는 사이인게로군.》

《오, 이것때문에 말인가? 우리 처와 친한 동무라네. 그래서 이따금 우리 집에 다니군 하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라네.

자네 이런 옛말을 들은적이 있나?

어느날 이제부터는 자기가 왕이 되였다는 토끼의 말을 듣고 사자가 노발대발했다네. 그러자 토끼는 정 의심스러우면 함께 동산을 돌아보자고 했지.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토끼가 나타나는 곳마다에서 모든 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것이 아니겠나. 그제서야 사자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네. 하하, 사실 짐승들이 도망친것은 토끼가 아니라 자기가 나타났기때문이라는것을 모르고말이야.

저 녀자가 선심을 쓴것은 틀림없이 자네때문이라네. 누구에게나 그런 심리가 있지. 뛰여난 미녀나 미남을 보고 그 무슨 은혜라도 입은듯한 감동을 느끼며 거기에 보답하려고 하는 심리말이야.

저 처녀가 첫눈에 자네에게 반한것이 확실해. 참, 자네 아직 결

혼을 안했다지. 그럼 이거 정말 마침이로군.》

역을 향해가면서 친구는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저 처녀는 평양경공업대학(당시)을 졸업하고 어느 각에서 봉사과 부원을 하고있다네. 아버지는 외교일군이였는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지금 어느 공장 부원이라네. 오빠가 둘이 있지. 맏오빠네는 다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나가 있다가 한달전에 돌아왔고 아까 우리가 본 그 얼굴이 흰 사람이 둘째오빠인데 대외봉사부문의 중요한 직책에 있다네. 년중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다고 하더군. 처한테서 들었는데 맏오빠네 부부가 다시 인차 오래동안 외국에 장기출장을 나가야 한다더군. 세 아이들만 남게 되는데 그게 문제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토론하려고 둘째오빠가 어머니한테 내려왔다네. 어머니는 지금 년로보장나이가 지난지 퍼그나 되였으니까 이번에 아예 년로보장수속을 하고 평양에 올라와서 애들을 돌봐달라는거지. 그런데 막내딸이 문제로 됐다네. 아직 시집을 안갔으니 혼자만 내버려두고 갈수가 없거든. 그래서 빨리 시집을 보내자고 어머니와 오빠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내세웠지만 다 고개를 흔든다지 않나. 눈이 굉장히 높다더군.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오빠가 안달이 났지. …

저 처녀한테 장가드는 녀석은 정말이지 호박을 잡게 될걸세.》

《…》

윤수는 자기가 아버지를 일찍 잃은 집의 맏아들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었다. 윤수는 결혼을 심중하게 대했다. 자기의 처로 되는 사람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두 동생에 대해서는 형수가 아니라 친누이로 될수 있는 녀자여야 했다. 더우기 윤수는 《ス－1211》호연구가 인차 끝날수 없으며 어쩌면 한생이 걸릴수도 있다는것을 예감하고있었으므로 자기의 배우자는 그 연구의 적극적인 지지자, 방조자가 아니면 안된다는것을 늘 의식하고있었다.

윤수는 그 처녀가 그런 측면에서 합당한 녀자가 못된다는것을 첫눈에 직감하고있었다.

그런 내막도 모르고 친구는 계속 열을 올리였다. 혼사는 붙이고

싸움은 말리려는것이 아마 선한 인간의 본성적욕망인듯 하다. 두말할것도 없이 마음이 선량한 이 친구는 윤수를 그 처녀에게 붙여주려고 계속 애를 썼다.

그로부터 하루 지나서였다. 책방들이나 돌아볼가 해서 거리에 나섰던 윤수는 역 앞거리에서 뜻밖에 그 처녀를 다시 만나게 되였다.

윤수는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처녀 역시 반색을 지었다.

《아니… 참,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저를 대뜸 알아보시니 말이예요.》

《사실 전 기억력이 아주 나쁘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리할 때도 있더군요.》

《?!》

《방금 본 영화도 하루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니 어떤 영화든지 늘 새 영화처럼 재미있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요. 호호.》

《기억력이 이렇게 한심하지만 몇가지만은 잘 기억하고있지요.》

《어떤것들인가요?》

처녀의 눈에 호기심이 어렸다.

《내 생일하고 부모의 이름하고 드물게 만나는 기막힌 미인들만은 어찌된 일인지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는군요.》

《호호, 감사해요.》

《하여튼 전번에 맥주랑 잘 마셨습니다.》

《뭘요. 변변치 못했던걸요.》

윤수는 이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얼마간이라도 무료함을 잊고싶었다. 마침 날씨는 찌물쿠듯이 무더웠다.

《신세갚음이라도 해야겠는데… 가만, 얼음보숭이라도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닌게 아니라 저도 좀 시원한걸 먹고픈 생각이 있긴 한데… 어쩌나…》

처녀의 얼굴에 몹시 아쉬워하는 표정이 어렸다.

《어디 급히 다녀올데가 있어 가던 길인데. …》

《아, 그렇다면 제가 방해해서야 안되지요. 난 그저 전번에 신세를 져서…》

윤수는 무척 미안해하는 처녀앞에 오히려 송구스러워 황황히 얼버무리듯 말했다.

그러는 윤수의 모습이 더 가슴을 야릇하게 하는듯 처녀의 눈빛은 정차게 타올랐다.

처녀는 그런 눈으로 멀어져가는 윤수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서있었다. …

다음날 저녁이였다.

윤수는 식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기숙사식당으로 내려갔다. 그가 식당출입문에 거의 이르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그 중학교동창친구였다.

《자, 가세나.》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이였으나 윤수는 그 의미를 대뜸 짐작했다. 객지생활을 하는차라 그 소리가 반가왔지만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분명 친구는 자기 집에 가자는 소리겠는데 그러기를 벌써 세번째가 되니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 않을수가 없는것이다.

《고맙네, 하지만 오늘은 안되겠네. 급한 일이 있어놔서…》

친구는 막무가내였다. 《글쎄, 가자니까.》 하면서 다짜고짜로 손목을 잡아끄는 바람에 윤수는 더이상 버틸수가 없었다.

화학공업대학연구소앞에서 뻐스를 탔다. 서너 정류소쯤 가더니 내리자는것이였다. 친구네 집까지 가자면 아직 더 가야 했다. 영문을 모르고 따라내린 윤수는 친구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는건가?》

《가보면 알게 된다네.》

《?…》

얼마후 윤수는 친구의 뒤를 따라 어떤 고층살림집의 현관안으로 들어갔다. 2층에 이른 친구는 한 집의 출입문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인차 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문가에 그 처녀가 나타났다. 윤수는 처음엔 어리둥절했고 그다음에야 여기가 처녀의 집일것이며 이 처녀가 자기들을 초청했으리라는것을 짐작했다.

처녀는 반색을 하면서 두사람을 안으로 맞아들이였다.

신발장안에 신발을 밀어넣으면서부터 윤수는 이 집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번에 알수 있었다. 지금까지 윤수는 자기가 신고다니는 운동화에 대해 한번도 별다르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신발장의 문을 닫기 전에 값비싼 고급신발들곁의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자기의 그 운동화를 바라보느라니 그것이 확실히 촌스럽고 투박한 물건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것이였다. 세개의 살림방들과 부엌, 위생실들의 출입문들이 모두 전실과 통해있고 또 그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열려져있었으므로 윤수는 잠시동안 전실에 서서 이 집의 전모를 대충이나마 살펴볼수 있었다. 어느 방이나 할것없이 기름기가 번지르르 돌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웠으며 안온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처녀의 안내를 받아 웃방으로 들어갔다.

웃방의 바닥에는 암록색바탕에 큼직큼직한 함박꽃무늬들이 새겨진 폭신폭신한 주단이 깔려있었다. 벽을 따라 키낮은 고급쏘파들이 여러개 놓여있었으며 쏘파들의 앞에는 밤빛으로 번들거리는 네모난 탁자들이 그것들과 조화롭게 쌍을 이루고있었다. 나란히 붙어있는 세개의 키높은 책장들이 다른 한쪽 벽을 전부 가리우고있었으며 그안에는 두툼한 책들이 꽉 채워져있었다. 그 책들이 윤수의 눈길을 끌었다. 베란다쪽 벽의 한구석에는 큼직한 고무나무화분이 있고 그앞에는 록화기가 달린 천연색텔레비죤이 놓여있었다.

먼저 방안에 들어선 처녀가 소개를 하자 쏘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처녀의 어머니와 오빠의 얼굴에 친절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자넨가, 기다리던 참일세. 어서 앉으라구. 우리 딸애한테서 자네 얘길 들었네.》

처녀의 어머니의 표정이며 눈길이며 몸가짐이며 억양이며 그 모

든것에서는 오래동안 사무원 직무에서 일해오고있어서인지 안정감과 정확성이 동시에 풍기였다.

처녀의 오빠 역시 친근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고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자신의 우월감에 대한 의식이 확연히 느껴졌다.

윤수는 그들이 자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며시 그러나 긴장한 눈길로 자기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바라보며 평가를 내리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권하는 쏘파에 앉자 처녀가 인차 밥상을 들여오고 뒤이어 음식들을 날라들여오기 시작하였다.

잠시후 그들은 모두 쏘파에서 내려 방석을 깔고 밥상에 모여앉았다.

윤수는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 음식이나 다 나무랄데없이 훌륭하였으며 구미가 동하였다.

처음에 윤수는 초면의 그리고 그만하면 사회적지위도 높은 사람들앞인지라 조심하게 되였고 이자리의 의미가 짐작이 되여 어색스러운 느낌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한편 자꾸만 눈앞에는 신발장안의 한구석에 어깨를 옹송그리고있는 자기의 운동화가 떠오르면서 정신적인 압박감이 오기도 하였다. 윤수는 처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의식적으로 자기를 이야기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있는것도 그리고 또 그것이 무엇때문이겠는가도 분명히 깨닫고있었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될수록 말은 적게 하고 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다. 둘째오빠는 확실히 아는것이 많았으며 이야기도 재미있고 설득력있게 할줄 알았다. 책장에 그토록 많은 책이 쌓여져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였다. 물론 지금 여기서 사는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가가기 전에 그 책들을 다 읽었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직무상 외국에 나가 살다싶이 한다니 많은것을 알고있을것이고 또 많은것을 알고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래서 자연히 그의 모든 견해들에 동감을 표시하게 되였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일종의 아부로 오해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때문에 불쾌하기도 하였고 점차 확고하게 의식되는 자신에 대한 그의 지적인 면에서의 우위

와 지배력에 도전해보고싶었다. 자기에게도 독자적인 견해와 주장, 사고방식이 있으며 그의 의견에 그저 맹종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시위하고싶었다. 그러나 그럴만한 맞춤한 기회가 조성되지 않았다. 이야기는 주로 둘째오빠와 윤수사이에 진행되였는데 그것은 식탁의 화제를 이끌어나가는 중심인물인 둘째오빠가 점차로 윤수만을 자기의 이야기상대로 인정하였기때문이였다. 이따금 윤수의 친구가 그들의 이야기에 끼여들려고 이러저러한 질문을 하군했지만 그때마다 둘째오빠는 너그러우면서도 깔보는듯한 미소를 띄우고 간단명료하게 완전무결한 대답을 주는 식으로 그를 제지시키군 하였다.

식사전에 윤수는 허기가 져있는 상태였고 처음에 권하는대로 받아마신 술은 도수가 높았으므로 몇잔에 얼마후부터 완전히 취기가 오르면서 마음을 들뜨게 했다. 초기의 조심성과 어색스러움은 점차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근본리치를 론하고싶고 모두의 주의를 자기에게 끌어 귀를 기울이게 하며 그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더군다나 눈앞에 자꾸만 신발장안의 그 운동화가 떠오르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비록 그런 신발을 신고다니기는 하지만 결코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보여주고싶은 자존심이라 할지, 허영심이라 할지 그러루한 감정까지 북받쳐오르는것이였다.

마침 그때 윤수가 바라던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량수책상우에 놓인 록음기에서는 쇼뺑의 《야상곡》에 뒤이어 슈만의 《꿈》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주의깊이 듣고있던 처녀의 둘째오빠는 그 곡이 끝나자 원격조종기의 《정지》단추를 눌러 끄고 감탄하였다.

《참말이지 슈만은 천재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가볍게 머리를 저었다.

《물론 슈만도 대단하지. 하지만 쇼뺑보다는 못해.》

그 말이 둘째오빠를 몹시 자극한듯싶었다.

《어머니는 이 두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를 모르고계십니다. 슈만에게서는 인생에 대한 심오한 사색이 느껴지는데 쇼뺑은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할가, 어쨌든 가늘고 가벼운감이 있거든요.》
《원, 쇼뺑이 가늘고 가볍다구?! 그건 정말 경솔한 판단이다.》
《어머니, 전 오히려 어째서 어머니가 그처럼 초보적이며 명백한것도 감득하지 못하시는지 그저 놀랍기만 하군요.》
《네 고집도 보통이 아니구나. 너에게는 너대로의 견해가 있을테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전 조금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어머니가…》
이쯤되자 처녀가 참견해나섰다.
《됐어요. 오빠, 뭘 별치 않은걸 가지구.》
그러자 둘째오빠가 발칵 성을 냈다.
《미애, 넌 가만있지 못하겠니? 어디서 웃사람의 말허리를 끊는 법을 배웠니?》
《아유, 그만들 해라. 손님들도 있는데.》
어머니가 당황해하며 손을 홱 내저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팽팽해졌고 거북스러운 침묵이 방안에 무겁게 드리워졌다.
이때라고 생각한 윤수는 서둘러 입을 열었다.
《실례의 말이지만 저는 두분의 의견상이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모두는 깜짝 놀라서 윤수를 주시하였다.
윤수는 그것을 숫제 무시한채 태연하게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어느때 어디서든 이러한 순수 미학적견해상의 의견상이들은 저의 마음을 몹시 즐겁게 해준 답니다. 그것은 이러한 다툼의 원인이 예술에 대한 몰리해나 경솔성, 고집과 같은 성격상약점에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이지요. 오히려 예술에 대한 리해가 깊고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사이에서 이러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군 하지요. 원인은 보다 심각한데 있습니다.》
모두의 눈길에 어렸던 놀라움은 점차 호기심으로 변해갔다.
윤수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결론은 후에 내리기로 하고 우선 이러한 의견상이가 예술의 대

가들속에서 적지 않게 나타났다는데 대해서 상기시켜드리자고 합니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쇼뺑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의 종장을 날카롭게 비난하였으며 슈베르트에 대해서는 이른바 〈자연주의〉라고 하면서 찬성하지 않았지요. 챠이꼽스끼는 브람스를 맹렬히 공격했으며 라흐마니노브는 〈사실상 슈만과 챠이꼽스끼이후에 음악은 끝났다.〉고 말했으며 스뜨라빈스끼는 베토벤은 음악가라고는 할수 없다고 했지요. …》

윤수는 자기가 알고있는 이름난 음악가들사이의 의견상이에 대해 숱한 실례들을 들며 한참동안이나 장황하게 렬거하고나서 계속하였다.

《뛰여난 개성은 자연히 온 세계에 퍼져나가려고 지향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런 개성이 하나만은 아니기때문에 서로 대립하게 되고 거기서 이른바 〈헤라크리토스의 원리〉에 의한 충돌이 일어나지요. 이 천재적인 대가들을 설복하여 공정한 립장에 서도록 하며 호상간의 반목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헤겔이 심오한 철학가라는것을 쇼펜하우엘에게 납득시킬수가 있었을가요? 론문 〈리어왕〉에서 확정적으로 표명된 쉑스피어에 대한 레브 똘스또이의 혐오나 평론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숨김없이 터놓은 그의 와그너에 대한 비난은 그저 나를 누를길 없는 즐거움에 잠기게 할뿐입니다. 대가들사이의 이러한 의견상이보다 더 흥미있고 매력적인 구경거리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견상이의 원인은 그들에게 자기 특유의 예술에 대한 감각이 있기때문이지요. 그것은 선천적인것입니다. 예술에 대한 천품을 지니고 태여나는 사람들중에서 극히 적은 수의 몇사람만이 예술가로 되고 나머지는 예술애호가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지 우에서 말한 그런 의견상이를 대가들속에서만 볼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우리모두가 체험하였고 목격하였으니 증명의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는 슈만도 쇼뺑도 다 존경하며 사랑

합니다. 그것은 제가 결국 두 대가를 깊이있게는 리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진심으로 사랑하고있지도 못하다는 증거로 되지요. 〈모두의 발에 맞는 신발은 그 누구의 발에도 맞지 않는 신발이다.〉는 말이 있지요. 확실히 저는 예술가적인 천품을 타고나지 못한가봅니다.》

윤수의 연설은 효과만점이였다. 거북스럽고 지어 심각하게 느껴지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어리였다.

처녀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는 외교관이 될걸 그랬어. 자네식으로 말한다면 자네에게는 선천적인 외교관의 기질이 있어. 그런데다가 아주 박식하구만.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처럼 깊이 알고있나?》

《우리 아버지는 건축기사였는데 동시에 훌륭한 바이올린연주가였고 대단한 음악리론가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책들을 좀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작곡까지 한편 했습니다.》

《그 곡의 이름이 뭐요?》

처녀의 둘째오빠가 물었다.

《아마 모를겁니다. 〈고향〉이라는 곡인데…》

처녀의 오빠는 환성을 질렀다.

《아, 기억이 나오. 참 좋은 곡이요.》

그의 입에서 그 곡의 선률이 흘러나왔다.

《이것이지요?》

《예. 옳습니다.》

윤수는 진심으로 고맙고 반가왔다.

《음… 그랬댔구만. 어쩐지 범상치 않다 했더니…》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가 물었다.

《유럽의 현대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오?》

윤수는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저는 인공위성시대의 유럽음악이 마차시대의 음악보다 진보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음악뿐만아니라 문학예술전반에 대해

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유럽의 과학적지성은 경탄할만한 속도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물질문명을 건설했는데 유럽의 철학적, 미학적, 륜리적지성은 병들어버렸고 잠꼬대를 하며 이리저리로 방황하고있을뿐이지요.》

둘째오빠는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포함해서 우리모두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오.》

윤수는 이미 상당히 취해있었지만 그때 처녀의 어머니와 둘째오빠가 서로 마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것과 처녀의 얼굴에 함뿍 미소가 어리던것을 놓치지 않았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도 순간에 깨달았다. 그러나 윤수는 속으로 당신네들 생각대로는 결코 되지 않을걸 하고 코웃음을 쳤고 그들이 헛된 기대를 품었다가 후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는 이 집에 발길을 하지 않으리라 굳게 속다짐했을뿐이였다.

신파연극의 한 대목과도 비슷한 이 시작이 어쩌면 비상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것을 그는 예감하였던것이다. 그때까지 윤수는 자기의 일생이 《ㅈ—1211》호연구에 바쳐지게 되리라는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으며 따라서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자연히 자기와 련관되는 일체의것을 그와의 호상관계속에서 고찰하고 타산하게 되였는데 하물며 결혼과 같은 중대사임에야! 윤수는 처녀가 자기를 깊이있게 리해하고 공감하며 자기의 연구를 진심으로 도와나설 그런 형의 처녀가 못됨을 딱히 근거를 들어 론증할수는 없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부로 느끼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윤수는 자기에게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끼게 되였다. 가방이 바뀌운 때로부터 거의 일주일이 되여오는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든 윤수의 머리 한구석에는 그 사나이가 언제면 나타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한시도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잠들 때에도 혹시 그 가방이 영영 없어져버린것이나 아닌가 하는 근심속에서 잠들었고 깨여나도 제일먼저 찾아드는것이 오늘이면 그 사나이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

는 안타까운 기대였다. 그런 때면 온밤 꿈속에서도 그 가방생각을 해온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네 집에 갔다온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순간 윤수는 자기의 머리속에서 가방에 대한 생각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린것을 느끼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어제밤은 밤새 꿈속에서도 전혀 다른 문제로 고심한듯 하였다.

그것이 무엇때문인가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눈앞에는 자기를 황홀해하는 눈길로 바라보며 굳어져 서있던 처녀 그리고 자기를 찬찬히 뜯어보기도 하고 서로 의미있는 눈짓을 교환하기도 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처녀의 어머니와 오빠의 모습이 떠올랐으며 그 처녀는 당장 시집을 가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고 하던 친구의 말이 귀가에 들려왔다.

윤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처녀가 자기의 연구사업과 어울릴수 없는 존재라는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느껴졌기때문이였다.

오늘은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머뭇거리고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중대한 용건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는것이였다.

윤수는 이미 그 친구가 중대한 용건을 가지고 찾아오리라는것을 짐작하고있는터였다. 아닐세라 그 친구는 처녀는 물론이고 그 처녀의 어머니와 오빠도 윤수에게 만족이라는것, 윤수와 윤수네쪽에서 반대만 없다면(물론 이 말은 관례상 하는것에 지나지 않았고 실지로 반대가 있으리라고 그들이 조금도 생각지 않고있다는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였다.) 당장 결혼식을 했으면 한다는 그쪽의 의사를 알려왔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놀라울것이 없었지만 친구의 마지막말이 윤수를 긴장시켰다. 그 친구 역시 윤수가 이 결혼제의에 동의하리라는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기때문에 거기에 전혀 의의를 부여하지 않고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여담삼아 무심결에 처녀에게서 들은, 자기의 미래의 남편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처녀의 주도세밀한 계획에 대해 부러움을 담아 윤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녀자가 말하기를 지금 중근동과 동남아시아지역의 나라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의사들 특히 외과의사들을 많이 요구한다더군. 아마 둘째오빠에게서 들었겠지. 그런데 자네는 연구요 뭐요 하면서 들떠있기 전에야 외과의사노릇을 하지 않았나. 당당한 자격증도 가지고있는게고. 그러니까 그 녀자는 결혼을 한 다음 자네를 인차 함흥으로 데려내와서 도인민병원외과에 넣겠다는거야. 거기서 2년쯤 치료법을 익히게 한 후에 대외봉사부문으로 뽑을 생각이더군. 마침 그 녀자의 둘째오빠가 그런 부문의 일을 보는터이니 만사는 얼음판에 박밀기지. 설사 오빠의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그 녀자가 나서서 못해낼 일이란 없다네. 자네 이다음에 이 소개자에게 술 석잔을 잊어서는 안되네. 하하하.》

나는 과연 어느 길을 택해야 할것인가?…

처녀가 별다른 타산은 없이 그저 문득 생각난김에 《본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랑삼아 한 말이 윤수에게 정확히 전달되였다. 그리고 윤수에게 처녀가 전혀 예상치를 못했던 강한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었고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면 적당한 구실을 대고 거절을 해서 돌려보내며 처녀네 집과도 그이상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발길을 끊으리라 작정하고있던 윤수는 초기의 결심을 버리고 어머니와 토론을 해보고서야 확답을 할수 있다는 애매한 대답을 하였다.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부터 윤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동요과 고민에 빠져들었다. 이제와서 가방생각같은것은 우습게, 아주 보잘것이 없는것으로 여겨지는것이였다.

어떤 용매에 두 색감을 풀면서 한 색갈만 나타나게 하려면 그 색감의 농도를 다른것의 농도보다 10배이상으로 해주면 된다.

윤수에게서 연구를 포기하고 의학에로의 방향전환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가방이 언제 나타나느냐 혹은 나타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비교해볼 때 그 심각성의 농도에 있어서 실로 천배, 만배, 아니 대비조차 할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래 연구를 그만둔다?

윤수는 이렇게 속으로 자문해보았다.

그럼 지금까지 나의 생애는 과연 무엇이였단 말인가?

윤수의 눈앞에는 자기의 집과 공장병원의 고려약제제실, 약국건물의 뒤마당 한쪽구석에 손수 꾸려놓은 연구실 그리고 분석을 의뢰하러 시약과 기자재, 책들과 참고서들을 얻으러 다니고 또 다닌 전국각지의 숱한 곳들이 떠올랐다.

또한 채바퀴를 돌고 또 도는 다람쥐처럼 그 정해진 로정을 따라 변변히 자지도 못하고 생활비의 전부를 아낌없이 바치면서 아글타글 해오던 나날들이 영화의 화면처럼 련이어 눈앞을 지나갔다.

자기앞에 딴길이 열려져있으며 어차피 자기는 그길로 가게 되리라는것을 예감하고있는 지금 윤수는 그때까지의 자기의 생활에 대해 종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것이였다. 즉 그 생활이 갑자기 성공에 대한 헛된 기대와 끝없는 모대김으로 이어진 허무하며 고통스러운 나날들로 생각되는것이였다.

내가 그길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의 나의 일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일이다. 이 연구가 언제 빛을 보겠는가는 전혀 예측할수가 없다. 10년? 20년?… 아니 일생을 다 바치고서도 빈 손을 털고나앉게 될수도 있다. 그동안에 어머니는 늙어서 돌아가시게 될것이고 준수도 장가를 가게 될것이다. 그냥 이 모양, 이 꼴이라면 내가 장가를 가는 준수에게 무슨 물질적인 방조를 줄수 있겠는가!

돌아가신 아버지는 운명하기 전날 나의 손목을 잡고 어떤 말을 남겼던가.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며 두 동생을 돌봐주어야 한다.

오래동안의 심사숙고끝에 윤수는 드디여 인생행로를 바꾸기로 결심하였다.

이제부터는 머리아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것이며 폭발로 실험복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일도 없을것이며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부탁하는 일도 없을것이며 기차를 놓쳐서 속이 타거나 이번처럼 가방이 바뀌워 골탕을 먹는 일도 없을것이다.

나는 의학대학 주간졸업생이므로 당당한 의사자격증을 가지고있다. 그러니 도인민병원외과에 들어가는데서 문제될것이 없다. 지금까지는 나의 로동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명백히 8시간으로 될것이다. 아침 8시에 출근했다가 5시에는 퇴근하면 된다. 퇴근해서는 쏘파에 반쯤 누워 원격조종기의 단추를 눌러 텔레비죤이나 보면서 여가를 즐기면 된다. 그럭저럭 2년쯤 수술기능을 익히다가 그다음에는 처가집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바람이나 한번 쏘여보자!

이따금씩 50년대 령길에서의 폭음이 귀가에 쟁쟁히 들려오고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인 영웅전사와 어머니—그 두사람이 준절하면서도 슬픔과 가슴아픔, 실망이 어린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환각이 떠올라 가슴을 섬찍섬찍하게 해주군 하였으나 손만 뻗치면 잡을수 있는 유혹은 너무나도 크고 집요한것이였다. 그래서 그때마다 윤수는 머리를 추켜들고 그들을 향하여 항변을 하였다.

나는 당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나 역시 지금껏 공민의 의무를 지켜 오래동안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인정할것입니다. 그러나 전망도 내다보이지 않고 난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공민의 의무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삶을 누릴수 있는 공민의 권리도 있는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비난할수는 없을것입니다. 비록 내가 《ス—1211》호 연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량심에 어긋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을것이며 언젠가는 당신들도 나를 리해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묶어서 꼭 학위론문으로 완성시킬것이며 그 론문은 다음의 연구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것입니다. …

윤수는 그후부터 처녀와 어울려 함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나날에 그의 결심은 점차 확고해졌으며 마침내는 어머니의 승인을 받으러 성룡구로 떠나갔다.

2

《ス－1211》호연구도중 뜻밖의 사고로 눈에 심한 화상을 당하기 전에, 그로 하여 록내장이라는 눈병에 걸리기 전에 정순은 자기에게 눈이 있다는 사실을 대체로는 잊고 살아갔었다.

그런데 록내장이라는 병에 걸린 눈은 정순에게 까다로운 요구조건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30분정도이상은 책을 보지 말라, 물을 적게 마시라, 오래동안 머리를 수그리고있지 말라, 잘 때에는 머리를 높여 눈에 피가 모이지 않도록 해라. 일정한 간격으로 1프로 필로카르핀용액을 눈에 넣고 디아목스를 먹으라, …

정순은 처음에 안과과장의 이러한 요구를, 눈의 이러한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다른것은 다 지킬수 있다. 하지만 오래동안 책을 읽어서는 안된다?! 그럼 《ス－1211》호연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림도 없다. 그것은 나의 생의 의미자체를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닌가!

하여 정순은 눈과의 투쟁을 선포하고 완강히 읽어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정순은 연구실의 책상우에 쓰러졌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오싹오싹 추우면서 심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라왔던것이다. 두눈이 참대꼬챙이로 쑤시는듯 아파났고 그 아픔은 머리, 귀, 이발쪽으로 퍼져나갔다. 다음날부터 눈길범위가 좁아지는것이 확연히 느껴졌다.

정순은 실명이 올수 있다고 하던 안과과장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였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정순은 눈의 존재를 의식치 못하고 밤을 밝혀 책을 읽던 그 나날들이 얼마나 행복한 나날들이였는가를 깨닫게 되였다. 정순은 강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고있었다. 의족을 한 다리로 춤을 배우고 마침내는 전투비행기까지 몰수 있은 비행사에 대

해서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정순에게 그리 큰 고무로는 되지 못하였다.

그 비행사는 의족을 한 다리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목적에로 가까이 다가갈수 있었지만 정순의 경우에는 상한 눈을 무리하게 쓰다가는 목적에로 영원히 다가가지 못하게 될수도 있었다.

아아!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고 해도 가닿을지말지 한 목표에로 이제부터는 기여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였다. 돌바닥에 쓸리고 찢기여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것은 얼마든지 참을수 있지만 질풍처럼 달려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때부터 과연 이런 눈을 가지고 끝내 성공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과 위구, 절망이 늘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것은 정순이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언제나 사라질줄을 몰랐다. 셋째아들 준수가 군대에서 제대되면서 《ㅈ-1211》호연구에 합세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을 때 물론 셋째의 정신적성장을 두고 대견해했던것이 기본이였지만 연구의 전망을 내다보며 적지 않은 고무를 받았던것도 사실이였다. 그러나 정순은 연구에서 기둥은 어디까지나 맏아들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정순은 이번 맏아들의 학위론문의 주제에 찬성하지 않았었다.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하고있는 《ㅈ》약물생산체계의 효률성을 보다 높이는 정도의것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 반응공정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있다는것, 국가에 리득을 줄수 있다는것, 또 일단 그런 촉매를 개발해내면 그 촉매가 마감공정에 쓰이는것이기때문에 우리 식의 《ㅈ》약물을 개발해내는 경우에 그대로 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것 등을 들면서 완강하게 고집하기때문에 조수의 지위로 밀려나있는 정순이로서는 어찌할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아들이 1년내에 끝내버리고 그다음에는 우리의것을 개발해내는데로 방향을 돌리겠다고 장담을 하는 바람에 동의를 했댔는데 예상외로 오래 끌고있었다.

정순은 이번에야 끝을 보겠지 하고 맏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20여일만에 돌아온 맏아들은 론문심사결과를 알려줄 대신 론문을 기차칸에서 어찌어찌하여 분실하였는데 인차 나타날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것이였다.

정순은 가슴이 섬찍해지는것과 함께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것은 론문이 분실되였다는 그 사실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는 그런 중대사고를 별치 않게 여기는 맏아들의 리해할수 없는 태도때문이였다.

맏아들은 어머니의 놀라와하는 기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함흥에 있다는 어떤 처녀의 사진을 내놓으며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가고 묻는것이였다.

정순은 다시한번 놀랐다. 그럼 맏아들은 함흥에 론문심의때문이 아니라 선을 보러 갔댔단 말인가.

더우기 어머니의 마음에만 드신다면 당장 결혼식을 하자고 하는 아들을 보면서 정순은 강한 불만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설사 어머니라 해도 다 자란 아들의 결혼문제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할수는 없는것이 아닌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애써 마음을 누잦히며 사진의 처녀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다음날로 맏아들과 함께 함흥으로 떠났다. …

처녀의 집을 찾은 정순은 맏아들의 마음이 무엇때문에 돌변했는지 리해하게 되였다. 화려한 세칸짜리 집의 모든 가장집물들은 사치스럽게 번쩍거렸다. 처녀의 어머니는 서로 합의만 되면 자기는 래일이라도 결혼식을 해주고 모레는 평양맏아들네 집으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딱한 처지에 있노라고 량해부터 구하는것이였다. 윤수와 자기 딸과의 결혼을 기정사실로 치부하는 처녀의 어머니의 태도에서는 거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무런 사심도 없이 선행을 베풀고 스스로 흡족해하는듯한 기색이 느껴졌다. 하긴 이 굉장한 재산을 바늘 한개 다치지 않고 그대로 딸과 사위에게 넘겨주고 가겠다니 이 녀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할만도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은 사람이 아닌가. …

정순은 처녀의 경대를 무겁고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번쩍이는 삼면경대는 처녀의 방전체의 축소판이였다. 방전체에서 대

학을 졸업한 지성인의 뜻과 기백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고 허영심만이 질게 안겨왔다.

정순의 처녀시절은 전쟁의 불길과 《ス－1211》호연구를 위한 피타는 탐구와 모대김의 나날속에서 흘러갔다. 전쟁때에도 전후에도—처녀시절의 전기간 천으로 된 자그마한 주머니가 정순의 이동식 《경대》였다. 그 시절에는 정순뿐만아니라 모든 처녀들이 그렇게 살았다. 아니, 그렇게 싸웠고 건설하였다.

얼마전 정순은 그때 일기장에서 발취해둔 시 한구절을 읽으며 깊은 감회에 잠겼던적이 있다.

… …
먼 후날 처녀들은 력사교과서에서
작업복 입은 우리들을 찾으리라
부러움과 감사에 찬 눈으로
우리들모두를 영웅으로 보리라
삼복더위 휘몰고 소낙비를 퍼부어도
가슴에선 가슴에선 노래가 끓는다
… …

물론 세월은 흘렀고 시대도 달라졌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에서 끓던 노래가 후대들의 심장에서 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이 경대에서는 그 노래가 울리지 않고있었다. 이 경대의 주인이 삼복더위 휘몰고 소낙비 퍼붓는 속에서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사람들을 부러움과 감사에 찬 눈으로 바라보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어찌하랴. 이 번쩍거리는 화장품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액틀에서 맏아들이 경대의 주인과 나란히 앉아 웃고있는것이 아닌가. 생활이나 예술에서 자연스러운 조화는 생명이다. 정순의 가정에는 시대의 전진에 발맞추어나가는 제나름의 화음과 리듬이 있었다. 오래동안 익숙된 그 화음과 리듬은 집에 들어서는 정순을 부드러이 휩싸안으면서 언제나 안정감과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

어떤 부조화, 불일치가 일생동안 지켜온 자기 가정의 화음을 깨뜨리려 하고있었다. 그러면 아들은 어머니와 인생관이 다르단 말인가?

맏아들은 이런 처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있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고답적이란 말인가?

처녀의 어머니와 마주앉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 생겨난 불안과 의혹의 못은 끊임없이 물결치고있었다.

《글쎄 그 집 아들이 회를 몹시 좋아하던군요. 그래서 전번에 인수원에게 직접 임무를 주어 문어 한마리를 산채로 가져오게 했지요. 우리 딸이 직접 료리를 했는데 무척 맛있어 하더군요 사람두 원, 인사성은 또 어찌나 밝은지…》

나이는 들었지만 위풍이 느껴지는 이 녀자의 말이 정순에게 일으킨 감정은 일찌기 그가 체험해보지 못한것이였다. 정순은 자기의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돌보아준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나 진심으로 고마운 심정을 품군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심정은 쓸쓸한 억울함 비슷한것이였다. 정순은 항상 바빠서 살아있는 문어로 회를 해먹일 생각까지는 미처 할새가 없었다. 인사성이 밝다는 칭찬도 불쾌한 의미로 안겨오면서 신경을 자극하였다. 정순의 눈앞에는 꿈틀거리는 문어가 맏아들을 자기의 품에서 떼내여 인연이 먼 다른 사람들의 품으로 끌어가는 환각이 떠올랐다.

그 환각이 뇌리에 어찌나 강하게 새겨졌던지 정순은 가끔 꿈속에서도 그 문어를 보군 하였다.

…

함흥에서 돌아온 후 정순은 맏아들을 타이르려고 하였지만 격렬한 충돌로 번져지고말았다. 아들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겪은 극적인 충돌이였다. 이야기를 통하여 정순은 맏아들이 무엇을 바라고있는지를 충분히 간파할수 있었으며 요행 차례진 행운을 어머니때문에 놓칠가봐 떨고있는 맏아들이 혐오스러웠다.

정순은 흥분을 애써 누잦히며 인간의 행복이란 네가 생각하는 그런것이 아니라고 타일렀다.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라.》

정순은 맏아들이 자기의 말을 심중히 대할줄 알았다. 그러나 맏아들은 《어머니, 어머니로서도 저의 개성을 무시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우겨대는것이였다.

드디여 정순의 분노는 터졌다.

《사랑하지도 않는 처녀와 결혼하는게 너의 개성이냐? 참 뚜렷한 개성이로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성이란 자기가 무엇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바지할수 있는가를 집단앞에 보여주는데서 나타나야 하는것이다.》

맏아들은 얼굴이 수수떡빛이 되여 거칠게 숨을 톺아쉬였다.

《어떤 녀자와 결혼할것인가 하는건 내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닐가요?》

정순은 곰열을 씹은것만 같았다.

《스스로 결정한다? 넌 지금 심각한 인생의 갈림길앞에 서있다. 제멋대로 경솔하게 선택해서는 안된다. 심사숙고하여 가장 정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수 있다. 소와 말을 한수레에 메우면 둘 다 지쳐버리는 법이다.》

맏아들은 진정으로 안타까와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리 론리적인 말도, 창끝같은 말도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진 아들의 결혼에 대한 견해에 스며들수가 없었다.

더우기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가는 과정에 맏아들이 이미 《ス—1211》호연구를 포기했으며 장차로는 처가집의 덕을 입어 딴방향으로 출세해보려는 꿈을 꾸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정순은 한동안 자기의 귀를 의심했으며 다음에는 어떤 매우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저도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함흥에 갔던 맏아들이 돌아와 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던 그날부터 정순은 검은 비구름이 자기의 머리우를 서서히 뒤덮는것을 느껴왔었는데 아닐세라 드디여 거기에서 번개가 정순의 머리우로 쳐내린것이였다.

맏아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다니…

불과 20일전까지만 해도 기어이 《ス—1211》호를 연구해내리라는 투지에 넘쳐있던 그가 아니였던가. 정순이 가끔 너무도 안타까와 근심스러워하는 빛을 보이면 《어머니, 걱정마세요. 성공할 때

가 있겠지요.》 하고 웃음을 지어보이군 하던 그가 아니였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스스로 물러서다니?!

그 리유로서 맏아들은 전적으로 국내산원료에 의거하며 질좋고 값싼 《ス—1211》호의 개발은 현시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것을 들었다.

《나는 드디여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맏아들은 이렇게 단언했다.

그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것인가?!…

물론 형식적으로는 나에게 했다. 본질에 있어서 그는 나를 거쳐 장범에게 한것이 아니겠는가. …

정순은 저도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러자 눈앞에 전화의 그 이름없는 령길이 떠올랐다. 화광이 충천하고 폭음이 귀를 멍멍하게 했다. 장범은 그때 나에게 《피하라!》고 목터지게 웨쳤지. 혹시 그가 나에게 《살아라. 기어이 살아서 내대신 꼭 〈ス〉약물을 연구해달라!》고 웨치려 했던것은 아닐가? 그래서, 그가 그렇게 웨치려 했던것이라는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서 나는 그 연구에 착수했지.

지금 나의 맏아들은 나에게 그리고 나를 거쳐서 그에게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맏아들은 거기에 바쳐진 나의 한생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있는것일가? 입밖에 내여 말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일에 바쳐진 헛된 한생으로 생각하고있는것은 아닐가?

아, 나는 그 연구에 나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지 않았던가! 뜻밖에 눈에 입은 부상으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였을 때 나는 연구의 운명을 두고 얼마나 안타까와하며 모대겼던가. 연구의 운명에 대한 우려때문에 나는 맏아들에게 이 어머니의 유언처럼 여겨달라고 하면서 외과의사로 일하는지 1년이나 된 그에게 이제라도 약학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있는 힘을 다하여 끝까지 《ス—1211》호를 성공시키자고 절절히 당부하지 않았던가.

맏아들이 끝끝내 물러서버린다면 셋째아들 혼자만이 남는다. 현

미경작업도 할수 없고 몇페지의 글을 읽자고 해도 아프고 흐려드는 눈때문에 모지름을 써야 하는 내가 셋째아들에게 무슨 큰 도움을 줄수 있겠는가. 장차 《ス－1211》호의 운명은 어찌 될것인가. …

정순은 가슴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그의 눈앞에는 부상병후송렬차에서 내리던 부상병들의 모습과 그들의 피묻은 군복을 빨며 울던 일이 떠올랐다. 동시에 행복에 대한 공민의 권리를 운운하던 아들의 말마디들이 귀를 어지럽히였다.

아아, 피흘리며 쓰러진 전우들의 희생은 과연 무엇을 위한것이였던가!

정순의 가슴속에서 무서운 의혹이 일어났다.

정순은 이처럼 끝까지 따져보기가 두려운 괴로운 상념에 사로잡힌 자신을 자각하고 몸서리를 쳤다. 정순은 맏아들의 손목에서 번쩍이고있는 고급손목시계를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잊을수 없는 전우는 시계 하나를 남기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 시계를 전우의 분신으로 생각하면서 소중히 간수하고있던 정순은 공동연구를 부탁하던 날 맏아들의 손목에 제 손으로 채워주었으며 그날부터 아들은 어느 한때도 그 시계를 벗은적이 없었다. 지금 그 시계가 보이지 않는것이다. 그 시계대신 다른 시계가, 번쩍거리는 손목시계가 채워져있는것이다. 이제와서 맏아들은 두 시계의 가치를 달리 평가하게 되였단 말인가?

정순에게는 바로 여기에 윤수가 연구를 포기하게 된 기본적인 리유가 상징되여있는듯이 느껴졌다.

정순은 주로 도에 있는 맏아들의 연구실에서 격렬한 론쟁을 벌렸다. 성룡에 있는 둘째며느리앞에서 집안의 허물을 드러내보이고 싶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다음날 저녁 정순이 맏아들의 실험실에 들어가니 그는 실험탁우에 다음실험을 위하여 조립해놓았던 장치들을 해체해서 지함에 걷어넣고있었다. 그 실험은 함흥에 떠나기 전에 맏아들이 계획하였고 돌아오면 인차 시작할수 있게 해달라고 정순에게 부탁을 해두었던것이였다. 실험기구들이 해체되면서 내는 덜그럭 소리들과 지함안에 몰리워 들어가면서 내는 쟁그렁 소리들! 그 소리마다

가 정순의 가슴에 날이 선 파편들처럼 아프게, 아프게 들이박혔다. 그 실험의 결과는 오로지 맏아들만이 판정할수 있었으므로 저지시킬수도 없었다. 어디가서 하소연할수도 없는 슬픔과 억울함에 눈물이 솟구쳤다. 맏아들이 오면 즉시에 그 실험을 시작할수 있게 하려고 그는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없는 기구들을 구해오기도 하고 품을 들여 장치를 조립하기도 하고 용기들을 가셔놓고 시료들을 볶기도 하고 용액들을 희석하기도 하며 얼마나 기쁨에 잠겨있었던가. 정말 그런 때마다 그에게는 연구에 필요한 그 모든 책이며, 용기들이며, 시약들이며, 시료들이며가 마치 살아숨쉬는 귀엽고 소중한 생명체들로 느껴졌었다.

그것들이 모두 죽어버린것만 같았다. 자기마저도 그것들의 무덤속에 그것들과 함께 누워있는것만 같았다. 기둥처럼 믿었던 맏아들은 비렬하게도 물러서버리고 전문학교를 졸업한지 1년밖에 안되는 셋째아들과 변변치 못한 눈을 가진 자기만이 남게 된 지금 연구의 전망은 암담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있는 정순의 두눈에 짜디짠 눈물이 괴여올라 가득가득 맺혔다.

다음날 아침 정순은 맏아들의 책상우에 펼쳐진채로 놓여있는 의학대학졸업증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어제저녁 맏아들은 그것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밤깊도록 생각에 잠겨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을가? 《ス－1211》호연구를 그만두고 방향전환을 한 후에 누리게 될 사치스러운 생활을 그려보았을가? 그 대학졸업증을 발판으로 해서 처남들의 힘을 빌어 출세해볼 무지개빛 공상에 잠겨있었을가? 그랬다면 맏아들에게 있어서 대학졸업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기 하나만의 안일과 안락을 추구할수 있게 해주는 도구, 출세의 꿈을 이룰수 있게 해주는 간판인가?…

정순은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맏아들을 깨우쳐 깨우쳐 옳은 길에 들어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설복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가 빈틈없는 론리로써 스스로를 그럴듯하게 정당화하리라는것이 예감되며 입이 쓰거워져서 긴말을 하고싶지가

않았다. 자기가 소중히 품에 안고있는 귀중한 추억들이 맏아들이 내뱉는 말마디들로부터 모욕을 당할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 〈スー1211〉호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공민의 의무에 불성실한 사람들인가요?》이렇게 반문하는 맏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맏아들의 모든것이 역겨워졌다.

정순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맏아들과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것을 느꼈다.

먼저 떠나간 남편이 못견디게 그리웠다. 이런 때 남편이 있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였으랴. 정순은 언제나 남편이 묻힌 곳은 어느 양지바른 산기슭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속 깊은 곳이라고 굳게 믿고있었다. 그런 확신으로 해서 정순에게는 남편의 묘소의 의의가 그닥 크게 안겨오지 않았으며 마음속의 남편과 어느때든 만나 다정한 이야기를 나눈다는것으로 해서 추석과 같은 날들이 너무 제한적인듯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 어느때든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었으므로 재가같은것은 정순에게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정순은 기쁜 일이 생겨도, 가슴아픈 일이 생겨도 언제나 마음속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군 하였다. 그러면 기쁨은 더 커지는것만 같았고 가슴아픔도 한결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리 남편에게 울며 하소연을 해도 괴로움은 덜어지지 않았다. …

대부분의 주변사람들은 정순을 만나면 진심으로 권고하였다.

《둘이 좋다면 승낙해주어요. 막는다고 될일도 아닌데…》

정순은 그들에게 자기의 복잡한 심정을 도저히 설명할수가 없었다. 그 심정을 리해할수 없는 마을사람들의 눈에 맏아들의 결혼은 정정당당한것이였다. …

이렇게 되여 윤수는 《スー1211》호연구를 포기하였으며 그로부터 자기 식의 새 가정이 탄생하였다.

어머니의 반대는 윤수의 예상을 초월한것이였다.

만일 자기가 새로이 선택한 길이 자기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두 동생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것을 어머니가 리해

하시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윤수는 물러섰을것이다. 윤수는 왜 어머니가 보다 현실적이며 새로운 사고방식의 견지에서 문제를 폭넓게 보지 못하는지 안타깝기가 그지없었다. …

결혼후 윤수는 자기의 초라한 연구실을 떠나 번화한 도시로 옮겨와 으리으리한 집의 어엿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도인민병원 외과에 입직하였다.

미애의 맏오빠네 부부는 외국장기출장을 떠나갔고 미애의 어머니는 년로보장수속을 하고 맏아들네의 세 손자를 돌봐주러 온 재산을 딸과 사위에게 물려주고 평양으로 떠나갔다. …

만일 기차칸에서 가방이 바뀌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미애를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윤수는 계속 《ㅈ－1211》호연구를 했을것인가? 그리고 종당에는 성공을 했을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

3

준수는 언제나 일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군 한다. 그것은 쉴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날에만은 모든것을 잊고 통시간을 내여 오로지 《ㅈ－1211》호연구에 몰두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일요일이 되면 준수는 아침 일찍 공장구내에 있는 연구실로 내려가 거기에 온종일 들여박혀있다가 하늘에 별이 총총한 깊은 밤이 되여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준수는 아직은 새벽이라 할수 있을무렵에 이른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어머니가 뒤쫓아나오더니 저녁에 정봉철초급당비서를 꼭 집에 모시고 오라고 당부하는것이였다. 오늘이 조카의 돌생일이니 겸사해서 인사차림을 하자는것이였다. 준수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어머니로부터 이런 당부를 받는것이 벌써 몇번째다. 그때마다 준수는 이런저런 구

실을 붙이며 피해왔었다.

준수는 정봉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있었으며 고맙게 여기고 있었다. …

그러니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초청하여 식사라도 같이 나누는것은 마땅한 도리일것이다. 더우기 그는 아직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고 합숙에 있지 않는가. (정봉철은 얼마전에도 자기에게 배정된 집을 병원의 다른 성원에게 양보했다.) 모든것이 리치로 보아 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주저하게 되였다.

준수는 원장이 자기가 하고있는 연구를 한때의 허영으로 여기면서 그닥 달갑게 여기고있지 않다는것을 짐작하고있었다. 준수는 《ス－1211》호에 대한 당비서의 지지가 자기로서도 전모를 다 헤아릴수가 없는 티없이 순결하면서도 크낙한것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준수가 내심의 충동대로만 당비서를 대한다면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지나친것으로 보일게고 오로지 준수만이 느끼고있는듯한 당비서의 티없이 순결하고 크낙한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당비서의 지지의 기초를 두고 오해를 할수도 있었다. 준수는 자기를 리해해주지 않고있는 원장에게 억지스럽게 다가붙고싶지 않았으며 동시에 자기를 깊이 리해하고 적극 도와주고있는 비서에게도 사업상 이외의 일로는 정도이상으로 가까이 접근하고싶지 않았다. 자기가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원장과 당비서사이를 버그러지게 할수도 있다는것이 예감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준수가 결코 누구의 오해가 두려워 주저하는것은 아니였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준수가 정봉철에 대해 품고있는 고마움과 존경심은 참으로 진실한것이였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 마음을 입밖에 낸다든가 인사를 차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밖에 드러내고싶지 않았다. 어색스럽기도 했고 적절치 않은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기때문이였다. 그 소중한 심정은 마치 공기를 쏘이면 퇴색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것인듯 하였다. 언제까지든 그것을 밖에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싶었다. 이것이 리유라면 리유인데 그것

을 명확하게 정의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준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서 갖가지로 방조도 받고 신세도 졌으며 그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가군 했다. 그런데 정봉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지를 않았다.

한달전의 어느날 준수가 정봉철당비서를 모셔오라는 어머니의 부탁에 못이겨 퇴근무렵 병원에 올라가니 방에는 문이 채워져있었다. 혹시 원장방에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쪽으로 다가가던 준수는 원장방의 반쯤 열려진 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당비서의 흥분한 말소리가 새여나오고있었기때문이였다.

《…준수동무가 연구를 하게 된데는 이처럼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자기 본신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한마음으로 아글타글 하는 그 지향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사람은 해낼겁니다. 반드시 해낼겁니다.

우리 일군들은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인재라, 특별한 재능이라… 준수는 과분한 믿음과 기대앞에 송구스러움이랄지 책임감이랄지 고마움이랄지 종잡을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으며 그냥 되돌아서고말았었다. 이상한 일이였다. 왜 돌아서게 되는걸가?…

준수가 이번에도 어정쩡한 태도로 망설이는것을 보고 어머니는 오늘은 아예 다짐을 받아낼 잡도리였다. 준수는 할수없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하고서야 집을 나설수 있었다.

그날오후 정봉철이 연구실로 준수를 찾아왔다. 공장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렸다는것이다. 하지만 실험탁우에 내려놓는 책을 보니 그는 우정 준수를 만나러 찾아온듯 하였다. 그 책이 윤수의 학위론문이였기때문이였다.(렬차에서 바뀌였던 가방이 후에 윤수손에 되돌아왔었다.) 며칠전 준수의 연구실에 들렸던 정봉철은 그 론문을 한번 보겠다고 가져갔댔던것이다.

맏형으로부터 연구를 포기하고 외과의사로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준수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다음엔 환멸과 배신

감에 휩싸였다. 군대때 대학추천을 받고 《ス－1211》호연구에 합세하겠다는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냈을 때에도 준수는 연구에서 기둥은 어디까지나 맏형이고 자기의 역할은 보조적인것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생각했었다. 그처럼 마음속으로 의지하고있던 형의 립장이 돌변해버렸으니 그때 준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준수는 형의 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밑뿌리에 그냥 스쳐버릴수 없는 그 무엇이 깔려있음을 감촉하고 그에 대해 형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속생각을 그대로 터놓을수가 없었다. 형의 결혼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되겠기때문이였다. 맏형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어려워하던 준수로서 어찌 그런 충고를 입밖에 낼수 있었으랴! 오히려 준수는 격분해서 이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애를 썼었다.

준수가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거리는 사이에 결혼은 이루어졌고 형은 함흥으로 가서 도인민병원 외과에 입직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짐은 거의나 준수의 두어깨에 실리게 되였다.

맏형의 포기이후로 준수는 연구를 심화시키면 시킬수록 자기의 힘은 차츰 진해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둘러메쳐야 할 연구대상은 사납고 못된 귀신처럼 점점 더 몸집이 육중해지기만 하는듯한 절망감에 자주 빠지군 했다. 어떻게든 일단 눈에 뜨이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차차로 연구를 더 심화시켜야 하지 않을가?

준수는 형이 보내온 론문에 씌여진대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 하고있는 방법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가지고 그것을 우리 나라에 도입하기 위한데로 연구의 방향을 돌리면 어떨가 하고 혼자 궁리를 해보고있는 중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어머니와도 토론을 해보지 않고있었다.

정봉철은 실험탁앞에 놓인 걸상에 앉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준수동무는 이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오?》

그의 어조에서 심각한것이 느껴졌으므로 준수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하도 앞이 내다보이지 않아 그런 생각도 해보고있는 중입

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원료에 의존해야 하지 않소?》

준수는 한숨을 내쉬였다. 그것은 스스로의 떳떳치 못함을 저도모르게 인정하는듯한 한숨이였다. 그래도 입에서는 한숨과 다른 성격의 말이 튀여나갔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보전진이 아니겠습니까?》

정봉철은 《일보전진이라…》 하고 되뇌이고는 탁우에 놓여있는 준수의 만년필(그것은 정치지도원이 준것이였다.)을 오래동안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그다음에는 그 시선이 영웅전사의 손목시계에로 옮겨졌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준수는 속이 뜨끔했다.

한참후에 정봉철은 말을 계속했다.

《지금 당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울것을 거듭 강조하고있소. 철을 해도 주체철, 섬유를 해도 주체섬유, 약품개발에서도 우리 나라 원료와 우리 나라 기술에 의거하는 약품을 해낼것을 요구하고있소. 이 요구는 적들이 〈봉쇄〉요 〈제제〉요 하고 악에 받쳐 떠드는 조건에서 더욱 커다란 의의를 가지오. 내가 준수동무에게 특별히 이 문제를 강조하는것은 무엇을 끝까지 해내려면 우선 마음의 기둥이 굳건해야 하기때문이요. 이 기둥이 똑바로 서있지 않은 사람은 탐구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소.》

정봉철이 나간 다음 준수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지금까지 준수는 맏형이 해오는 연구내용을 알고있었으며 그에 반대립장을 취해왔었다. 어머니 역시 준수와 같은 립장이였다. 그러나 맏형이 일단 무엇이든 이루어내는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하도 우기는 바람에 준수와 어머니는 어쩌지를 못하고있었다. 사실 어머니는 눈때문에 거의나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형편이고 준수는 첫발을 들여놓은것과 같은 상태였으므로 연구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맏형의 주장을 꺾는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래서 준수는 독자적으로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는 길로 나아가고 맏형은 일

단 시작한 과제를 끝내고 학위나 받은 다음 준수의 연구에 합세하기로 서로 타협을 했었다. 준수는 만형의 연구를 신통치 않게 여기면서도 그것은 그것대로 일정한 의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했었지 정봉철처럼 그런 각도에서는 생각해보지를 못했었다. 그런데 정봉철의 말을 만형의 갑작스러운 결혼과 그에 뒤이은 연구포기와 련결시켜보니 무시할수 없는 론거가 느껴지기도 했다.

마음의 기둥이 굳건해야 한다?… 이 론문의 필자에게서는 그것이 흔들리고있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나까지도 동요하고있단 말인가? 리상적인 《ㅈ》약물을 연구해내면 좋은줄 누군들 모르겠는가. 하도 막막하니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답보보다는 일보라도 전진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준수는 자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궁지에 몰아넣은 만형의 배신에 원한을 품기도 하고 정봉철에 대해 섭섭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모저모로 자신을 정당화해보기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잊고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어스름이 깃들고있었다. 그때에야 비로소 어머니의 당부가 생각나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합숙 1층홀에 들어선 준수는 커다란 밀대로 대리석바닥을 청소하고있는 뚱뚱한 관리원아주머니에게로 다가갔다. 정봉철의 방이 2층에 있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몇호실이였던지 잘 생각나지 않았던것이다. 관리원아주머니는 10호실이라는것을 대주면서 거기에 가는 길이라면 꽃병을 가져다주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마가을에는 구하기가 힘든 아름답고 싱싱한 생화들이 가득 꽂혀있는 꽃병을 받아들고 정봉철의 방에 가보니 문은 걸려있지 않았는데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앞에 서서 한참동안 기다리던 준수는 복도를 지나가는 처녀들이 자기를 쳐다보며 저들끼리 웃으면서 소곤거린다는것을 눈치챘다. 합숙생들은 대체로 처녀, 총각들이였다. 자기가 마치 꽃다발을 안고 애인을 찾아온것처럼 보이리라는것을 짐작한 준수는 먼저 꽃병만이라도 안에 들여놓아야겠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방안에 들어가 커다란 책상앞으로 다가간 준수는 온몸을 줄달음치는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하마트면 꽃병을 떨어뜨려 깨뜨릴번 하였다. 책상우에 놓여있는 공화국영웅증서와 한장의 사진을 보았던것이다. 사진속의 두 군관은 미소를 짓고있었는데 한명은 정봉철당비서이고 다른 한명은 잊을수 없는 옛 정치지도원이였던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고 뒤면을 보니 거기에는 《정치대학을 졸업한 아들과 함께》라는 글이 씌여져있었다. 공화국영웅증서는 정치지도원동지의것이였다.

잊지 못할 정치지도원은 중대에 배치되여온지 두달도 못되여 영웅적최후를 마친데다가 과묵한 편이였다. 하지만 이 순간 준수의 머리속에는 언젠가 그에게서 자기의 아버지는 군의이며 자기의 고향 역시 이고장이라고 하던 말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따금 정봉철이 믿음과 기대가 어린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군 하던 일이며 아까 연구실에 찾아왔을 때에도 사연깊은 만년필을 오래도록 뚫어지게 바라보던 일들이 번개처럼 머리를 때렸다.

침대우에 열려진채로 놓여있는 트렁크안에는 진밤색으로 번들거리는 귀중품함이 들어있었다. 그 함의 뚜껑이 열려져있고 안은 비여있는것으로 보아 이 영웅증서와 사진은 그안에 소중히 보관되여있었던것 같았다. 틀림없이 정봉철당비서는 한 당원에게, 아들의 옛전우에게 아픈 말을 해주려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 증서와 사진을 꺼내보았을것이다. …

준수의 눈앞에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적들을 쏘아보며 기관총을 휘두르던 정치지도원의 불사신같은 모습이 떠올랐으며 귀가에는 기관총의 날카로운 련발사격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정치지도원의 령전에서 기어이 《ス－1211》호를 연구해내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던 자기의 모습이 되새겨졌다. 준수에게는 아까 오후에 정봉철이 혼자서가 아니라 옛 정치지도원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왔댔던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비판도 혼자말인것 같지 않았다. 정치지도원이 살아돌아왔다고 해도 같은 비판을 했으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지 않는가.

정봉철당비서가 제때에 회초리를 들었다. 옳은 일은 적극 지

지해주고 탈선하려고 하면 즉시로 아픈 매를 드는 정봉철당비서!

이제야 비로소 준수는 형이 물러선 이후로 자기가 절망과 외로움,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있었으며 저도모르게 순간이나마 동요하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도 역시 준수는 그 어떤 헤아릴수 없는 커다란 존경과 감사의 정에 목이 메였으며 이 티없이 순결하고 크낙한것에 대해 무슨 인사차림을 하려 한다는것이 도리여 상대방에게 모욕으로 되는 감을 느꼈다. 그는 되돌아섰다.

1층홀에서 준수는 들어오고있는 정봉철을 만났다.

《제가 잘못 생각했댔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준수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정봉철은 준수의 두손을 뜨겁게 감싸쥐였다.

《동무는 제대군인이요. 〈ㅈ-1211〉호는 동무가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스스로 맡아안은 전투명령이 아닌가. 어렵더라도 이겨내야지. 난 동무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릴 때 거기에 한점의 티도 없기를 바라오.》

준수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는 급히 되돌아서 출입문쪽으로 총총히 걸음을 옮겼다.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눈물을 보일것만 같아 마음이 황급해졌던것이다.

출입문을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보니 정봉철은 따뜻한 미소가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정봉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좀전에 사진을 보아서 그런지 그의 곁에 옛 정치지도원도 함께 서있는듯한 환각이 들었다. 합숙문을 나서 집으로 걸어가는 준수의 머리속에 나란히 서있던 그 두사람이 나이도 체격도 생김새도 성미도 다르지만 너무나도 서로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때문일가? 번개처럼 머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그 두사람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령도하고계시는 우리 당의 참모습이 비껴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아, 그래서였구나! 문득 준수는 어째서 희생된 정치지도원이나 정봉철당비서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군 했었는지에 대한, 오래도록 풀길이 없었던 의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했다.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거나 인사차림을 하려는 아들은 없다.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바라는것은 그런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어머니가 천만가지 고생을 모두 락으로 여기면서 아들에게서 바라는것은 오직 훌륭한 사람이 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큰일을 해달라는것뿐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큰일을 해내는것만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아들의 진정한 보답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기어이 《ス－1211》호를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는 약품으로 개발해내리라. 이것만이 위대한 어머니당앞에 아들된 도리를 다하는 길일것이다. 희생된 정치지도원과 정봉철당비서가 나에게서 바라는것도 오직 그것뿐이리라!

이렇게 걸음걸음 떠밀어주며 한치라도 헛디딜세라 손잡아 이끌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는 한 두려울것이 무엇이고 못해낼것이 무엇이랴!

준수는 온몸으로 뻗쳐가는 새힘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굳은 맹세를 다졌다.

제4장 불협화음

1

윤수가 미애와 결혼을 하고 함흥으로 옮겨와 도인민병원 복부외과에 입직을 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다. …

이날도 장기친구에게 붙잡혀있다가 늦게야 집에 돌아온 윤수는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쏘파에 주저앉았다.

잠시후에는 몸을 뒤채겨 쏘파의 팔걸이를 베개삼아 베고 다리를 길게 펴고 누우면서 팔을 뻗쳐 서가에서 손에 닿는대로 책 한권을 끄집어냈다. 뚜껑을 보니 소설책이였다. 가운데쯤 펼치고 몇줄 읽어보느라니 술기운때문인지 글줄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책을 내던지고 원격조종기로 텔레비죤을 켰다.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이라는 록화편집물이 방영되고 있었다.

거리를 메운 실업자들, 숨죽은 공장들, 파철더미로 되여버린 용광로들과 제철, 제강설비들, 세워놓은 서방관광객들의 승용차들에 달라붙어 청소를 해주고는 몇푼의 돈을 구걸하는 거지애들, 사회주의시기에 받은 훈장과 메달들을 팔겠다고 내놓고 앉아있는 로인들…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의 비참한 광경들이 련이어 흘러갔다.

뒤이어 페르샤만전쟁을 취급한 특집이 방영되였다. 화면에는 페르샤만해상에 떠있는 순양함과 전함들이 나타났다. 합선들에서는 어둠을 뚫고 커다란 불덩이들이 지상을 향해 날아가고있다. 미군이 페르샤만전쟁때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했다고 하는 《토마

호크》순항미싸일들이다. 그것들이 날아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있다. 이라크군대의 지휘소들, 미싸일기지, 비행장, 중요통신쎈터 등이 폭발의 화염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송두리채 날아나버리고있다. 이번에는 낮인데 광활한 사막의 상공에서는 일렬로 줄을 지은 《아파치》공격용직승기들이 초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지상목표들을 향해 불을 뿜고있었으며 지상에서는 땅크들이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고속으로 돌진하면서 이라크군의 전호들을 타고넘고있었다.

화면과 함께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이번 페르샤만전쟁은 총대를 소홀히 할 때 어떤 비참한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더우기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라크 다음은 북조선〉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는 조건에서…》

이때 미애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 녀자는 윤수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참, 한가하게 텔레비죤이나 보고있군요. 언제부터 당장 된다던 당신의 학위론문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와 오빠들은 저에게 자주 물어보군 해요. 털어놓고 말한다면 어머니와 둘째오빠는 그때 당신이 학위론문을 쓰고있다는 소리를 듣고 막 저에게 강박을 하다싶이 했어요.》

《무슨 강박을 했단 말이요?》

《당신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강박을 했지요.》

《그러니 당신은 그 강박때문에 나에게 시집을 왔다는거요?》

《그런거야 아니지요. 나도 박사사모님이 되고픈 생각이 있었지요. 난 그때 인차 되는줄 알았지 이렇게 질질 끌줄은 몰랐어요.》

《그게 어디 생각대로 척척 되는 일이요.》

《장기 두고, 낚시질 다니고, 잡담 하는 시간만 거기에 바쳤어도 끝낸지 오랬겠어요. 무엇이 걸려서 그래요? 걸리는건 내가 죄다 보장해주겠으니 빨리 끝내세요. 저도 한번 박사사모님이 되여보자요. 어머니와 오빠들이 물어볼 때 딱하기도 해요.》

윤수는 아픈데를 찔리운듯 하기도 하고 궁지에 몰린듯 하기도 하

여 당치 않게 역증을 내며 안해를 걸고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공부를 하지 않소. 대학졸업생이라는게 책한권 제대로 들여다보는걸 본것 같질 않소.》

이런 말만 나오면 의례히 신경을 곤두세우던 미애가 예상외로 방긋 웃기까지 했다.

《공부를 하라는 당신의 말은 옳아요. 저도 막 영어에 착수하려던참이예요. 좀 배워주세요. 대학때 하느라 하긴 했지만…》

윤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게 정말이요? 당신이 이제 외국어를 한다?》

《왜, 믿어지지 않아요?》

미애의 얼굴에 만족한 웃음이 피여올랐다.

《자, 보세요.》

가방을 뒤적거리던 미애는 서너개의 록화테프를 꺼냈다.

《영어교육용록화물이예요.》

윤수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미애는 쏘파에 한껏 기대여 까르르 웃음을 터치고나서 심중한 기색으로 탁자에 허리를 굽혔다.

《오전에 전화로 오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단 말이요?》

《외국 가는 문제말이예요.》

윤수는 비로소 왜 이 녀자가 갑자기 영어요 뭐요 하는지를 리해할수 있었다. 당장 가게 되였는가?

《그래 뭐랍디까?》

《인차 될것 같애요.》

미애는 누가 엿듣기라도 하는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제 부국장이 인차 함흥에 내려온대요.》

《무슨 일로?》

《물론 국의 일때문이지요. 겸사해서 대극장에도 들린대요. 막내누이동생이 여기 있는데 대극장의 로선생에게서 발성련습을 받게 해달라고 맏오빠에게 졸라댄다더군요. 맏오빠는 평양에 소환되기 전부터 로선생과 잘 아는 사이라는군요. 내 오빠도 따라올거예

요. 그때 함께 들릴수도 있어요. 오빤 거기엔 뭣하려 들리겠느냐고 하였지만 끝내 다짐을 받아냈어요. 낯을 한번 익히는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예요. 그리고 인차 적당한 기회를 봐서 우리 문제를 제기하면 틀림없이 될거예요. 당신도 병원에서 생활을 잘 하세요. 크게 제기만 안되면 되지요.》

미애는 가방을 뒤져 인형 하나를 꺼내더니 서재의 오른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비닐야자나무의 잎새가 돋아난 바로 밑에 걸어놓았다. 밀짚모자를 쓴 그 인형은 야자나무와 잘 어울리면서 방안 전체에 열대의 무더위가 몰려들고 백사장의 뜨거운 모래가 발밑을 달구는것 같은 이국풍의 분위기를 돋구어주었다. 다시 쏘파에 와 앉은 미애는 이것저것 록화테프를 고르더니 록음기의 단추를 눌렀다. 미애는 눈을 감고 전자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발장단까지 쳤다. 그 녀자는 지금 장미빛구름에 실려 머나먼 다른 나라로 둥둥 떠가는 달콤한 꿈에 취해있었다.

미애를 윤수와의 결혼에로 떠밀어간 힘도 본질에 있어서는 애정이 아니라 허영심이였다.

그때 어머니와 오빠는 윤수가 그 무슨 연구까지 한다는것을 알고 몹시 놀라고 대견해하면서 그런 사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미애를 거의나 욱박지르다싶이 하였다.

오빠는 한손까지 내흔들며 이렇게 말하였다.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창조해낸다는것은 물론 대단한 일이다. 그보다 높이 사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그런 창조를 지향하는 정신세계다. 그런 높이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례외없이 고상하고 훌륭해지는 법이다. 저처럼 나무랄데 없는 대상자를 네 손으로 골라잡았다니 너를 다시 보게 되누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잘 생기고 몸가짐이 무게있는데다가 혀를 내두를만큼 박식하지. 더군다나 중요한 연구까지 한다니 과연 말그대로 〈크고 단 참외〉다. 얘, 미애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꽉 붙들거라. 그리고 어떻게든 잘 도와서 그 사람의 연구가 꼭 성공하도록 해라.》

어머니와 오빠는 윤수가 연구를 한다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잘 도와주라고 간곡히 당부를 했지만 미애는 딴생각을 하며 귀등으로 흘러넘겼다.

상점에서 윤수를 본 첫 순간에 미애는 홀딱 반하고말았다. 후리후리한 키에 름름한 몸매, 여름샤쯔밖으로 드러난 돌덩이같은 팔뚝— 이 모든것은 이름난 롱구팀의 기둥선수를 련상시켰다.

기름하고 리지적인 얼굴은 보기 드문 흰색이였는데 특히 날카롭게 흘러내린 코등에서 그 흰빛의 모든 우점들이 특별히 강조되고있었다. 그 흰빛은 까맣고 윤기도는 머리칼, 짙고 검은 눈섭 그리고 그밑에서 빛나고있는 맑고 검은 눈동자의 아름다움을 몇배로 더 두드러지게 했다.

윤수야말로 미애가 오래동안 공상속에서 그려보던 남자였다. 윤수의 얼굴은 때없이 그 녀자의 눈앞에 떠오르군 했고 그때마다 거기에서 뿜어나오는 향기그윽한 미의 술은 그 녀자를 함뿍 취하게 했다. 물론 꿈꾸어오던 리상적인 결혼대상자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윤수에게 이러저러한 부족점들도 있었지만 미애는 주저하지 않았다. 《난쟁이의 키를 늘구어줄수 없고 추남을 미남으로 바꿀수 없고 바보를 깨우쳐 현인으로 둔갑시킬수는 없지만》 내 능력을 가지고 남편의 앞길 하나 틔워주지 못하겠는가.

한동안 출로를 모색해본 미애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최종적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

미애의 아버지는 대외사업일군이였는데 그 녀자가 겨우 젖을 뗄무렵 귀국한 후 인차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 시절의 사진을 보았거나 어머니와 오빠들의 말을 들은것외에는 해외생활에 대해 아무러한 실제적인 표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녀자는 마치 보리수 우거진 정원에서 중세기건축물들의 첨탑이나 내다본듯이 동무들에게 자랑하군 하였다. 일찌기 남편을 잃은 슬픔은 어머니의 맹목적인 모성애를 거의 열광적인것으로 되게 하였다. 그 모성애는 주로 딸이 잘못을 저질러도 꾸지람 한번 하지 않고 딸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데서 표현되였는데 그것이 미애의 정신적인 성장에 매우 유해롭게 작용하였다. 특이한 환경의 덕

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었던 그의 두 오빠는 외국어대학을 졸업한 후 인차 대외사업부문에 진출하였다. 그들은 나이가 훨씬 아래인 누이동생을 몹시 사랑하였고 그의 응석을 너그럽게 받아주었으며 가끔 값비싼 사치품들도 선물하군 하였다.

바람을 한번 쏘여보자는것도 순전히 그 녀자의 허영심에서 나온 구상이였다. 그 녀자의 그 구상은 차츰 현실화되여가고있었다. 눈을 감고 쏘파에 반쯤 누운 미애의 귀가에 야자나무의 설레임이 달콤히 들려오고있었다. …

안해의 흥분은 윤수에게 그대로 옮겨졌다. 쌍까풀수술문제는 그를 여전히 불쾌하게 했지만 다툴 생각까지는 없었다. 도수높은 술을 빈속에 들이켰을 때처럼 안해의 말은 그를 삽시에 취하게 하였다.

윤수가 외국에 나가게 되기를 고대하는데는 다른 리유도 있었다. 그는 자기가 다니고있는 도인민병원을 위해서도 크든작든 기여를 할 마음을 품고있었다.

외과는 렌트겐과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렌트겐과에서 새로 받은 최신식대형렌트겐촬영기가 화면의 질은 매우 좋은 반면에 자주 고장이 나는 결함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을 세워두고 종전의 낡은것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처남들을 믿고 윤수는 렌트겐과장에게 필요한 부속들의 명세를 써달랬다. 그것들의 값이 약차하다는 소리를 미애에게서 듣고나서는 선뜻 처남들에게 부탁하게 되지 않았다. 렌트겐과장에게 큰소리를 친 그는 매우 딱한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그후부터 그는 과장을 만나면 애매하게 얼버무리면서 정확한 대답을 피했다.

가끔 새것이 고장나 낡은 촬영기를 쓰는것을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 이러루한 경우들을 그는 자기가 일하는 외과를 비롯해서 병원내의 여러곳에서 목격하였다. 물론 그것들이 사회주의시장의 급격한 해체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현상이기는 하겠지만 그로 해서 치료성원들이 안타까와하고 환자들이 사소하게나마 불편을 겪고있는것을 보면서 윤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으며 만일 자기

에게 기회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해결해보리라 단단히 마음먹고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는 외국에 나가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있었다.

이때 문득 미애가 《이것 참, 멋이 있는데요!》 하고 환성을 질렀다.

그바람에 윤수는 상념에서 벗어나 얼떨떨해서 처를 바라보았다.

《?!》

《준수동생과 향순이를 붙여주는것이 어떻겠어요?》

《향순이란 누구요?》

《참, 내가 말을 안했던가요? 향순인 아까 말했던 그 부국장의 막내누이동생이예요.》

《붙여준다?!》

《그럼요. 이제 봄이 되면, 그러니까 두석달후면 준수동생이 대학에 통신등교 올라오겠지요. 그때 내가 나서겠단 말이예요.》

《쓸데없는 소리.》

《아니, 난 기어코 성사시키고야말겠어요. 우리 일은 부국장의 결심에 크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아주 잘못한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요?!》

《제대될 때 추천받았던대로 그냥 주간대학에 갔을걸 그랬어요. 향순이네한테 동생을 소개할 때 전문학교졸업생이라거니 지금 통신대학에 다니는 중이라거니 해야겠는데 그러자니 내 립장이 어딘가 구차스럽기도 하고 또 동생의 인품도 어지간히 깎일거란 말이예요. 동생이 제대군인이며 당원에 대학졸업증까지 가지고있다고 소개를 한다면 그쪽에서도 혹 할것이고 형수로서 내 위신은 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동생은 머리도 비상하지 또 잘 생기고 똑똑해서 어디에 내세워도 나무랄데가 없는데 딱 한가지 흠은 간판이… 이를 테면 대학졸업증이 없는거예요.》

윤수는 안해의 말에 긍정되는바가 있어 속이 알찌근했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않고 큰소리를 쳤다.

《여보, 사람이 실속이 있으면 되는거지 간판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모르는 소리. …

하여튼 이미 일이 이렇게 된걸 이제와서 가타부타 한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바로잡아야지요. 내가 나서서 안되는 일이 어데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처녀가 성룡구에 가자고 할가?》

《그 산골엔 왜 보낸단 말이예요. 동생을 여기로 끌어내와야지요. 그다음에는 도의약품관리소에 넣고 한 2년쯤 지내면서 검정시험으로 의사자격을 쥐게 한단 말이예요. 동생은 머리도 좋겠다 이미 고등의학전문학교 약학과도 졸업했겠다 하니 의사검정시험쯤은 마음만 먹으면 능히 통과될수 있을거예요. 당신은 이번에 동생이 올라오면 잘 타일러서 의사검정시험준비나 착실히 하라고 하세요.》

윤수는 정황에 대한 안해의 예리한 통찰력과 신속한 결심에 놀랐다. 그는 확실히 자기의 운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을 알아내고 그에게 접근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는데서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있었다.

윤수는 갑자기 뭐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지만 눈을 뚝 부릅뜨고 단단히 욱박질렀다.

《여보, 그 문젠 내가 알아서 동생과 이야기를 해볼테니 당신은 절대로 나서지 마오. 알겠소?》

《그렇게 하지요. 그건 그렇고. 여보, 래일은 저와 함께 흥남항에 갔다오자요. 그전에 말했던 그일 때문에요.》

《안되오. 난 래일 출근해야 되오.》

《아니, 래일이야 일요일이 아닌가요?》

《난 일직이란 말이요.》

《예—그러니까 래일은 안되겠군요.》

미애는 말꼬리를 길게 끌며 아쉽다는듯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

그날밤 윤수는 오래동안 잠들지 못하고 막내동생의 혼사에 나서

겠다면서 한 안해의 말을 거듭거듭 되새겨보았다. 윤수는 결혼과 관련하여 막내동생이 자기와 비슷한 정황에로 접근하고있다는것을 깨닫고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것은 숙명인가? 동생은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 또 어떤 선택이 막내동생을 행복하게 해줄것인가? 나는 막내동생에게 어떤 조언을 주어야 하는가?…

도인민병원 복부외과는 4층에 자리잡고있다.

그 방의 창가에 서면 약학대학의 전모가 한눈에 안겨온다.

위생복을 입고 위생모를 단정히 쓴 윤수는 약학대학쪽을 바라보며 어제저녁 안해가 한 제의를 다시한번 곰곰히 따져보고 있었다.

전화종소리에 그는 깊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여보세요, 복부외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합니다. 김선생이 계십니까?》

윤수는 그제서야 안해의 목소리를 가려들었다.

《나요. 그런데 왜 그러오?》

윤수의 어성은 신경질적으로 높아졌다.

《아이, 당신이예요? 퇴근하면 빨리 들어오세요. 오빠가 부국장과 함께 왔어요.》

《뭐요?》

그는 저도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저녁 6시에 집에 들리겠대요. 9시 최대급행렬차로 가겠다니 꼭 들어와야 해요.》

《알겠소.》

수화기를 놓고난 윤수는 주먹을 쥔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툭툭 치며 근무실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는 《외과간호학》을 뒤적거리던 직일간호원이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있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어제저녁의 흥분이 다시금 윤수를 사로잡았다. 시계를 보니 5시였다. 6시면 직일근무를 교대한다. 윤수는 부국장과 같이 술 한잔

나누는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문건은 어디까지나 문건일뿐이다. 술상에서는 인간의 정이 오간다.

후날 내 문건을 볼 때 부국장은 오늘일을 떠올릴것이다. 그의 입가에 부지중 미소가 그려질것이며 비슷한 조건에 놓여있는 수십건의 문건중에서 자연히 내 문건쪽으로 손이 뻗쳐질것이다. 옛날부터 큰 나무신세는 못져도 큰사람 신세는 진다고 했다. 참으로 절호의 기회였다.

바로 이때 여러명의 다급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휴식일의 정적을 깨뜨리는 그 소리는 분명히 구급환자를 담가로 나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가까와올수록 윤수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다. 3층계단을 꺾어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며 윤수는 벌써 일이 심상치 않다는 예감을 느꼈다. 아닐세라 그의 조마스러운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요란한 발자국소리는 문앞에서 멎었다. 문이 급히 열리고 병력서를 말아쥔 접수과 의사를 선두로 담가에 실린 환자가 들이닥치자 윤수는 눈앞이 아뜩했다.

환자는 왼팔과 왼쪽다리에 의수와 의족을 한 영예군인이였다. 영북구에서 구급차로 파송해왔다는데 병세는 매우 위급했다. 종이장처럼 창백하고 식은땀으로 덮인 얼굴, 솟아오를듯한 광대뼈, 우묵 꺼져들어간 눈확, 새파란 입술… 전형적인 위병이였다. 심한 배아픔으로 환자는 의식을 잃고있었다. 병력서를 들여다보니 궤양의 병력이 있었고 초진도 위천공이였다. 중환자는 인계하지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끌지 모르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이 환자와 씨름을 하게 되였다. 수술 한건 못해보고 하루를 지나보내는가 해서 은근히 걱정하고있던 두명의 실습생을 불러서 협의를 했다.

렌트겐검사에서 횡격막밑의 공기음영이 나타났으며 폐간경계도 소실되여있었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궤양성천공이 틀림없었는데 경과한 시간으로 보나 실험실검사소견으로 보나 복막염으로 넘어간것 같지는 않았다. 예상했던대로 수술은 불가피했다.

아마 운명이겠지… 윤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 한가지 출로가 있을수 있다는 생각이 피뜩 떠올랐다. 광폭위절제술이 아니라 봉합술을 해야 할 대상이라면?…

궤양성천공인 경우 두가지 수술법을 적용할수 있다. 즉 광폭위절제술과 봉합술이다. 위의 3분의 2를 잘라내야 하는 대수술인 광폭위절제술은 다섯시간도 더 걸릴수 있었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어려운 수술이다. 봉합술은 30분 걸리나마나한 손쉬운 방법이다. 원칙적으로는 광폭위절제수술을 해야 한다. 환자의 일반상태가 극히 나빠서 대수술을 견디여내지 못할 정도이거나 천공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또 천공이 생긴 부위나 크기에 따라 봉합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봉합술을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수술장은 다른 건물의 5층에 있었다. 수술준비를 지시한 다음 《수술학》을 다시한번 훑어보고 복도의 층계를 내려오는 윤수의 눈앞에는 술상을 차려놓고 연신 시계만 쳐다보는 처와 애꿎은 담배만 태우며 창가에 서있는 처남, 자기 문건을 얼핏 쳐다보고는 불합격자명단쪽으로 훌 집어던지는 부국장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소독실에서 손을 씻고 수술복을 입으면서도 마취가 끝났다는 마취의사의 보고를 듣으면서도 기계수가 넘겨주는 수술칼을 집으면서도 그는 제발 봉합술을 하게 되였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먼저 회맹부를 째보고 그는 위천공이 틀림없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웃배부 정중절개를 하고 배안을 세척해낸 다음 위벽을 검토해나갔다. 소만부가 위각으로 넘어가는 부위에서 팥알만한 크기의 구멍을 발견했을 때 윤수는 결심이 섰다. 봉합수술을 할수 있는 대상이였던것이다. 일반상태도 나빴다. 그는 단숨에 수술을 해치웠다. …

대기실에서 마음을 조이며 기다리던 딸이라는 처녀가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윤수의 손을 부여잡았을 때 그는 이마에 내돋은 땀을 씻으며 너그럽게 웃었다.

하면서도 그는 부국장과 나누게 될 첫 대화를 생각하고있었다.

2

준수가 약학대학통신 2학년에 편입한 때로부터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갔으며 드디여 봄이 왔다.

2학년 등교통지서를 받고 집을 떠나 함흥역에 내린 준수는 곧장 기숙사로 갈것인지 아니면 맏형네 집에 들렸다 갈것인지 한동안 망설였다. 물론 등교기간 기숙사에 있기로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맏형네 집에 들려보지도 않는다는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처사같았다. 그런데 정작 들리자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지면서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그동안에 준수는 연구사업때문에 함흥에 두번씩이나 왔다 갔지만 맏형네 집에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맏형은 준수가 1년에 두번씩 등교한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아예 안들릴수는 없는것이였다. …

퇴근하여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서재의 쏘파에 드러누워 소설책을 대충 번져보고있던 윤수는 초인종소리를 듣고 전실을 지나 문으로 나갔다.

안해가 퇴근하여 들어오는줄로 알았던것이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문밖에 서있는 막내동생을 보았을 때 몹시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 못할짓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듯이 어색스럽고 괴로왔으며 구속감을 느꼈다.

서재로 들어가 원탁을 사이에 놓고 막내동생과 마주앉았지만 윤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 그것은 막내동생이 여전히 한손을 가방우에 얹은채로 서재안을 둘러보는척 하며 자기의 눈길을 애써 피하고있기때문이였다. 막내동생은 몇마디 인사말이나 나눈 다음 당장이라도 떠나갈 심산인것 같았다.

제대로 되자면 먼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 입힌 다음 맥주라

도 한조끼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밤깊도록 그동안의 회포를 풀어야 할것이다.

기차려행의 피로를 빨리 푸는데는 진하게 탄 커피에 고급당과류들을 내놓는것이 좋을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막내동생의 오해를 사고 오히려 불쾌감이나 줄수 있다는것을 윤수는 직감하고있었다.

미애와의 결혼은 윤수에게 있어서 《ス-1211》호 연구를 포기하고 방향전환을 하게 된 계기로 되였을뿐아니라 지금처럼 어머니는 물론이고 두 동생들과도 사이가 버그러지게 된 시초로 되였다. 끝내 결혼이 이루어졌지만 자기를 혐오와 경멸의 눈초리로 차겁게 쏘아보며 입이 쓰거운지 더이상 말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윤수의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남겼다. 그보다 더 윤수에게 뼈저린 아픔과 후회를 주는것은 서로 극도로 감정이 날카로와졌던 그때 자기가 어머니앞에 마구 내던진 말마디들이였다. 결김에 무슨 소린들 안했겠는가. …

결국 어머니는 함흥으로 가서 함께 살자는 윤수의 진정어린 청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결혼후에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려던 윤수의 순진한 꿈은 산산쪼각이 나고말았다.

윤수는 이것으로 하여 동생들앞에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물론 미애는 어머니를 함흥으로 모셔오자고 윤수에게 졸라댔으며 어머니가 계실 방을 있는 정성을 다해 호화롭게 꾸려놓았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미애로서는 이처럼 모든것이 풍족한 집에 와서 맏아들과 함께 살려 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도무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그 무슨 연구때문이라는데 그런걸 안하면서도 아들, 며느리의 공대를 받으며 재롱을 부리는 귀여운 손자들의 잔등이나 두드려주면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늙은이들이 어디 한둘인가. 참, 이상한 시어머니다.

그러나 윤수의 생각에도 어머니로서는 《ス-1211》호연구를 포기하고 허송세월을 하고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것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것이며 거기에 몰두하고있는 준수와 어울려있는쪽이

더 마음 편할것 같았다. 《ス－1211》호연구를 떠난 어머니의 삶은 윤수로서도 도저히 상상할수가 없었다. 그것이 절대로 성공할수 없다고 믿고있는 윤수로서는 어머니의 고집이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지향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무엇인가가 어머니의 정신생활에서 매우 중요한것이며 그것을 빼놓는다면 어머니자체가 허울밖에 남게 되지 않으리라는것이 어렴풋이 예감되기때문에 연구를 그만두고 함흥으로 와서 함께 살자는 권고도 함부로 하게 되지 않았다.

윤수는 어머니와 자기중에서 누가 옳은지는 시간이 반드시 증명해줄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었지만 맏이로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있다는 죄책감은 어느때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드디여 윤수는 침묵을 깨뜨렸다.

《그래, 어머니는 건강하시냐?》

《예.》

《눈은 어떠냐?》

《차도가 없습니다.》

《연구는 어떻게 돼가고있느냐?》

《아직 뚜렷한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 …》

《… …》

다시 한동안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흐른 다음 준수는 주밋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어딜 가려는거냐?》

《기숙사에 가려고…》

윤수는 가슴이 쿡 찔리우는듯한 아픔과 함께 목구멍으로 설음 비슷한것이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형네 집을 옆에 두고 기숙사에 나가 있겠단 말이지…》

윤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는 윤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맏이구실을 잘해라. 난 널 믿겠다.》

윤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급히 머리를 돌

렸다.

기억이란 이상한것이다. 어떤것은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떤것은 제절로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다.

윤수는 오늘까지도 아버지의 그 목소리, 표정, 자기의 슬프고 외로우면서도 두어깨에 산같은 짐이 실리는듯한 느낌, 지어 구석쪽에서 연황색고양이가 마른 세수나 하듯 얼굴을 비다듬던 모습까지도 놀랍도록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때 준수는 마당에서 엉엉 울고있었는데 그것은 맏형과는 전혀 다른 리유에서였다. 제 동무와 막대기를 쥐고 싸우다가 얻어맞았던것이다. 윤수는 그때부터 준수에 대한 자기의 책임감을 잊어본적이 없었다.

윤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서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막내동생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품고있었다.

두뇌가 명석한 그와 문학이나 력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윤수는 동등한 벗으로서의 우정 비슷한것을 체험하군 하였다.

그러나 제대되여왔을 때 막내동생에게서는 근엄한 그 무엇이 느껴져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윤수를 어느정도 당황하게 했다. 우선 군대에 나갈 때만 해도 머리 하나만큼은 키가 작았는데 지금은 자기와 비슷하였고 눈길도 엄격해졌다.

군대에 나가기 전의 소년다운 공상력의 빛발이 차넘치던 상냥하고 부드러운 눈이 아니였다. 눈확은 더 깊숙이 들어갔고 눈길에는 엄격하고 긴장한 빛이 어려있었다. 많이 사색하여 그 어떤 명확한 결론에 도달한 지혜롭고 의지가 강한 인간의 넋을 느낄수 있게 하는 그런 눈이였다. 그리고 그만큼 중앙대학 외국어부에 가라고 설복을 했는데도 끝끝내 전문학교로 간데 대해서도 무시를 당한듯 하여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맏형을 어떻게든 도우려는 그 진정이 헤아려져 머리가 숙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되지도 않을 《ㅈ－1211》호를 기어코 성공시키겠다고 우기는 막내동생의 고집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일단 들어선 길에서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그 완강한 의지력에는 충분히 리해가 갔다.
윤수는 자존심이 강하여 웬만한 사람들은 눈아래로 보았으며 그런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견해나 평가 같은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내동생과 같이 지적인 측면에서나 도덕적인 점에서 자기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 할때는 몹시 모욕감을 느꼈으며 고통스러워 했다.

준수는 따져물었다.

《그건 무슨 리유에서냐?》

동생은 눈길을 떨구며 중얼거렸다.

《여럿이 모여있으면 공부하기도 유리하구…》

《솔직히 말해라.》

《…》

준수의 침묵은 윤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윤수는 지금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성이 높은 막내동생이 자기의 급변한 인생관을 투시해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난 네 심정을 어느정도 짐작하고있다. 그렇지만 구태여 긴 말을 하고싶지 않다. 시간만이 과연 누가 옳았는가를 증명해줄게다. …

다른 생각 말고 여기 있어라. 형의 말을 들어야 한다.》

준수는 이 말을 하는 맏형의 눈가가 젖어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자신이 너무 옹졸하지 않은가 하는 자책이 갈마들었다. 그는 맏형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웃옷을 벗었다.

그다음엔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언급되는 화제마다 인차 동강나버리고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뒤따르군 하였다.

그러던중 윤수는 사실은 아까부터 기회를 노리고있었으면서도 문득 생각난것처럼 또 별치 않은 일인듯이 불쑥 물었다.

《너도 이젠 장가를 가야지?》

《글쎄요.》

《봐둔 처녀가 있니?》

《뭐, 별로…》

준수는 명희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지만 적당히 넘겨버렸다.

《그렇다면 내가 소개를 해줄가?》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준수는 황급히 맏형의 말을 가로막았다.
《솔직히 말하면 한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어떤 처녀냐?》
《학급처녀인데 통신입학시험을 치면서 알게 되였습니다.》
귀가에는 준수를 향순이와 결혼시켜 눈부신 출세의 길을 걷게 해주겠다면서 하던 안해의 이러저러한 말마디들이 쟁쟁히 울려왔지만 또 그렇게만 된다면 막내동생이 헛된 고생에서 벗어나 유족하고 문명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는 터였지만 윤수는 대범하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고… 애정문제에는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지.
다만 한가지 말해두고싶은것은 결혼은 애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정은 애정만으로 유지될수 없다는것이다. 부디 이 점에 류의하기 바란다.》
준수는 맏형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할수는 있었지만 수긍할수는 없어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다.

3

또 하루 강의가 끝났다.
준수는 맏형네 집으로 가기 위하여 대학을 나섰다.
산촌의 봄은 버들개지나 진달래에서부터 시작된다지만 도시의 봄은 가로수나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느껴지는것이 아닌지. … 대학 앞 버드나무가로수들에는 연두색물이 곱게 들었고 거리에는 밝은 색의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고있었다. …
무심코 맏형네 집의 반쯤 열려진 출입문앞에 다가서던 준수는 안에서 흘러나오는 형수의 목소리에 주춤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
《어머닌 참 괴벽해요. 그 나이에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째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속내를 알수가 없어요.》

준수는 무엇인가 예리한것이 가슴을 쿡 찌르는듯 하여 눈을 감은채 꼼짝 않고 그자리에 서있었다.

잠시후 맏형의 침통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 나때문이지. 어머니에겐 여기가 숨막힐 정도로 비좁은 집일거요.》

《당신 무슨 소릴 하는거예요. 이보다 더 큰 집이 시내 어디에 있다 그래요.》

길게 내쉬는 맏형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으로서는 어머니를 깊이 리해하기가 힘들거요.》

《어쨌든 별난 시어머니예요.》

《됐소, 됐소. 그만하오.》

정말이지 들어가고싶지 않았다.

얼마후 준수가 기침소리를 내며 전실에 들어서니 형수가 아무 일도 없었던듯 활짝 웃으며 그를 반겨 맞이했다.

점심밥을 먹고 맏형의 서재에 올라가 걸상에 앉았지만 책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준수의 아버지는 건축기사였는데 그가 너무도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에 대한 준수의 기억은 두가지만이 남아있다. 하나는 무슨 일로 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업고갔는데 아주 작은 가시같은것이 두볼을 따끔따끔 찔러대여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리던 생각이다. 그런데 그 추억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준수자신도 그것이 꿈인지 사실인지 아리숭했다. 어느날 어머니가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있는 털이 거친 아버지의 모직외투를 보고서야 준수는 그 일이 실제있었으며 그때는 겨울이였을것이라고 짐작했다.

두번째 기억은 방가운데 서서 바이올린을 열정적으로 켜시던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게 무슨 곡이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듣고있던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려있던것만은 잊혀지지 않는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그 눈물이 어찌나 언짢던지… 그때는 어른이 운다는것이, 더우기나 어머니가 운다는것이 납득될수 없는 일

이였다.

준수의 정신적성장에 큰 영향을 준것은 어머니였다. 형수는 어머니를 괴벽하다고 비난하고있지만 준수는 어머니를 정신적스승으로 여기면서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있었다.

중학교때 어느날 준수는 고급종이를 찾으려고 어머니의 책장안을 뒤지다가 누렇게 색이 바랜 두툼한 책 몇권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것은 어머니의 일기장들이였다. 그러면 안되는줄 알면서도 준수는 호기심에 끌려 시간가는줄 모르고 읽어보았는데 어떤 대목들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1953년 7월 28일

동무들은 모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광장으로 《만세!》를 소리 높이 부르며 달려나갔지만 나는 빈방에 홀로 남아 목놓아 울고있다.

장범동무! 동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정말로 온 나라를 진감하는 저 만세소리와 축포소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누워있는가요?

우리 함께 이 날을 얼마나 바라고 또 바라왔는가요. 그런데 어째서 나만이 홀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하는가요?…

전쟁이 준 상처중에서 가장 큰 상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입힌 상처일거예요. 불탄 산엔 나무와 풀이 자랄것이고 폭탄구뎅이를 메운 자리마다에서는 오곡이 물결치게 될것이며 재더미를 털고 새 도시들이 일떠서게 될것이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무엇으로 메꿀수 있겠어요.

하지만 리수복, 조군실, 강호영, 안영애…

그리고 동무와 같은 수많은 영웅전사들의 그 숭고하고 영웅적인 자기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은 영원히 오지 못했을거예요. 저에게는 광장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붉게 물들이며 연방 터져오르는 저 축포들이 오늘을 위하여 희생된 동지들의 뜨거운 넋들로만 생각됩니다. …

동무는 저의 가슴속에 생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피로써 새겨주었으며 저를 이 고귀한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한 정신적인 거인이 되게 해주었어요.

동무는 비록 우리곁을 떠나갔지만 동무의 고귀한 넋은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들의 대오의 앞장에 기발처럼 휘날리고있어요. 저는 《ㅈ》약물에 대한 동무의 그 절절한 념원을 기어이 실현시키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있어요. 근심하지 마시고 부디 편히 잠드세요. …

… … …

1961년 4월 ×일

오늘아침 출근하여 약국검정실의 한켠에 꾸려놓은 실험대앞에 서서 실험기구들을 정돈하고있는데 약국장이 달려와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병원에 오시여 돌아보고계시는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거리기만 했다. 불과 며칠전에 맞으신 자신의 생신날마저 쉬지 않으시고 천리마동상제막식에 나오시여 친히 붉은 테프를 끊어주신 수령님, 전체 인민이 전설의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사회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질풍처럼 내달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느라, 더우기 4차당대회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실 그이께서 우리 병원을 찾아주시다니 그저 꿈만 같았다. 일제와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전설처럼 불러보던 그 이름,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승리의 기치처럼 그려보던 그 모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행원들과 함께 검정실에 들어서시였다. 나는 무한한 격정과 환희로 하여 진정할줄 모르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사진과 기록영화에서 늘 보아오던 그 회색의 운두 높은 중절모를 이마 우로 약간 밀어올려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처럼 빛나는 영상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넘쳐 흐르고있었다.

원장이 내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여가를 내여

《ㅈ》약물을 연구해내기 위하여 애쓰고있다는것을 보고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실험대곁에 서있는 나의 가까이로 다가오시여 어떻게 그처럼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였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삼가 대답을 드리려고 말을 고르다가 그만 나는 북받쳐오르는 격정으로 하여 저도모르게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껴울고 말았다. 그러자 원장은 물론이고 수행원들의 얼굴에도 한결같이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애써도 흐느낌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그때 한 수행원이 위대한 수령님께 협의회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없다고, 이 동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은데 들어보자고 하시면서 울지 말고 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나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하신 시간을 더이상 지체시켜서는 안된다는 자각에 정신을 차린 나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을 올리였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방안에는 숙연한 정적이 깃들었다.

한동안 가슴이 아프신듯 말없이 서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여 창문을 활짝 여시였다. 한창 키다툼을 하며 일떠서는 수도－평양의 창공에서 봄날의 태양이 찬란한 빛발을 뿌리고있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오늘 기쁩니다. 훌륭한 동무들을 알게 되여 정말 기쁩니다.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전우의 념원을 기어이 꽃피우기 위하여 애쓰고있는 이 동무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합니까! 그 군의동무의 행복에 대한 견해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러한 참된 행복관을 지닌 사람들은 한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보낼수 있으며 그들의 생애는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남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동무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조국

이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눈물어린 눈으로 우러르는 나의 가슴은 이름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 뜨거운 맹세로 세차게 소용돌이쳤다.

위대한 수령님, 고맙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분에 넘치는 평가와 뜨거운 고무격려의 말씀을 받은 오늘의 이 영광, 이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고 한생토록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겠습니다.

… … …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후부터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께 마음속으로 삼가 드린 맹세를 관철하기 위하여 1분1초를 아껴가며 일해나갔다. 그러던중 몇년후 지금 살고있는 고장으로 소환된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이사를 했고 어머니는 성룡구병원 약국 검정원으로 일하게 되였다.

성룡구병원에 와서도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해 여름날밤 실험도중에 일어난 뜻밖의 폭발로 어머니는 두눈에 심한 화상을 당하였으며 그로해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게 되였다.

상급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고려하여 어머니에게는 약국의 행정실무사업을 맡기는것이 알맞겠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마침 비여있던 약국장의 자리에 어머니를 임명하였다. 아픈 눈을 가지고 가까스로 약국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어머니는 어느 한 순간도 《ㅈ－1211》호에 대하여 마음을 쓰지 않은 때가 없었다.

녀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어머니의 한생은 모든것이 《〈ㅈ－1211호〉 연구에 바쳐진 한생》이라는 한마디의 말로 압축할수 있을것이다. 뜻밖의 눈화상을 당한 후로 어머니는 남모르는 가슴아픔과 고민속에서 모대겨왔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기어코 성공을 보고야말리라는 결사의 각오와 도저히 극복할수 없는 육체적인 제한성사이에서 어머니는 고통스러웠던것이다. 얼핏 보건대 어머니는 한생에 별로 남긴것이 없는듯 하였다. 하지만 어머

니는 준수에게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귀한 진리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스승이였다.

언제면 형수가 어머니를 리해할수 있게 되겠는지…

준수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짐을 느꼈다.

4

그날저녁 전등불 켤무렵 뜻밖에도 윤수네 집에 명희가 찾아왔다.

《지금 서재에서 공부하고있어요. 들어와요.》

미애는 명희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맏형의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있던 준수는 형수의 말가운데서 《서재》라는 단어만 얼핏 들었다.

그 순간 준수의 입귀가 저도모르게 이그러졌다.

서재—이 얼마나 훌륭하고 고상한 이름인가!

얼마나 많은 인류의 정신적보물들이 그곳에서 창조되였는가!

허나 《ㅈ—1211》호연구를 포기하고 그럭저럭 현상유지나 하고있는 윤수에게 서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애가 그토록 《서재》에 품을 들인것은 사람들의 감탄과 부러움을 자아내자는 허영심때문이였다.

탁상등앞에 앉아있었지만 준수는 미애의 뒤로 따라들어오는 명희를 대뜸 알아보았다.

《아니,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로어시험을 래일아침으로 당긴답니다. 준수동무에게 알려달라고 학급반장동무가 부탁하더군요.》

《당긴다?!》

《예, 래일아침입니다. 그럼 전 가겠어요.》

미애는 출입문을 막아서며 처녀를 쏘파로 떠밀었다.

《잠간 앉았다가요. 다리쉼이나 할겸.》

이것은 조금도 꾸밈없는 미애의 진심이였다.

전실에 들어섰을 때 처녀의 얼굴에 나타났던 경탄의 빛을 미애는 놓치지 않았던것이다. 그 경탄을 미애는 더없는 찬사로 받아들였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미애는 매우 너그러워지고 친절해진다. 명희는 안주인의 친절을 뿌리치면 그를 섭섭하게 만들리라는것을 느꼈다. 그만큼 그녀자의 태도는 진정에 넘쳤던것이다.

명희를 쏘파에 앉힌 다음 미애는 록화기의 단추를 눌렀다. 맑고 우아한 선률이 온 방에 넘쳤다. 부엌으로 나가면서 미애는 서재의 조명스위치를 돌렸다. 음악이 흐르는 속에 막이 오른셈이다.

안주인은 잠간 들어왔다가 탁자우에 갖가지 과일들을 내놓았는데 랭동기에서 갓 꺼낸 사과알들의 겉면에 맺힌 이슬들이 형광등의 빛발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명희는 안주인이 권하는대로 사과를 받아 손에 들고있었는데 왜서인지 위축감을 느꼈으며 그것이 마음을 불쾌하게 했다. 명희가 앉은 쏘파쪽 벽은 전부 서가였는데 원서들을 비롯한 두툼한 책들로 꽉 차있었다. 그 책들도 《대단한데!》 하는 감탄을 자아내는것과 함께 별스럽게 명희를 위압하는것 같았다. 구석쪽의 야자나무에 매달려있는 인형도,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고있는 선풍기도, 붉고 푸르고 노란 빛살들을 순차적으로 아로새기며 두개의 불빛원이 빙글빙글 끊임없이 돌아가고있는 대형록음기도 명희를 쌀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있는듯 하였다.

준수를 알게 된 첫날부터 명희는 그에게로 끌리는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러나 명희는 있는그대로의 자기와 자기 가정을 리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할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싶지는 않았다. 어떤 리유로 해서도 그것은 허용될수 없는 일이였다. 명희는 준수를 믿고싶었다. 그러나 지금 명희에게는 불쾌한 위축감과 함께 어쩌면 준수가 교만한 사람일수도 있지 않을가 하는 이상야릇한 의혹이 갈마들었다.

만일 명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쩌면 자기의 일생이 준수에게 의지하여 흘러갈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잠재해있지 않았더

라면 이 모든것을 그닥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준수는 일부러 와삭와삭 소리가 나게 배를 깨물어 먹으면서 명희가 큼직하고 새빨간 사과알을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기만 하고있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명희의 꼭 다물린 입귀에는 두개의 우물이 옴폭 패이였고 처녀의 두눈은 마치 자기 내부의 깊은 곳을 응시하는듯 했다. 준수는 지금 명희의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이때 시동생에게 류다른 처녀손님이 왔다는 안주인의 말을 듣고 맏형이 서재에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을 하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는 명희의 뇌리에 준수의 맏형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갑소. 앉으시오.》

윤수는 응접탁에 마주앉아 담배를 피워물며 준수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막내동생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윤수는 처녀를 주의깊이 바라보았다. 처녀는 가는 청색줄무늬가 있는 샤쯔를 입었는데 보기 드문 미인이였다. 처녀의 눈빛, 곧고 윤기가 흐르는 코등, 약간 선이 가늘면서도 또렷한 입가 아니, 얼굴전체에는 사람의 마음을 무한히 정화시키는 맑고 명민한 기운이 서려있었다. 깊은 산속에서 문득 만난 퐁퐁 솟구치는 샘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간혹 이 비슷한 감정을 체험하는것이다.

처녀의 아름다움은 건강과 젊음을 바탕으로 하여 한떨기 꽃처럼 피여난것으로 해서 참으로 생신하고 순결하였다.

소리가 날세라 저어하며 조심히 사과를 씹으면서 명희는 어디서 보았을가 곰곰히 더듬어보았다.

잘 생각이 나지 않아 안타깝던 차에 문득 기억이 살아오르는 바람에 명희는 저도모르게 불쑥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도인민병원 복부외과에 계시지 않습니까?》

윤수는 놀랐다. 이 처녀가 나를 알고있다니?

준수도 의아스러운 눈길로 두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도 맏

형이 의사라는 정도밖에는 명희에게 이야기한것이 없었던것이다.

《그렇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오?》

《올해 2월 저의 아버지가 선생님에게서 위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는가?…》

거의나 매일 수술을 해야 하는 윤수는 자기가 수술칼을 댔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윤수를 일생 잊지 않고있는것이다. 그들은 지어 그날의 날씨나 의사가 무심코 던진 말마디 같은것마저 류다른 정서로 채색하여 강렬할 추억으로 간직하는것이다.

이 처녀의 아버지가 그래도 적으나마 자기의 신세를 졌다는 사실이 윤수에게는 각별히 반가왔다. 애정이 움트기 시작할 때 련인들의 마음은 바이올린의 줄처럼 예민하게 울리는 법이다. 이런 뜻밖의 인연으로 하여 처녀는 막내동생에게 더 살뜰해질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형으로서 동생앞에 얼마나 떳떳한 일인가. 아직까지 어떤 사람을 수술했는지 잘 생각나지 않았지만 처녀가 한 《아버지의 위수술》이란 말에서 윤수는 자신심을 가졌다. 위수술이라하면 대체로 위절제술을 의미하며 위절제술은 병인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적극적인 치료방법으로서 거의나 후과가 좋은 법이기때문이다. 더구나 위수술까지 받을 정도였다면 이미 적어도 몇년동안은 위때문에 고통을 받았었겠는데 지금의 기쁨이 오죽하랴. 윤수는 막내동생을 위하여, 그의 애인을 위하여 비록 알고 한건 아니지만 이미 좋은 일을 해주었다는 긍지감에 흐뭇해졌다.

《그래 지금 아버지가 어떻소?》

윤수의 이 말은 처녀의 아버지가 완쾌되였으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한 순인사치레였다.

《괜찮습니다. 많이 나았습니다.》

처녀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대답했다.

윤수는 처녀의 표정과 어조에서 석연치 못한것을 눈치챘다.

실지 결과가 좋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윤수는 잘 안다. 병이 나았다는 환희에 수고한 의사를 기쁘게 해줄수 있게 되였다는 기쁨이 배가되여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참으로 감동적

인것이 어리는것이다. 치료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그것이 마치 자기의 책임이기나 한듯 송구스러워 하며 오히려 거짓말까지 하면서 의사를 위로하려 하는것이 환자들 특히 교양있는 환자들의 일반적인 심리이다.

윤수의 마음은 우울하고 무거워졌다. 위수술의 후과가 나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수술을 했다면 수술협의회를 했을것이고 그랬다면 오진은 거의나 없을것이다. 그럼 조작을 잘못했는가?… 어떤 사람일가?

《아버진 무슨 일을 하오?》

《영예군인입니다.》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명백치는 않지만 어렴풋이 어떤 영예군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무엇인가 께름직한것이 마음을 불쾌하게 했다. 아직은 모든것이 몽롱하였지만 한가지만은 명백히 기억되였다. 그것은 그날 자기가 무슨 일로 해선지 몹시 덤벼쳤다는것이다.

무엇때문이였던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더라?…

아무리해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예감이란것이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정확한 법이다. 윤수는 상서롭지 못한 어두운 구름장들이 천천히 머리우로 밀려오는듯한 불안을 느꼈다.

윤수에 대한 명희의 감정은 참으로 미묘하고 복잡한것이였다. 처음에 명희는 윤수를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였다. 그때 명희는 아버지가 당장에 잘못되는줄로만 알고 속이 까맣게 되여 발을 동동 굴렀던것이다. 수술후에도 아버지의 상태는 좋지 못했지만 명희는 그만하기도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있었다. 그러나 긴병은 환자나 가까운 친척들을 반의사로 만들어버린다.

더군다나 명희는 비록 약학과이긴 하지만 고등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이고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지 않는가. 아버지의 병때문에 위궤양이나 궤양성천공에 대한 여러 책들을 뒤져보는 과정에 명희는 그때 수술에 걸린 시간으로 보아 그것이 봉합수술이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때 위절제수술을 했더라면 후과가 지금보다는 더 좋

지 않았을가 하는 아쉬움이 점차로 명희의 머리속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버지에게 어떤 수술방법이 적합했겠는가는 오직 집도자만이 정확히 알수 있는것이다. 명희는 그런 의문을 애써 부정하려 했으나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하는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자꾸 머리를 쳐들고 일어섰다. 그때마다 명희는 자기자신을 꾸짖었다.
만일 나의 의문이 전혀 무근거한것이라면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그런데 아버지를 수술한 그 의사가 바로 준수동무의 맏형이란 말인가. …
준수는 맏형과 명희의 속마음까지는 알수 없었지만 이 뜻밖의 상봉이 두사람을 서로 옹색하고 당황하게 만들고있다는것만은 예리하게 느끼였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명희아버지의 수술때문일것이라는 예측이 들었다.
방안에는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부엌에서 딱—딱— 하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준수는 지금 형수가 얼군 고기만두를 떼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서로 짝짝이 얼어붙은 그것들은 식칼을 대지 않으면 뜯어낼수가 없었다. 그것은 솥에다 잠간 쪄내기만 하면 손쉽게 손님을 대접할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잠시후 미애가 들어왔다. 그녀자는 묵묵히 앉아있는 세 사람을 의아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니, 노래나 듣지요.》
준수는 마침이라고 생각하면서 원격조종기로 맏형이 들어올 때 껐던 록화기를 다시 켰다.
력사물영화들에서 나오는 노래들만을 묶은 화면음악편집물이 방영되였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도록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모두가 노래에 심취되여있은때문은 아니였다. 참으로 어색스럽고 괴로운 침묵이였다. 준수는 다름아닌 바로 자기에게 이 침묵을 깨뜨리고 모두에게 흥미있는 화제를 찾아내야 하는 책임이 지워져있는듯한 압박감을 느끼고 초조해졌다. 편집물의 순서

가 흐르다가 예술영화 《춘향전》에 이르렀을 때 문득 화제거리가 생각났다. 신통하게는 여겨지지 않았지만 정황이 정황이다보니 더 이상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앉아만 있을수는 없었다. 그래서 준수는 헛기침을 몇번 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는 생각에 가슴뿌듯할 때가 많습니다. 첨성대, 거북선 그리고 금속활자 등은 모두 만방에 떳떳이 자랑할만한 세계최초로 되는 우리 선조들의 발명품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춘향전〉만 하더라도 근세의 려명기에 우리 선조들이 도달했던 문화의 경지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춘향전〉은 유럽에서 그처럼 떠드는 〈로미오와 쥴리에트〉와 시대적배경이나 제기한 사회적문제도 비슷하고 다 같이 사랑주제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기한 사회적문제의 심각성의 견지에서 본다고 하면 후자는 단순히 두 가문의 뿌리깊은 적대관계에 비극의 기초를 두고있지만 전자는 직접적으로 봉건적신분제도에 날카로운 창끝을 돌리고있는것입니다. 순수 문예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고 해도 〈춘향전〉은 소박하고 진실하고 눈물겨운 반면에 〈로미오와 쥴리에트〉는 어딘가 인위적인데가 적지 않게 느껴집니다. 특히 마감으로 가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님?》

여기서 준수가 형수의 호응을 요청한것은 그나름으로 리유가 있어서였다. 이야기를 하면서 좌중을 둘러보니 맏형과 명희는 거의나 반응이 없는 얼굴로 덤덤히 듣고만 있는데 오로지 형수만이 과연 그렇다는듯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있었기때문이였다.

미애가 연신 고개를 끄덕인것은 준수의 말에 공감이 가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의 의미가 난해했기때문이였는데 지금까지 형수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매우 적었던 준수가 그런 내막까지 알리는 없었다.

준수의 이 말에 좌중에서 제일 긴장해진 사람은 윤수였다. 그는

처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는 화제가 이런데로 번져가는것이 불안했으나 이제는 손 쓸수가 없게 되였다.
미애는 급작스러운 그 질문에 몹시 당황했다.
그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소설에서인지 아니면 어느 영화에서인지 들은것 같기도 했지만 어떤 작품인지는 전혀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모른다고 하기에는 그녀자의 자존심이 너무나도 컸다. 하여튼 사랑주제의 고전들이겠지. 미애는 적당히 넘겨버리리라 작정했다.
《그래요. 말을 듣고보니 참 그렇군요.》
이쯤으로 그쳤다면 얼마나 다행이였으랴. 그런데 미애는 그 작품에서 무엇이 인위적인지 이야기하지 못하는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이 그녀자의 자존심을 자극하였다. 또 방안의 분위기로 보아 모두가 그 작품들에 대한 자기의 평가를 기다리고있는듯 했다. 그래서 그녀자는 그쯤하고 침묵을 지킬대신 쓸데 없는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은지가 하두 오래다나니… 그게 어느 나라 장편소설이던가요?…》
말끝을 얼버무리면서 얼핏 좌중을 둘러본 미애는 자기가 황당한 실언을 했다는것을 순간에 깨달았다.
남편은 아연해서 자기를 처음보는 사람이기나 한듯 바라보고있었다. 시동생은 당황하여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으며 처녀는 아무 말도 못들은척 하면서 무표정한 눈길로 서가만 바라보고있었다.
이미 때는 늦었다. 림기응변의 재능이 있는 미애였지만 얼굴만 확 달아오를뿐 어찌할바를 몰랐다.
윤수는 처녀의 시선이 서가의 아래단에 꽂혀있는 세계고전문학작품집들에 머물러있는것을 보았다. 겉치레만 좋아하는 사람들… 윤수는 처녀의 이런 비난을 분명 들은듯 하였다.
준수는 우선 맏형앞에서 송구스러웠고 왜 그따위 말을 꺼냈을가 하는 후회로 혀를 깨물었다. 한편으로는 이따금 형수에게서 느끼군 하는 천박함의 근원중의 하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새롭게 깨

닫는 심정이였다. 정서란 사람의 정신속에 흐르는 피다. 그 피는 예술로부터 특히 문학으로부터 체내에 흘러든다. 그 뜨거운 피가 없는 사람에게 인간적인 향기가 있을수 없다.

명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무참하여 어디로든지 피하고싶었다. 그래서 황황히 서가로 눈길을 돌리던 중 맨 아래단 끝쪽에서 쉑스피어작품집을 보게 되였다. 아니, 집에 있는 책도 안 읽었단 말인가? 그럼 이 서가의 책들은?…

그때에 비로소 명희를 사로잡고있던 위축감이 사라졌다. 명희는 새삼스레 방안을 둘러보았다.

방금전까지 번쩍거리던 모든것들이 지금에는 빛을 잃고 초라한 몰골로 옹송그리고있는듯 하였다.

불과 몇초동안의 침묵이였으나 어찌나 괴로왔던지 마침내 명희가 일어섰을 때 누구나 다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미애는 고기만두를 권할 흥취를 싹 잃어버렸다.

제5장 접근하는 쌍곡선

1

다가오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미리 머리속에 그려볼 때의 환희가 실제로 닥쳐온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훨씬 클 때도 있는 법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받아쥐고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겉봉을 서툴게 찢어나갈 때 련인들이 느끼는 숨막히는 환희는 실제상 그 편지로 인한 환희의 절정인것이다. 오래전부터 몹시 읽고싶었던 유명한 작가의 책을 겨우 구해들고 그 묵직한 무게를 손에 즐겁게 감촉하면서 겉가위도 쓸어보고 주르르 번져보기도 하면서 밤새껏 다 읽어내리라 생각할 때의 흐뭇한 만족감을 어찌 직접 읽을 때의 즐거움보다 작은것이라 할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순간의 기쁨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되고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그 순간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될 때도 있으며 그것이 상봉시의 기쁨보다 결코 못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강렬할수도 있다는데 대해서는 그리 언급되지 않고있다.

애인과 래일 만나기로 약속한 처녀는 가지가지 즐거운 공상때문에 인차 잠들지 못한다. 깨여나기 전부터 처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피여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제끼니 맑디맑은 공기와 우짖는 새소리를 꿰지르며 붉고 눈부신 해빛이 동녘을 가리운 록음사이로 뻗쳐온다. 난 이미 다 알고있다는듯 너그러이 웃어주는 해님을 향해 처녀는 수집은듯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보낸다.

그런 아침에는 동무들의 지꿎은 놀림에도 마음은 너르러워지기만 한다. 어느 옷을 입고 나갈가 망설일 때부터 처녀의 피는 한층 더 뜨거워진다. 다리미로 칙칙 증기를 피워올리며 옷을 다려나

갈 때 마음은 벌써 약속한 장소로 훨훨 날아가고있다. 다리미— 이 얼마나 친근한 처녀들의 벗인가! 거울앞에서 새침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방긋 웃어보기도 할 때의 기쁨은 오로지 련정에 잠긴 처녀들만이 맛볼수 있는것이다.

명희는 손바닥으로 양말을 신은 발을 다시한번 비다듬고 먼지 한점없이 깨끗이 닦은 빨간 의혁구두에 쏙 잡아넣었다. 탁탁 가볍게 발을 구른 다음 처녀는 손거울을 보며 허리를 굽히는 서술에 흐트러진 머리매무시를 바로잡았다. 샤쯔를 치마안에 밀어넣고 채우개로 단정히 조이고나서 시계를 들여다보니 30분전 9시였다.

어제까지 시험은 전부 끝났다. 이제는 전망강의만 남았다. 마지막시험을 치르고 시험장을 나설 때 명희의 기분은 높은 고개의 마루까지 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시원한 령바람에 땀을 들일 때의 심정과도 비슷했다. 마침 다음날은 5.1절이여서 통신생들에게는 좀처럼 차례지기 힘든 휴식일이 선포되였다.

학급동무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준수가 다가왔다.

《래일은 무엇을 하렵니까?》

《글쎄요. …》

《특별히 계획한것이 없다면 하루 쉽시다. 시험기간에 정신과 육체에 배여든 피로를 빨아버립시다.》

《좋아요.》

《래일 오전 9시 도미술박물관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래일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빨래》는 시작되였다. 래일은 즐겁게 쉰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휴식이 아니겠는가!…

명희는 날듯한 기분으로 기숙사의 층계를 가볍게 내렸다. 마음의 무게는 곧 발걸음의 무게이다. 언제나 지금처럼만 걸어다닌다면 명희가 일생동안 신고다닌 신발이라고 해도 신바닥만은 새것대로 남아있을것이다.

의학대학정문앞을 지나 공업대학연구소앞쯤에 이르러서 처녀는 다시한번 시계를 보았다. 명희가 그토록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는것은… 늦을가봐서인가? 아니다, 그것은 처녀의 자존심때문이였다. 먼저 가서 기다릴수는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

어도 안된다. 그를 얼마쯤이나 기다리게 할가? 무의식중에 떠오르는 이 생각을 매듭짓지 못해 명희는 걸으면서도 자주 시계에 눈길을 주는것이다.

한편 약속한 시간전에 도착한 준수도 초조히 시계를 보았다. 명절이라 네거리는 꽃물결로 덮이였다. 준수는 혹시 놓치지나 않을가 하여 명희가 나타날 쪽을 멀리서부터 가까이로 다시 가까이에서부터 멀리로 끊임없이 훑어보고있었다.

준수는 문득 저 멀리에서 사람들의 무결을 타고 푸른잎 하나가 한들한들 떠오고있는것을 보았다. 준수는 그것이 명희라는것을 시각만으로가 아니라 후드득 뗠리는 심장의 박동을 통해 온몸으로 느끼였다. 순간 이름못할 애정이 아주 길고 가느다란 바늘이 되여 심장부위를 지그시 찌르는듯 했다. 그런데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찌르르 저려나는듯한 형언할수 없는 쾌감을 주면서 온몸에 여름날아침 숲속으로 런닝그만 입고 산보할 때와 같은 생신한 원기가 용솟음치게 했다.

준수는 명희가 자기를 알아보았을 때 오른손으로 머리우에 커다란 원을 그리였다. 명희도 귀까지 살짝 오른손을 올려 가볍게 저었다. …

미술박물관안은 조용하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나가던 그들은 《열중》이라는 자그마한 판화앞에서 멈춰섰다.

보슬비가 내리는 저녁이다. 화폭의 절반은 흐린 하늘이고 나머지 절반은 들길이다. 중심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소학교 1, 2학년이나 되였을 어린 학생 3명이 그려져있다. 아버지의 우산을 어깨에 사선으로 걸맨가운데 어린애가 책을 펼쳐들고있다. 량옆에 하나씩 붙어선 두 아이는 우산밖으로 나온 등에 멘 책가방이 비에 젖는것도 모르고 책을 들여다보고있다. 모두 책에 머리를 틀어박고있기때문에 얼굴은 아예 보이지 않는데도 그애들의 눈빛이며 표정 하나하나가 생생히 떠올랐다. 귀기울이면 긴장된 그들의 숨소리마저 들릴듯. 얼굴을 그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처럼 눈에 보이는듯 할가. 놀라운 일이였다. 필경 그애들은 서

로 먼저 보겠다고 싱갱이질을 했으리라. 같이 보기로 화해를 한 다음 돌부리깨나 걷어차며 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리라. 멈춰서기까지 한것을 보니 아마 지금이 제일 재미있는 대목인듯…
그 그림은 그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준수와 명희는 적어도 《ㅈ》약물연구에 착수한 이래 그애들처럼 《비가 오는것도 날이 저무는것도》 잊고 오로지 연구과제에만 열중해있었던것이다. 그 열중은 성공의 그날까지 이어져야 하는것이였다. 그들은 뜻밖에도 이 미술박물관에서 각기 자기자신들의 정신적인 초상화를 보게 되였다. 그 초상화가 자기들의 실지 모습과 너무나도 신통했으므로 저도모르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준수는 명희를 바라보며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그림이지요?》
《예, 화가가 아주 의의있는 순간을 포착했군요. 〈열중〉이라는 제목도 좋구요.》
준수도 미소로써 동감을 표시하며 롱조로 말을 이었다.
《책제목을 알고싶은데요. 이쪽 아이에게는 잔등이 젖는다고 알려주고싶군요. 집에선 어머니들이 근심하고있겠는데.》
명희의 입가에 귀염성스러운 우물이 옴폭 패이고 두눈에선 웃음이 은가루처럼 반짝거렸다.
《그럼 소리치세요. 집에 가서 마저 읽으라고.》
《너무 〈열중〉해서 내 말이 들릴가요?》
《호호호.》
명희는 명랑하게 웃었다.
《저애들은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겁니다.》
준수의 확신에 찬 말에 명희도 심중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푸른 학의 무리 같아보이는 청기와지붕의 신흥관을 지나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동흥산공원에 이르렀다.
결혼사진을 찍는 신랑신부들, 단란한 가족오락회,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부르는 청춘남녀들, 장기판을 성 쌓듯 둘

러싸고 훈수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화판을 펼쳐들고 속사에 여념이 없는 미술가, 공화국기와 고무풍선을 손에 든 귀여운 아이들… 웃음소리, 노래소리, 웨치는 소리로 온통 떠들썩했다.

그 속을 이리저리 에돌고 헤치면서 산마루로 오르던 그들은 기암절벽사이로 쏟아져내리는 폭포와 그밑에 펼쳐진 인공호수가에서 잠시 멈춰섰다. 호수의 푸르른 물속에서 살이 질대로 진 금빛잉어들과 붉은 금붕어들이 늠실거리는 검푸른 물풀들사이로 무리지어 밀려다니고있었는데 그것은 그 옛날 토끼가 거부기의 꼬임에 빠져 다녀왔다는 환상의 룡궁세계를 방불케 하였다. 꽃살처럼 둘러싸고 들여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은 그대로 백화만발한 화원이였다. 그 화원이 물우에 비껴 호수는 둘레를 꽃목걸이로 장식한듯 호화롭기가 그지없었다. 명희가 급히 가방에서 과자 몇개를 꺼내여 부스러뜨려 뿌리자 그것들은 일제히 물우로 솟구쳐오르며 입을 넙적 벌렸다. 물은 삽시에 소품치듯 끓어번지고 흰거품들이 구름처럼 피여올랐다. 푸르른 호수의 한가운데서 시누런 황금빛과 붉은빛 그리고 흰빛이 뒤엉켜돌면서 황홀한 빛발을 뿌렸다. 참으로 호화찬란한 빛이였다. 사람들은 저저마다 환성을 올리면서 연방 과자며 빵부스레기 같은것들을 뿌려주었다.

미소하는 명희의 얼굴에 그 빛이 아롱져 아프도록 눈부신 둥근 고리를 그리며 흔들렸다. 처녀의 얼굴은 비쳐든 아침해빛을 눈부시게 반사하는 꽃잎우의 맑은 이슬방울과도 같았다. 명희는 왼손으로는 호수 둘레의 세멘트턱을 잡고 상체를 45도로 물우에 굽힌채 모이를 뿌려주느라 오른손을 한껏 뻗치였다. 그 서슬에 가느다란 청색줄이 아롱진 샤쯔가 마치 폭풍을 안은 돛처럼 온몸에 팽팽히 밀착되였고 날씬하면서도 풍만한 상체의 매 곡선이 푸른 물우에 선명히 새겨졌다.

문득 준수를 돌아보며 방긋 웃는 명희의 모습 전체에는 형언할수 없는 매력과 포착할수 없는 시가 깃들어있었다. 젊음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벙끗 불꽃처럼 내뿜는 순간이였다.

아주 뜨거운, 아니면 아주 차거운 줄달음이 준수의 무릎관절부위를 회오리쳐지나갔는데 그것은 온몸에 넘치는 청춘의 정열

과 생의 환희를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것이였다.

호수를 떠나 산마루로 오르면서 준수가 입을 열었다.

《명희동무, 존재하지 않는것을 감각할수도 있을가요?》

《그럴수야 없지요.》

《그런데도 난 지금 그런걸 느끼고있습니다.》

《?!》

《명희동무와 걷고있노라니 어떤 부드러움이 나를 포근히 감싸안는것 같군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온몸의 피부로 그 부드러움을 분명히 감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군요. 이상한 일이지요?》

《아이참!》

명희는 눈을 곱게 흘기며 손을 홱 저었다. 웃음을 참노라 미묘하게 긴장된 그의 입술은 비맞은 앵두 같았다. 입가에 패인 우물에도 즐거움이 남실거리고있었다.

산마루에 오른 그들은 포도넝쿨의 신록이 채양처럼 해빛을 가리운 긴걸상에 앉아 땀을 들이면서 공업도시 함흥의 전경을 부감했다.

행복의 탑같은 고층살림집들과 창조의 철탑들이 밀림을 이루며 저 멀리 바다가로 눈이 모자라게 펼쳐졌다. 철탑의 밀림? 아니, 그것은 《사회주의 찬가》를 연주하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대교향악단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기저기 두팔을 쳐들고 솟은 기중기들은 그 악단의 신이 난 지휘자들이리라.

준수는 회색양복웃옷을 벗어 나무에 걸어놓고 메고 온 록음기의 단추를 눌렀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노래는 명절을 맞는 공원의 흥겨운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방금 사들고 올라온 사과를 준수에게 권하는 명희의 얼굴에도 기쁨의 미소가 물결쳤다.
련이어 흘러나오는 매 노래에 대해 그들은 제나름으로 짤막한 평가들을 내렸다.
한 록음테프가 끝나자 준수가 물었다.
《어느 작곡가를 제일 좋아합니까?》
《리면상선생입니다.》
《그의 작품중에서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하던 명희가 입을 열었다.
《〈눈이 내린다〉입니다.》
《동감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눈이 내린다〉를 국보적인 명작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준수 역시 리면상의 노래들을 매우 좋아했으므로 그의 노래들만 록음한 록음테프도 가지고왔다.
《산으로 바다로 가자.》, 《문경고개》에 뒤이어 《눈이 내린다》가 울려퍼졌다.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빨찌산이야기로 이밤도 깊어가는데
불밝은 창문가에 흰눈이 내린다

준수에게는 어쩐지 이 노래를 작곡하면서 작곡가가 울었을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늘의 이 행복을 위하여 백두산 줄기줄기와 압록강 굽이굽이에서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항일혁명선렬들의 붉은 넋을 삼가 그리며 그는 아마 작곡도중 몇번이고 피아노에 얼굴을 묻었으리라.
준수는 음악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보통 언어로 옮겨보려는 시도를 전혀 불필요한 일로 생각하고있었다. 물론 작곡가의 의도는 전달할수 있겠지만 음악만이 줄수 있는 그 감흥은 결코 언어로써 불

러일으킬수 없을것이다.

준수가 느낀 감동은 무엇으로써도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심장의 고동은 더 벅차진것 같기도 하고 또 멎은것 같기도 하였다. 눈을 뜨니 주위의 모든것이 서려오르는 향기속에 더욱더 생생하고 새로와진듯 하였다.

《참 좋은 노래요.》

노래가 끝났을 때 준수의 입에서 이 말이 저절로 새여나왔다.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듯 명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바람벽이나 바라보듯 멍하니 흐려있던 그의 눈의 초점이 천천히 바로잡혔는데 그것은 마치 그가 어떤 다른 세계로부터 현실세계로 돌아온듯 하였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의 황홀경이 어찌나 솔직한것이였던지 명희에게는 작곡가나 녀가수의 열정만이 아니라 준수의 흥분까지 흘러들었다.

여러 기회에 체험한바이지만 준수에게는 예리한 심리적감각이 섬세하게 발달되여있었다. 때문에 그의 말은 특별한 무게와 깊은 의미를 담고있었다. 그의 전체 모습과 하나하나의 몸짓에서 억센 힘과 불같은 정열이 감촉되였다.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얼마나 주의깊이 듣군 하였던지 명희는 저도모르게 말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관심을 돌리는 자기자신을 발견하군 했다. 날카로우면서도 탐구적인 눈초리는 그가 얼마나 깊은 사색에 잠기군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었다. 자기와 말할 때 준수의 눈에 빛나던 환희의 불꽃과 기지에 넘치는 유모아들은 생각만 해도 명희의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오래도록 음악이 준 여운에 잠겨있던 준수가 입을 열었다.

《명희동무, 우리가 아까 본 그림과 이 노래사이에 어떤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작품이 다 열정의 열매라는 그 점이 아닐가요?》

준수는 감탄했다.

《옳습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한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독자를 희망하는가—나와 그자신과 전체 세계를 망각하고 오직 나의 책속에서만 살 그러한 독자이다.〉

이 두 작품의 창작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은빛으로 번뜩이며 댕기오리처럼 바다로 뻗어나간 성천강의 오른쪽기슭은 무연한 들판인데 이따금 둥근 야산들이 솟아있었다.

준수는 일어서서 그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걸상에 앉은채 함께 거기를 바라보는 명희의 머리속에 저 벌에 대해 쓴 조기천의 시구가 떠올랐다.

봄마다 벌은 봄빛 흘러 백리
가을마다 벌은 황금이 무르녹아 백리

이 시를 쓸 때 조기천이 준수가 서있는 저쯤에서 함흥벌을 굽어보며 시상을 무르익혔는지도 모른다.

준수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높고 푸른 하늘에 점같이 보이는 매 한마리가 유유히 원을 그리고있었다.

《저 매를 보십시오. 매란 놈은 저렇게 높이 떠있지만 수십리밖 들판에서 달리는 들토끼의 움직임까지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광활한 산과 들이 매의 시야에 들어있습니까! 또 얼마나 놀라운 시력입니까!

난 예술가나 과학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 매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치는 얼마나 의의있는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됩니다. 그들이 자기 전문분야의 창공우에 높이 떠오를수록, 그들의 시력이 더욱더 날카로와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많은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며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새것을 발견할 가능성은 그들이 떠오른 높이와 시력에 정비례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매가 대각선을 그으며 들의 저끝으로 쏜살같이 내려꼰지기 시작하였다.

《저것을 보십시오. 어딘가 상징적인데가 있는것 같군요. 모든것을 잊고 자기의 발견을 향하여 급강하하는 매－저것이야말로 열정의 상징이 아닐가요?

이 두 작품의 창작시에 매 예술가는 바로 이러한 열정을 체험했을것입니다.

나는 가끔 이곳의 문학통신원이였던 주옥양동무의 열정에 자신을 비쳐보군 합니다. 그의 시를 되새겨볼 때면 붉은 기폭처럼 휘날리는 백두의 눈보라가 나를 휩싸안아 온몸의 피를 전부 새것으로 바꿔주는듯 합니다. 백두의 아들로 태여나는 환희라 할가. 그때마다 안일과 만족에 물젖어드는 자기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쳐 깨여나군 하지요.》

준수의 말은 명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듯 했다.

그 말에 어려있는 신선한 기운은 그대로 온몸의 힘이 되는것 같았다.

그렇지, 옥양동무가 이 결상에 앉아 책을 읽었는지도 몰라.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썼을수도 있어. 상신흥동이라면 저기 저쯤 되겠구나.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통근차의 구석에서 책을 읽기도 했다지. 새벽 3시에 잠들면서 《어머니 5시엔 꼭 깨워줘요.》라는 글쪽지를 가마뚜껑우에 올려놓군 했다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무심히 지나쳤지. 그러나 시대정신의 높은 경지에 오른 그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드디여 서정시라는 첫 고고성을 울리며 세상에 자기의 일단을 드러냈을 때 누구나 그앞에 머리를 숙였지.

명희는 언제나 자기앞에 높은 리상을 내세우고 자기자신을 모질게 채찍질하군 하는 준수가 새삼스레 돋보였다.

눈아래 펼쳐진 대도로로는 각양각색의 승용차, 뻐스, 화물차, 오토바이, 자전거들이 꽉 차서 흐르고 있었다.

명희는 언젠가 생리학실험시간에 살아있는 개구리의 다리를 바늘로 고정시키고 지간막에 분포된 혈관을 1 500배 현미경으로 본적이 있었다.

마치 누런 강물우로 수많은 붉은 호박들이 서로 부딪치며 급히 떠내려가듯 붉고 둥근 혈구들이 앞서거니뒤서거니 혈관속을 재

빨리 흘러가는 모습은 참으로 재롱스럽고 신기하였다.

만일 그 알갱이들의 부단한 흐름이 없다면 생명도 없을것이다.

저기 보이는 저 철길이 나라의 동맥이라면 그물처럼 뻗어간 이 도로들은 모세혈관으로, 기차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들은 혈구로 볼수도 있을것이다. 육체적생명을 위하여 혈구가 싣고다니는것에 못지 않게 사회의 존재와 진보를 위하여 필요한것들을 저 차량들이 실어나르고있는것이 아닐가. 피흐름이 활발한 곳일수록 생명이 고동치는 곳이며 교통이 활발한 곳일수록 사회가 진보하는 부분일것이다.

누구나 다 사회를 위하여 일하고있지만 저 차량들의 속도가 다른것처럼 기여하는 몫도 같지 않다.

준수동무는 쏜살같이 달리는 저 승용차에 비길수 있으리라.

같은 시각에 동시에 출발한 인생이라고 해도 생의 종착점에서 돌이켜볼 때 매 사람이 달려온 거리는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있는가.

줄달음쳐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적생명의 존속만을 놓고 말한다 해도 실제상 더 오래 사는 사람일것이다. …

명희는 준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건 너무 겸손한 말이군요. 전 로어를 배운 준수동무의 정열에 놀랐어요. 끝내 해내고야말았더군요.》

《첫걸음에 지나지 않지요.》

《첫걸음이지만 상당히 크게 내디뎠어요. 이제 매의 시야가 더 넓어졌겠군요.》

《그렇다고 할수 있지요. 명희동무도 영어를 하십시오.》

《하겠어요. 그전부터 벼르기만 했는데 이번에 큰 충격과 고무를 받았어요.》

《명희동무의 로어실력이 도움으로 될것입니다. 난 이번에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주로 어느 시간을 리용합니까?》

《저녁입니다. 일기를 쓰고는 그것을 외국어들로 번역하지요. 이제부터는 로어로까지 번역해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렇지요. 그러나 일상생활용어는 얼마 안되니 인차 익숙됩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옥스포드사전의 올림말이 수십만개나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겁을 먹고있습까? 하하, 단어 1 000개만 외우십시오. 그 정도면 영어로 된 전공분야의 기술도서의 문맥쯤은 능히 짐작할수 있습니다.》

《1 000개라면 해볼만 하군요. 대체로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전 문장암송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일기토막들을 외우지요. 문장이란 사유의 형식이 아닙니까. 다른 민족의 사유형식에 익숙되는것이 필요하지요. 특히 영어에서 단어의 의미는 문장마다에서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미란 단어와 단어사이에도 있는거니까요.》

명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저도 외국어로 일기를 쓰겠어요. 그게 아주 좋을것 같군요.》

《옳습니다. 원서는 매일 뒤적거리지 않을수도 있지만 일기는 꾸준히 반복하게 되므로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명희동무, 이제부터 서로 편지로 대학에서 취급하는 여러 과목들에 결쳐서 각자의 학습경험들을 교환하기로 합시다. 모를것들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합시다. 영어는 내가, 로어는 명희동무가 가르치기로 합시다. 다른 외국어는 우리 어머니가 깊이 알고있으니 어머니에게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찬성입니다!》

명희는 준수의 이 제의속에 담겨진, 그가 아직은 말하지 않고있는 의미를 어느정도 느끼고있었다. 명희는 결국 그의 제의속에 숨겨져있는 요구에도 동의를 준셈이였다.

명희는 웃음어린 눈길로 준수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봅니까?》

《준수동문 작가로 될걸 그랬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의 나의 꿈입니다.》

《그런데 왜 그길로 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난 지금도 그길로 나가고있습니다.》
《?!》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언젠가 명희동무가 이야기한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중에 소설을 쓴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그랬던가요? 그렇다고 해도 글을 쓰자면 구성이라든가 묘사라든가 하는 예술적기교의 습득이 선행되여야 하지 않을가요?》
《기교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진짜로 선행되여야 할것은 생활체험이 아닐가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서정시 〈어머니〉, 〈나의 조국〉을 생각해보십시오. 그 글들은 그들자신의 한생에 걸치는 생활체험의 총화가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생활체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참된 예술을 창조해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수동문 자서전적인 소설을 구상하고있습니까?》
《바로 맞혔습니다. 50대쯤에 가서 자서전적인 장편소설을 내놓으렵니다. 오래전부터 일기를 쓰고있는데 그때에 가선 수만페지에 달할것입니다. 거기서 함축된 페지들이 생기겠지요. 시대정신을 체현한 덩어리로 굳어지는 과정, 어느때인가는 확 타버릴 연소물질로 온몸을 채워나가는 과정 — 이것이 나의 하루이며 나의 일생으로 될것입니다. 그래서 난 늘 어깨가 무겁답니다. 어느때인가 가서는 나의 일생을 사람들앞에 공개해야 될터이니까요. 거짓말은 할수 없는것이고… 또 아무리 내가 재간을 피운대도 거짓말은 꼭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나의 일생이 사람들앞에 교훈이 될수 있도록 부끄럼없이 살자—이렇게 나는 자신을 격려하군 한답니다.
바로 지금 명희동무와의 대화도 그 소설에 오르게 될것입니다. 명희동문 아마 그 소설의 주요인물로 될수 있습니다.》
명희는 이 유모아속에 담긴 엄청난 뜻에 일순 당황하였지만 웃음으로 넘겨버렸다.
《호호, 제가 그런 영광을 지니게 됩니까?》
오래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준수가 입을 열었다.

《나는 한번도 제대되였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나는 〈ㅈ〉약물연구를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안은 전투명령으로 여기고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도 병사입니다. 우리 중대동무들은 가슴에 총을 안고 최전연을 지켜 서있고 나는 과학기술의 전초선에서 〈ㅈ〉약물을 향하여 돌격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힘이 들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렵니다. 아니, 물러설수도 없지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글을 쓰렵니다. 나의 일생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총화하렵니다. 후세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 시대 청년지식인들의 지향의 일단이나마 리해하고 긍정하게 된다면 나는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난 영생이란것을 믿습니다. 나의 육체가 한줌의 흙이 된다고 해도 살아있는 기간 무엇인가 생의 흔적을 남길수 있다면 나의 생명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삶이라는 영원한 력사적흐름속에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게 될것입니다.

생이란 자연으로부터 받은 육체적생명을 사회정치적생명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아닐가요?》

명희는 준수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넋이 한마리의 새로 되여 층층구름을 치뚫으며 무한한 우주공간으로 날아오르는듯한 신비한 황홀경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의 정신을 티없이 맑게 정화시키는것이였다.

2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특히 연구사업을 하려면 참으로 많은것을 알고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치 않아보이는것때문에도 애를 먹을수 있다는것을 정순은 이번에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효과적인 《ㅈ》약물로는 어떤것이 될수 있겠는가로 자나깨나 늘 안타까이 모색하고있던 정순은 한달반전쯤에 문득 심한 출혈로 저하된 유기체의 적혈구수와 혈색소량의 정상수치에로의 회복에 보혈약, 보기약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대비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착상을 하게 되였다.

그는 지체없이 실험준비에 달라붙었다. 우선 급성실혈성모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토끼가 부족되였다. 집에는 1.5키로이상 되는 엄지토끼가 4마리밖에는 없었는데 이 실험을 위해서는 적어도 스무마리는 있어야 했다. 준수네 병원약국에 엄지토끼가 열두마리 있었지만 열발생원인검사용이였으므로 그중에서 세마리밖에 빌릴수가 없었다. 그래도 모자라는 열세마리는 목장이요, 아는 집이요,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그럭저럭 모아들였다. 현미경이요, 적혈구용멜란쥬르요, 쟐리혈색소계요, 혈구계산판이요, 하이엠용액이요 등 이 실험에 필요한 기구와 시약들은 준수가 병원실험실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비로 가지고있는것들중에서 빌려오고 얻어오고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것으로 보혈약들중에서는 사물탕을, 보기약들중에서는 사군자탕을, 보음약들중에서는 좌귀음탕을 선택하였다.

그 처방들을 구성하는데 15가지가 넘는 고려약재들이 필요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준수가 가져왔고 인삼, 찐지황, 마는 정순이 도의학대학병원 약국에 가서 얻어왔다. 베란다에다 스무마리의 엄지토끼를 따로따로 가두어놓기 위한 우리를 짜는것은 둘째인 철수가 맡았다. 그 무슨 기술혁신조의 조장으로 임명되여 눈코뜰새없이 바빴지만 제재소에 가서 각자와 판자들을 얻어다가 제꺽 훌륭한 우리를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거의 보름이 지나갔다.

이제는 준비가 다되였다고 생각하며 실험에 막 착수하려고 하던 정순은 한가지 난문제에 부닥쳤다. 급성실혈성모형을 만들려면 실험 이틀전에 엄지토끼들에게서 전체 피량의 40프로를 뽑아야 한다는것은 알고있었는데 그 40프로란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피량을 의미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엄지토끼 한마리의 전체 피량이 몸질량의 몇분의 몇인지, 례를 들어 어떤 엄지토끼의 몸질량이

2키로그람이라면 그중에서 혈액만이 차지하는 무게가 얼마인지 알수가 없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실험을 시작할수가 없었다. 준수도 모르고있었다. 여러책들을 뒤지고 목장에 가서 수의사를 만나고 하였지만 소득이 없어 끝내는 정순이 다시한번 도에까지 갔다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소해보이는 그 문제때문에 옹근 3일이 허비되였다. 물론 3일이라는 기간도 아까운것이였지만 그것은 그동안에 안타깝고 속상하던 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다. 엄지토끼를 얻어오는것도, 고려약재를 구해오는것도, 실험기구와 시약을 가져오는것도, 토끼를 따로따로 갈라놓기 위한 우리를 짜는것도, 매 놈에게서 혈액을 뽑는것도, 매 놈의 입을 벌리고 위에까지 존대를 들이밀고 달인 고려약재와 증류수(증류수는 대조무리에만)를 넣어주는것도, 실험결과를 판정하는것도 다 헐치 않은 일들이였지만 《안타깝고 속상한》 고통만은 겪지를 않았다. 뭐니뭐니해도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은 암중모색하는 일임이 새삼스레 절감되였다.

어쨌든 실험을 시작한지 이제는 거의 20일이 되였고 래일이면 마지막분석을 하게 된다. 어제저녁 정순은 준수와 마주앉아 그동안의 결과치들을 놓고 토론을 해보았다. 물론 래일의 값들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도 각 처방들의 유효성의 정도를 잘 알수가 있었다.

보혈약인 사물탕이 제일 뚜렷한 치료작용을 나타내였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혈허증에는 보혈약을 써야 한다는 고려치료원칙의 타당성을 증명할수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보음약인 좌귀음탕이였는데 이것은 혈허증과 음허증의 호상관계에 대한 고려의학리론과 혈허증때 보혈약과 함께 보음약을 쓰라는 옛사람들의 가르침이 옳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한편 사군자탕은 말그대로 기를 보하는 약이지 결코 혈허증에 쓰는 약이 아니라는것도 알게 되였다.

이것은 귀중한 성과였다. 정순은 실험결과를 소론문으로 정리하여 약학잡지에 꼭 발표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글을 읽고나서 전국의 약무 및 의료부문의 일군들이 당귀, 궁궁이, 집합박꽃, 지황같

은것들을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재배하여 지금도 빈혈 및 출혈환자들의 치료에 널리 리용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부상병들의 회복치료에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사물탕이나 좌귀음탕을 기본적이며 효과적인 《ㅈ》약물이라고 할수는 없었다.

정순이 《ㅈ－1211》호라고 명명하고 기어코 개발해내려고 하는 약물은 결코 이런 정도의것이 아니였다. 그런것들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있으며 물약, 알약, 주사약 등 각이한 약형태로 전환시킬수 있을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료, 자재, 기술로써 공업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값눅게 대량적으로 생산해낼수 있는것이여야 했다.

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정순은 수십여년, 준수는 6년간이나 악전고투를 하고있건만 아직 앞이 내다보이지를 않아 그들은 안타까이 모대기고있었다.

스무마리나 되는 엄지토끼들의 입을 벌리고 관을 넣어 약물을 주입해준 다음 다시 한마리, 한마리씩 자기 우리에 잡아넣고난 정순은 다음날에 쓸 탕약들을 달일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중에 정순은 당귀가 약간 모자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호미를 넣은 배낭을 메고 산으로 떠났다. …

정순이 길다란 복도를 지나 전실에 들어서니 세살난 손자애가 두 눈이 동그래서 달려나왔다.

《할머니, 토끼 나왔어요.》

정순은 이번에 실험용업지토끼들을 보유하고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주먹만한 새끼토끼 열여덟마리를 얻어왔다. 그놈들을 지함에 넣어 부엌에 놓았는데 자꾸 뛰여넘어나오군 했던것이다. 손자애는 그것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모양이였다. 새끼토끼뿐이 아니였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그애에게는 새롭고 신비하고 의문을 자아내는것들이였다. 이애가 난생처음 수도꼭지에서 세차게 쏟아져나오는 물줄기를 볼 때에 느끼는 감상이 구룡폭포앞에선 관광객의 장쾌한 감흥과 무엇이 다르랴.

정순은 그것들을 다시 잡아넣은 다음 손자애를 품에 안고 볼

을 비벼주었다.

《할머니, 토끼 왜 나왔어요?》

《배가 고파서.》

《왜 배가 고프나요?》

《맘마 다 먹어서.》

《왜 맘마 다 먹었나요?》

대답이 궁해진 정순이 《글쎄－》하고 난처한 기색을 짓자 그애는 왕청같은걸 묻는다.

《할머니, 할머닌 그전날에 아버지의 엄마던거지?》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듯 제법 심각해진 그애를 다시한번 품에 껴안으며 정순은 옛시절의 동심으로 되돌아가 티없는 마음으로 즐겁게 웃었다. 아이들의 단순성은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이애의 어머니는 야간대학 교원인데 어질고 순박한 녀자였다.

방안에 들어서니 책상우에 명희에게서 등기로 부쳐온 책 한권이 동그랗게 말린채로 놓여있고 그옆에 쪽지편지가 있었다.

정순은 그것을 들고 읽어보았다.

《어머니, 당비서동지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있는 실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비서동지는 사물탕이나 좌귀음탕의 작용점이 골수보다도 콩팥이 아니겠는가고 합니다. 당비서동지는 말하기를 적혈구의 생성은 적혈구조혈소, 이른바 에리트로포에틴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조절되는데 그 효소들이 바로 콩팥에서 만들어진다는겁니다.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서도 당비서동지가 우리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전번에도 당비서동지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원장선생과 토론하여 나를 근무성원명단에서 빼주었지요. …

그건 그렇고 이 말은 옛사람들이 콩팥을 선천의 기가 담겨져있는 그릇이라고 한 말과 결부시켜보아도 흥미가 있습니다. 당비서동지는 그에 대해 자세히 밝힌 책들이 군인민병원 기술부원장선생에게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퇴근하는 즉시로 그 책들을 빌리러 갔다오겠습니다. 좀 늦어질것 같습니다.》

읍까지면 왕복 60리이다. 물론 자전거를 리용하겠지만 퇴근후에 떠나겠다니 자칫하면 어두워진 다음에야 집에 들어설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것쯤에 주춤거려본적이 없는 준수였다. 《ス－1211》호와 관련되는 문제라면 천리건 만리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끝까지 해결을 보고야마는 준수가 장하고 기특했다.

정순은 돌돌 말린 책의 걸봉을 뜯었다. 책갈피속에서 편지 한통이 떨어졌다. 명희에게서 한동안 편지가 없어 궁금하던차라 몹시 반가왔다.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정순은 《선생님》이라는 이 부름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그것은 처녀에게서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감정이였다. 로년기에 남의 존대란 각별히 가슴 뜨거운 법인데 처녀의 이 부름에는 진정어린 존경이 넘쳐흐르고있었던것이다.

《제자로부터 편지가 없어서 의문이였겠지요?

우선 선생님앞에 사과합니다. 한달전에 아버지가 평양에 갔다가 〈악성빈혈의 병리〉라는 원서를 구해왔습니다. 전 그 책을 받아쥐고 흥분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꽤 읽어내겠는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다 읽었습니다. 모를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마지막엔 감탄까지 했으니 리해는 한셈입니다. 수년전에 다른 나라에서 산 사람과 저사이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어의 장벽을 넘어 호상리해가 이루어진것입니다. 헛되게 살아오지 않았구나－이런 긍지와 기쁨이 저의 온몸에 타오르는듯 합니다. 선생님의 방조가 큰 힘으로 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써보내신 명문장들과 시구절들을 해득하느라 사전의 네귀가 둥글게 닳도록 애쓰던 나날들이 결코 무익한것이 아니였습니다.

빨리 선생님께 알리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펜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제자의 성장을 기뻐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이끌어주십시오.

선생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부디 앓지 마십시오. 창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 산이며 들이며가 물속에 잠긴듯 아지랑이속에서 흔

들리고있습니다.
그속에서 정열의 계절인 여름의 태동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정순은 웃음을 지었다. 여기는 높은 산우엔 아직 눈이 있는데 거기엔 여름이 온단 말이지. 하긴 바다가라니까…
아득한 지리적공간이 느껴지는 구절이였다.
《그곳은 높은 지대라니 태양과 더 가깝겠지요. 바람도 한결 세찰겁니다. 이 여름의 해빛이 선생님의 한생의 피로를 태워버리고 이 여름의 세찬 바람이 그 피로의 재무지를 산산이 흩날려버리게 될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씁니다.
4월 26일 제자로부터
※ 〈악성빈혈의 병리〉를 보다가 모를 말들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발전했단 말인가!
정순은 책상빼람을 뒤져 1년전에 처녀에게서 처음으로 온 편지를 찾아냈다. 그속에 삽입되여있는 외국어문장들에는 미약한 점들이 많았다. 이 책, 저 책 뒤지며 힘들게 한구절, 한구절 꾸며나간 흔적이 느껴졌다.
그러나 문법에 충실하고 사소한 점도 스쳐지나지 않는 진지한 태도가 느껴졌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그후 련이어 오는 처녀의 매 편지마다에서 그의 급속한 발전을 놀랍게 여겨왔지만 이번 편지에 끼워있는 그런 문장들에서는 감정표현이 자유로왔고 문장마다에 재치가 흐르고있었다.
정순의 눈앞에는 책상에 단정히 마주앉아 흥분에 휩싸여 이 편지를 썼을 사랑스러운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치 자기의 처녀때 일기장의 한 토막을 읽고난 기분이였다. 처녀의 열정과 꿈, 아름다운 희망, 뚜렷한 삶의 목적과 지향, 소박한 인간미가 넘쳐흐르고있는 그 편지는 정순의 처녀시절의 모든것을 일시에 떠올려주었다. 정순은 마치 두손으로 사랑스럽고 대견한 처녀의 고동이 뛰는 산 심장을 고이 쥐고있는것 같은 감상을 감촉하였다. 이와 동시에 자기의 심장도 활발히 고동치고 기쁨의 물결이 심혼에 흘러들었다.

밤이 어지간히 깊어서야 책을 서너권 얻어가지고서 막내아들이 나타났다.

정순은 막내아들이 식사를 하고난 다음 그와 마주앉았다. 그리고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막내가 웃음어린 어조로 물었다.

《그러니 어머니의 우려는 공연한것이였군요?》

그것은 준수가 입학시험을 치고 왔을 때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정순은 그때 약간 들뜬듯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졌다.

《그래, 미인이란 말이지. …》

《예, 그리고 머리도 비상하더군요.》

《심중해라. 사랑을 맺기 전에 심사숙고해야지 일단 결합되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것이 애정관계란다. 곱다는것과 아름답다는것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단다. 중요한건 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통된 견해이다. 그리고 높은 지성에서 풍기는 인간적인 향기다. 난 네가 이 두가지를 갈라볼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막내아들은 웃고있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할건 없습니다. 전 아직 사랑이란걸 모릅니다. 결혼도 서두를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보기 드문 처녀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때로부터 근 3년이 흘렀다.

정순은 막내아들이 사람을 바로 보았다는것을 리해하게 되였다. 아름다운 인간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그의 아름다움을 다 알수 있는것은 아니며 또 누구나 그에 끌려들어가는것은 아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막내아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와 사귀고있었다.

정순은 정색해서 막내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새로운 걱정이 또 생겼구나.》

《그게 뭔데요?!》

막내아들은 놀라서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그 처녀를 놓치지 않겠는가 하는거다.》
막내아들은 픽— 웃었다.
《웃을 일이 아니다. 그래, 그 처녀가 널 사랑하니?》
《모르겠어요.》
《너희들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니?》
《없었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걱정이 전혀 무근거한것은 아니지? 네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처녀도 너를 사랑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명희를 우리 집 사람으로 만들자. 한번 그 집에 가서 아버지랑 만나보는게 좋겠다. 영예군인이라니 끝까지 네가 친아들이 되여 잘 돌보아드려라.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싸운 사람들인가를 너희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정순은 나직이 말하였다.
《난 정말이지 명희가 마음에 든다.》
막내아들은 머리를 푹 숙이였다.
막내아들이 제 방으로, 연구실로 들어간 다음 정순은 탁상등을 켜놓고 펜을 들었다.
《명희동무에게!
나는 동무의 편지를 읽어보고 기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악성빈혈의 병리〉를 원문으로 리해했다니 대단한 일입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문제는 꾸준한 노력이지요.
명희동무는 세개의 외국어에 달라붙었으며 짧은 기간에 경탄할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나를 감동케 하는것은 동무의 어학적재능이 아니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새 세대 청년지식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동무의 숭고한 자각입니다.
동무들 새 세대 청년지식인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그것은 조국의 래일이 동무들의 두어깨에 지워져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정세가 매우 엄중하기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으렵니다.
명희동무, 끝까지 굴하지 말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진

심으로 바랍니다.

5월 1일

준수 어머니로부터

※ 〈악성빈혈의 병리〉에서 밑줄 그은데를 검토해본 다음 인차 보내주겠습니다.》

그다음 정순은 명희의 이번 편지에서 틀린 점들을 지적해주고 마지막에 시 한수를 써넣었다.

반디불빛에 책을 읽고
창가에 쌓인 눈빛에 글을 쓴다
이런 나날속에
학문은 무르익는다

편지봉투에 우표까지 붙인 다음 정순은 한참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뜻과 정으로 결합된 두사람의 앞날이 각이한 화폭으로 떠올랐다.

정순에게는 명희가 조금도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귀여운 막내딸에게 편지를 쓰고난 기분이였다.

바로 이때 불현듯 정순의 머리속에 맏아들과 맏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차겁고 불쾌하며 뭉글뭉글한 덩어리가 마음속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그것은 무거운 먹장구름이 즐겁게 빛나던 태양을 점차 가리워버리듯 마냥 기쁘던 감정을 서서히 삼켜버리는것이였다. …

맏아들의 결혼후에 정순은 준수의 연구를 돕는데 온 정력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맏아들과의 격렬한 충돌로 하여 누구에게도 말못할 고통스러운 심리적고민에 잠겨있던 정순에게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혼자서라도 기어이 《ス－1211》호를 연구해내고야말리라는 굳은 결의를 안고 목표를 향하여 완강히 돌진하고있는 준수의 모습은 커다란 정신적위로로 되였다. 정순은 얼어있던 자기의 마음이 비로소 따뜻이 풀리는듯한 감을 체험하였다. 준수

가 있음으로 하여 다소나마 장범을 비롯한 먼저 간 전우들앞에 머리를 쳐들수 있을것 같았다. 정순은 막내아들에게서 《ス－1211》호에 대한 애정을 느꼈다. 설사 불가능이 확신되는 경우에라도 식지 않을, 오히려 그로 해서 더욱더 강렬해질 친아들에 대한 친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그러한 애정이 막내아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음을 정순은 알게 되였다. 그 애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막내아들은 행복하고 보람찬 생을 누리게 되리라는것을 정순은 기쁜 마음으로 확신하였다. 정순은 자기가 《ス－1211》호연구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으며 막내아들과 더불어 막내아들이 계획하고있는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해주었으며 적절한 조언과 충고를 주었다. 착상에 대한 의논도 문헌조사도 실험의 계획도 준비도 수행도… 모든것을 함께 해나갔다. 정순은 거기에서 크나큰 환희와 보람을 맛보았다.

정순은 나날이 자기의 육체적로쇠가 심해지고있다는것을 의식하고있었으며 이 연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있었다. 더우기 막내아들은 장가를 가야 할 나이가 되였다. 정순은 막내아들에 대해 잘 알고있었으며 굳게 믿고있었지만 맏아들로 인해 겪은 쓰라린 체험때문에 이 문제에 절로 신경을 쓰고 불안과 위구에 사로잡히군 하였다.

그런데 불쑥 명희라는 처녀가 나타났다. 정순은 불안과 호기심, 기대가 어린 시선으로 몇년동안 처녀를 주의깊이 관찰하였으며 드디여 이 처녀야말로 위대한 우리 당의 품속에서 피여난 또하나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송이이며 막내아들의 가장 친근하고 귀중한 일생의 길동무로, 《ス－1211》호연구의 가장 리상적인 방조자로 될수 있음을 마음속으로부터 확신하게 되였다.

맏아들과 막내아들은 참으로 대조적인 길을 걷고있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으나 정순은 오래도록 잠들수 없었다.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허전했고 무엇인가 불만스럽고 잊고있는것이 있는듯 하였다.

몸을 뒤채기며 잠을 청했으나 정신은 더 맑아만지는것이였다.

정순은 가슴이 답답하였다. 그는 차츰 자기를 사로잡고있는 자

기 불만이 어디서 오는것인지를 확연히 알게 되였다.

나는 맏아들과 맏며느리를 옳은 길에 들여세워야 할 나의 의무를 회피하면서 그들을 될수록 멀리하려고만 하였다. 물론 《ㅈ―1211》호는 나의 필생의 사명이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기 전에 그것을 성사시켜야 한다. 따라서 나에게는 1분1초가 더없이 귀하다. 하지만 내가 당앞에 지닌 의무가 그것뿐이겠는가? 아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지녔던 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정신을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그들의 가슴속에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을 신념의 기둥으로 자리잡기 전엔 나는 당앞에 지닌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 없다. 이것을 해낸다는것은 헐치 않다. 《ㅈ―1211》호를 연구해내는것 못지 않게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육친으로서 내가 맏아들과 맏며느리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다. 인간은 오직 인간애로써만 길이 남을수 있다. 그들이 언젠가는 내가 무엇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두고 가슴아파했는가를 깨닫게 될것이다.

막내아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는, 그의 연구에 명희라는 믿음직한 방조자가 생긴 다음에는 한동안 맏아들네 집에 가있자. 어떻게 해서든지 윤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자. 윤수가 그길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참된 행복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 시대의 힘찬 전진에 발걸음을 맞출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자!…

정순의 방에서 불이 꺼진 다음에도 준수의 연구실에서는 문창을 통해 빨간 불빛이 전실로 희미하게 비쳐나오고있었다.

읍에 갔다가 늦어서야 돌아온 준수는 대충 밥을 퍼먹고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명희에게서 온 편지를 다시한번 읽어보기 시작하였다.

《준수동무에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달동안이나 편지를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변명같기도 하지만 지난 한달은 저의 일생에서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격동적인 사변들로 충만된 기간이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2월관리리사회

회의에서 우리에 대한 〈특별사찰〉결의가 채택되고 뒤이어 놈들이 〈팀 스피리트—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물론 긴장되기는 했었지만 설마 전쟁까지야 하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였을 때 이번에는 틀림없이 전쟁이다 하는 느낌에 정신이 번쩍 들었으며 끓어오르는 흥분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에 조선인민군입대를 탄원하였으며 그날 저녁부터는 입대통지서가 오기만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준수는 명희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아니, 사회주의와 인류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일대 위기가 이 땅에 닥쳐왔었다. 준수 역시 명희와 다를바 없는 흥분에 휩싸여 인민군대에로의 복대를 탄원했었다.

준수는 완전한 공감속에서 계속 편지를 읽어나갔다.

《그날밤 저는 불뿜는 화구를 가슴으로 막거나 수류탄을 안고 육탄이 되여 적땅크를 까부시거나 쓰러진 부상병들에게 저의 피를 넣어주는 꿈만 꾸었습니다. 다음날에도 마음이 진정되지를 않아 퇴근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안절부절을 못하며 특별히 하는 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이런 꼴을 보고서 모든것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명희야, 그래서는 안된다. 설사 래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늘 저녁까지는 하던 일을 더욱 열심히, 더욱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타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서 다시 통신공부도 하고 외국어학습도 했으며 다른 일들도 계속했습니다.

준전시기간에 우리 병원에서는 정상적인 예방치료사업을 하면서도 군의보장훈련을 하느라 법석 끓었습니다. 밤에는 주변 인민반들에 나가 전시조건하에서 부상병들에 대한 1차치료법을 해설해주기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준수동무네 병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겠지요.

참으로 지난 한달은 바쁘기도 했지만 정말이지 크고 귀중한것을 깨달은 나날이였습니다. 일개의 평범한 보통사람으로서 매일매

일의 생활속에서 력사의 흐름을 의식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지난 한달동안에 저의 눈앞에는 지금 누가 력사의 방향타를 쥐고있는가 하는것이 확연히 보여왔습니다. 정말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조국과 우리들의 운명은 어찌될번 했습니까! 아마 사회주의라는 말은 사전에서나 겨우 찾아볼수 있는 말로 되여버렸을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자!— 이런 절절한 느낌과 뜨거운 맹세가 새삼스럽게 이번 준전시기간에 저의 가슴속에 꽉 차오르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한가지 절감한것은 오로지 강위력한 국력이 있어야만 놈들을 무릎꿇게 만들수 있다는것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약했더라면 놈들은 틀림없이 이리떼처럼 덤벼들었을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와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려는 충정심은 만세를 부르는데서가 아니라 국력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 실제적인 사업성과로써 나타나야 하지 않을가요?

그런 의미에서 준수동무가 하고있다는 그 연구가 하루빨리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오늘의 맹세를 한시도 잊지 않고 맡은 일도 통신공부도 외국어학습도 더 잘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월 25일 명희 올림》

그렇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지난 준전시기간에 준수의 가슴속 깊이에 다시한번 아로새겨진 절절한 느낌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자, 무엇보다먼저 《ㅈ—1211》호를 하루빨리 연구해내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자, 이것이 이 기간에 준수가 다시한번 굳게굳게 다진 맹세였다.

공통되는 사상감정과 견해의 일치만큼 서로를 깊이 리해할수 있게 해주고 가깝게 해주는것은 없을것이다. 이번 편지를 통하여 준

수는 명희에게 보다 따뜻한 친근감을 느꼈다.

다른 한편 준수는 명희의 영어실력에서의 놀라운 발전에 감탄했다. 이 편지와 함께 온 자그마한 쪽지를 읽어보니 명희가 영어문법에 거의나 정통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준수는 빼람을 뒤져 6개월전에 명희에게서 온 편지 한장을 찾아내서 읽어보았다. …

몇군데 틀린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문장의 질적수준이 괜찮았다. 《지식도 바로 그러합니다.》라는 영어문장은 아주 재치있게 씌여져있었다.

그런데 오늘에는 명희의 영어실력이 그때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높은 수준에 올라있었다. 참으로 정열적이고 이악한 처녀였다. 아니, 이러한 놀라운 성과의 원인을 단지 《정열적이고 이악한》 품성만으로는 설명할수 없었다. 그것이 보다 크고 웅심깊은것에 근원을 두고있음을 준수는 이번 편지를 통하여 깊이있게 알수 있었다.

준수는 명희에게 회답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진지하게 학습경험을 터놓은 다음 준수는 로어로 몇문장 써넣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꾸준한 숙련이 로어실력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도움으로 되였다.

탁상시계의 시침은 벌써 자정을 가리키고 분침도 거기에로 거의다 육박하였지만 준수는 편지를 끝마치자마자 일기번역에 착수했고 그다음 군인민병원 기술부원장에게서 빌려온 책들을 펼쳐놓고 조혈과정에 미치는 콩팥의 영향에 대해 그리고 거기에 사물탕이나 좌귀음탕이 어떻게 작용하겠는가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준수는 시계의 종소리를 5시에 맞추어놓고 옷을 입은채로 한쪽구석에 있는 침대에 누웠는데 그것은 피곤해서라기보다는 밤잠 1시간이 낮잠 3시간과 맞먹는다는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건강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준수는 인차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

새벽 5시가 되자 베개옆에 놓아둔 시계가 요란한 종소리를 울리

기 시작했다.

준수는 즉시에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아직도 잠에 취해 비칠거리며 세면장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세차게 뿜어나오는 물줄기밑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잠시후 전신에 퍼지는 차겁고 상쾌한 감각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물이 뚝뚝 떨어져내리는 머리칼을 마른 수건으로 마구 비비며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다.

잠자는데 빼앗긴 두시간이 아쉬운감이 들었다.

준수는 책상에 마주앉아 한손으로는 수건을 들고 계속 머리칼을 비비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책을 펼치였다. 밥먹기 전 두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자는것이였다.

제6장 삶의 가치

1

절기로 보아선 가을이라 하지만 또 바람도 하늘도 별도 틀림없는 가을바람, 가을하늘, 가을별이지만 대학부지의 중심에 자리잡은 구내공원에는 여전히 푸른빛을 띠고 무성한 나무들이 짙은 그늘을 던지고있었다. 공원은 두개의 길다란 2층건물 즉 벽돌건물과 흰타일을 붙인 건물사이에 끼여있다. 붉은색 2층벽돌건물의 열려진 창가로는 칠판 한가득 복잡한 수식을 써나가는 교원과 숙였던 머리를 이따금 쳐들며 부지런히 받아쓰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 건물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전후시대의 체취가 짙게 풍긴다. 날카로운 예각을 지은 지붕우에 어려있는 수십년동안 쌓이고쌓인 세월이 마치 눈에 보일듯, 손에 잡힐듯 느껴진다.

저 문으로 책보를 들고 후렁후렁한 품넓은 흰바지를 입은 남대학생들과 머리카락을 두갈래로 땋아늘인 녀대학생들이 드나들었으리라. 기숙사의 통강냉이밥마저 넉넉치 못했고 학습장 한권도 귀하던 때였다. 지금은 그앞에 푸른 주단같은 금잔디가 가없이 펼쳐지고 그우에 펴놓은 흰 천오리인양 콩크리트걸음길이 가로세로 뻗었지만 그때에는 여기에 철근들과 파벽돌들이 너저분하고 밤이면 불도 없는 진창길에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으리라. 지금은 여기저기에 록색구름인양 나무잎새들이 우거지고 그 짙은 그늘마다엔 긴걸상들이 어서 오라 학생들을 부르고있지만 그때엔 사색에 잠겨 앉아있을 변변한 그늘 한점, 걸상 하나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미제와의 끝나지 않은 싸움에 나선 그들의 머리속엔 찬란한 조국의 래일이 있었고 가슴에선 청춘의 정열이 불타고있었으리,

흰타일을 붙여 해빛에 번쩍이는 그 맞은편 교사에선 귀기울이면 천리마의 발구름소리가 들려오는듯 하고 허리를 편 조국의 자랑스러운 기상과 자신만만한 여유가 느껴진다. 저 현관의 둥근 기둥들은 얼마나 많은 청춘들의 열정적인 론쟁과 웃음소리를 들어왔으랴. 얼마나 많은 신입생들과 졸업생들이 저 기둥들을 그러안고 볼을 비볐겠는가.

함흥에 일떠서는 비날론공장을 두고, 자기들이 이어받아 떠메고 나가야 할 주체화학공업의 래일을 두고 희망과 긍지에 넘쳐 떠들던 대학생들이 그 얼마인지 기둥들은 알고있으리. 당시는 여기가 함흥화학공업대학의 분교였다.

공원의 맞은켠에 솟아있는, 몇년전 여름 명희가 그곁에 서있던 백양나무를 중심으로 도서관, 기숙사, 출판소, 연구소… 등등 수많은 건물들이 빛살처럼 배치되여있다.

그 백양나무아래 강당이 있고 강당의 지붕너머로 본청사가 보인다. 본청사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의 대학생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를 말해주는 웅변의 탑인양 하늘을 찌를듯 웅장하게 솟아있다.

본청사 5층의 어느 한 열려진 창가에서 교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이상으로 물리화학에 대한 개괄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모레 오전 9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교원이 나가자 모두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웅성거렸다.

그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시험전 심리상태에 처해있었다.

불안과 초조감으로 해서 오히려 시험을 당장 쳐버렸으면 하는 심정과 단 하루만이라도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상반되는 심정의 엇갈림이였다. 모든 학생들이 시험전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런 심리는 없어질수도 있으련만.

학급동무들이 여기저기 공부하러 흩어져갈 때 준수는 명희에게 교실에 남아서 함께 공부하자고 청했다.

명희는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준수는 등교시마다 류다른 감정을 체험하군 한다. 성룡구에 홀로 있을 때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수 있으나 등교시에는 명희가 곁에 없으면 도무지 사고를 집중할수 없었다. 그런 때는 자기의 두뇌가 마치 뭍에 오른 물고기처럼 되여버린다. 그러나 명희와 만나면 그 물고기는 즉시에 굽이치는 푸른 물에 들어선듯 살아 날친다.

기묘한 꼬리짓을 하며, 해빛에 은빛비늘을 번쩍이며 유유히 흰 바위사이를 감도는 날쌘 물고기!

명희는 준수의 힘이고 기쁨이였다.

두달전 준수는 자기의 연구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안타까이 목표물을 탐색하며 떠오르고떠오르던 매가 드디여 무엇인가 포착한것이다. 하여 준수의 연구는 비상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였다. 준수는 그때부터 더욱 자주 명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였고 앞으로 함흥에 가서 명희를 만나게 되면 그의 방조를 부탁하리라 마음먹고있었으며 등교한 첫날부터 그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하지만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일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아니, 그러고도 성공하지 못할수 있는 이 연구에 명희가 나설가? 다른 한편으로 그 말은 명희에게 일생을 같이하자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것으로도 되기때문에 준수로서는 심각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될것인가? …

준수는 명희를 믿고싶었지만 저도모르게 불안으로 가슴이 떨리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막상 말을 하려는 순간이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어떻게 시작을 떼야 할지 신통한 궁리가 떠오르지 않는것이였다. 그런 때면 황급히 뒤로 물러서게 된다. 에라, 모르겠다, 후에 적당한 기회가 생기겠지,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번 등교기간내에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것만은 굳게 속다짐하고있었다.

교실은 삽시에 텅 비였다. 창가에 서니 대학건물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여기는 공기마저 류다른것 같았다. 대학의 모든것이 준수에게는 정답고 친근했다.

문소리에 준수는 돌아섰다. 명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것이였다.

처녀는 앞깃을 아래로 약간 깊이 파준 분홍색샤쯔에 날씬한 허리의 곡선을 맵시있게 드러내주는 곤청색치마를 입었는데 그 차림새가 얼마나 그에게 잘 어울렸는지 준수는 한참이나 쳐다보지 않을수 없었다. 처녀의 뺨에 어린 신선한 붉은빛은 잠자리날개처럼 가벼운 천으로 지은 샤쯔의 밝고 우아한 연분홍색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있었다. 색은 생의 한 징후이다. 처녀는 인생의 봄계절에 있는것이다. 준수는 마치 자기쪽으로 봄철의 꽃이 만발한 복숭아나무 한그루가 고요히 미끄러져오는듯한 황홀한 심정에 잠겼다.

《왜 그렇게 보세요?》

명희는 수줍어서 얼굴을 붉혔다.

《그 분홍색이 참 좋구만. 마치 동무가 꽃잎속에 묻힌것같이 보이는데…

가만 지금 한시 한구절이 떠오르는데 번역해보겠소?》

《꽤 번역해낼가요? 어떤 시예요?》

그들은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고려의학유산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필요를 느끼고 한문학습에도 많은 품을 들였으며 이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있었다.

준수는 학습장 한구석에 한자로 급히 써놓았다.

명희는 한참 들여다보다가 번역했다.

《복숭아꽃잎이 붉은비처럼 마구 떨어지다… 옳은가요?》

준수는 웃음속에 가벼운 수정을 가했다.

《복숭아꽃잎 우수수 붉은비 오듯 하네》

《참 훌륭한 번역이군요.》

명희는 감탄했다.

준수는 미소를 머금고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지금 동무를 보면서 꽃향기 그윽하고 구름처럼 만발한 복숭아꽃잎들이 붉은비처럼 흩날리는 과원에 서있는 심정입니다. 누군가는 분노가 시인을 만든다고 했지만 아름다움 역시 시인을 만드는것 같습니다. 가을철에 더우기나 이런 대도시의 콩크리트건물에서 봄날 과원의 안온하고 한가로운 정서를 즐길수 있게 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호호.》

처녀는 입을 싸쥐며 웃음을 터뜨렸다.

웃을 때 명희의 두눈은 더 고와진다. 웃으면서 처녀는 바로 그 웃음자체를 즐기였고 그 즐거움에 어쩔줄 몰라하였다. 준수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웃는 사람들을 매우 드물게 보군 하였는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였다.

한참동안 허리를 꼬부리고 웃고나서 처녀는 가볍게 나무랬다.

《비행기는 그만 태우고 이젠 공부를 하자요.》

《그건 롱담입니다. 공부를 합시다.》

그들은 즉시에 론쟁과 토론속에 빠져들어갔으며 시간가는줄 몰랐다.

극한과 관련된 문제에 맞다들렸을 때였다.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듯이 보였다. 물론 계산과정은 몹시 복잡하였지만 원리적으로는 걸리는것이 없었다. 그런데 증명의 마지막단계에서 암초에 부딪쳤다.

《$1+\frac{1}{2!}+\frac{1}{3!}+\cdots+\frac{1}{n!}$》과 일정한 상수와의 크기관계 즉 웃식의 극한이 일정한 상수에로 수렴한다는것을 밝히기 위하여 그 극한이 어떤 수보다 작다는것을 증명해야 하였다.

한참동안 속을 태우던 준수는 불평을 터뜨렸다.

《명희동무, 이건 뭔가 잘못된 문제가 아니요? 이런 식의 계산공식도 없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따진단 말이요?》

명희는 귀중한 보물이 숨겨진 곳을 혼자서만 알고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군 하는 능청스럽고 장난기 어린 웃음을 띄우고 퉁겨주었다.

《웃식의 계산값이 아니라 크기관계를 밝히면 되니 웃식을 계산할수 있는 형태로 고치는것이 어떨가요?》

준수의 머리속에 확실히 무엇인가 떠올랐다.

그러나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은 오히려 더해졌다.

준수의 안타까와하는 모습이 명희에게는 몹시 재미있었다. 그런 때는 그가 다 자란 젊은이가 아니라 어려운 산수문제때문에 끙끙거리는 천진스러운 사내애처럼 보였다. 명희는 좀더 기다려보리라 생각했었으나 저도모르게 불쑥 입을 열고말았다.

《웃식에서 $\frac{1}{1!}+\frac{1}{2!}+\frac{1}{3!}+\cdots+\frac{1}{n!} < \frac{1}{2^0}+\frac{1}{2^1}+\frac{1}{2^2}+\cdots+\frac{1}{2^n}$로 놓아보세요. 방도가 나질거예요.》

준수의 머리는 금시에 명쾌해졌다. 이 계산문제에 대한 리해를 백번 찍어야 넘어가는 나무에 비한다면 준수는 이미 이러저러한 각도에서 각이한 세기로 99번의 강타를 안겼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넘어질듯 넘어질듯 하면서도 그 나무는 간신히 버티고 서있었는데 명희의 이 말은 백번째의 즉 아주 정확하고 대단히 강력한 마지막일격이였다. 아름드리나무가 《우지직, 우지직》소리를 내며 창공에 느린 호를 긋다가 드디여 온 산판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땅바닥에 나뒹구는것을 보는듯한 쾌감이 준수의 온몸을 줄달음쳤다.

문제의 옳바른 설정— 그것은 벌써 답인것이다.

계산은 몇분도 안걸렸다. 웃식의 극한이 2보다 작다는 결론이 곧 나왔다. 문제는 증명되였다.

준수는 너무도 만족하여 두손바닥을 힘껏 비비며 웃음을 터뜨렸다.

명희도 즐겁게 따라웃었다.

지적인 즐거움—그들은 그 순간 그것을 누리고있었다. 그것은 행복이였다.

준수는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학적언어만큼 간결하고 설득력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나는 매번 수학의 신비한 힘에 경탄하군 합니다.》

명희는 진심으로 그 말을 긍정하였다.

《정말 그래요. 저는 어떤 때마다 극히 단순해보이는 전제로

부터 놀랄만한 결론을 이끌어낸 수학적유도과정이 씌여진 페지를 눈을 감은채 쓸어보군 한답니다.》

《그건 어째서요?》

준수에게는 그 말이 리해되지 않았다.

《손에 혹시 어떤 요술쟁이가 잡히지나 않겠는가 해서말입니다.》

《그래 잡아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호호호.》

《하하하.》

그들은 다시금 통쾌하게 웃었다.

친근감이 두사람을 부드럽게 휩싸안았다.

…작년 가을 등교때였다. 콤퓨터과목 전망강의가 시작된 날 첫 강의가 끝난 다음 명희는 교원에게 그가 들고다니는 《풀이의 왕자—콤퓨터》라는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교원은 지금 보는중이라고 하면서 딱해하였다. 명희가 이틀만 보자고 사정하자 교원은 《그렇게나 보아서는 소용이 없겠는데…》하면서도 빌려주었다. 이틀후에 명희가 책을 돌려주자 교원은 오히려 미안해하며 다 리해했는가고 물었다. 대체로 알것 같다는 명희의 말에 교원은 반신반의하며 책을 펼쳐들고 묻기 시작하였다. 온 학급이 그들의 문답에 귀를 기울이였다. 드디여 교원은 선언하듯 말했다.

《정말 대단하오. 동무에게서는 시험을 받아낼 필요가 없겠소.》…

명희는 이처럼 수학에 대한 리해가 깊었고 또 그 과목을 매우 사랑하였다. 이것은 수학적기초가 어느정도 미약한 준수의 부러움을 자아내였다.

수학뿐이 아니였다. 대학통신에서 취급하는 모든 과목들에 대해 명희는 정도이상이라고 할수 있을 참으로 폭넓고 깊이있는 리해를 가지고있었다. 그러한 리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것인가를 준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으며 바로 그런 까닭에 명희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의문을 품게 되였다.

선천적인 재능에 대해서 말들을 하지만 준수는 목적이 없는 사

람에게 재능도 있을수 없다고 확신하고있었다. 재능이란 로동할수 있는 능력이며 로동에 대한 애정이며 로동에 대한 요구이며 완강하고 꾸준한 로동의 결과이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설사 타고난 로동의 능력은 있을수 있어도 로동에 대한 애정, 요구 그리고 밤 모르는 로동의 나날들은 있을수 없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 재능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것이다.

바로 명희의 경우가 그러했다.

명희는 등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마다 가방이나 배낭, 구럭, 꾸레미들을 등에 지고 두손에 갈라든채로 기차에 오르군 하였는데 그것들은 전부가 등교기간에 여기저기로 다니며 구해들인 약학부문의 책들과 실험기구, 시약 등이였다. 준수가 그것들을 빼앗아 둘러메고 역에까지 바래워주러 나가면서 어디에 필요한것들인가고 물으면 명희는 그때마다 실력을 보다 더 공고히 하고 약국의 물질적토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것들이라고 롱조로 대답하군 하였다.

어느날 준수는 명희에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이 현미경이나 혈액순환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수백년전에 체계화해놓은 인체의 생리학이나 병리학분야의 일부리론들중에는 현대의학이 최근에 와서야 그의 정당성을 겨우 깨닫기 시작한 실로 놀라지 않을수 없는것들이 적지 않지요. 례를 들어봅시다. 우리 선조들은 생체의 모든 에네르기를 〈기〉라고 하면서 콩팥에 선천의 〈기〉가 담겨져있다고 하였지요. 지금 표현대로 한다면 콩팥이 유기체의 성장과 발육, 정상기능의 유지 및 로쇠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요. 치료도 거기에 기초해서 했구요.

하지만 오래동안 현대의학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비웃어왔지요. 콩팥에서는 오줌이 만들어질뿐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콩팥겉질 및 속질호르몬들이 발견되고 그 기능이 밝혀졌으며 최근에 와서는 비타민 D, 뇌하수체전엽의 성장호르몬, 갑상선자극호르몬들이 반드시 콩팥을 거쳐서만 활성화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지요. 이 호르몬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는 명희동무도 아는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각국의 특히 서방의 의학자들

이 우리 선조들의 그 주장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였지요.》
그러자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옳아요. 더우기 콩팥이 에리트로포에틴이라고 하는 적혈구조혈소를 통하여 골수에서 적혈구의 생성정도까지 조절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선조들의 예지앞에 감탄을 금할수가 없어요.》하고 말했는데 그 대답이 준수를 놀래웠다. 명희가 그런것까지 알고있을줄은 모르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자료들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준수였던 것이다. 그래서 준수는 불쑥 물었다.
《명희동무에게 물어볼것이 있는데…》
《뭔데요?》
《명희동무는 지금 무엇인가 연구하고있지 않소? 그렇지 않으면 그 준비를 하고있던지?》
순간 명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자기를 매우 근사하게 그려낸 소묘같은것을 보았을 때 저도모르게 얼굴에 떠오르는 그것과 비슷하였다.
명희는 고개를 흔들면서 딱 잘라 대답하였다.
《아니예요. 아무것도 하고있지 않아요.》
만일 명희가 무엇을 하고있다면 이만큼 친숙해진 지금에 와서까지 비밀로 해두려고 하지는 않겠는데…
준수는 명희의 말을 믿을수도 없었고 믿지 않을수도 없었다.
그러나 믿고싶었다. 그의 대답이 사실이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명희가 무엇인가 다른것을 연구하고있는중이라면 준수가 이 처녀를 알게 된 초기부터 마음속에 품고있던 공동연구에 대한 제안을 거절할수도 있으며 그 거절로 하여 둘사이의 관계가 버그러질수도 있는것이 아닌가.
처음 만났을 때의 명희를 그안에 수백개의 켜지지 않은 소전구들이 가득 들어있는 무리등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명희는 그 소전구들이 거의다 켜져있는 무리등이라고 할수 있었다. 처음의 그때로서도 아름다왔지만 내부의 불빛에 의하여 첫눈에는 잘 알리지 않던 겉면의 정교한 예술적인 세공들이 남김없이 드러난 지금의 무리등은 더욱 훌륭하였다. 그 《무리등》의 한 부분만은 좀

처럼 밝아지지 않아 은근히 준수의 불안과 위구를 자아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있어요?》

갑자기 들려오는 명희의 말소리에 상념에서 깨여난 준수는 황급히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계속합시다.》

그들은 공부를 계속했다. 선행한 학자들의 심오하고 놀랄만한 사색의 자취를 온 정신력을 집중하여 한걸음, 두걸음 생생한 공명과 함께 뒤밟아나간다는것은 더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였다.

준수는 식사때문에 맏형네 집에까지 갔다와야 했는데 1시간은 실히 걸려야 했다. 준수는 그러기가 시끄러워 마저 끝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리라 작정했다. 사실 남은 문제도 얼마 안되였다.

명희는 기숙사에 있었으므로 대학식당에 가야 했는데 혼자 가기가 싫어 준수의 팔을 끌었다.

준수는 롱담을 섞어 사양했다.

《아니, 난 그만두겠소. 이런 긴장한 사색을 요구하는 시기에 소화와 같은 시시한 일에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정력을 분산시키고싶지 않소.》

《소화란 결과적으로 에네르기의 흡수가 아닌가요?》

《그 과정은 에네르기의 소비를 요구합니다. 〈기분좋은 식곤〉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그건 식사직후에 생기는 소화기에로의 피흐름의 증대로 인한 뇌수순환혈량의 감소때문이지요. 즉 일시적인 지력의 감소현상이 식사직후에 나타난다는겁니다. 혈류량은 결국 수송량이니 에네르기소비의 중요한 척도로 되지요.》

《정말 그렇겠군요.》

명희는 아주 심각한 기색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식사를 그만두겠어요. 공부를 계속합시다.》

명희는 짐짓 만년필을 뽑아들고 다시 학습장을 펼쳤다.

준수는 명희가 이처럼 솜씨있는 반격으로 나올줄은 미처 예상못했었다.

《동무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무에게는 지력이 방대하니

〈식곤〉따위로 인한 감소쯤은 무시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준수동무가 안가겠다면 저도 안가겠어요.》
준수는 할수없이 명희와 함께 대학식당으로 갔다.

2

식사후 한시간쯤 더 걸려서 계산문제풀이를 전부 끝낸 그들은 구내공원의 유보도를 천천히 함께 거닐었다. 록음은 풀색구름처럼 그들의 머리우에 뭉게뭉게 피여있고 무성한 잎새들사이로 찬란한 해빛이 쥐여뿌린 은가루처럼 눈부시게 부서져내려 발밑에다 어룽어룽 흔들리는 그물무늬를 그리고있었다.

마치 물속을 걸어가는듯한 착각이라도 일으키려는듯이 바람결마저도 그들의 얼굴을 따스한 물결처럼 쓰다듬어주었다.

준수는 오래도록 아무말도 없었다.

명희는 어쩐지 그 침묵이 두려웠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선뜻 깨뜨리기가 저어되였다. 명희는 며칠째 준수에게서 이상한 감촉을 느끼고있었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는 이따금 심각하면서도 망설이는듯한 기색이 어려있었던것이다. 명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그때마다 아슬아슬한 전률을 느꼈다. 그가 말하려는것이 두려웠다. 지금까지 명희는 준수와 즐거웠고 자유로왔으며 스스럼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인가를 말한 후부터는 어떤 익숙치 않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될것만 같았다. 마주보기도 부끄러워질것만 같았다. 그것이 겁이 났다. 그저 이대로 있는것이 마음 편하고 좋을것만 같았다. 한편 며칠째나 갑자르고있는 그가 우습기도 하고 정이 가면서 갑절로 미더웠다. 명랑하고 쾌활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이처럼 순박한 그와 함께 손잡고 탐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싶었다.

그런데 준수동무는 점심도 건느려고 했지. 집에서도 늘 이러지나 않는지? 그러다가 쓰러지지나 않을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

쩌나. …
얼굴을 스칠듯 다가선 아카시아나무가지를 머리우로 쳐들며 명희는 근심어린 어조로 물었다.
《그런데 몇시에 자군 합니까?》
《모릅니다.》
준수는 짐짓 정색하여 대답했다.
《모르다니요?!》
《나는 시계를 쳐다보고 이제는 자야겠다 생각하면서 자본적은 없으니까요. 다만 피곤에 못이겨 저도모르게 쓰러졌다가 가까스로 일어나보면 어느새 새벽이지요.》
《하여튼 참!》
명희는 입을 가리우며 웃었다. 그의 롱담이 반가왔다. 부자연스럽던 침묵이 사라진것이였다. 그는 이번에도 하려던 말을 포기한 모양이였다. 어쨌든 다행스러웠다.
《그러다가 쓰러지지 않겠어요?》
명희는 롱조로 슬쩍 자기의 걱정을 내비쳤다.
《쓰러질수도 있겠지요. … 참 힘에 겹습니다.》
뜻밖에도 준수의 목소리는 시름에 겨워있었다.
명희는 마음이 아프면서 동시에 찌르르— 저려들었다. 그가 스스로 걸머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것인가를 명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명희는 지금까지 자기도 역시 《ㅈ》약물을 연구하고있다는 말을 준수에게 하지 않고있었다.
하지만 명희는 자기가 그를 진심으로 믿고있듯이 그 역시 자기를 믿고있음을 점차 확신하게 되였다. 언제든 준수가 공동연구를 제의하리라는것과 자기로서도 그것을 반대할 리유가 없으며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명희는 그 공동연구에 준수와 동등한 연구실적과 능력을 가지고 참가하고싶었다.
자기의 실적이나 실력이 준수에 비하여 어방없이 떨어진다면 공동연구라는 말자체가 성립될수 없을것이며 준수는 자기를 조수쯤으로밖에 여기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결코 허용될수 없는 일

이였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명희는 준수를 알게 된 이후로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것이다.

연구를 심화시켜나갈수록 명희는 자기들이 내세운 목표가 얼마나 어려운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였으며 그것을 절감할수록 준수에 대한 존경심은 깊어만갔다. 명희는 준수가 명예를 위해서 이 길에 들어선것이 아님을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고있었다.

준수만한 재능과 열정에 학위를 받자면 다른 과제로써도 얼마든지 가능한것이며 벌써 받았을수도 있을것이다. 준수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랄할 사람도 없건만 그는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가 내세운 목표를 향하여 순간의 쉼도 없이 돌진하고있는것이다.

준수의 건강이 념려되였다.

명희는 호― 한숨을 내쉬고나서 위로삼아 한마디 했다.

《연구전망이 좀 보이는가요? 과연 성공할수 있을가요?… 어쨌든 몸을 좀 돌보면서 하세요.》

순간 준수는 바로 지금이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할수 있는 기회라는것을 깨달았다. 전혀 뜻밖에 자연스러운 계기가 조성된것이다. 그는 명희에게 몇마디가 아니라 많은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명희동무, 저기 좀 앉읍시다. 아닌게아니라 내가 하고있는 연구때문에 한번 명희동무와 의논하려던 참이였습니다.》

명희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닥쳐왔음을 알았다. 그러나 예상외로 마음은 평온하였고 오히려 이것을 은근히 바라온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준수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쪼프리였다.

《내가 〈ㅈ〉약물을 연구하게 된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

준수의 이야기를 온넋을 다 집중해 새겨듣고있는 명희의 얼굴은 흥분과 감동으로 하여 붉게 타오르기도 하고 눈가에는 물기가 돌

기도 했다.

때로 처녀는 저도모르게 두주먹을 꼭 부르쥐기도 하였다. …

이윽고 준수는 품속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자, 이것이 그 만년필입니다.》

명희는 그것을 두손으로 받았다.

뚜껑에는 수자들이 새겨져있었다.

《이건 무슨 수자들입니까?》

《나의 입대날자입니다. 정치지도원동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영원히 군인정신으로 살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

준수는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다.

《이 시계가 바로 그 영웅전사가 차고있던 시계입니다.》

명희는 그것을 역시 두손으로 받아들었다. 명희는 준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차고있는 이 시계를 의아스럽게 여겨왔다. 너무나도 낡은 시계였다. 무슨 사연이 있을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이처럼 뜻깊은 시계이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었다. 명희는 숭엄한 격정과 감동, 흥분에 휩싸여 준수를 바라보았다. 준수 어머니의 한생이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안겨오면서 지금까지 품고있던 존경심과 친근감을 몇배로 더 크게 해주었다.

준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기어이 〈ㅈ〉약물을 연구해내리라 굳게 결심하고 달라붙은 때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다할 성과를 못거두었지요. 절망에 잠겨 밤잠을 못이룬적이 한두번이 아니지요. 무슨 책인들 안뒤져보고 무슨 생각인들 안해보고 무슨 실험인들 안해보았겠습니까!

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영웅전사의 시계와 정치지도원동지의 만년필을 쓸어보고 어머니의 절절한 기대를 생각하면서 새로이 정신을 가다듬군 했지요.

나는 우리의 과학자들이 석회석과 무연탄을 가지고 비날론을 만

들어냈듯이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우리의 자재, 기술로써 공업적인 방법으로 값눅고 질좋은 〈ㅈ〉약물을 쾅쾅 만들어낼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기 위해 무진 애를 썼지요. 어떤 때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든채 멍하니 한동안 생각에 잠기군 하여 옆사람들을 놀래운적이 많았답니다. 그러던중 올해 7월의 어느날이였지요. 당비서동지네 집에 책을 빌리러 갔댔는데 계시지 않더군요. 그냥 돌아오려는데 그 집 손녀가 할아버지를 데리러 갔다오겠다면서 들어와 잠간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소학교에 다니는 애인데 얼마나 례절이 바른지 병원선생들이 다들 칭찬하지요. 실례인줄 알면서도 급히 참고를 해야 할 책이여서 들어갔지요. 책상우에는 그애가 방금까지 보고있던 책이 펼쳐져있었는데 그 책은 금성청년출판사에서 몇십권으로 발행한 과학기술그림백과사전의 어느 한권이였습니다. 무심결에 몇장 뒤적거리던 나는 어느 한 페지의 어떤 대목에서 눈길을 멈추고 곱씹어 읽어보았지요. 순간 가슴이 후두둑— 떨리고 머리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더군요. 참 이상합니다. 그건 그전부터 알고있던 사실인데 왜 그때 그처럼 큰 충격을 받았을가요?

나는 비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모든것을 잊은채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와 숱한 책들을 뽑아서 책상우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뒤져보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흥분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막 조여들며 입안이 바싹 말라들더군요. 론리보다 먼저 잡힐듯말듯한 예감이 내 머리속에서 종횡무진으로 번개치더란 말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마치 그것이 부스러져버리기라도 할가봐 겁이 나서 꼼짝않고 앉아 지어 숨까지 죽인채 그 예감을 론리적으로 뒤좇아나가기 시작했지요. … 그러한 초긴장상태가 거의 한달이나 지속되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 한달동안에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꿈속에서 헤매인듯한 느낌이 듭니다. 드디여 나는 나를 사로잡았던 예감이 무엇이였던가를 밝혀내고야말았지요. 그때의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지! 지구라도 들어올리겠다고 웨친 사람

의 심정을 그때에야 리해한것 같습니다.》
준수는 거의 반시간동안 명희에게 자기의 발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명희는 전신이 걷잡을수없이 떨리는 극도의 흥분과 긴장속에서 준수의 말을 듣고있었다. 아니, 귀로 들은것 같지 않았다. 귀가 마비되여버린듯한 괴이한 느낌에 휩싸여있었다. 명희에게는 준수의 말마디들이 그대로 새하얀 불화살들이 되여 날아와 자기의 두개골을 꿰뚫고들어가 그안에서 번개와도 같이 번쩍이는것만 같았다. 머리속의 《번개》도 실지 눈앞의 번개와도 같이 명희의 눈을 부시게 했다. 그 번개가 련이어 번쩍일수록 초기의 의혹은 경탄과 확신으로 전환되였다.
명희는 입안이 바싹 마르는듯한 긴장을 느끼며 조급히 물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실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확인해보았습니까?》
준수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토끼의 급성실혈성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해보았는데 대조무리나 보혈약, 보음약무리들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토끼 잔등의 털을 깎고 피부를 연마지로 마찰하여 신선한 상처를 만든 다음 그 물질의 용액을 발라주었더니 대조무리에 비하여 상처아무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즉 조직재생촉진작용이 나타났지요. 이것은 그 물질이 데핵산(DNA)합성을 촉진시킨다는것을 말해주는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명희의 눈앞에는 너무도 기뻐 환한 웃음을 지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귀가에는 《장하오, 젊은이!》하고 감격에 겨워 웨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왔다.
명희는 준수의 두손을 와락 잡고서 《정말 고마와요. 수고했어요.》하고 뜨겁게 축하해주고싶은 강렬한 욕망을 겨우 억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참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원가가 아주 눅고 질이 높은 〈ㅈ〉약물개발의 전망이 열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전시뿐만아니라 지금에도 그런 약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연구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조차 없지요.
　드디여 성공을 한 날 나는 며칠동안 푹 자렵니다. 며칠후에 명희동무가 나를 깨워주십시오. 아주 잠들어버리지 않게…》
　준수는 롱조로 말했지만 명희는 웃을수 없었다. 준수의 말을 듣고있노라니 새삼스럽게 자기를 떠싣고 흐르는 주위의 평범해만 보이던 생활이 력사와 세계를 거쳐 재음미되였고 시대와 인민앞에 무릎꿇고 앉은 철부지소녀, 자기의 작으나 작은 모습이 생생히 련상되여 스스로 엄숙해지는 심정이였다.
　그의 말은 다른 의미에서도 처녀를 긴장시켰다. 깨워주려면 같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준수동무는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자는것을 암시하는것인가? 명희는 마음이 두근거렸으나 태연하게 받았다.
　《그럽시다. 깨우는거야 뭐 어렵겠어요.》
　준수는 명희의 이 말이 자기의 암시에 대한 대답인지 아니면 자기의 말뜻을 처녀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알수 없었다. 아니다. 망설일 때가 아니다. 오늘을 넘겨서는 안된다.
　준수는 자기가 운명의 어떤 계선을 뛰여넘으려고 힘껏 달리다가 휙 땅을 차며 몸을 솟구친듯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어떤 또하나의 자기가 명희와 이야기하는것을 바라보고있는듯한, 꿈속에서 가끔 느끼군 하는 초현실감에 몸과 마음이 잠겨버렸다. 준수는 힘껏 도리머리를 저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정말 헐치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일이 많고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됩니다. 힘에 겹습니다. 난 명희동무가 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명희동무를 알게 된 때로부터 늘 생각해오던 부탁입니다. 우리 서로 일생을 같이합시다. 어떻습니까, 명희동무?》

흥분으로 하여 준수의 온몸은 떨리였고 숨이 가빠올랐다.

언제인가는 한번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였지만 명희는 눈앞이 아찔해지는듯한 충격을 느꼈다. 온몸의 힘이 삽시에 발밑으로 새여버리는것 같았다. 무릎이 절로 접히면서 폴싹 주저앉을것만 같아 명희는 급히 푸른 피라미드처럼 하늘을 찌르며 솟은 수삼나무의 매끈한 줄기에 몸을 기대였다. 생각해보면 이 순간은 불시에 온것도 아니였다. 한걸음, 두걸음 준수는 침착하면서도 완강하게 그를 향하여 다가왔다. 명희도 뒤걸음치거나 답보한것은 아니였다. 드디여 준수는 숨막힐 정도로 다가왔다. 명희는 뒤걸음칠수 없었고 한걸음 내짚자니 본능적으로 두려웠다. 전기부호를 띤 두개의 묵중한 비구름이 위험계선까지 다가왔다. 그 계선만 벗어나면 번개가 번쩍인다. 그다음 두 구름은 커다란 하나로 된다. 명희는 창백해진 얼굴에 애처로운 미소를 지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가요?》

드디여 처녀는 마지막 한걸음을 내짚은것이다.

바로 이 순간 두사람의 가슴속에서는 번개가 번쩍이고 우뢰가 울었다. 그리고 두 심장은 합쳐졌다. 그러나 주위는 여전히 평온한 가을의 한낮이였다. 그 두사람밖에는 공원의 누구도 번개를 보지 못했고 우뢰소리를 듣지 못했다.

명희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며 말했다.

《실제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지 걱정입니다.》

《공연한 근심입니다. 명희동무, 난 졸업후 인차 명희동무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명희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한손으로 수삼나무의 줄기를 조심히 어루쓸며 까만 구두의 코숭이로는 밤알만한 자갈을 굴리고있는 명희의 눈에 넘칠듯이 눈물이 가득 맺혔으며 꼭 다문 입가에는 우물이 옴폭 패였다. 처녀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예로부터 바늘따라 실간다고 했지만 명희는 그럴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겠는가.

완전무결한 행복은 쉽지 않은 법이다. 준수를 믿고있는 명희의 마

음이 아무리 행복스러웠다 해도 한구석에는 이러한 근심이 자리잡고있었다. 이제는 그 근심이 감사의 눈물을 타고 사라져버렸다.

《준수동무, 고마와요. 제가 꼭 보답하겠어요.》

명희는 맘속으로 몇번이고 되뇌이였다.

《참 명희동무, 집앞에 개울이 있습니까?》

뜻밖의 물음에 명희는 눈을 들었다.

《있어요!…》

《그러니 여름철엔 멋있겠습니다. 큼직큼직한 바위돌사이를 맑은 물이 사품쳐 흘러내리고 명희동문 넙적한 흰바위에 앉아 빨래를 헹구다가 즐겁게 떠드는 개울물에 미소를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호호호.》

《그런데 개울물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까?》

《이야기라니요?!》

《난 해본적이 있습니다. 어느해 여름철 시내가의 흰바위에 앉아서 〈너희들은 무슨 이야기에 그리도 즐거우니?〉라고 물었더니 개울물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려운 앞길이 천리 또 천리, 그래도 언제나 웃으며 달리겠노라.〉》

명희는 그제야 준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고 재빨리 뒤를 받았다.

… …

맑은 물줄기여
나도 너처럼 씩씩하리라
또 싸움의 길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져서 천야 만야 창창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면
내 서슴없이 뛰여들리라

어느때나 인민을 위해

너처럼 내 살리라

맑게
쟁쟁하게
줄기차게

그들의 눈앞에는 빨간 단풍이 든 금강산의 가을 시내가의 커다란 흰바위에 앉아 굽이치는 푸른 물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과 흥분에 잠겨있던 시인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준수가 흥분된 심정을 누르며 나직이 말하였다.

《명희동무, 우리 언제나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맑게, 쟁쟁하게, 줄기차게 살아갑시다.》

《예, 맑게, 쟁쟁하게, 줄기차게…》

이렇게 되받아외우는 명희의 목소리 역시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3

명희와 헤여져 맏형네 집에 들어섰을 때까지도 준수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지지고 볶는 소리가 났다. 뽀얀 김속에서 지짐판에 닭알을 까넣고있는 형수의 모습이 보였다.

새로 올려놓은 가마에 물을 붓고난 형수가 행주치마에 손을 문대며 급히 나왔다.

《평양 둘째오빠가 왔어요.》

형수의 얼굴에는 웃음이 함뿍 어렸고 인형아기의 눈처럼 동그란 두눈에서는 화끈 단 난로에서와 같이 열기가 내풍기고있었다.

《왜 이제야 오세요. 점심은 건느지 않았어요?》

《대학에서 먹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푸르스름한 담배연기가 자욱한 아래방에 고급료리들이 가득찬 음식상을 가운데 놓고 풍채좋은 40대의 장년이 형과 마주앉아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거의 정방형으로 네모반듯 하였는데 산모처럼 부석부석 부은듯한 감을 주었다. 퉁퉁하면서도 비단결같은 두손은 그가 육체로동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었다.

그는 윤수를 반말질로 내려누르군 하였지만 준수가 술을 부어 두손으로 권하자 몸을 옹송그리며 술잔을 받더니 깍듯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련발하며 머리를 갑삭거렸다. 그가 맏형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것이 지나치게 허물없는 사이이기때문인지 아니면 이 집 물건들의 대부분이 처가집쪽에서 마련해준것때문인지 준수는 잘 분간할수 없었다. 그런데 나이가 훨씬 아래인 자기에게 갑삭갑삭하는것은 례의의 표시라기보다 마치 《나는 이처럼 교양과 례절이 밝은 사람이다.》는것을 시위하려는 교만성처럼 느껴져 오히려 준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형수가 색갈과 모양이 신통히도 호박처럼 생긴 자그마한 단지의 뚜껑을 열었다.

《메주장이예요. 옆집할머니가 량강도 딸네 집에 갔다가 가져왔다더군요.》

《오, 그래, 마늘이 없니? 메주장에야 마늘이 제격이지. … 그것 참, 별맛이로군, 별맛이야.》

그는 다른 음식들에는 별로 저가락을 대지 않았지만 메주장만은 몹시 좋아하였다. 그는 자기가 이런 토색질은 민족음식에 애착을 느끼는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듯 했다.

뼈까지 바삭바삭하도록 기름에 튀긴 송어에 붙어있는 알락알락한 세로판지쪼박을 저가락으로 집어내고나서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맏형이 한마디 했다.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쏘련 아니, 로씨야에도 들렸댔다지요?》

《그래, 들렸댔지.》
《거긴 형편이 어떻든가요?》
《신문, 방송에서 못들었나? 꼭 그대로야.》
《그래도 뭐 직접 보고 들은것이 있겠지요.》
그는 불쾌한 련상들이 머리를 어지럽히기때문인지 방금 불을 붙인 길다란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서 꺼버리였다.
《글쎄 죄다 암담하고 비참한 일들뿐이야. 특히 로씨야지식인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더군. 자본주의복귀가 가져다준 필연이지. 빈궁과 실업 그리고 물밀듯이 쓸어드는 서방의 퇴폐적인 문화로 해서 온갖 사회악은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소.》
그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참혹한 모습들이 눈앞에 무수히 떠오르기나 하는듯 두눈을 감고 왼손가락들로 눈시울을 한동안 문지르다가 계속하였다.
《이젠 우리의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네. 그전에는 대체로 우리의 거래마당이 사회주의시장이였고 무역방식은 물물교환이였지.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시장도 사라져버렸거든. 우리 제품들의 판로는 막혀버렸는데 이제는 무엇이든 외화로 맞돈을 치르고 사오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네. 게다가 미국은 우리를 질식시켜 죽이려고 미쳐날뛰고있다네. 미국의 속심이야 뻔하지. 끊임없는 군사적위협공갈과 봉쇄로 우리를 말리워 죽이든가 아니면 우리가 붉은기를 버리고 흰기를 들고 나오게 하자는거지. 주변나라들의 태도를 보아도 아주 좋지 않아. 올해 2월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 회의에서 우리의 군사대상물에 대한 〈특별사찰〉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거기에 찬성투표한 나라가 몇개인줄 아나?… 우린 문자그대로 세계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와 단신으로 맞서 싸움을 하고있네. …
정말이지 힘에 겨워.
우리와 거래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부유한 인간〉들은 생존경쟁의 법칙을 문자그대로 터득한자들이야. 정신을 바싹 차려야지 까딱 잘못하면 막심한 손해를 볼수 있거든. 온갖 사회악이 범람하는

그속에서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떼지어 기여오르는것만 같다니까. 빈궁과 사회악은 자본주의제도의 암이라네. 두손을 내민 거지들이 길가에 늘어섰어.

비행기로 평양에 내리면 난 맑은 공기를 한껏 들여마시군 하네.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며 내가 여기서 사누나 하는 긍지에 마음이 뿌듯해지네. 재작년 가을 우리 나라에 왔던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총비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이 제도를 눈동자와 같이, 친어머니, 친아버지와 같이 귀중히 여기며 지켜내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했는데 난 그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할수가 있네. 백번 듣는것이 한번 보는것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나. 만일 자네가 외국에 나가보게 된다면 내 말을 깊이 리해하게 될걸세.》

준수는 그의 말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으며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준수로서는 위대한 조국의 모습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심정이였다. 동시에 그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품게 되였다. 그의 눈가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실주름이 그물처럼 잡혀있었고 눈빛에도 해묵은 피곤이 내비치고있었다. 그의 말대로 자본주의나라 장사군들과 거래를 한다는것이 헐한 일은 아닐것이다. 준수는 괜히 외국에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자기자신이 옹졸하게 생각되였다. 얼마후 일어나서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 준수는 미안스러웠다.

《준수야, 너도 이젠 결혼을 생각해야 하지 않니? 나이도 적지 않은데…》

둘째처남을 문밖까지 바래주고 돌아온 맏형이 별스레 심각한 어조로 물었다.

준수는 맏형이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것만 같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도 맏형에게 명희의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였던

것이다. 명희가 왔다간 이후로 준수는 명희에 대한 맏형의 태도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끼였다. 그에 대한 말만 꺼내면 맏형이 될수록 화제를 돌리려고 애쓰는것이였다. 그렇다고 특별히 반대는 아닌것 같았다. 《로미오와 쥴리에트》때문에 불쾌한 일이 생기긴 하였지만 그것을 참작한다 해도 리해할수 없는것이 있었다. 언젠가는 무슨 말끝에 화제가 거기에 미쳤는데 맏형의 두눈에 얼핏 어두운 그림자까지 비치는것이였다. 그후부터 준수는 맏형앞에서 더는 명희의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러는 맏형이 섭섭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맏형이 먼저 그 말을 꺼내는것이 아닌가.

《예, 저도 형님과 그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였습니다.》

그리 무덥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수는 선풍기의 스위치를 넣었다.

《래년쯤 우리도 처남네들처럼 바람을 좀 쏘이자는거다.》

윤수는 담배를 힘껏 들이빨더니 후—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물에 뛰여들기 직전에 수영선수들이 흔히 그렇게 심호흡을 하는 법이다.

《그래서 네가 빨리 결혼해야겠다는것이다. 그래야만 네 이름으로 입사증을 뗄수 있지 않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일이 성사되면 우린 이 집의 가장집물 전체를 너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우린 트렁크나 하나 가지고 가면 다다. 반대없지?》

준수는 일순 당황했다. 그럼 명희와 그의 아버지를 함흥으로 데려와야 하는가? 결혼도 앞당겨야 하는가? 예견치 못했던 정황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만일 우리 둘이 함흥의 어떤 연구소에서 일하며 정식 국가적인 연구과제로 승인을 받아 《ㅈ—1211》호 연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유리하겠는가.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은 없을것이다. 내가 지난 기간 맏형이나 형수에 대하여 너무 편협하게 생각해온것이 아닌가.

《사실 전 결혼을 졸업후로 미루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볼수도 있겠지요.》

준수를 긴장한 눈길로 주시하고있던 미애의 얼굴에 웃음이 확 피

여났다.

왜 형수가 저다지도 기뻐할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동생, 전번에 우리 집에 왔던 부국장의 누이동생이 생각나세요?》

형수의 뜻밖의 물음에 준수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졌다.

《거 올봄에말이예요. 곱게 생긴 멋쟁이처녀!…》

형수는 우정 손세까지 써가며 처녀의 모양을 그려보였다.

생각이 났다. 그날 지나친 화장때문에 그 처녀를 차마 마주보지 못하던 일이 기억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처럼 품을 들인 화장에는 응당 황홀해하는듯한 표정을 지어주는것이 례의일것이다. 하지만 그런 거짓표정이 얼른 꾸며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처녀를 실망케 할수도 없었다. 형수가 능란하게 이야기를 끌고나가 분위기는 인차 부드러워졌다. 그 처녀가 높은 《미》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리는데 높은 《라》에서부터 음정이 약간 갈리는것이 속상하다는 말도 한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준수는 속으로 웃고있었다. 저 처녀는 저런 남다른 화장이나 옷차림으로나마 두드러져보이는것이 그렇게도 소원일가?

그때 불쑥 명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될수록이면 남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하는 처녀. 학과실력 이외의 모든 면에서는 우정 두드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이나 하는듯 했다. 그가 쓰는 만년필이나 원주필은 어느때부터 쓰던것인지 도금이 다 벗겨진 낡은것들이였지만 언제나 잘 내렸다. 교원이 강의를 마치고 나가면 흔히 그가 먼저 나가 칠판을 지우고 걸레를 빨아오군 하였다. 밀대라도 먼저 못잡은 때이면 청소가 끝날 때까지 이것저것 도우며 교실을 떠나지 않았다.

집안이 뜨르르하고 본인도 전도유망한 쏘프라노(고음)라는 형수의 소개를 참작하여 헤여질 때 준수가 쏘프라노의 성공을 빌었더니 본인 못지않게 형수가 기뻐하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았다.

《생각납니다.》

《그래, 어떻더냐?》

이번에는 형수와 교대하여 맏형이 물었다.

설마 나를?! 섬찍한 예감이 준수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맏형의 얼굴만 주시하였다.

동생의 심각한 눈길이 마음을 어느정도 불안하게 했지만 윤수는 말을 내처 이었다.

《그 집에서 마침 알맞춤한 혼처를 수소문하던중이라누나. 일이 될 때라 맏오빠라는 사람이 언젠가 한번 우리 집에 왔다가 네 사진을 우연히 보았댔다. 너만 반대없다면 그 집에서는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하자는 의향이라더라. 처녀는 26살이고 학력은 특이한게 없다. 영화대학과 음악대학에 두번 시험을 쳤지만 미끄러졌다고 한다. 성악배우로서 전망이 있다지만 무슨 배우를 시키겠니. 가정에 눌러앉혀라. 너도 도의약품공급소 공급부원으로 소환하게끔 다 교섭해놓았다. 그러니 되지도 않을 〈ス－1211〉호연구를 하느라 헛고생을 하지 말고 당장 싹 걷어치우고 빨리 함흥으로 올라오거라. 그래, 어떻냐? 래일 둘째처남이 와서 네 결심을 듣고 그 집에 전달만 하면 혼담은 성사가 된다.》

사실 이 혼담에 대해 부국장은 아예 모르고있었다. 다만 미애가 부국장네와 혼인을 맺게 되면 여러모로 유리하리라 타산하고 향순이의 형님 즉 부국장의 처에게 삐쳐보았었다. 향순이의 형님은 미애의 말을 들어보고 《총각이 그처럼 나무랄데 없고 서로 좋아만 한다면 우리로서야 굳이 반대할 리유가 없지요.》라고 어정쩡한 대답을 한데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애는 남편에게 어지간히 불구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윤수는 그런줄로 알고있었다.

담배를 피워무는 윤수의 손이 가늘게 떨리였다.

《동생잔치는 우리가 맡기로 했어요. 좋기는 그저 이달중으로 결혼식을 해치우고 당장 올라와 직장수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올라와야지 그자리가 퇼수도 있어요.》

귤껍질을 손에 든채 미애는 시동생의 입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만일 사람의 눈길에 물리적인 힘을 실을수만 있다면 미애는 눈

길로써 《예, 그렇게 합시다.》는 대답이 나오도록 시동생의 혀를 움직여냈을것이다.

어느날 향순이와 주패놀이를 하고있는데 등교중이던 시동생이 대학에서 돌아왔다. 그때 미애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둘사이를 가깝게 해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코웃음을 치는것이였다. 준수에겐 이미 애인이 있다는것이다. 동서될 사람이 누구라는것을 알았을 때 미애의 마음은 저으기 불쾌했다. 그때 망신을 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얼굴이 뜨끈해지는터였다. 남편이 자기를 쓰겁게 바라보던 일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 처녀가 날 어떻게나 여기고있을가? 거짓말쟁이? 무식쟁이?

기가 막힌 일이였다. 그런데 그가 동서로 된단 말인가.

향순이와 붙여주면 좋겠지만 시동생에게 이미 애인이 있다니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애는 인차 외국에 나가게 될줄로 확신하고있었기때문에 그쯤으로 그쳤다. 그런데 이번 8월달에 있은 선발에서 미끄러졌다.

둘째오빠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외국에 나가서 인차 후회하게 될것이라고 타이르지만 미애는 귀등으로 넘겼다. 후회가 나면 돌아오는것이고…

뜻밖의 락선은 그 녀자를 움츠러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발시켰다.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녀자는 향순을 만났고 둘째오빠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보냈다. 기다리던 둘째오빠가 오늘 희소식을 가지고 왔다.

부국장의 처는 이번에도 반가와하면서 《서로 좋아만 한다면야…》하더라는것이다. 미애는 마치 혼인을 그 집에서 먼저 제기해온듯이 남편에게 이야기했으며 그것이 동생에게 얼마나 유리한것인가를 잔뜩 불구어가지고 설명을 했다.

한번 미끄러진것이 큰 충격으로 된 모양인지 남편도 그제서야 응해나섰다.

준수에게는 이제야 모든것이 석연해졌다. 그러니 이 집은 두

번째로 소개에 리용되는셈이다. 준수의 눈앞에는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이 집과 아버지가 홀로 동자질을 하며 딸을 기다리고있을 명희네 집 모습이 마치 그자신이 직접 가보기나 했던것처럼 생동하게 떠올랐다. 《ㅈ－1211》호는 걷어치우고 《성악배우》와 함께 살면서 매일 출근해서는 약배정때문에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쓰기도 하고 점잔을 빼기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장기판에 마주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이 방불하게 그려졌다.

그는 갈림길앞에 서있는것이다.

갑자기 그가 차고있는 낡은 손목시계의 초침소리가 귀가에 엄청나게 확대되여 들려오면서 령길우에서의 거대한 폭음과 눈부신 섬광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중대정치지도원이 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그가 준 만년필이 품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듯한 착각이 준수를 놀래웠다. 어머니의 준절한 꾸짖음이 머나먼 성룡구에서부터 날아왔다. 명희가, 바로 그 분홍색샤쯔를 입은 명희가 엄숙하게 물었다.

《그럼 동무가 나에게 말하던 그 모든것은 거짓이였나요?》

준수가 막 입을 열려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형수는 찾아온 사람과 몇마디 주고받더니 밖으로 나갔다. 몹시 급한 일인 모양이였다.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4

문닫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준수는 흥분을 누르며 침착하게 말하였다.

《형님의 마음은 충분히 리해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것입니다.》

동생의 말소리는 침착했으나 윤수는 띠염띠염 끊어서 말하는 그

의 어조에서 단호한것을 느꼈다. 동시에 준수의 눈동자에 얼핏 불쾌한 빛이 어리면서 얼굴이 심각하고도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굳어지는것을 보았다. 사실 그것은 매우 알아보기 힘든 변화였지만 몹시 예민해진 귀와 눈으로 준수를 주시하고있던 윤수가 그것을 놓칠리 없었다. 윤수는 예상했던것보다 일이 간단치 않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기의 달콤하고 황홀한 공상이 한갖 환각으로 되여버릴수 있다는 불길한 징조였다.

준수는 그전에 어떤 음악가의 일생에 대해 쓴 두툼한 외국소설을 읽고 불만을 품은적이 있다. 준수는 그 음악가의 일생이 비극의 련속이며 천재의 일생은 바로 그가 천재인것으로 하여 고행으로 될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주장을 긍정할수가 없었다. 그 음악가에게 재능이 있었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재능이란 곧 일에 대한 사랑이다. 그가 남긴 거대한 창작유산은 그에게 거대한 사랑이 있었음을 웅변으로 증명해주는것이 아닌가. 인간은 사랑하는만큼 행복해질수 있다. 따라서 그 음악가는 참으로 행복했던 인간이였다. 작가는 그 음악가가 무엇보다먼저 예술가였으며 그의 고통과 환희도 기본적으로는 예술창작과 관련되여있었으리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했던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고통마저도 행복이였다고 감히 말할수 있다. 단지 의무감만으로는 그 많은 일들을 해낼수 없는것이다. 준수는 예술가들이나 과학자들은 후세에 이름을 남길 비장한 결심을 품고 성공을 위하여 매일 쓰디쓴 고배를 마시는 수난자들인듯이 그려내는 그런 책들을 볼 때마다 머리를 저었다. 그들이 누린 최대의 락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일생을 바친 그 사업속에 있는것이지 이른바 생활속에 있는것은 아니다. 또한 그들의 행복은 맏형이 지금 말하고있는 잘먹고 잘사는 행복보다 더 숭고한것이 아니겠는가.

준수는 흥분과 함께 사색이 선명해지면서 자기의 생각을 조리있게 이야기하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막 입을 떼려는 순간 준수는 이것이 우스운 일이라는것, 화제가 왕청같은데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느끼고 난처해졌다. 주관적의도야 어쨌든지간에 결국은 맏형앞

에서 자기 역시 《수재》임을 자처하는것으로 오해를 받을수 있었다. 그래서 준수의 머리속에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일떠섰던 류창한 대답은 갑자기 무너져버리고 실지로 입밖에 튀여나간 말들은 그의 머리속에서 맴돌고있던 생각의 본질을 이루는 몇마디뿐이였다.

《내가 언젠가 말했던 그 음악가의 일생이 고생길이였을가요? 행복이란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는 몫에 비례하여 느낄수 있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가 아닐가요?》

윤수는 지내 현학적인 준수의 말에서 짜증을 느꼈는지 가볍게 눈살을 찌프렸다.

《행복에 대해서 난 훨씬 단순하게 생각한다. 가정의 행복이란 결국 그 가정의 경제토대가 얼마나 굳건한가에도 많이 달린거다. 이런 견지에서 너는 어느 결혼이 더 유리하겠는가를 심중히 따져보고 결심을 내려야 한다.

가만가만, 내 말을 막지 말아.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간다. 결혼문제에서 물질적타산을 앞세우는것은 저렬하다, 비루하다, 이러루한 말이겠지. 풍요한 물질적환경이란 네가 모든것을 잊고 그처럼 즐기는 독서에 전념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는게야. 그래 결혼전에 그런 문제들을 타산해보는것이 불필요한 일일가? 어느 결혼이 더 유리하겠는지 잘 타산해보아라. 나는 네가 허공중에서 내려와 땅에다 발을 든든히 붙일것을 진심으로 권고한다.》

준수는 불과 몇시간전에 명희와 더불어 공동연구를 약속했다. 그때 자기의 정신상태가 어떠했었는지 준수는 구태여 따져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마디마디가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여 덧쌓이는듯한 맏형의 랭랭하고 음침한 말을 듣고있노라니 문득 폭풍우를 맞받아 날아갈 용감하고 씩씩하며 열정에 넘친 꿈을 꾸던 그때의 감정이 새롭게 되살아오르면서 이 판이한 대조가 그를 놀라게 했고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직까지 준수는 맏형앞에서 결혼문제를 가지고 깊이 이야기해본적이 없었다. 그만큼 맏형을 어려워했던것이다. 그러나 지금 준

수는 맏형앞에서 명희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명백히 해야 할 절박한 필요를 느꼈다. 그것은 단지 한 처녀에 대한 태도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인생관에 대한 문제라는것을 준수는 가슴이 떨리는듯한 흥분과 함께 의식하였다. 한편 맏형이 자기의 진심을 알게 되면 모든것을 리해하게 되리라는 동생으로서의 믿음도 있었다.

《형님, 나는 그 처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은 한여름의 록음처럼 쉽게 스러져버릴 그러한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사랑이 〈ス－1211〉호연구라는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로동에 기초한것이기때문입니다.

저는 물질적재부의 의의에 대해서도 형님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런것들이 인생의 목표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재능 역시 시간으로 됩니다. 필연코 나는 앞으로 방대한 량의 수학계산에 맞다들게 되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며칠 지어 몇주일동안 씨름질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형님이 이야기하는 넉넉한 환경이 무슨 도움으로 되겠습니까. 그런것들은 지적능력을 대신할수 없습니다. 그런 때 그 처녀가 즉시에 프로그람을 짜낼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조를 줄수 있을겁니다.

이번 일은 형님이 말한바와 같이 저의 운명과 관련되는 일이므로 양보할수 없습니다.》

준수의 말은 꿈속에서 흔히 있듯이 윤수가 딛고선 땅을 금시 물로 만들어버리고있었다. 윤수는 자그마한 얼음장에 급히 올라탔는데 그것마저도 기우뚱거리고있었다.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아라. 너는 정말 너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니?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ス－12〉을 〈ス－1211〉호연구에 리용해볼데 대한 착상이 아마 너를 감격케 한 모양인데 심중할 필요가 있지 않니? 네 말에선 서정시 한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일생을 문학에 바치리라 맹세하는 16살 소녀의 입김이 질게 풍긴다. 누군가도 말했지만 과학에로의 길은 험한 길이 아니다. 넌 〈ス－12〉을 리용해서 〈ス－1211〉호를 만든다지만 한때 숯으로 금강석을 만들수 있다는 무지개같은 공상이 얼

마나 많은 학자들을 현혹시켰었니. 일확천금을 꿈꾸며 경쟁적으로 연구에 착수했지만 성공하기까지는 100년도 더 걸렸다. 그리고 그 원가가 천연산보다 눅어진것도 최근의 일이다. 넌 선배들의 쓰라린 교훈에서 머리 숙이고 배워야 한다. 금강석만들기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상적인 문학소녀는 적지 않지만 성공한 녀류시인은 드문 법이다. 죽은 후에 온 세계가 목놓아 울어줄 그런 위인으로 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준수는 이 말에서 맏형의 진심어린 우려를 느꼈다. 준수의 《스―1211》호라는 쪽배가 닻을 올린 후로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건만 가닿아야 할 기슭은 자욱한 안개에 덮여있고 아직은 라침판도 해도도 없다. 풍랑 사나운 바다길 만리에 무슨 일인들 없겠는가. 더군다나 그런 가랑잎같은 쪽배우에 명희까지 태우려는것이다. 준수는 구태여 허세를 부리고싶지 않았다.

《과학에로의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형님의 일깨움은 적절한것입니다. 사실 저도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조금강석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도 헛된것이야 아니지 않았습니까.》

《헛된것이야 아니였지. 그러나 성공의 열매를 거둔것은 아들이나 손자벌되는 사람들이였지. 난 네가 수행하는 로동의 결과가 후세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자신에게 차례질것을 바라는 사람이다. 넌 연구과정 그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밑에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잠재해있다는것을 부인하지야 못하겠지? 실패를 확신하게 되는 순간에는 모든것이 절망과 후회로 끝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해. …

자기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내는데 한생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인생의 황혼무렵에야 자기가 길을 잘못 선택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니.

너도 알다싶이 어머니는 그 연구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였다. 나는 어머니를 존경한다. 이것은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해 응당한 존경심을 품는것과는 다르다. 네가 내 말을 다 리해할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인간으로서 참으로 훌륭한분이시다. 하지

만 어머니의 생애를 어머니가 일생동안 가슴에 품고계시던 지향의 성격이나 일생동안 기울인 노력의 량이 아니라 무엇을 이룩했는가 하는 실제적인 결과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결국 그 연구에 바쳐진 어머니의 삶은 허무로 끝날수도 있는것이 아니겠니? 어머니에게 무엇이 남았니? 어머니가 눈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

나 역시 어머니의 당부를 받고 오래동안 악전고투를 해보았지만 이거다 하고 내놓을만한것은 걷어쥐지 못했고 끝내 포기하고말았다. 그동안에 무슨 고생인들 안한줄 아니? 이젠 그 소리만 나와도 이에서 신물이 난다. 자존심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다만 이렇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나의 무능과 정열의 부족에 있다고 인정하고싶지는 않다. 앞일을 예측할수 없는것이 탐구의 길이다.

어머니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니. 너는 나와 어머니의 쓰디쓴 전철을 밟지 말아라. 누구든지 혈육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법이다. 내가 연구를 포기하는 문제로 해서 어머니와 충돌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어머니도 나를 리해하게 될게다. 내가 방향전환을 한것도 사실은 나보다도 어머니와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제는 내가 헛된 공명심같은것은 버리고 집안의 기둥구실을 하자는거다. 예로부터 〈집일을 생각하면 큰일을 못친다.〉고 했는데 큰일도 못치면서 집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하겠니.

내가 새삼스러이 이런 말을 하는것은 박두한 결혼문제를 놓고 너나 나나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에서다. 그쯤 고생을 했으면 됐다. 제때에 물러설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현인이다.》

윤수는 불꺼진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려 탁자우의 라이타에 손을 뻗쳤다. 준수는 그것을 집어 불을 켜주었다. 이때 준수는 담배를 쥔 맏형의 오른손 둘째손가락에 가로난 낮익은 칼자리를 보았다. 그것은 어느해 겨울 떼를 쓰는 준수에게 썰매를 만들어주다가 난 상처자리다. 피가 뚝뚝 흐르는 손가락을 대충 싸매고 열심히 뚝딱거리던 맏형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찌르르 저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맏형의 말에서 일신의 안일과 안락만을 추구하

는 개인리기주의와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앞에서 겁을 먹고 몸을 움츠리는 패배주의, 보신주의의 위험한 경향을 느끼게 되였다.

지금 맏형을 위하여 진심으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면 힘자라는데까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표명하는데 있음을 생각하며 준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형님이 말한것처럼 지금 우리앞에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오고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가 어찌 동요하거나 대오에서 리탈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있는 〈ㅈ―1211〉호연구는 이 준엄한 시련의 시기 더욱 절박한 시대의 요구로 떠오르고있습니다.

전 요즈음에 와서 〈ㅈ〉약물연구에 대한 꿈을 남기고간 그 영웅전사의 넋을 끝내 이루지 못하게 되지나 않을가, 정치지도원동지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하지는 않을가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못이룰 때가 많습니다. 미제가 당장이라도 덤벼들듯이 미쳐날뛰는것을 볼 때마다 그 영웅전사가 안타까이 저를 주시하는것만 같아 머리를 빠젓이 쳐들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최전연초소에서 눈보라치는 새벽에도 귀덮개를 내리우지 않고, 소나기 퍼붓는 깊은 밤에도 물이 가슴팍까지 차오르는 전호에 엎디여 날카롭게 적정을 살피며 밤을 지새우고있을 전우들생각을 하면 비록 한초라도 도저히 헛되이 흘려버릴수 없는 심정입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빚〉이며 자식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실현 못한 그것은 개인적인것이라고만 할수 없는, 조국해방전쟁에서 피흘리며 쓰러진 모든 전우들앞에 진 량심의 빚입니다. 형님이나 저는 한 어머니의 아들인 동시에 당과 인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머니의 그 량심의 빚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ㅈ―1211〉호연구의 포기는 얼마든지 배신행위, 변절행위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할수 있겠지만 정신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배신자, 변절자라는 규탄을 면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만해라!》

윤수는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재털이에 비벼꼈다.

《형님은 자기가 물러서게 된 원인이 그런 약물의 개발이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것을 확인하게 된데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기만에 불과한것입니다. 형님이 그동안 무엇을 추구하여 그토록 아글타글 했겠는가에 대해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ㅈ－1211〉호의 성공적인 개발이 일개인의 명예와 출세, 안락하고 화려한 생활에 대한 꿈도 이루어주리라는 타산이 어느정도 깔려있었으리라는것은 명백합니다. 바로 그래서 형님은 전망이 내다보이지 않게 되자 동요하게 되였던것이며 결국에는 물러서게 된것입니다.》

《…》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일생에 대해서도 형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문제는 한생의 노력에 대한 대우를 받는가 못받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데 있는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어머니의 한생은 떳떳하고 긍지로운것입니다.

형님은 저더러 그만큼 고생을 했으면 이제는 〈ㅈ－1211〉호 연구를 그만두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지만 형님이 권고하는 그길이 결코 저를 행복하게 해줄수 없습니다. 저는 적게 일하고 많이 휴식하는 그런 길로 방향을 돌릴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근로자들의 권리이며 그자체를 잘못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 권리의 그늘뒤에서 일신의 안일과 안락을 추구하는것은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특히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허용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면 24시간, 1년이라면 365일, 한생이라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다 바쳐서 이룩해야할 당과 혁명앞에 스스로 걸머진 짐이 없다면 그는 시대의 참다운 지식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 》

준수는 격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미국놈들은 이른바 〈과학기술적우세〉를 떠들면서 우리를 〈고립압살〉하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더 미쳐날뛰고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우리가 미국놈들과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는 또하나의 전투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졸업생들은 그 싸움터에서도 최전연에 배치된 전사들입니다. 〈ㅈ-1211〉호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때 전선에서 대학으로 소환되던 한 군의가 기어코 점령하겠다고 스스로 맡아나섰던 고지입니다. 전우의 그 유언을 어머니가 맡아안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지 점령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한치한치를 피로 물들이며 앞으로앞으로 나아가고있습니다. 형님은 그 전투에 참가했다가 물러섰습니다. 아니, 피흘리면서 나아가고있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저까지 도망치게 하려고 부추기는 수치스러운 지경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형님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그길이 형님을 행복하게 해줄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일신의 안일이 아니라 투쟁속에 있기때문입니다.

형님도 아시다싶이 그 영웅전사는 참된 행복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바라심을 자기의 일생의 사명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만난을 박차고 굴함없이 투쟁해나가는 속에 있다고 소리높이 웨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흐느끼고있는 어머니의 작은 어깨에 한손을 얹으시고 그 군의동무의 행복에 대한 견해가 참으로 훌륭하다고, 그러한 참된 행복관을 지닌 사람들은 한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보낼수 있으며 그들의 생애는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남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ㅈ-1211〉호연구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직접 받은 전투명령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상급학교추천을 받고 중대를 떠나던 날 나는 정치지도원동지의 령전을 찾아 기어이 〈ㅈ-1211〉호를 성공시키겠다고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길에서 절대로 물러설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길에 저의 행복도 있는것입니다.》

윤수는 눈을 꾹 감고 침묵을 지켰다.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고요를 토막내며 엄청나게 확대되여 들려왔다. 그 초침소리는 방금 준수가 격분에 넘쳐 규탄하면서 내뱉은 말마디들을 큰소리로 곱씹고 또 곱씹는것만 같았다.

배신자, 변절자, 도망병,… 배신자, 변절자, 도망병,… 배신자, 변절자, 도망병,…

그 마디마디가 서슬푸른 비수인양 윤수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또 찔렀다.

피흘리면서 나아가고있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도망쳤다,… 동생까지도 도망병으로, 배신자로, 변절자로 만들려고 부추기고있다,… 어디로 도망쳤는가구?… 그길에서 행복을 찾을수 없다,… 참된 행복은 투쟁속에 있다,… 배신자, 변절자, 도망병… 난 어디로 왔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가슴은 아팠지만 막내동생이 조금도 원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막내동생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아픔을 자주 당하고싶은 심정이였다. 이 아픔과 함께 자기의 마음속에서 잠자고있던 고상하고 아름답고 훌륭한것이 눈을 뜨고있음을 느꼈기때문이였다.

윤수는 푹 수그린 머리를 두손으로 감싸쥔채 까딱도 않고 앉아있었다. 고뇌의 흔적인듯 그의 이마와 눈가에 주름살들이 깊이 새겨지고 감은 눈시울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제7장 사랑의 힘은 크다

해가 서산에 진지도 퍼그나 되였다. 대지에 어스름이 몰려들고있었다. 읍으로 이어진 도로의 좌우에 거대한 성벽인듯 하늘을 가리우며 끝없이 늘어선 산발들은 어둠이 짙어짐에 따라 묵중한 중량감을 잃어버리고 마치 검은 마분지를 오려서 박아놓은듯이 느껴졌다.

다가가서 발로 툭 차면 그 마분지담장이 나가넘어지고 하늘이 지평선까지 환히 열릴것만 같았다. 도로와 산발사이에는 산간지대에서 흔히 볼수 있듯이 논과 밭이 엇갈려 끼여있었다.

바람 한점없이 고요했다. 소나기 직전에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고요였다. 가로수들이며 길가의 풀들이며 무릎을 치기 시작한 강냉이들이며가 잎새 하나 까딱않는데 마치 멀리에서 밀려오고있는 폭우를 인간보다 먼저 감촉하고 겁에 질려 지레 몸을 옹송그린것만 같았다.

제발 비가 쏟아지지 않았으면.

명희는 출발선에 선 100메터 달리기선수의 자세를 취하고 발걸음을 재게 다그쳤다. 시계를 보니 8시였다.

한시간쯤은 더 가야 했다. 닭목장이 바라보이는 등성이에 이르렀을 때 사위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누군가가 갈색 색안경이라도 끼워주지 않았는가 착각이라도 들 정도의 괴이한 어둠이였다.

소나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비방울들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자리들에선 바싹 마른 길가의 먼지들이 물보라처럼 날아올랐다.

수백개의 작은 물보라들이 도로의 여기저기서 피여올랐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피여오르고있었다. 비방울들이 어찌

나 굵은지 손등이 띠끔띠끔하였다. 뒤따라 휘몰아쳐나오는 홍수와도 같은 거센 돌풍에 배낭을 멘채로 넘어질것만 같았다.

명희는 비칠거리며 갈지자를 그렸다. 순식간에 옷자락은 온몸에 붙고 숨을 들이쉬기도 바빠 헉헉 흐느끼게 되였다. 물속에서 달린다 해도 이처럼은 힘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이 길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 했다는 옛말이 떠올랐다. 어느 나무뒤에 서서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려던 명희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지꿎은 동심이 되여 명희는 허리를 더 낮추굽히고 걸음속도를 높였다. 태풍에 몸부림치는 길가의 아카시아나무들은 주런이 세워놓은 검은 홰불같았다.

그 홰불들은 폭우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며 타오르고있었다. 그 검은 불길들사이로 자그마한 검은 점 하나가 검은 새처럼 완강히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있었다.

읍거리쪽에서 번개가 번쩍 아로새겨지더니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마치 다른 행성의 거인이 지구로 날려보낸 은백색화살이 허공중에서 부르르 떠는것만 같았다. 명희는 공포에 질려 마음을 조이며 우뢰를 기다렸다. 거인은 이번에는 수천장의 철판을 한꺼번에 지구로 날려보냈는지 그것들이 쏟아져내리며 맞부딪치는 금속성의 아츠러운 굉음이 귀를 멍멍하게 했다.

우주에선 전쟁이 터졌나보다. 화살은 련이어 여기저기서 번뜩이였고 그때마다 명희는 머리우로 쏟아져내릴 철판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군 하였다.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는 먹물같은 어둠, 채찍처럼 대지를 내리갈기는 비줄기, 인적없는 허허벌판을 휩쓸며 미친듯이 질주하는 폭풍이 내는 스산한 바람소리 …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이런 밤들에 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신들의 환영이 얼른거렸으리라.… 경황이 없는 속에서도 그럴듯한 생각에 웃음이 나갔다.

명희는 한손으로는 락수물인듯 얼굴을 뒤덮으며 흘러내리는 물줄기들을 뿌려던지며 다른 한손으로는 등에 걸머진 배낭이 폭풍에

날려가지 않도록 배낭끈을 꽉 거머쥔채 완강하게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윽고 바람이 잦아들면서 비발도 가늘어졌다. 봄소나기치고는 드문것이였다. 바람과 소나기는 옛말에서처럼 자기의 무력을 한탄하며 물러서는 모양이였다.

무슨 장한 일이나 치르어낸듯 명희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문제는 굴하지 않는게야.

명희에게는 방금 있은 일이 요즘 생활의 상징처럼 생각되였다. 준수와의 공동연구에 착수한 이래 명희는 언제 가을과 겨울이 가고 봄이 왔는지 모르고있었다.

부뚜막에 걸터앉아 특허문헌들을 뒤지다가 밥을 태운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명희는 아직까지 지금처럼 시간의 귀중함을 느껴보지는 못했었다. 이틀밤을 꼬박 밝힌적도 있었다. 그러고도 피곤을 몰랐다. 힘들고 바쁜 그만큼 사는 보람도 컸다.

오늘 아침 명희는 퇴근하자마자 읍에 다녀올 계획을 했다. 알콜이 거의 떨어져가고있었다.

출근해서 수도꼭지를 트니 공교롭게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 포도당과 링게르를 제제하지 않으면 치료사업에 지장이 올수 있었다.

거의 5리가 되는 수원지에 찾아올라가 원인을 물어보니 고장난 수도배관을 수리한다는것이였다. 근심에 싸여있었는데 다행히 점심때가 지났을무렵부터 물이 나왔다.

그때부터 증류수를 뽑기 시작하다나니 5시 30분이 되여서야 주사약제제를 끝낼수 있었다.

고압증기멸균기의 스위치를 떼고 배기변을 열어 증기가 구름처럼 뿜어나오는것을 보면서 명희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오면서도 생각이 많았다. 어떻게 할가? 읍까지는 왕복 60리이니 5~6시간이 걸린다. 미룰가? 그러면 래일로 계획했던 실험도 하루 밀린다.

명희가 실험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것은 벤졸이나 에테르, 클로르포름 등과 같은 유기용매들과 알콜이였다. 연구에 착수해

서부터 지난 수년간 명희가 연구를 위해 구해들인 책들과 각종 실험기구들, 시약, 용매들의 량은 실로 막대한 수자에 달하였다.
그것들을 얻으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지사방으로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다나니 그외의것, 이를테면 옷가지따위에는 관심을 돌릴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명희는 언제보나 옷차림을 검박하고 수수하게 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작용한 여러가지 원인들을 깊이있게 리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처녀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을것이다.
미국놈들의 고립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면서 실험용 용매, 자재, 시약 등을 얻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알콜도 례외가 아니였다. 하는수없이 명희는 술을 구해다가 재증류하여 고농도알콜을 얻기로 결심하였다.
30리나 되는 읍에서부터 집까지 날라오는것이 문제였다. 그전에는 읍에서 영북로동자구까지 하루 세번 통근렬차가 다니였고 거기에다가 정기려객렬차들까지 있어서 그편을 리용할수 있었지만 지금에는 형편이 달라졌다.
기차를 타고 읍에 갔다오려면 옹근 하루품을 놓아야 했다.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전에는 공기처럼 무심히 대하던 전기의 의미를 새삼스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부족한것은 전기뿐이 아니였다. 식량, 석탄, 원유 등 모든것이 금처럼 귀해졌다. 그건 그렇다치고 걸어서 갔다오려고 해도 왕복 60리길이니 간단치가 않았다. 더우기 올 때는 10리터짜리 술통을 가지고와야 했는데 조련치 않은 일이였다.
하지만 걸어서 갔다오는 외에 다른 출로란 없었다. 읍에 다녀올 시간을 퇴근후에밖에는 낼수가 없기때문이였다. 명희는 퇴근후 집을 나섰다가 밤중으로 돌아오군 했다.
명희는 식료공장, 남새가공공장, 맥주공장 등 이곳저곳 엇바꾸어가며 신세를 졌다. 그렇게 방비책을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전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간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저 처녀는 술을 많이 사들여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장사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것이였다.

그런 말이 날만도 했다. 오죽이나 배낭을 메고 읍엘 드나들었는가. 어쨌든 그후부터 명희는 손맥이 풀려 읍에 다니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을 해야겠으니 방도가 없었다.

열흘전에 약타러 읍에 갔을 때 식료공장의 판매과장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시집을 가는가, 잔치술이겠지?》

판매과장은 롱을 했지만 명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였을뿐이였다. 이제는 아무때든지 그의 집에 가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오늘 퇴근을 한 후 집에 들어와 밥을 안치고 웃방 책상앞에 가앉으니 어제 잠도 설치고 오늘 하루종일 팽이처럼 돌아간지라 피곤이 눈가에 아프게 몰려들었다.

어느새 7시가 다되였다. 에라, 모르겠다, 래일 갔다오자.… 명희는 밥을 하는 동안 볼 책을 꺼내려 빼람을 당겼다.

잘되지 않았다. 다시한번 힘껏 당기니 빼람이 통채로 뽑아졌다. 그 서슬에 안의것들이 방바닥에 쏟아져내리면서 한구석에 쌓아두었던 준수의 편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쪼그리고앉아 그것부터 주어모으던 명희는 작년 가을에 온것을 하나 집어 읽었다.

《…〈ㅈ－12〉가 싸락모양을 하고 용매에 잘 풀리지 않는것은 콜레스테롤에스테르 등 납모양의 물질이 결합제의 역할을 하고있기때문이며 그사이에 암모니아알카리성물질이 포함되여있다는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자료에 기초하여 〈ㅈ－12〉를 강산으로 처리해보았습니다. 예견했던대로 중화반응은 결합제의 사슬을 토막토막 끊어버렸고 그 결과 〈ㅈ－12〉는 보드라운 분말상태로 이행하였습니다.

추출걸면적이 대단히 증가되였지요. 수십차의 실험을 통하여 35프로염산이 제일 맞춤하다는것을 알아냈습니다.

3, 4, 5 등급으로 나누어 〈ㅈ－12〉를 등급별 비교검토를 해보았는데 5등급의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염석법으로 얻은 침전물속에는 적지 않은 량의 단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맥주사제품으로까지 완성하려면 높은 수준의 순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로 모대기고있습니다. …》

모대기고있다— 이 말이 새삼스레 가슴을 울렸다.

명희는 얼마전에 온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크로마토그라프법으로 얻어낸 〈ㅈ—12〉가 순품이라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분리해낸 〈ㅈ—12〉의 Rf값은 우리나라 실리카겔에서 0.77이였고 도이췰란드 실리카겔에서는 0.49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공업화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순도가 높으면서도 원가가 낮은 〈ㅈ—12〉를 대량적으로 얻을수 있는 새로운 분리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두사람이 여기에만 머물러있는것은 불리합니다.

비록 적은 량이긴 하지만 순품이 얻어졌으니 나는 그것을 가지고 〈ㅈ—1211〉호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일은 명희동무의 성공을 전제로 하는 2단계 연구입니다. 공업적인 분리방법 — 이것이 명희동무의 몫입니다.

순도때문에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평성과학원(당시)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흡광도를 측정하여 내가 얻어낸 〈ㅈ—12〉가 순품이라는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명희동무, 물론 잘 알고있겠지만 지금 정세는 매우 엄중합니다. 정세가 긴박해질수록 〈ㅈ—1211〉호의 의의는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오만하게 날뛰는 미국놈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심정으로 더 분발해서 성공의 그날을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앞당깁시다!…》

명희는 이 편지의 한줄한줄이 얼마만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것들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한때 명희는 자기의 능력을 자부했던적도 있었으나 연구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으면서부터는 그것이 자기를 너무 믿는것이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련속되는 실패에 부딪치면서 암중모색할 때마다 스스로의 무능을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이러한 좌절감은 무엇인가 창조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렵다. 창조의 고통을 체험해본 사람이라야 그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고심어린것들인가를 새롭게 리해하게 된다.

그리고 준수가 편지에 쓴것처럼 정세는 엄중했다. 지금 미국놈들은 저들의 립회없이 흑연감속로의 로심교체를 실행하는 경우 녕변지구를 하늘로 날려보내겠다고 이리떼처럼 날뛰고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래일로 미룰수 없다. 준수동무가 말한것처럼 오만한 미국놈들의 뒤통수를 갈기는 심정으로 더욱 분발하자! 하여 명희는 실험준비를 해놓으라고 조수인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즉시에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던것이다. …

보슬비에 젖은 어둠을 꿰뚫으며 명희는 걸음을 다그쳤다. 저 앞쪽에서 화재가 일어난듯 불그레한 후광이 둥글게 밤하늘에 솟아올라있었다. 읍지구였다.

물참봉이 되여 나타난 명희를 본 판매과장은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구해놓았던 술을 오늘 낮에 급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것이다.

이렇게 나타날줄은 정말 몰랐다고 사정하다싶이하는 그앞에서 명희는 가까스로 어설픈 웃음을 지었다.

《래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고 래일 아침 떠나오. 그때 공장에 가서 술도 가지고 가오.》

그렇게 되면 지각한다.

《래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명희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얼마쯤 걸었는데 다급히 부르는 과장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되돌아온 명희를 데리고 철야식당으로 갔다. 얼굴이며 몸이며 팔다리며가 모두 고무풍선처럼 둥글둥글한 중년의 녀판매원은 군말없이 술을 담아주었다. 과장은 몇번이고 날이 밝은 다음에 가라고 만류했으나 명희는 즉시 돌아섰다.

2

질은 어둠을 헤가르는 전지의 불빛에 비쳐진 비발은 마치 수백개의 자그마한 의문부호들이 거꾸로 쏟아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감탄부호들로 보였을런지도 모르지만 명희에게는 의문부호로만 느껴졌다. 명희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다리는 습관적으로 걸음을 내짚고 머리속에서는 무수한 의문부호들이 맴돌아치고있었다. 여기저기 나타나는 크고작은 물웅뎅이들의 검은 수면우에 잘디잔 비방울들이 뿌려지고있었는데 그때문에 그것들은 마치 흰 꽃무늬들이 점점이 박힌 검은 유리쪼각처럼 보였다.

그 유리쪼각들을 련이어 산산쪼각내며 명희는 쉽없이 앞으로 나아가고있었다. 도로의 량옆에 펼쳐진 논밭들에서는 풀벌레들이 울어대였고 산밑의 문화주택들에서는 따뜻한 빛발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명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지금 어디로 무엇때문에 가고있는지조차 잊고있었다.

달아오른 얼굴에 잘디잔 비방울들이 시원하게 뿌려졌다.

명희는 준수와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근 8개월동안의 악전고투속에서 《ㅈ—12》를 우려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방법은 실험실적분리가 아니라 공업화에 적용할수 있는 실용적인것이였다. 이 방법을 찾기 위해 실험만도 수백번을 했다.

수백번의 실험, 이것도 헐치 않은 일이였지만 그쯤이라면 아무것도 아닌셈이다. 어려운것은 실험의 설계이다. 어떤 물리학자는 망원경이 아니라 만년필과 수학공식을 가지고 새로운 별을 찾아냈으며 그것의 위치를 확정했다고 한다.

명희는 이 말의 정당성을 연구과정에 실감하였다. 아무러한 지식도 없다면 명희는 망원경만 가진 천문학자나 다름이 없을것이다.

그런 천문학자의 손에 쥐여진 망원경은 소경의 손에 쥐여진 막대기나 다름이 없다. 더듬질도 물론 중요한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확신성있게 나갈수 없었다.

중요한것은 리지적으로 《볼줄》아는것이였다. 지식은 곧 과학자의 시력이였다. 실험의 구상과 실험결과의 판단에 바쳐진 막대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볼 때 실험의 준비나 그 진행에 들인것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였다.

명희가 하고있는 일을 사다리만들기에 비유할수 있을것이다. 수십가지 성분의 혼합물인 《ㅈ—12》의 용액속에 그 사다리를 척 걸어놓았을 때 오로지 《ㅈ—12》만이 거기로 기여오르게 된다면 성공이다.

그런 리상적인 사다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명희는 이미 선행한 과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수천의 사다리들을 《ㅈ—12》와의 관계속에서 새롭게 검토하는것이다. 무수한 사다리들이 명희의 머리속에서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결합되면서 리상적인 사다리에로 접근해가고있었다.

수백번의 실험이 진행되였다는것은 명희의 머리속에 각이한 구조를 가진 수백개의 사다리들이 떠올랐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매개의 사다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방대한 문헌조사와 심오한 사색이 진행되였겠는지를 누구나 리해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하나의 수치를 계산해내기 위해 하루밤 수십장의 종이를 바쳐지는것이 보통이였다.

그런데 명희의 사다리의 재질과 값이 문제였다. 이 방법에 필요한 유기용매는 수입에 의존하는것이고 식량사정과 관련하여 알콜도 매우 귀해졌다.

이 방법대로 공업화단계에 넘어간다면 공장의 모든 반응용기와 배관들은 강한 산에 견딜수 있는 불수강같은 값비싼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부족점은 있어도 경제적효과성이 있으므로 국가에 리득을 주게 될것이다. 누구나 명희를 찬양할지언정 나무랄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명희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준수동무가 그토록 지금까지 애를 써온것도 결국은 《ㅈ》약물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사들여다가 그 나라의 원료, 자재로 또 그 나라의 방법대로 하면 머리를 쓸 일도 없을것이다. 그러나 준수동무는 끝내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인 《ㅈ－12》로 《ㅈ－1211》호를 생산해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지 않았는가.

내가 연구해낸 방법에는 수입용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산해낸 《ㅈ－1211》호는 결코 국산품이라고 할수 없을것이다.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가. 정말 이이상은 출로가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잠길 때마다 명희는 일종의 생리적고통까지 느꼈다. 가슴노리부근이 간질간질해오면서 가슴이 답답했다.

그런 때면 산소의 부족까지 느꼈다. 그것은 풀릴듯말듯한 수학문제나 의미가 잡힐듯말듯한 원서의 문장과 맞다들렸을 때 흔히 느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였다.

명희는 자기의 머리를 일종의 가마처럼 느낄 때가 많았다. 어떤 어려운 수학문제나 외국어문장이 그 가마속에 들어가면 사색의 불길이 그것을 익히기 시작한다. 실제의 가마와 같이 그 가마도 증기를 뿜는데 그것이 안타까움이였다.

가마가 오래, 맹렬히 끓을수록 증기의 량도 많아지는것처럼 문제가 익어갈수록 안타까움은 더 커진다. 대체로 안타까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문득 방도가 떠오르군 하였다.

왜 그런지 요즘 명희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인가 잡힐듯말듯한 예감에 더욱 안타까왔다.

론리적으로 따져볼 때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놓치고있다는 예감이 처녀를 괴롭히고있었다.

수입용매도 아니고 알콜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유일하게 물뿐이다. 하지만 물에는 《ㅈ－12》가 안풀리지 않는가.

문득 머리속에 며칠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명희는 새벽 3시까지 실험을 진행하고있었다.

몰려드는 잠을 겨우 이겨내며 실험을 끝낸 다음 거둠률을 분

석해보니 거의나 령이였다. 이런 일은 처음이였다. 삽시에 졸음이 날아갔다. 짚이는데가 있어 매질의 pH를 측정해보니 알카리성이였다. 산을 넣는다는것이 그만에야 나란히 놓여있던 암모니아수를 넣은것이다.

명희는 실수로 하여 실패한 실험에 화가 나서 불을 끄고 누워버렸다. 왜 그날 일이 떠오를가? 무엇때문일가? 전류와도 같은것이 온몸에 흘렀다. 무엇인가 떠오를듯 했다.

제발 사라지지 않았으면! 명희는 당장이라도 끊어져버릴듯한 절벽사이의 허공중에 드리운 바줄을 타고 조심조심 앞으로 걸어나가는듯한 아슬아슬한 초긴장에 휩싸였다.

만일 유기용매에 풀리지 않은것이라면 틀림없이 극성물질일것이다. 실수하여 알카리를 넣었을 때 《ス－12》가 극성물질로 변했다는것인가? 거둠률이 령이였었지. …

눈앞에 《ス－12》의 구조가 확 떠올랐다. 피톨에스테르부분과 메틸에스테르부분이 물분해되였을것이고 그옆의 탄소환식고리가 카르복실기로 전환되였을것이다. 그러면 《ス－12》의 3가산염이 생겼을것이다. 틀림없이 《ス－12》는 무극성물질로부터 극성물질로 넘어간것이다.

그때 거둠률이 령이였던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내가 알콜－벤졸혼액이 아니라 물로 우려냈더라면 의심할바없이 좋은 성적을 얻었을것이다.

몇달동안이나 쌓이고쌓여온 안타까움이 훌날려가는듯한 쾌감이 온몸을 줄달음쳤다. 그 물우림액을 거른 다음 액성을 산성으로 해준다면 염은 다시 무극성물질로 이행되면서 앙금으로 가라앉을것이다.

에스테르결합의 물분해에 의한 비누화반응은 화학에서 상식에 속하는것이다. 어찌하여 명희는 지금까지 이 단순한 반응을 리용할 생각을 못하고있었는가?

그것은 《ス－12》를 너무 신비화한데 있었다. 명희는 《ス－12》를 사소한 파괴도 없이 우려내야 한다고만 생각하면서 우림에서 구조변화를 리용할 생각은 전혀 못했던것이다. 무의식중에

《ㅈ－12》의 구조는 절대적이며 그것의 변경은 활성변화를 일으킬수 있다는 위구에 사로잡혀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지금 명희는 비약하고있었다.

주작용부분인 ○○고리만 보존할수 있다면 어떤 처리방법도 다 리용할수 있을것이다.

명희는 흥분으로 하여 온몸이 타오르는것만 같았다. 내가 옳다면 수입용매나 알콜대신 물을, 불수강대신 강철을 쓸수 있을것이다. 《ㅈ－12》와 염화동과의 반응도 유기용매에서가 아니라 물매질에서 거의 순간적으로 진행될것이며 귀중한 동도 절약될것이다. 가온할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경제적인가. 준수동무가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가!

이때 어떤 외계의 자극이 느껴져 명희는 상념에서 깨여나 머리를 들었다. 명희는 이미 굽인돌이의 내리막길에 들어서서 정신없이 걸음을 다그치고있는데 앞쪽에서 경적소리가 연방 울리고 자동차전조등이 앞을 대낮처럼 밝히고있었다. 악－ 소리를 칠 사이도 없이 굽인돌이에서 불쑥 자동차가 돌아나왔다. 전조등의 눈부신 백광이 명희의 두눈을 비수처럼 찔렀다. 아무것도 볼수 없었지만 명희는 자동자와의 거리가 몇메터 되나마나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런 정황에서는 아차 실수하면 자동차에 얻어맞아 허양 날리우거나 바퀴밑에 깔리우는 참혹한 결과를 빚어낼수 있었다. 명희는 공포에 질려 거의나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두세걸음 물러섰다.

그런데 오른쪽은 거의 절벽이라고 할수 있을만큼 급경사를 이루고있었으므로 명희는 수십메터의 경사면을 따라 바위돌처럼 굴러내리고말았다. 등에 졌던 배낭은 중간쯤에서 어디론가로 뿌리워지고말았다. 한동안이 지난 후 간신히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 자기는 철길의 복판에 네활개를 펴고 어푸러져있었다.

급정거한 운전사는 자동차를 돌려 명희가 굴러내린쪽을 전조등으로 비치고있었다. 굴러내리다가 돌부리에 의해 복부에 심한 타격을 받은 명희는 숨조차 쉴수 없어 끽－ 끽－ 흐느끼면서 난생처음 말로만 듣던 급소타격이 어떤것인가를 체험하였다.

모진 아픔속에서 그가 들은 운전사의 욕설은 차마 다른 사람에게 옮길수 없는것이였다.

이때 저 멀리 산굽이에서 화물렬차가 나타났다. 운전사는 황급히 등성이를 달려내려왔다. 명희를 부축하여 언덕우로 올려온 운전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꼈다. 그는 전조등앞에 배를 움켜쥔채 쪼그리고 앉아있는 명희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다시 언덕을 내려가 술통이 들어있는 배낭을 가볍게 한쪽어깨에 걸메고 올라왔다. 그 거동으로 보아 어디가 터져버렸는지 술통에는 술이 한방울도 남아있는것 같지 않았다.

다행히 팔다리가 부러진것 같지는 않았고 크게 다친데도 있는것 같지 않았다. 아픔도 차츰 사라져갔다. 술같은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만일 《ス－12》를 물로 우려낼수 있다면 술이, 즉 알콜이 없어도 되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처럼 읍에 고생스럽게 다니지 않아도 되고 집앞의 개울물을 실험에 쓸수 있을것이다. 뜻밖의 봉변을 당한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지만 마음속 발견의 흥분만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어서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방금 얻은것은 잃은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것이기때문이였다.

운전사는 쪼그리고앉은채로 사과를 하는 명희의 말은 들은체도 않고 한참동안 두손을 허리에 얹고 생각에 잠겨있다가 명희를 부축해 일으켜세웠다.

《어쩌자는거예요?》

명희는 더럭 겁이 났다.

《아니, 그럼 그 몸으로 집까지 가겠다는거요? 안심하오. 동무를 집에까지 태워주겠소.》

《우리 집을 안단 말이예요?》

《집은 몰라도 동무가 영북철도병원에 다닌다는건 알지.》

명희는 어쩔새도 없이 운전칸에 앉히워졌고 어느새 방향을 돌린 자동차는 최대속력을 내고있었다.

명희는 고슴도치처럼 몸을 도사리고 앉아 앞만 바라보았다. 운전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20분쯤 달리니 철도병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나타났다. 여기서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운전사는 자동차를 세우더니 명희를 부축해서 내리워주었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린 벌써 구면이요.》
《?!》
《영예군인할머니가 생각나지 않소?》
《어마나!》
명희는 뒤말을 잇지 못했다.
《난 늘 동무에게 빚진 심정이였는데 마침 기회가 생겼구만. 앞으론 밤길에 조심하오.》
자동차의 불빛이 굽인돌이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서있던 명희는 무엇인가가 발밑에 감겨도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렸다. 어느새 달려온 누렁이가 끙끙거리며 바지가랭이를 물어당기는가 하면 몸뚱이를 비벼대기도 한다.
명희는 누렁이의 목을 툭툭 두드려주며 앞을 살펴보았다. 느린 호를 그리며 전지불이 다가오고있었다. 지팽이를 짚는 소리, 오른쪽발이 자갈에 가볍게 스치는 소리— 아버지였다.
《아버지!》
명희는 나직이 불렀다.
《명희냐?》
전지불이 문득 멈춰섰다가 다시 흔들렸다.
명희는 반가왔다기보다 죄스러웠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모른다. 고추장 하나만 해도 그렇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잡수실 고추장은 언제나 따로 담그군 하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갖가지 조미료들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아서 적어놓지 않으면 미처 기억도 다 못할 정도였다.
그중 어떤것들은 그야말로 적은 량이여서 과연 제맛을 나타내겠는가 의심이 들 지경이였다. 메주를 쓸 때부터 어머니는 신성한 의식이라도 거행하듯 신중한 낯빛을 짓군 하였는데 명희는 웃음을 겨우 참군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염소와 닭을 길렀고 줄당콩대도 세웠다. 고추도 그중 빨갛고 기름기 도는것들만 골라서 따로 가루

를 볶았고 마늘도 한단지씩이나 절여놓군 하였다. 그러고도 비우지 않은 밥그릇을 든채 부엌에서 남몰래 한숨 쉬던 어머니였다. 아무리 해도 명희는 어머니의 그 정성을 따를수 없었다.

《ス－1211》호연구가 본격화된 때부터 더욱 그렇게 되였다. 오늘 저녁만 해도 저녁상을 차려드리기는커녕 실험준비를 《명령》하고 집을 나서지 않았던가.

의족을 한 다리로 잔자갈을 굴리며 불편하게 걸어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명희는 입속으로 조용히 뇌였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장범은 전지불로 딸의 온몸을 훑어보았다. 비에 젖고 흙이 게발렸으며 팔굽이며 어깨부위에 찢어지기까지 한 옷주제는 말이 아니였다. 한쪽볼에는 길게 긁힌 상처까지 나있었다. 등에 진 배낭도 한 귀퉁이가 찢어져있었으며 술통엔 술이 한방울도 남아있는것같지 않았다. 장범은 구태여 묻지를 않았으며 명희 역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소리에 개들이 깨여나 짖어대다가 괴상한 끄웅소리를 내며 잠잠해지군 하였다. 소란한 개울물소리가 산촌의 정서를 살리고있었다.

왜 이처럼 요란한 소리가 낮이면 흔히 없어져버릴가?

명희는 깊은 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가끔 이런 의문에 잠기군 하였다.

낮엔 개울물소리보다 더 큰 소리들이 그것을 삼켜버리기때문일가? 낮에는 너무도 바빠서 미처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기때문일가? 아니면 밤에는 아무래도 시력이 제한되는만큼 청력이 더 예민해지기때문일가?…

어느새 맑게 개인 밤하늘에서 둥근달이 고요히 푸르른 빛을 뿌리고있었다. 검은 기름같은 개울물의 수면우에서 달빛은 잘게 깨뜨려 뿌려놓은 거울쪼각들처럼 반짝이고있었다. 길가 풀숲의 젖은 잎새들은 은빛으로 번뜩이는데 그 은빛잎새들 사이사이로 컴컴한 동굴속같은 그늘이 들여다보였다.

푸르른 달빛에 젖은 맑은 밤공기가 풀향기를 담아싣고 소리없이 흐르고있었다.

장범은 대견한 눈길로 딸을 바라보며 침묵을 깨뜨렸다.
《네가 용타. 사실 난 네가 아들이였으면 하고 아쉽게 여긴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
《…》
《너도 아다싶이 이 아버진 빚이 많은 사람이다. 이름도 생사도 알수 없는 전우들의 피방울이 내 몸에서 뛰고있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
부모는 죽었다가 자식을 통해 다시 산다는 말이 있다. 너의 몸에도 그 전우들의 피가 흐르고있으니 너는 그네들의 딸이기도 하다. 네가 잘못 생활해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그네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것으로 된다.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모두는 혁명렬사릉이나 애국렬사릉 그리고 인민군렬사묘에 묻힌 렬사들이 무엇때문에 거기에 누워있으며 그들이 최후의 순간에 바란 념원이 무엇이였겠는가에 대해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알고있어요. 저도 늘 그 생각을 한답니다. 아버지,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아버진 육체를 조국을 위해 바치지 않았나요. 그리고 한생을 정말 부끄럼없이 살아오고있지 않나요.》
명희는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싶었다.
장범은 묵묵히 걸음만 옮겼다.
한참후에 그들앞에 이깔나무 두대를 꺾쇠로 묶어놓은 외나무다리가 나졌다. 먼저 건너간 장범은 뒤따르는 딸의 거동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에 허옇게 껍질이 벗겨진 통나무는 비에 젖어 몹시 미끄러웠고 그밑에선 개울물이 흰갈기를 날리며 끓어대고있었다. 문득 딸과 같이 연구를 하고있다는 준수라는 억센 젊은이가 딸의 손목을 잡고 조심히 다리우를 건너오는 환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유리쪼각같은것으로 가슴 한복판을 가볍게 긁어내리는것같은 아픔과 애수를 자아냈다. 스물여섯이면 작은 나이가 아니다.
외나무다리를 건는 후 얼마쯤 갔을 때 장범은 불쑥 입을 열었다.
《너도 이젠 시집을 가야지.》

《…》
《그 사람과 약속이 있었니?》
《…》
한참만에 《호―》하고 길게 내쉬는 알릴듯말듯한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속에 얼마나 절절하고 사무친 정이 얽혀있었던지 장범은 바람에 초불이 흔들리듯 자기의 넋이 그 소리에 고요히 공명하는듯한 감동을 느꼈다.
《졸업후에 여기로 오겠다고 했어요.》
《!!》
장범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굽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마 나때문에 그럴것이다. 젊은이가 고마왔다.
《명희야, 인류의 기억에 길이 남은 사람들의 생애에서 특징적인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지만 난 그중 중요한것의 하나가 그들이 일생동안 훌륭한 녀성의 사랑과 방조를 받은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실례는 우리 나라 과학자들속에서도 많이 찾아볼수 있다. 부부박사, 부부발명가가 적지 않다.
녀성의 방조를 편리한 생활조건의 마련같은데서만 찾는다면 그건 저속한 견해이다. 그들은 례외없이 생애의 전기간 비상한 정신적앙양속에 있었다.
그 정신의 불길은 안해와의 교감에 의해 더욱 타오를수도 있었고 점차 사그라져버릴수도 있었다.
높은 지성과 결부된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은 그들의 창조적열정과 지혜의 요람으로 되였다.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난것 같다. 그렇기때문에 네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
《…》
《너도 알겠지만 이 땅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고있다. 〈ㅈ〉약물연구가 빨리 성공해야겠는데… 내 걱정

은 아예 말고 연구에 전심전력하거라.》

《고마워요. 아버지, 그런데 전 오늘 저녁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발견을 했답니다.

사실은 그 발견에 흥분해있다가 이렇게 험한 꼴이 되였답니다. 호호호.》

명희는 한참 웃고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착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장범은 명희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 착상인가를 깨달았다. 장범은 새삼스레 얼굴이 찢기고 옷이 온통 흙범벅이 되였지만 흥분과 열정에 넘쳐 이야기를 펴나가고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래 명희도, 준수라는 그 젊은이도 모두들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가! 이렇게 껴안아주고싶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정이 가는 청년들이 우리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가!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의 청년들이 유흥장에서 광란적이며 색정적인 춤으로 밤을 지새우고있을 때 우리의 청년들은 모두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 누가 등을 떠밀지도 않건만 이런 밤길을 걷고 또 걷고있지 않는가! 나는 《ㅈ》약물연구를 적극 도우면서 한편으로 이들에게 크나큰 힘과 신심을 안겨줄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창작해야 한다. 그들이 이런 밤길을 걸을 때 소리높이 읊으면서 자기가 걷는 길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보람찬 생의 길인가를 깊은 감동과 함께 확인할수 있는 그러한 생의 찬가를 나는 창작해야 한다. …

장범은 6개월전에 금성청년출판사로부터 시집을 발행할수 있도록 그동안의 창작품들을 묶어서 올려보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청탁을 받고 장범은 자기의 일생을 당과 인민앞에 검열받고 총화받는 계기에 접한듯한 감격과 흥분에 사로잡혔다. 사실 첫 시집을 낸다는것은 시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의의깊은 사변이겠지만 시창작에로 방향을 돌리게 된 리유가 남달랐던것만큼 장범의 감격과 흥분은 특별한것이였다.

령길에서의 부상으로 하여 그는 처참하게도 페인으로 되였으며 《ㅈ》약물연구에 대한 꿈을 단념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당

시 그는 삶의 의욕을 잃고 무서운 절망에 빠져있었다. 그러다가 후에는 장인으로, 명희의 외할아버지로 된 보양소 당위원장의 따뜻한 인정과 엄격한 당적요구성에 의해 차츰 마음을 다잡고 마침내 시인으로 일떠섰으며 한편으로는 《ㅈ》약물연구의 기초를 서서히 축성해나갔다. …

장범은 수백편에 달하는 서정시들중에서 거의 100편을 추려냈으며 그것을 또 주제별로 묶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구상하고있던 령길에서의 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한 서정서사시 《조국을 위하여》의 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몇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완성을 하지 못하고 고심어린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의 가슴속에서 뒤설레고있는 정신적충격과 흥분에 비해볼 때 작품은 안타까울 정도로 즙이 없고 메마르고 설명적이였다. 장범은 각이하게 여러개의 초고들을 써보았지만 어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려꽂히는 적비행기들, 몇십메터앞에 밀집해 서있는 포탄수송대, 자동차우에서 충천하는 화염,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불덩어리가 된 자동차를 벼랑아래로 굴려버리는 젊은 군관, 요란한 폭음 …

써야 할 말마디들은 다 쓴것 같은데 왜 감동이 오지 않을가. 직접 체험한 일이며 정황자체가 비상한 극성을 띠고있기때문에 쉽게 될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이 작품을 읽고 깊은 감동과 사색에 잠기도록 할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최후의 순간에도 주인공은 행복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납득시킬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슴속에서 끓고있는 뜨거운것에 생동한 예술적생명력을 부여할수 있겠는가?

장범은 안타깝게 모대겼다. 자기 생명의 일부를 이 작품속에 부어넣을수 있다면, 그래서 이 작품을 살아나게 할수 있다면 장범은 서슴없이 그렇게 했을것이다.

명희의 《명령》대로 실험준비를 다 해놓고 《ㅈ－12》의 각

이한 용매에 대한 온도별 풀림도를 대비적으로 고찰할수 있게 그라프로 작성해놓은 다음 장범은 책상에 마주앉아 펜을 들었건만 몇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자도 써내지를 못하였다. 그러다가 새벽 1시를 알리는 벽시계의 둔중한 음향에 정신을 차리고 명희를 마중하러 자리에서 일어났던것이다. …

그런데 갑자기 서정서사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겠는가 하는 방도가 떠올랐다. 동시에 불덩어리같은 시구들이 연방 태여나 번쩍거리며 머리안을 맴돌았다. 이것은 장범으로서도 흔하게는 맛보지 못하는 비상한 순간이였다.

작곡가들은 창작적고통에 모대기다가 어떤 순간에 이르면 두시간분의 교향곡전체를 단 몇분동안에 듣는 환희를 체험할 때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그런 경지를 창작의 《성층권》이라고 부른다.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며 60리 밤길을 헤쳐왔고 얼굴이며 옷주제는 말이 아니건만 커다란 흥분과 환희에 휩싸여 자기의 착상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있는 딸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오래동안 창작적진통속에서 모대기고있던 장범을 창작의 《성층권》에 날아오르게 했다.

장범은 이미 딸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있었다.

전지불은 앞뒤로 천천히 흔들리면서 얼마전 억수로 퍼부은 비때문에 길바닥의 여기저기에 패인 자리들을 환히 비쳐주고있었건만 장범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딱— 딱— 지팡이 짚는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리고 누렁이는 여전히 진정을 못하고 앞뒤로 뛰여다녔지만 장범은 그 모든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작품의 세계에 깊이깊이 빠져들었다. …

날이 밝아올무렵 두사람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새벽의 창문을 여는 명희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창조적희열의 눈물이였다. 그런 눈물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얼마후 명희는 준수에게 편지를 썼고 장범은 그날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3

도의약품공급소로부터 약품을 타오면 원장은 다음날로 재고표와 공급전표를 놓고 약국을 책임지고있는 준수와 마주앉는다. 그달의 약품소비를 놓고 토론도 하며 몹시 긴장한 항생제같은것은 과별로 배정안을 짜기 위해서이다.

이번달의 약품은 종수나 수량에 있어서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창고의 재고를 다 턴다고 해도 두석달이상은 견디여낼것 같지 못했다.

원장은 드디여 전표에서 눈길을 들었다.

《이러다간 안되겠소.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소.》

《어떤 대책말입니까?》

《어떻게든 도공급소와 사업을 해서 약품을 더 받아와야겠소. 내가 뭘 좀 해결해주겠으니 한번 교섭을 해보시오. 듣자니 그 사람들이 공사판을 벌려놓았다면서?》

한동안 미간에 주름을 잡은채 생각에 잠겨있던 준수가 마침내 대답을 했다.

《원장선생님, 그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원장은 이 단도직입적인 반대에 몹시 불쾌했다.

준수는 계속했다.

《설사 이번달은 그렇게 넘긴다쳐도 다음달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다른 뾰족한 수라도 있소?》

《결정적으로 고려약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품종도 늘이고 질도 높이고…》

원장은 준수에게서 몇년전부터 이런 제기를 받아왔다. 그러나 심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라는것과 자체의 고려약생산기

지를 꾸린다는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때문이였다.

원장은 준수의 이 말에서 고려약생산에 무관심한 자신에 대한 비난을 력력히 느꼈다.

《그건 좋은데 고려약재의 종수를 어떻게 다 보장하겠소? 소화제 하나에만도 여러가지가 들어가지 않소.》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배도 하고 또 깊은 산에 들어가 만삼, 세신, 오갈피 등 희귀약초를 캐다가 다른 도의 병원들과 약초교환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병원의 젊은 사람들 15명쯤으로 채취조를 조직해가지고 20일정도 제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두루 알아보니 천삼리 외중골에 만삼과 세신이 많다고 합니다.》

원장은 얼굴을 찌프렸다. 15명씩이나 빠지면 그 20일동안 원장의 어깨는 곱절로 무거워지고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잘수 없게 된다. 거의 120리나 되는 그곳까지 자동차를 조직해야지 채취조의 식량과 부식물에도 관심을 돌려야지 이것저것 시끄러웠다.

《종전처럼 치료도 하고 하루건너 한번씩 이 주변에서 약초도 채취하면 안되겠소?》

《이 주변에는 원천이 많지 못합니다.》

준수의 말도 옳았고 이제는 고려약문제가 발등의 불이였으므로 원장은 동의를 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다.

《마지막날 하루 채취조를 동원해서 통나무를 열통쯤 했으면 합니다. 산림경영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건 어데 쓰려고?》

《분광광도계를 구입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분광광도계라는건 어디에 쓰는거요?》

《…》

《말하자면 연구에 쓰는거요?》

《…》

《말해보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스럽게 채취조를 조직하자고 했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통나무는 여가에 제혼자 힘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약초를 실러 자동차가 들어와야 할텐데 그때 바닥에 깔아 실어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은 입이 쓰거웠다. 그는 병원내의 모든 성원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바랐다. 그는 진료소장, 군인민병원 내과과장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위책임자를 해오면서 누구든 복종시켜왔다. 그런데 준수만은 좀처럼 그러쥘수가 없었다. 왜서인지 원장은 그에게서 늘 정신적으로 압도당하는듯한 느낌을 받고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너그러워질수가 없었다. 지금의 경우에도 자기가 준수의 주장에 눌리워 결국에는 그가 하자는대로 끌려다니는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주장에 반대를 하고 그것을 눌러버릴수도 없었다. 그것이 옳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가 없었기때문이였다.

이틀후 채취조는 천삼리로 떠나갔다. 예상했던대로 원장은 자동차를 구하느라, 공장 경리과에서 천막을 빌리느라, 뭉텅 20일분의 식량을 낼수 없다고 우기는 식량공급소장을 설복하느라 뛰여다니게 되였으며 그러다나니 준수에게 끌려다니는듯한 불쾌한 느낌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

계획했던 20일의 마감날이 되여오자 원장은 채취조의 귀환을 위한 자동차를 구하느라 공장 운수과로 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갈때는 목탄차라 해도 큰일이 없었지만 올 때는 열대의 통나무가 있다니 아무래도 큰 차가 있어야 했다. 기름사정이 어찌도 긴장한지 차를 쉽게 얻을수가 없었다.

약속한 날에 차를 올려보내지 못했더니 다음날 채취조성원들이 걸어서 돌아들 왔다. 책임자인 준수가 병원일이 바쁠텐데 더 지체할수 없다고 하면서 내려보냈다고 한다. 본인은 마지막날 통나무를 찍다가 발목을 상했기때문에 경비로 떨어졌다고 한다. 채취조성원들이 한결같이 감탄해서 하는 말을 들으니 준수는 떠날때부터 두툼한 책들을 한마대 가득 넣어가지고 떠났으며 새벽 2시,

3시까지 광솔불을 켜놓고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는 호미와 밥곽만이 든 빈 배낭을 메고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갈 때도 책을 읽었고 약초를 가득 캐가지고 내려올 때도 읽었다고 한다. 책에 눈길을 박은채 징검다리를 건느다 미끄러져 온통 물참봉이 된적도 있었고 숙소인 천막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지나쳐 책을 읽으며 그냥 내려가다가 마주 올라오는 동무들을 만나서야 정신을 차린적도 여러번이라고 한다. 원장에게는 그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어쨌든 15명중에서 약초를 제일 많이 채취한 사람이 다름아닌 준수라니 할 말은 없었다.

이틀후 다시 운수과엘 갔더니 운수과장은 인차 될것 같지 않다면서 《며칠후에 한번 와보든지…》 하고 뜨뜨미지근한 소리를 하는것이였다. 실지 차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애원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당장 생산이 멎게 되였는데 책임질줄 알라고 위협하는 광경을 한시간나마 지켜보고있노라니 더 버티고 앉아있게도 되질 않았다. 그래서 원장은 병원경리과의 젊은 로동자에게 차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쪽지편지와 함께 열흘분의 식량을 지워서 준수에게로 보냈다.

원장의 쪽지편지를 읽고난 준수는 자동차가 인차 해결되지 못하리라는것을 느꼈다. 우선 원장이 쓴것처럼 기름사정이 매우 긴장하기때문이였다. 이번 올라올 때도 목탄차를 타고왔다. 준수는 해방전후엔가 있었다던지 하는 목탄차를 처음으로 타보았다. 목탄차는 웬만한 경사지에서도 걷는 속도 이상은 내지 못하였다. 다른 동무들은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들었지만 준수는 나라의 형편이 짐작되여 가슴이 아팠다. 도중에 난로에다가 나무쪼박들을 쓸어넣으러 운전사가 적재함에 올라왔을 때 준수는 그의 일손을 거들어주며 물었다.

《송탄유도 휘발유대신으로 쓴다고들 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자 운전사는 난로의 뚜껑으로 쓸어나오는 연기에 얼굴과 눈살을 잔뜩 찌프리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광솔 30키로그람에서 송탄유를 겨우 2키로그람 뽑는다던지, 더군다나 그건 뜨락또르에나 쓰우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 나무쪼박들이 낫수다.》

원장은 편지에 《목탄차라면 당장이라도 올려보내겠는데 통나무가 열대씩이나 된다니 그럴수도 없고… 하여튼 차가 올라갈 때까지 다쳤다는 발목이나 치료하면서 기다리시오.》라고 썼는데 준수는 이 구절에서 통나무문제로 인한 원장의 자기에 대한 불만을 뚜렷이 감촉하였다. 그리고 원장은 준수의 발목이 심하게 다친줄 알고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다친지 닷새째가 되여오는 지금에는 물론 땅을 짚을 때마다 접질린 부위가 뜨끔거려 가볍게 절룩거리기는 했지만 얼마든지 걸을수는 있었다. 식량을 열흘분이나 올려보낸것을 보면 아마 원장은 차가 해결되려면 그쯤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측하고있는것 같았다.

준수는 하루가, 아니 한시가 급했다. 그것은 이번에 명희가 보낸 편지도 함께 받았기때문이다. 그는 명희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것을 깨달았다. 비속을 뚫고 어둠을 헤가르며 걷던 때 명희를 휩싸안았던 흥분이 편지의 글줄들을 타고 그대로 준수에게 옮겨졌다. 그 순간 명희의 발견을 토대로 한 새로운 착상이 떠올랐다. 그 착상이 어찌도 온몸을 흥분시키는지 입안이 바싹 마르고 손끝이 떨리였다. 당장 내려가서 그 착상이 옳은것인지 확인을 해보고싶었다. 이쯤되니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오지 않고 책을 펴놓아도 글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경리과 로동자에게 차가 올 때까지 여기에 있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틀후에 인민군대입대문제때문에 군에 가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니 열흘동안 아니, 어쩌면 그이상 이 천막에 박혀있지 않으면 안되게 될지 모른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것만 같았다.

휘발유때문이다. 아니, 미국놈들의 《봉쇄》때문이다. 맥을 놓고앉아 《봉쇄》를 당해야 하겠는가? 뚫고나갈 방도는 없겠는가? 내가 늦게 내려가면 그만큼 실험은 늦어진다. 《スー1211》호연구가 늦어진다. 핵연료봉교체문제를 놓고 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 이밤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

실에서 밤을 지새우고계실것이다. 하루빨리 이 연구를 완성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수 있다면! 무슨 방도가 없을가?…

밖에서는 련 이틀째 억수로 쏟아지는 비줄기가 천막을 세차게 두드리고 옆에서는 련락을 온 젊은이의 코고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준수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며 안타까이 모대겼다.

퇴근할무렵 천삼리 류벌사업소 초급당비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난 원장은 깜짝 놀랐다.

…오늘 아침 준수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초급당비서를 찾아왔다. 그의 말을 듣고 초급당비서가 밖에 나가보니 아닌게아니라 이미 두대의 통나무가 물동(류벌사업소앞으로는 크지 않은 강이 흐르는데 사업소에서는 그 강을 가로막아 어지간한 호수크기의 물동을 만들었다. 떼를 띄울 때 그 물동을 터뜨려 거센 물살의 힘을 리용하기 위해서였다.)에 둥둥 떠있고 련이어 통나무들이 떠내려왔다.

준수의 부탁인즉 그 통나무 열대로 떼를 무어달라는것과 거기로부터 20리쯤 떨어진 천막에 가서 약초들을 날라올수 있게 달구지를 빌려달라는것이였다. 그 떼목에 채취한 약초를 싣고 병원까지 가겠다는것이였다. 준수의 절절한 호소에 감동된 초급당비서는 준수를 적극 도와주었다. 초급당비서는 한생 류벌공으로 늙은 아바이까지 붙여 떼를 띄워보냈으니 아마 밤 10～12시사이에는 거기에 도착할것이라고 했다.…

원장은 한때 천삼리에서 진료소장으로 5년간 일한적이 있어서 그곳의 지형을 환히 꿰들고있었다. 준수네가 천막을 쳤다는 골짜기의 개울은 너무도 물매가 급하고 물량이 적어서 보통때에는 거기에다가 길이가 거의 5메터에 이른다는 통나무들을 도저히 띄워내려보낼수 없다. 준수는 아마 이틀동안 퍼붓듯 쏟아진 비로 인해 불어난 골짜기물을 리용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리용한 모양인데 그건 너무도 위험해서 상상만 해보아도 오싹 소름이 끼

쳐졌다. 그 날뛰는 급류에 던져넣으면 통나무는 마치 낚시에 걸린 맹어처럼 몸부림을 친다. 통나무는 거센 물결을 타고 쏜살같이 내달리다가 삐죽이 솟은 큰 바위에 부딪치기라도 하면 공중 뛰여오르며 재주넘기도 하고 휙 돌며 곁에 있는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후려친다. 거기에 얻어맞으면 틀림없이 치명상을 입는다. 내려오던 속도그대로 개울가의 뒤엉킨 잡관목덤불에라도 대가리를 틀어박게 되면 그것을 뽑아낸다는것 역시 조련치 않은 일이다. 그뿐이랴. 사품치며 쏟아져내리는 흙탕물속으로는 이따금씩 동이만한 바위돌들이 총알처럼 굴러내려오기도 한다. 거기에 맞으면 다리는 영낙없이 도끼에 맞은 썩은 나무처럼 부러지고만다. 준수네가 천막을 쳤다는 위치로 미루어보건대 그런 위험한 물길로 통나무를 5리쯤은 끌어내려와야 그래도 그것을 띄울만한 시내가 나진다. 거기서부터는 물매도 느려지고 여러 골짜기들의 개울들이 합쳐지면서 물량도 많이 불어나 그만하면 상대적으로 물흐름은 풍만하고도 온순해진다. 물론 그런 시내라해도 평시의 물량으로는 통나무를 띄워보내기가 힘들다. 여기저기 바위돌이 비죽비죽 솟아있어서 통나무들이 자꾸만 거기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폭우가 있은 후에는 비록 며칠간이기는 하지만(산골물은 이삼일만 지나면 인차 줄어든다.) 바위돌들은 전부 물에 잠겨버려 매생이라도 능히 띄울수 있다. 그런 시내를 따라 15리쯤 내려가면 준수가 찾아간 류벌사업소 물동이 있다. 거기서부터 병원근처의 나루터까지 근 100리에 이르는 물길은 안전한데 다만 10리나 20리마다에 강바닥이 급경사를 이루고 강폭이 갑자기 넓어진 곳들이 있다. 그런 곳들은 배나 떼가 통과하기 말째다. 그래서 물동을 만드는것인데 이번처럼 물이 범람하는 때에는 구태여 물동을 터뜨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

원장의 눈앞에 발목이 상한 다리를 절룩거리며 이 바위에서 저 바위에로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미끄러져 어푸러지기도 하고 통나무에 얻어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거센 물살에 가랑잎처럼 떠내려가다가 개울가의 버들가지를 부여잡기도 하면서 개울을 따라 통나무를 끌어내리는 준수의 모습들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러자 코등이 찡하니 저려들었다. 더군다나 마음에 걸리는것은 전번에 채취조가 떠나갈 때에도, 이번 련락을 보낼 때에도 기름 한방울, 흰쌀 한알 올려보내지 못한것이였다.

그런 속에서도 그토록 있는 힘을 다해 아글타글하는것을 보니 젊은이가 대견하고 기특했다. 준수라는 사람을 깊이 알게 되는것만 같았다. 언젠가 초급당비서에게서 준수가 어찌어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장은 별로 믿지를 않았다. 지금은 들떠있지만 준수 역시 중도에서 포기하든가 줴버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차츰 열의가 식어져 종당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흐지부지되고말리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병원을 위해서도 본인이 일찌감치 그만두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여겨왔던것이다.

하지만 지금에는 역시 품은 뜻이 있는 젊은이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감동과 함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기어코 그 뜻을 실현시키고야말리라는것을 믿게 되였다. 그 감동과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젊은이에 대한 친근감이랄지, 존중이랄지 하는것을 불러일으켰다.

온 병원이 떨쳐나서 강변으로 나갔다. 원장 역시 마침 강습에서 돌아온 초급당비서와 함께 강기슭에 서서 뗴목을 기다렸다.

마침내 밤안개에 뒤덮인 강우의 저 멀리에 한점의 불꽃이 희미하게 나타나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뗴목의 앞머리에는 분명 광솔로 만들었을 홰불을 오른손에 높이 추켜든 준수가 서있었다. 어룽어룽 얼룩이는 불빛에 비쳐든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였다. 이마는 터지고 옷은 찢어지고 발목과 정갱이, 무릎 등 여러군데가 천쪼박들로 싸매져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티없이 맑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병원직원들속에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첨벙거리며 뗴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원장은 못마땅한듯이 중얼거렸다.

《며칠을 기다리면 되겠는데… 그것을 못참아 저렇게 뗴목까

지 무어가지고 내려오다니. 발목까지 상했다는 사람이… 모름지기 연구라는것때문에 저럴거요.》

초급당비서는 미소를 띄우고 물었다.

《원장선생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소. 난 지금껏 당비서동무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버렸댔소.》

《원장선생, 전번에도 말했지만 준수동무가 그 연구를 하게 된데에는 심각하고도 절박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수동무의 연구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와줍시다.》

이렇게 심중하게 한마디 하고난 후 원장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여튼 고집스럽달지, 이악하달지… 보통사람이 아니요.》

초급당비서 역시 감동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원장선생, 저게 바로 군인정신이라는겁니다. 군인정신!》

《그래, 군인정신이지. 나에게 부족한것이 바로 저런 기백과 정신이지요. 내 당비서동무의 비판을 진심으로 접수합니다.》

《허허허.》

《허허허.》

두사람은 소리내여 웃으며 병원직원들속에 에워싸인 준수를 향해 함께 걸어갔다.

뗴목은 드디여 공장가까이에 이르렀다.

불과 철을 다루는 공장은 밤을 모른다. 아스라하게 높은 지붕밑에 하모니카의 칸살처럼 잇달린 수백개의 창문들에는 화염으로 인한 붉은 빛발이 어룽거리고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압연직장의 어느 전기로에 장입을 마치고 전기를 투입하는 모양인지 쾅 쫘르릉 우뢰소리와도 같은 요란한 소리들이 련이어 울려퍼지고 있었다.

미국놈들이 제아무리 지랄을 부린대도 굴함없이 전진하는 조국의 억센 기상이 공장의 야경에 어려있는듯 하였다.

준수는 태여나 처음으로 떼목을 타본다. 밤안개 젖은 안개를 헤가르며 철썩, 처절썩 솟아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물결을 타고 떠가는 떼목의 앞머리에 홰불을 추켜들고 섰노라니 마음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마냥 설레였다.

그에게는 이 떼목이 보천보를 치기 위해 김대장을 따라 철호와 석준이네들이 탔던 그 떼목으로, 불타는 락동강을 도하하기 위해 인민군용사들이 탔던 그 떼목으로만 생각되였다. 경리과 젊은이가 어깨에 메고있는 소형록음기에서는 전시가요 《결전의 길로》의 합창이 장엄하게 울려퍼지고있었는데 그 장중한 음악이 휘황히 타오르는 홰불과 어울려 전투적이며 랑만적인 분위기를 한껏 돋구고있었다. 그 젊은이는 약초마대로 쌓은 커다란 무지의 꼭대기에 앉아 주먹을 흔들면서 록음기에서 나오는 노래를 목청껏 따라부르고있었다.

준수는 자기 역시 총포성이 울부짖고 강물이 쇠물처럼 끓어번지는 속을 헤치며 떼목을 타고 《ㅈ-1211》호를 향하여 돌진하고있는건만 같았다. 속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한, 비닐봉지로 겹겹이 싼 명희의 편지로 해서인지 명희도 이 떼를 타고 자기와 함께 나아가고있는듯 하였다.

언젠가 수삼나무밑에서 공동연구를 약속하던 그때부터 준수는 언제나 명희와 운명의 배를 함께 타고가는 기분이였는데 오늘 떼를 타고 오는내내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실감되는것이였다.

준수에게 있어서 명희는 《ㅈ-1211》호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이고 전우였다. 성룡구와 영북구사이라는 아득한 지리적공간을 넘어 자기와 명희사이에 그 무엇으로써도 끊을수 없는 동지적이며 전투적인 뉴대가 이어졌다는 느낌, 자기들 두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생동안 모든것을 다 바칠것이며 또 그것으로 하여 죽어서도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게 되리라는 확신에 준수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저 멀리 강가에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준수는 그쪽을 향하여 홰불을 힘차게 흔들었다. …

비록 얼굴은 온통 긁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서 너덜거리고 팅

팅 부어오른 발목은 그냥 서있기만 해도 칼끝으로 쑤시는듯이 아파났지만 준수는 나루터에서의 일이 끝나자마자 지팽이를 짚고 곧장 공장구내에 꾸려놓은 연구실로 향했다. 명희의 편지로 하여 떠오른 그 착상을 확인해보기 전에는 자기가 아무리 배고프다 해도 밥을 먹을수 없으며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잠들수 없으며 아무리 발목이 아프다 해도 거기에 주의를 돌릴수 없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는 지금 애당초 배고픔도 피로도 발목의 아픔도 느끼지조차 못하고있었다. 그만큼 그는 그 착상에 흥분해있었다.

준수의 연구실에는 온밤 불이 켜져있었다.

푸름푸름 동이 트는무렵 그는 명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두눈에는 맑은것이 가득 고여있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였다.

다음날 저녁 병원에서는 정봉철초급당비서의 발기에 의해 당원협의회가 열리였다.

협의회에서 정봉철초급당비서가 발언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끝을 맺았다.

《…우리 나라에 지식인대군이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전문과학연구기관에서 전적으로 연구사업에만 종사하는 지식인들은 몇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힘만으로는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빠른 기간내에 세계적인 최첨단수준에 올려세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식인이라면 그가 그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과학연구사업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또 일군들은 그러한 지식인들을 적극 지지하고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의 사업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과학기술적우세〉를 떠벌이며 〈제재〉와 〈봉쇄〉의 올가미를 조이려고 덤벼드는 적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기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무궁토록 강성번영할수 있는 확

고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들은 모두 준수동무의 연구를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뒤이어 열기띤 토론들이 진행되였는데 처음으로 연탁에 나선 원장의 토론은 모두의 감동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4

웅크리고앉은 푸른 양인듯 신록이 피여오른 산발들은 보기에도 포근하였다. 손을 깊숙이 잠그고 커다란 가위로 썩— 썩— 잘라내면 폭신한 《푸른 양털》을 얼마든지 베여낼수 있을것만 같았다. 두 팔을 벌리고앉은 곰을 련상시키는 앞산의 품속에서 맑은 물이 소리높이 흘러내리고있었다. 5월말인데도 산촌의 개울물은 아직 차거웠다.

오늘은 일요일이여서 명희는 오래전부터 벼르던 이불거죽과 옷장보 등 큰 빨래감들을 다 걷어가지고 아침 일찍 개울가로 나갔다. 물속에 들어서서 이불거죽을 헹구어가지고 대충 비틀어짜 큰 돌우에 올려놓은 명희는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허리를 폈다. 아침공기는 한웅큼 쥐여마시고싶을 정도로 맑고 신선했다. 동녘을 가리우고 솟은 산발을 이윽히 바라보고있노라니 늘 해님이 솟아오르군 하던 자리에서 밝은 빛이 둥글게 뻗쳐올랐다. 당장이라도 태양이 불쑥 얼굴을 내밀듯 하였다. 명희는 흥미를 가지고 그 점만 지켜보았다. 드디여 눈부시게 붉은 태양이 그곳에서 서서히 떠올랐다. 줄기차게 내뻗치는 흰 빛은 앞산발까지 가서는 뽀얀 운무로 변해버리고 명희의 속눈섭에 부딪쳐서는 칠색령롱한 무지개를 그렸다. 명희는 그 무지개가 사라질세라 눈을 가느스름히 쪼프리고 속눈섭사이에 맺힌 무지개의 색갈을 하나하나 더듬어나갔다. 붉은색, 분홍색, 청색, 풀색, 등색… 마침내 시그러워서 눈을

감았다. 해빛은 젖먹이의 보드라운 손길인양 명희의 감겨진 눈시울을 따뜻이 어루만졌다. 명희는 다시 해빛을 등지고앉아 빨래를 해나갔다. 산뜻한 랭기가 느껴지던 아침대기도 점차 달아올랐다. 목덜미가 따뜻해왔다. 퍼그나 시간이 흐른 모양이였다. 해빛은 웃옷을 꿰뚫고 잔등을 포근히 애무하였다. 명희는 간지럽히는듯한 그 애무에 미소를 지으며 태양을 돌아보았다. 어느새 높이 떠오른 태양은 명희를 향해 한껏 웃고있었다. 잠든 애기를 굽어보는 자애넘친 어머니인양 흰 더미구름 하나가 산발우에 낮추 드리워 천천히 지나가고 그밑에선 진한 구름그림자가 그뒤를 따라 산발을 슬밋이 기여넘고있었다.

지금 그림자가 지나가고있는 바로 그 등성이에 어머니의 묘가 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나 몇년째 거기 계신다. 겨울이면 눈덮이고 여름이면 소나기 쏟아지는 그곳에 홀로 계신다. 별이 총총한 깊은 밤에는 풀벌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재빛구름이 하늘을 덮은 날에는 비방울이 가랑잎을 두드리는 소연한 소리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에 잠겨 계시는지. … 지금 어머니의 넋이 거기서 나를 바라보는것이나 아닌지. … 처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어제 저녁 명희는 실험에 쓸 명주천때문에 장농을 뒤지다가 뒤벽의 습기때문에 옷가지들이 눅눅해진것을 발견하였다. 비닐박막을 두겹으로 깐 다음 마른 옷들만 골라넣던 명희는 차곡차곡 쌓아둔 갖가지 보따리들중에서 례장감보따리를 펼쳐보게 되였다. 하나하나 살펴나가던 명희는 《사위의 첫날옷감》이라고 쓴 종이쪽지를 끼워놓은 양복지를 보자 참고참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피슬피 울었다. 명희는 어머니의 따스한 체온이 스며있는 그 소중한 물건들이 어머니 육체의 한 부분이기나 한듯 오래도록 어루만졌다. 슬픔다음에 찾아온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여 명희의 마음은 엄숙해졌다. 명희는 사랑, 결혼이 사람의 일생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의미를 띤 사변인가를 다시한번 깨달았다. 명희는 준수를 믿었으며 어머니의 넋 역시 자기의 결혼을 축복해주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장모사위라는 말도 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대견해하고 정을 쏟아

부었겠는가. 가시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하게 된 준수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쓸쓸하기가 그지없었다. 어머니의 마음까지 합쳐 그에게 사랑과 정성을 깡그리 바치리라, 그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마음 다졌다.

명희는 소녀때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붉히고 서있는 신부를 볼 때면 그를 애처롭게까지 생각하군 하였었다. 그 시절 명희는 앞으로 자기도 꼭 시집을 가야만 한다면 결혼식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 소원하였다. 지금 명희는 자기의 천진했던 생각에 미소를 짓지 않을수 없었다. 신부의 얼굴에 피여오른 홍조가 결코 수집음때문만이 아니라는것을 리해하게 되였던것이다. 명희에게는 준수가 마치도 어릴 때부터 한집에서 커온 다정한 친오빠처럼 느껴졌다. 친오빠? 아니다. 그것과도 어딘가 좀 다르다. 사랑한다는것은 아무런 사심도 없이 자신을 끝까지 바치고싶은 심정임을 명희는 알게 되였다.

무엇인가가 발목을 부드러이 휘감는 감촉이 느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품치는 물살에 작은 빨래가지들이 막아놓은 돌우로 넘치면서 떠내려갈듯 바다풀처럼 너울거리고있었다. 명희는 그런것들을 집어아내여 큰 돌우에 올려놓았다. 이번엔 분홍색샤쯔가 손에 잡혔다. 그러자 문득 《복숭아꽃잎 우수수 붉은비 오듯 하네》라는 시구절이 떠올랐다.

명희는 눈을 들었다. 산기슭을 감돌며 아득히 사라져간 폭넓은 개울엔 그물에 든 곱등어떼인양 등이 검은 큰 돌들이 어지러이 나딩굴고 그사이사이로 곳곳에서 굽이쳐내리는 물살은 마치 수백마리의 흰토끼들이 서로 숨박곡질을 하며 뛰박질을 하고있는 것만 같았다. 바로 몇메터앞 웃기슭 물가에 흰꽃이 만발한 나무가지들이 스칠듯 드리웠다. 그밑에 두개의 큰 바위가 솟았는데 물은 그사이로 흰구름인양 날아내리고있었다. 떨어져내려 뒤번져지며 소용돌이치는 바로 그우에선 백색축포인듯 연방 튕겨오르는 잘다란 물방울들이 해빛에 반짝거리고 물속에선 무수한 은가락지들이 옛말에서처럼 끊임없이 솟아오르고있었다. 물에 씻긴 돌우로 알알이 고운 모래가 줄을 지어 달리다가 명희의 발가까이에 이르

러서는 가로세로 어지러이 흩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회오리쳐올라 물살을 타고 발등을 넘어가고있었다. 물살은 딩굴어달리며 쫓으며 명희에게로 달려오고 또 달려왔다.

준수에 대한 그리움에 처녀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있었던지조차 잠시 잊어버리고말았다. 개울물은 줄곧 《맑게, 쟁쟁하게, 줄기차게》라는 노래를 부르고있었는데 그것은 준수의 정다운 목소리인듯 느껴졌다. 구름인양 희디흰 저 소용돌이는 준수의 웃음이나 아닌지…

샤쯔에 살근살근 비누를 먹여 비비니 사각사각 부드러운 소리가 울리고 흰 비누거품이 목화송이처럼 피여올랐다. 물에 헹구고있는 분홍색샤쯔에서는 전류와 같이 저릿한것이 줄곧 가슴에 흘러들어 왼팔은 매시시 맥이 풀렸고 마음은 그윽한 향수의 안개에 아릿이 젖어들었다. 샤쯔의 오리오리마다에 스며있던 준수의 강렬한 눈빛이 지금 명희의 체내로 흘러들고있었다. …

문득 3학년 가을등교때의 일이 생각났다.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해 제약부문앞에도 제약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고려약생산을 보다 늘이는것이 필수적인 문제로 나섰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약초자원을 다시 확정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고 약학대학앞에도 그에 따르는 과제가 떨어졌다. 통신교무과에서는 강의를 마친 통신생들에게 닷새동안만 이 사업에 동원되여달라고 호소하였다. 명희네 학급은 《ㅅ》군에 가서 약초자원을 조사하게 되였다. 그때 명희는 준수와 한조가 되여 함께 산발을 넘어다니였다.

그무렵의 일들을 생각할 때면 명희는 절로 피여나는 미소를 금할수가 없었다.

첫날이였다. 준수의 뒤를 따라 어떤 양지바른 산기슭에 이르니 주먹만큼씩한 노랗게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돌배나무가 나타나고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찌르는듯 했다. 따느라 할것도 없었다. 익어떨어진 돌배가 밑에 한벌 깔려있었다. 말랑말랑한 그놈을 집어서 한입 베여물으니 그 독특한 맛에 입안이 쩡— 하니 열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것만 같았다. 덤불을 헤치며 나타난 준수가 큼직

하고 새노란 돌배 두알을 쑥 내밀었다. 쳐다보니 긁어먹던 자리가 구불구불 패여있었다.

《싫어요. 개미가 갉아먹던것이군요.》

명희는 새침해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하, 명희동무가 모르누만. 돌배나 다래의 맛은 개미가 안다오. 이게 진짜 맛있는거라오.》

《그래요? 호호호.》

얼마쯤 더 올라가니 아름드리 소소리높은 나무우로 뻗어오른 팔뚝같은 머루넝쿨이 나타났다. 꼭대기에는 포도송이보다 조금 작을뿐 모양새는 꼭같은 머루송이들이 검푸른 구름처럼 가득 매달려있었다.

《야!》

명희는 환성을 올리며 손벽을 쳤다. 저절로 떨어진 머루송이는 하나도 찾아볼수 없었다. 서너아름은 실히 될 나무줄기는 옹이 하나 없이 밋밋하여 발을 붙일수 없었다. 말그대로 그림의 떡이였다.

준수는 배낭을 벗고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명희는 겁이 나 그의 손을 잡았다.

《어쩔려구 그래요?》

《명희동무에게 머루 한송이 맛보이지 못할바엔 내가 살아서 뭣하겠소?》

준수의 지어낸 비장한 얼굴표정과 엄숙한 눈길을 보고 명희는 까르르 웃음을 터쳤다.

나무정수리를 향해 허공중으로 20메터는 실히 되게 뻗어올라간 머루넉줄을 쥐고 준수는 씽씽 잘도 올랐다. 그의 손바닥과 발바닥엔 송진이라도 발렸는지 미끄러지는 법이 없었다. 마침내 나무가지를 타고앉은 준수의 모습이 검푸른 머루구름속에서 흰 점처럼 언뜻거리고 《자, 받으시오.》하는 목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그다음부터 머루송이들이 련속 쏟아져내렸다.

준수와 명희는 마주앉아 연방 머루알들을 입에 넣기 시작했다. 《빠작, 빠작》 씨가 씹히는 소리에 명희는 준수를 바라보며 까르

르 웃음을 터쳤다.

《명희동무, 그만 웃고 많이 먹소. 이게 피곤을 푸는덴 제일이라오. 이제 보지. 힘이 부쩍부쩍 나는걸.》

준수의 이 말에 명희는 함뿍 미소를 지은 얼굴을 애교있게 까닥거렸다.

잠시후 그들은 배낭에 얼마만큼 집어넣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런 말, 저런 말을 나누며 한동안 걷느라니 키큰 나무가 듬성듬성 서있는 넓은 공지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나무마다엔 오미자나무가지들이 어우러져 새빨간 오미자가 포도송이처럼 가득히 주렁졌는데 그것은 마치 광장의 밤하늘에서 연방 터지고있는 붉은 축포가 공중에서 영원히 굳어져버린것만 같았다. 그것을 한참 올려다보느라니 명희의 귀가엔 축포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쨍쨍 내려비치는 가을해빛,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 머리우에 끝간데없이 펼쳐진 붉디붉은 열매… 금강석처럼 맑고 굳은 신비로운 정적이 온 공지에 가득 찼는데 이따금 들려오는 새소리는 바늘로 그 금강석을 톡톡 쫏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갖가지 산과일이 무르녹는 달콤한 향기가 진한 액체처럼 그속을 흐르고있었다.

《야!》

그 황홀한 아름다움에 명희는 넋을 잃었다. 나무들과 오미자는 참으로 조화롭게 얽혀있었다. 그것은 억센 총각의 품에 안긴 아름다운 처녀를 련상시켰다.

준수 역시 경탄의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고있었다.

《명희동무, 이건 마치 하늘나라에 있다던지 바다속에 있다던지 하는 룡궁의 복도갈구만. 이렇게 한참 걷느라면 사슴궁신들이 좌우에 쭉 늘어서있고 갑옷에 투구를 쓴 검정곰들이 창을 들고 지켜선 금은보화로 찬란히 장식한 궁전의 황금대문이 나질것 갈구만. 수염이 한자나 되는 룡왕이 흰 장미속의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그대는 누구뇨? 짐은 그대를 양자로 삼을가 하도다.〉 이러지나 않을가?》

《복도, 오 참 그래요. 여긴 지상세계가 아닌 그 어딘가에로 들

어가는 입구같애요. 난 막 지금 동화세계속으로 빨려들어가는것만 같애요. 바다속으로 내려가는것 같기도 하고 하늘의 구름속으로 올라가는것 같기도 하고, 저앞에서 우리를 태워가려고 금빛잉어와 거부기가 나타날것만 같군요.》

《정말 룡왕이 나타나서 명희동무의 손목을 끈다면 뭐라고 할테요?》

《준수동문 뭐라고 하겠어요?》

명희는 웃음어린 눈길을 준수에게 주었다.

《전지전능하신 룡왕님이시여, 룡궁을 통채로 다 준다고 해도 그속에 명희라는 처녀만 없다면 나는 싫소이다.》

준수는 실지 룡왕앞에라도 선듯이 눈을 내려깔고 두손을 가슴우에 모두어쥔채 거룩한 표정을 지었다.

명희는 두주먹으로 준수의 등을 두드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거짓말, 거짓말.》

《룡왕님이시여, 나의 이 말이 거짓이라면 난 이자리에서 지옥의 류황가마에 떨어져도 좋소이다. 아멘.》

준수는 하느님을 우러르는 숭정의 눈빛을 하고 십자를 그었다.

《아이고, 기막혀라. 호호호, 그리스도교엔 룡궁이란게 없대요. 엉터리예요, 호호호.》

명희는 숨이 넘어갈듯이 웃어대였다.

점심때가 되자 그들은 개울가에서 손더듬으로 잔고기들을 잡아 먹음직하게 된장찌개를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식사를 했다. 명희는 밥을 씹다가 저도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머루를 어찌나 먹었는지 흰쌀밥에도 이가 시큰거렸던것이다. 준수는 뜨겁고 매운 음식으로 하여 빨갛게 익은 얼굴에 땀을 줄지어 흘리며 맛있게 퍼먹고있었다. 이발때문에 조심조심 밥을 씹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명희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준수는 어느새 자기것을 다 먹어치웠다.

《이걸 더 잡수세요.》

준수의 빈 밥통을 넘겨다본 명희가 진심으로 권했다. 밥을 다 먹을수가 없어 걱정하던 참인것이다.

《그럴가…》
《예, 어서요.》
명희는 밥통뚜껑에 밥을 퍼담아 찬물에 말아먹고있었다. 그는 물에 말리지 않고 봉처럼 우뚝 솟아있는 밥을 한숟갈 듬뿍 떠내여 준수의 밥통에 덜어주었다. 그는 한쪽 구석에서부터 조심히 헐어 먹고있었던것이다. 명희는 한숟갈 또 떠내였다.
《아니, 됐어.》
준수는 사양했다.
《한숟갈만 주는 법은 없답니다.》
밥을 입에 떠넣고나서 준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왜 이 밥이 달가?》
《예?!》
《아, 알만 하오. 명희동무의 숟가락이 꿀숟가락인게로군.》
명희는 웃었다.
《그럴순 없지요. 똑같은 숟가락인데요.》
《이상한데… 아, 이제야 알만 하오. 명희동무의 입술이 꿀입술인게로군.》
명희는 짐짓 노한 기색을 띄우려고 애를 썼으나 마침내 입을 가리우고 웃고말았다.
《호호호.》
《하하하.》
준수도 소리내여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리는것이였다.
참으로 잊혀지지 않는 즐거운 하루였고 기쁨속에서 흘러간 닷새였다. …
지금 한창 빨래를 비비고있는 명희의 귀가에 준수의 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래서 저도모르게 《호호.》하고 소리내여 웃고는 혹시 누가 듣지는 않나 하여 사위를 둘러보았다.
개울가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명희는 마음을 놓고 빨래를 계속하였다.
올해 가을에는 졸업을 하게 된다.
문득 명희에게는 지금 집처마밑에서 열심히 둥지를 틀고있는 눈

이 까맣고 배가 흰 한쌍의 제비생각이 났다. 그것들은 어깨를 마주 붙이고 꽁지를 초싹거리며 서로 무엇인가를 다정히 의논하다가는 어디론가 날아가서는 진흙과 검불을 물어오군 했다.

그것들이 무슨 행복의 박씨라도 물어다주지는 않을가?

명희는 속으로 웃었다.

제비야, 우리에겐 박씨가 필요없어. 우리의 보금자린 먼 하늘나라에서 보내주는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에서 마련되는게야. 준수동무의 소원대로 크게 한칸을 더 늘여 서재를 꾸리자. 그건 또 나의 소원이기도 하지. 준수동무도 말했지만 남들이 알아차리고 도와주러올 사이도 없이 우리들의 손으로 제꺽 해치우자. 준수동무는 도끼로 나무를 찍어다가 집의 골격을 세우고 난 벼짚과 진흙을 이겨 벽을 바르리라. 아마 내 일솜씨에 준수동무도 깜짝 놀라게 될거야. 세멘트로 든든하게 마감미장을 하고 문양고운 벽지를 바르자. 두꺼운 널판자로 세 벽에 서가를 매고 책들을 가득 채우자. 한쪽 구석에는 준수동무의 책상을, 다른쪽 구석에는 내 책상을 놓자. 여름밤에는 열려진 창가로 밤하늘의 별들을 내다보며 겨울밤에는 뜨뜻이 불을 때놓고 창밖에서 아우성치는 눈보라소리를 들으며 우리 세사람은 래일의 과학에 대하여 문학과 력사에 대하여 밤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리라. 아름답고 서정적인 음악에 취해 서로의 눈속 깊은 곳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밤가는줄 모르리라. 여름엔 터밭의 감자나 풋강냉이 그리고 뒤뜰안의 살구와 추리, 복숭아나 앵두로, 겨울엔 움속에 넣어두었던 사과와 배로 그런 밤들의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돋구리라. 얼마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벌어질것인가. 여기저기로 줄기를 뻗고 가지를 치면서 이야기의 나무는 지성의 광명한 태양을 향해 한껏 키를 솟구리라. 그우에서 우리는 세월의 안개에 가리워진 인류문화사의 갈피갈피를 재음미하게 될것이며 오색구름이 령롱한 미래의 지평선도 더 멀리 내다보게 되리라. 우리 세사람은 만만치 않은 론적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매혹되고 긴장될것이며 갖가지의 랑만적인 공상과 새로운 아름다운 생각에 잠기게 될것이다. 우리들은 아버지의 시들의 첫 독자로, 평론가로 될것이며 그 시들을

통해 인간의 새로운 사명감과 생의 의의를 깨닫게 될것이다. 준수동무의 명민한 두뇌와 력사와 문학에 대한 독특한 견해,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 그리고 꾸밈없는 소박과 겸손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거야. 명절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해도 성의껏 상을 차리고 아버지와 준수동무에게 두손으로 술을 부어드리리라. 술을 나누며 즐겁게 담소하는 두사람옆에 앉아 이것저것 날라오며 《난 딸을 길러서 아들 하나를 더 얻은셈이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가. 비록 준수동무가 있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 가령 내가 나무를 팬다면 그가 도끼를 빼앗겠지. 늘 내가 나무를 패는것이 마음에 걸려하던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가. 그럼 난 부엌에 들어가 눈처럼 하얀 수건을 쓰고 꽃과 새가 수놓아진 깜찍한 앞치마를 두르고 가락 맞게 칼도마소리를 울리리. 나무를 한아름 안아들여온 그가 뒤에서 날 조심히 포옹한다면 난 숨을 죽이고 눈마저 감은채 애무에 취해있으리. 그보다 더 달콤한것이 세상에 또 있을가. 여름철의 일요일이면 우리는 바다가로 가리라. 기껏해야 20리정도이니 걸어서도 갈수 있지. 바다가에 가면 흰백사장에 앉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서정적인 가지가지 공상에 잠겨 이야기를 나누리라. 아득한 수평선엔 흰 돛이 아름다운데 물결은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그 소리에 난 솔풋이 잠에 들지도 몰라. 해빛이 어룽어룽 음영을 던지는 솔숲에 들어가 음악도 듣고 손톱만한 숟가락으로 갖가지 양념을 치면서 점심도 정성스레 차리리라.

결혼하면 나는 인차 시아버님의 묘를 찾아가 인사를 하리라. 살아서 내 절을 받으셨다면! 아버님, 명희는 이 집의 새 식구로 되였습니다.

바람에 꽃잎들은 조용히 흔들리고 난 그앞에 오래오래 머리 숙이고있으리.

난 준수동무의 어머님을 선생님처럼 존경해. 어머님의 사랑스러운 친딸로, 제자로 영원히 남아있으리. 어머니, 잘못하는것이 있으면 꾸짖고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세요. 난 이렇게 말할테

야. 우리 집에 와서 몇달이고 편히 쉬도록 해야지. 아버지와도 좋은 이야기동무가 될거야. 멀리서 준수동무의 친우가 찾아오는 때도 있겠지. 그런 때면 있는 성의를 다할테야. 얼마나 귀중한 손님인가. 돌아갈 땐 아마 몇번이고 인사를 하겠지.

나는 역까지 짐이랑 들고 바래주어야지. 준수동무와 한병원에서 함께 일하기가 쑥스럽지 않을가? 잘못한 일로 총화모임때 지적을 받는다면 서로가 부끄럽겠지. 할수 없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잘 일하자. 그러면 모두가 다 우릴 사랑스럽고 대견하게 여길거야. 우린 젊었으니 아무 일에서든 무서울게 없어.

제일 중요한건 우리들의 연구과제지. 빨리 성공시켜야겠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례장감이라 했지. …

다른 처녀들도 시집갈 준비를 하겠지. 그릇도 사고 뜨개질도 하면서. 그러나 나처럼 특이하고 값진 례장감을 그토록 이악스레 준비하는 처녀는 흔치 않을거야. 이 연구사업이 우리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고있어. 애인의 사랑을 받는 처녀는 얼마든지 있어. 언젠가 준수동무는 웃으면서 말했지. 난 명희동무를 존경한다고. 나처럼 애인의 존경을 받는 처녀는 드물게야. 우린 일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게야. …

며칠전 명희는 준수로부터 흥분하여 써보냈던 전번편지에 대한 회답을 받았다.

《동무의 성과를 축하합니다. 참으로 대담한 착상입니다. 언제나 결과에 도달하고보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백한것들인데도 거기에 오르자면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군요.

내가 진행하던 실험에는 수입용매가 있어야 했고 반응의 속도가 느리며 정량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둠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되겠다는 생각은 이미전부터 하고있었지만 방도를 못찾아 모대기고있었습니다. 명희동무와 비슷한 고충이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동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산성유기용매에서가 아니라 알카리성물매질에서 반응시켜보자.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령감의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머리속에서 회오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난 어제까지만 해도 약초채취로 산에 들어가있었는데 명희동무의 편지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어보고는 더이상 자동차를 기다릴수가 없어 뗴목을 무어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회오리〉에 휘말리워 날리워온것만 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밤중으로 실험에 착수했지요. 실험장치를 조립하는 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

드디여 성공이였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여나오는 환희를 체험하였습니다. 혹시 실험이 잘못된것이나 아닐가 하여 반복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전 방법으로는 3일이상 걸리던것이 이제는 10분이면 반응이 완결됩니다. 수입용매대신에 물을 쓸수 있게 되였고 값비싼 코발트염도 훨씬 절약하게 되였습니다. 제일 귀중한 성과는 얻어진 〈ㅈ－12〉의 순도가 99프로이상에 도달한것입니다.

물론 정맥주사용 〈ㅈ－1211〉호의 개발에까지 이르자면 할일이 많고많지만 1년도 채 못되는 기간의 성과도 작은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만하기는 이릅니다.

명희동무가 얻어낸 〈ㅈ－12〉의 순도가 92프로라니 주사원료로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맥주사제품이 되여야 하니 순도가 아직 걸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문제는 순도입니다. 그외에도 난문제가 많지만 인차 함흥에서 만나게 되겠으니 오늘은 이만 그칩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합시다. 건강과 사업에서의 성과를 바라면서…》

명희는 아직까지 준수로부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의 편지에도 그런 말은 없었다. 그러나 성공을 기약할수 없는 어려운 길을 함께 가자고 서슴없이 손을 내밀 때 그의 눈빛에 어렸던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사랑이였다. 그리고 미안함… 그렇다. 그때 그는 분명 미안스러워했다. 《명희동무가 고생하게 됐지요.》 그의 이 말이 귀가에 쟁쟁하였다. 그는 나에게 짐을 지우는것만 같아 마음 아파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짐을 지려고 그처럼 마음을 쓰며 아글타글한다. 그

의 피타는 노력이 편지의 글줄 마다에 력력히 어려있었다. 준수가 이따금씩 보내오는 편지들은 사실상 하나의 론문과도 맞먹는 과학적내용들을 담고있었다. 그 한줄한줄을 써나가기 위해 그가 기울였으며 또 기울이고있는 완강한 노력속에서 명희는 《사랑합니다.》라는 보이지 않는 글줄을 보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을 입밖에 내거나 쓰기는 수집어한다. 확실히 수집어한다. 《숨막히는 포옹》이라든가 그러루한 구절들을 명희는 적지 않게 읽어왔고 그때마다 달콤한 공상에 잠겨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실지 만난 사람은 몹시 수집음을 타는 사람이였다. 그는 아직까지 명희의 머리칼 한오리조차 다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드물게 볼수 있는 강의한 의지를 가진 그처럼 억센 남자의 그 《수집음》이 명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그의 믿음에 보답하자. 그를 기쁘게 해주자. 그러자면 앞으로 나가야 한다. 고인물은 썩기마련이다. 나의 정신은 언제나 이 푸른 시내처럼 소리치며 흐를것이다. 내가 좀더 밤잠을 못자더라도 맡은 몫을 빨리 끝내자.

명희의 생각은 다시 《ス－12》에로 넘어갔다.

며칠전 명희는 우연히 흥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병원으로부터 40리쯤 떨어진 무채리에 자연동굴이 있는데 그 주변사람들은 그 동굴에서 나는 《상골》이라는 돌을 식중독 등에 약으로 쓰고있다는것이였다. 명희가 그 뿌여스름한 돌가루를 둘째손가락끝으로 이리저리 비벼보면서 《이게 그렇게 신통히 듣는대요. 여기에 어떤 항생물질이 들어있을가요?》라고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데 곁에서 방금 끝낸 실험의 결과를 일지에 정리하고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쳤다.

《명희야, 그 돌이 뚜렷한 약리작용을 나타낸다면 아마 그건 거기에 항생물질이 들어있기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일련의 독성물질들을 선택적으로 흡착해버리기때문일수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의 선택적인 흡착작용을 〈ス－12〉의 분리에 리용할수 있지 않겠니?》

순간 명희의 머리를 번개처럼 치는것이 있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실험을 해보았더니 아주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 신통히 도 그 《상골》이 《ㅈ—12》만 선택적으로 흡착했던것이다. 물론 고심어린 노력끝에 온도며 압력이며 용매며 등의 특수한 조건들을 발견해냄으로써 얻어진 성과였다. 명희는 반복해서 확인해보고 보다 높은 선택률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만에야 《상골》이 다 떨어졌다. 명희는 약국장에게 그 동굴로 가는 략도를 자세히 그려달랬고 일종의 문건으로 간주하고 그 략도를 연구일지에 붙여놓았다.

명희는 빨래를 다하고나서 오후에는 무채리의 그 동굴에 《상골》을 가지러 갔다오리라 마음먹고있었다. 손은 비누칠을 하고 옷가지를 비비고 헹구고있었지만 명희의 생각은 온통 아직 남아있는 그 8프로의 불순물제거에 집착되여있었다.

그 불순물들은 과연 어떤것들일가? 《상골》로 과연 순도를 어느만큼이나 높일수 있을가? 내가 그 8프로를 제거해내지 못한다면 설사 준수동무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공중루각이 되고만다.

문득 눈을 들어보니 아득한 저 멀리 산굽이에서 장난감같이 보이는 려객렬차가 돌아나오고있었다. 명희는 일손을 멈추고 그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렬차는 벌써 철다리에 들어서고있었다. 등교때마다 리용하는 차여서 그런지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저 차를 타고 함흥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준수동무를 만날것이다. 렬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정겨운 눈으로 바래고난 명희는 다시 빨래를 잡았다.

제8장 위기

1

영북역은 아담했다. 방금 떠나간 렬차에서 내린 사람은 열댓명뿐이였다. 키가 작달만한 출표원은 습관적으로 표를 걷으면서도 아직 홈에 그냥 서있는 한 녀인의 화려하고 눈부신 옷차림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가슴부분에 기묘하고 경쾌한 물결모양의 주름장식을 한 하늘색달린옷인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거기에 뿌려진 무수한 금빛가루들이 눈아프게 반짝거렸다. 그 젊은 녀성은 맨 나중에야 천천히 다가왔다. 표받는곳을 나서던 그 녀성은 출표원에게 돌아섰다.

《미안하지만 철도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출표원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녀자를 앞서 역앞으로 걸어나갔다.

《저기 보이는 리발소를 꺾어들면 큰 개울이 나집니다. 그 개울을 따라 20분쯤 올라가면 울타리를 치고 마당에 버드나무가 몇그루 서있는 〈ㄷ〉자형의 5층건물이 나집니다.》

《함흥쪽으로 가는 차는 몇시에 있어요?》

《오후 2시 30분입니다.》

《고마와요.》

큰길에 나선 녀인은 망설이는듯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서있었다. 검푸르게 느껴지는 눈확과 갈색눈동자에는 동요가 력력히 어려있었고 한껏 부풀었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흉곽의 쉽게 알아볼수 없는 움직임은 그 녀자가 지금 내쉬고있는 한숨이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여나오는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었다. 마침내 무엇인가를 결심한듯 숙였던 머리를 번쩍 쳐들고 발걸음을 뗐다.

미애는 지금 명희를 찾아가는 길이였다.

남편에게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자의 얼굴은 순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남편은 손바닥으로 이마를 고이고 맥없이 중얼거렸지만 미애의 귀가에는 그 말마디들이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그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고있던 호화로운 궁전이 졸지에 무너져내렸다. 궁전의 무너짐을 누구에겐가 형상적으로 그려보이기나 하려는것처럼 미애는 쏘파에 맥없이 쓰러졌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입술만 가까스로 벌어졌을뿐이다. 그는 자기가 내건 조건이면 시동생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리라 믿고있었다. 그러나 달라진것은 시동생의 마음이 아니라 남편의 태도였다. 남편의 들끓던 흥분은 거짓말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것은 내닫던 맹수가 단 한방의 총알에 곤두박질하다가 뻗어버린것과도 흡사하였다.

시동생의 어리석은 고집이 참으로 안타까왔으나 설복할 방도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되는것처럼 허풍을 친 미애로서 향순이나 향순이의 형님에게 사실그대로 이야기할 용기는 없었다. 미애는 적당히 둘러치며 그럭저럭 그 집과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집에서는 아직까지 눈치를 차리지 못하고 가끔 독촉까지 하는 형편이였다. 그러는 사이에 겨울이 가고 봄도 다 지났다. 이제와선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처지에 빠졌다. 차라리 처음에 솔직히 말했을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러는 속에서 미애는 차츰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말하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동생은 절대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것,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든것보다 시동생에게는 연구가 백배, 천배로 귀중하다는것이였다.

그렇다면 시동생이 향순이와의 결혼후에도 연구를 계속하면 되지 않겠는가, 시동생이 영북구의 깊은 산골에 들어박히면 무슨 연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함흥으로 나와 과학원 분원같은데 들어가면 연구에 얼마나 유리하겠는가. 함흥은 대학, 연구소들이 집중되여있고 대화학공업도시이니 여기야말로 연구를 마음껏 해볼수 있

는 활무대일것이다.

사실 시동생만한 대상자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잘 생기고 체격이 그쯘하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것은 비길데가 없지 않는가. 흠이라면 간판이 변변치 못한것과 살림형편이 그닥 넉넉치 못한것이다. 간판문제는 쉽게 해결할수 있다. 사위가 인차 박사로 될 재목이라 귀띔해주면 향순이네 집에서는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동생이 무슨 연구인가 하고있는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그 연구라는것이 언제 빛을 보게 될런지는 알수 없는 일이지만 그 집에다가는 이젠 뒤거두매나 슬슬 하면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불구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주간대학졸업증이 있니없니 하는데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을것이다. 향순이의 맏오빠나 부모들은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무엇보다도 학식을 인끔을 평가하는데서 첫째로 꼽을것이다. 넉넉치 못한 문제 역시 그렇다. 만일 이번 일이 성사되기만 하면 우린 시동생에게 우리의 전 재산을 전부 물려주기로 했으니 그런 문제는 애당초 제기될수조차 없는것이다. 향순이네로서야 그저 입이 함박만큼 벌어질 일이 아닌가. 향순이네가 등불을 켜들고 찾아다닌들 어디서 이만한 사위감을 구할수 있으랴. 그리고 시동생이 향순이와 결혼하고 이 집을 차지하게 되면 시어머니 역시 함흥으로 나와 막내아들과 함께 여생을 유족한 환경에서 편히 보낼수 있지 않겠는가. 시동생 좋고 향순이 좋고 시어머니 좋으니 이야말로 안성맞춤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시동생은 그토록 고집불통일가?…

불안의 검은 구름이 그 녀자의 머리속에 떠돌기 시작하였다. 시동생만 응한다면 일은 얼마나 멋있게 풀려나갈것인가?!

미애는 명희가 미워나기 시작하였다. 그 처녀를 동생에게서 떼여버릴 방도는 없을가? 그 처녀가 스스로 물러서도록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동생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것이 아닌가. 과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일가?

이런 분야에 특별히 예민한 그 녀자의 두뇌는 날카로와졌고 사색은 낮과 밤을 이었다. 어느 고리에 강타를 넣어야 하겠는가?…

드디여 출로를 찾았다. 미애는 자기의 계획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가봐 두려웠다.

미애는 남편도 몰래 마침내 기차에 올랐다.

기차가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그의 눈앞에 시동생과 처녀, 남편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면서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있던 불안과 공포가 점차 자라오르기 시작했다. 차디찬 오한이 온몸을 줄달음쳤는데 그것이 어찌나 심했던지 이를 악물지 않으면 턱까지 떨렸다.

내가 왜 이럴가. 그들이 무슨 약혼이라도 한거야 아니지 않는가.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있는 법이지만 누구나 첫 련인과 일생을 함께 하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시동생도 언젠가 이 형수를 고맙게 생각할 때가 있을게야.

아무리해도 오한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름날의 그 오한이 어찌나 불쾌한것이였던지 홈에 내렸을 때 미애는 다음차로 돌아가버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였다. 그러나 자기의 달린옷에 향해진 출표원처녀의 황홀해하는 눈길을 얼핏 느끼는 순간부터 차츰 진정이 되였다.

우연적인 처녀의 눈길이 흔들거리던 저울대의 팔을 결정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병원을 거쳐 명희네 집 앞에 섰을 때 까지도 오한은 멎지 않았고 가슴의 어느 구석에선가 울리는 동굴의 메아리와도 같은 불쾌한 음향은 머리속으로 퍼져오르면서 기분을 흐리게 했다.

처녀의 집은 병원에서 10분쯤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야 하는 산기슭에 있었다. 집으로 갈라져 들어가는 오솔길의 바닥에는 반듯하고 큼직한 흰 돌들을 깔았는데 그 돌들사이로 풀들이 뾰족뾰족 돋아나서 마치 둥글둥글한 푸른 줄무늬가 찍혀진 흰 천을 펴놓은듯 하였다. 길 량옆에는 구기자생울타리가 허리높이로 뻗어나갔고 생울타리의 안쪽에는 키낮은 집함박꽃들이 줄지어있었다.

아름다운 붉은 꽃들이 활짝 핀 함박꽃의 검푸르게 번뜩이는 잎사귀들에는 뒤산의 솔숲에서 날아온 샛노란 소나무꽃가루가 금빛서리인듯 덮여있었다.

뒤산에는 밤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졌는데 드문드문 끼워있는 하얀 꽃이 만발한 아카시아나무들은 마치 흰구름송이들처럼 보이였다. 집뒤의 굉장히 큰 밤나무 한그루는 집과 가까이 붙어있어서 마가을이면 아가리를 쩍 벌린 밤송이들에서 떨어지는 밤알들이 마당에 선 집주인의 머리와 어깨를 때릴것만 같았다. 외따로 떨어져있는 아담한 문화주택은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돌배나무, 추리나무들과 포도넝쿨의 푸른 구름에 묻히워 지붕만이 겨우 보이였고 꽃향기는 진한 안개처럼 온 마당가에 어려있었다. 저멀리 흐르는듯 마는듯 번뜩이는 강줄기며 여기저기서 울려오는 수닭들의 기운찬 울음소리, 둥지를 트느라 여념이 없는 제비 한쌍이며 길게 뻗은 두 다리사이에 대가리를 파묻고 눈이 게슴츠레한 누렁개며가 도시에서는 전혀 느껴볼수 없는 독특한 정서를 자아냈다. 총총히 싸리바자를 엮은 터밭의 보라색꽃들이 활짝 피여난 감자와 앉은당콩과 강냉이들의 검푸른 잎새들만 보아도 풍성한 수확을 확고히 기대할수 있었다. 터밭의 한구석에는 꺼멓게 독이 오른 마늘들이 선채로 잠이라도 든듯 까딱 않고 서있었다. 창고앞 그늘진 곳에는 고추모가 담겨진 소랭이가 놓여있었는데 저녁때쯤 밭에 옮겨심으려는 모양이였다. 마당에서는 뒤뚱거리는 한가로운 토종닭들의 둘레에서 노란 솜털이 보르르한 병아리들이 해빛을 쪼아먹으며 쉬임없이 울어대고있었다. 집뒤로는 산, 산뿐이다.

한낮의 고요속에서 조는듯한 빈집의 마루에 앉아있노라니 볼편의 경직이 풀리면서 어느정도 마음이 가라앉는것이였다. 이런 산골의 처녀때문에 내가 물러선단말인가.

미애는 리상이 낮은 시동생이 가엾게까지 느껴졌다.

미애가 옆집에 물어보니 집주인은 아침 통근차로 읍에 갔고 딸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있다고 친절히 알려주었다.

개버들 우거진 개울가에 커다란 돌배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다. 그나무의 짙은 그늘이 던져진 곳에 비스듬히 누운 황소만큼이나 큼직하고 넙적한 바위가 박혀있었으며 그 바위굽을 감돌며 맑은 물이 주름을 잡고있었다.

그 바위우에 흰색의 수수한 샤쯔에 격자직치마를 입은 처녀가 앉

아 빨래를 하고있었다. 돌배나무의 그림자가 처녀의 잔등우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명랑하게 뛰놀고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흰 꽃송이우에 붙은 수많은 재빛나비들이 일제히 파들파들 떨고있는듯 했다.

미애는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망설이면서 잠시 서있었다.

커다란 비닐함지에다 둥글게 사려서 쌓아놓은 바위우의 빨래들을 차곡차곡 포개담고있던 명희는 인기척을 느끼고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명희는 두눈을 의심했다. 가벼운 웃음을 머금고 서있는 미애를 보았던것이다. 그 미소가 얼마나 다정한것이였던지 명희는 이 녀자가 준수의 부탁때문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되였다.

화려한 무대막이 가장물들을 설치하고있는 무대를 가리우듯 다정한 미소는 그의 복잡한 심정을 전혀 엿볼수 없게 해주었다. 줄타기에서 실수하여 땅에 곤두박혔을 때조차도 교예배우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활짝 피여있지 않는가.

명희는 몹시 반가왔다. 처녀는 오래전부터 이 녀자를 남으로 생각지 않고있었다. 언제인가는 형님이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혈육의 정 비슷한 느낌까지 들게 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가? 인차 함흥에서 만나겠는데 준수동무가 무슨 부탁을 했을것 같지는 않았다. 이번 편지에도 다른 말은 없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 녀자가 자기와 준수와의 문제때문에 왔을것이라는 짐작은 들었다.

《어떻게?!》

《일이 좀 있어서… 같이해요.》

미애는 손가방을 풀숲에 놓고 팔을 걷었다.

《다 했어요. 마침 들어가려던 참이였어요.》

빨래함지를 이고 그와 이말저말 나누며 걷는 명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무엇때문에 왔을가.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더 커지는 눈덩어리처럼 생각을 굴릴수록 불안해지는 심정이였다.

부엌을 거쳐 방안에 들어선 미애는 웃방을 건너다보고 깜짝 놀랐다. 웃방이래야 미닫이를 사이에 둔 그리 크지 않은 방인데 대

학의 화학실험실을 그대로 떠옮겨놓은듯 했다. 네칸으로 당반을 맨 앞벽에는 책들이 빼곡이 꽂혀있었다.
웃방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밤색 베클라이드판을 깐 커다란 책상우에는 붉고 푸른 시약병들과 각양각색의 유리그릇들 그리고 그 용도를 알수가 없는 실험기재들과 기구들이 꽉 차있었다.
한쪽에 놓여있는 책꽂이에는 《추출회수검토》, 《온도조건검토》, 《추출시간검토》… 등 실험과 련관되여있는듯한 수십권이나 되는 학습장들이 꽂혀있었다.
이것은 마루에 앉아있을 때에는 상상조차 해볼수 없었던 집안광경이였다. 아까 들어올 때 닭우리와 복숭아나무사이의 구석에서 반짝거리는 큼직한 유리쪼각무지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틀림없이 실험도중에 파손된 유리그릇따위를 모아놓은것일터인데 그것만 보아도 많은것을 짐작할수가 있었다.
이 산골에 이런 처녀가 있다니…
남편에게서 시동생과 이 처녀가 공동으로 어떤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들은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집에까지 굉장한 연구실을 차려놓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던것이다.
웃방을 둘러보면서 미애는 처녀가 어떤 사람이며 요즈음 어떻게 살아가고있겠는가를 순간에 깨닫게 되였다.
그런데 되기나 할걸 가지고 그러는가?…
미애의 머리속에 외국과학잡지들에서 본 사진들이 떠올랐다. 깨알같은 사람들이 수백메터마다 하나씩 널리고 끝이 보이지 않게 아득한 무인화된 비행기조립흐름선, 우유빛고층건물들이 록음속에 탑처럼 솟은 연구소들…
이 산골에서 그들과 경쟁을 한단말인가? 시집이나 갈게지.
이런 말이 혀끝까지 감돌았으나 미애의 첫마디는 감탄이였다.
《무슨 연구를 한다더니… 아이참, 대단하군요.》
명희의 눈앞에 이 녀자의 집이 대조적으로 떠올랐다. 속으로 날 이상한 녀자라고 생각하겠지. 명희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 녀자에게는 이 녀자대로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저 좀.》

명희는 어줍게 얼버무리며 서둘러 미닫이를 닫고 방석을 권했다. 미애는 앞치마를 두르는 명희를 한사코 만류했다. 인차 가야 한다는것이였다.

명희는 그의 태도에서 그저 페를 끼치는것이 송구스러워 그러는것과는 무엇인가 질적으로 다른 완강함과 단호함을 느끼고 마음이 절로 싸늘하게 식어들며 가슴에 불안이 꽉 차오르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무슨 일로 왔기에 식사도 한끼 나누지 않고 가겠다는것인가.

《아버진 어데 갔어요?》

《읍에 갔는데 인차 오실거예요.》

《마침이군요. 이런 문젤 아버지앞에서 이야기할수도 없는게구.》

《?!》

명희는 바싹 긴장하여 미애의 얼굴만 주시했다.

미애는 눈길을 내리깔았다.

《우리 시동생이 무슨 말을 안하던가요?》

명희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미애는 이 처녀가 아무것도 모르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이 선뜻 말머리를 떼지 못하고 바재이던 미애에게 용기를 주었다. 몇달동안 머리속에서 무르익힐대로 무르익혀진 말마디들이 차굴을 벗어나는 렬차처럼 미애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나왔다.

《참, 난 이번에 정말 어려운 걸음을 했어요. 이렇게는 만나고싶지 않았는데 운명의 장난이란 참. 다른게 아니고 우리 부부가 인차 외국에 가게 됐어요.》

피끗 바라보니 처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부러움도 없었다. 다만 의문만이 두눈에 짙게 어려있었다.

《우리도 모르게 상급에서 취한 조치여서 처음엔 놀랐어요. 그후 곰곰히 생각해보니 마침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리유는 좀 심중한것이랍니다. 이번 일을 속죄의 기회로 리용할 생각이 떠올랐던거예요. 전 늘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여 마음이 무겁고 시동생들이나 남편앞에서

머리를 못들고 산답니다. 맏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나를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나로서도 안타깝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함흥으로 모셔오자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을 들어야지요. 집이 좁기나 하다면 또 모르겠는데… 동무는 아직은 내 말을 다는 리해하지 못할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사이는 참 미묘하답니다.

당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복잡한 관계의 만분지 일도 알수 없어요.

어쨌든 그건 다 한갖 구실인게고.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되면 집이 나겠지요. 그러면 시동생과 시어머니를 함흥으로 데려내올수 있잖겠어요. 우리 시어머닌 막내아들을 몹시 사랑한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닌 늘 이렇게 외웠대요. 난 이담에 막내하고 살겠다고말이예요. 또 시동생도 어머닐 무척 따르지요. 저의 남편이란 사람은 원체가 무뚝뚝해놔서 참 야단이예요. 어머니도 맏이라면 머리를 흔드니까요. 그러니 이번에 어머님의 평생소원을 풀어들릴수 있겠지요. 내가 기뻐하는건 이때문이예요.

시동생의 재능도 아쉬워요. 그저 책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산골에 묻혀있으니 어디 됐어요. 그래서 함흥으로 데려내다가 어디 연구소같은데 넣자는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시동생이 지금 하고있다는 연구를 위해서도 아주 유리하지요.》

미애는 준수의 이야기가 나올 때 명희의 눈동자속에서 한점의 불꽃이 확 타올랐다가 서서히 스러지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순정의 불꽃이였다. 그것이 어찌도 깨끗하고 열렬한것이였던지 미애는 저도모르게 머리를 숙여버렸다. 그리고는 그채로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물과 사람은 곬을 터주기에 따른거지요. 기회는 참 안성맞춤이예요. 억철이 아버지한테 제 의향을 비쳤더니 자기도 이미 그렇게 결심했다는거지요. 그래서 억철이 아버지가 시동생을 만났지요. 자, 여사여사하니 빨리 결혼하자. 그런데 시동생이 하는 말이 자게에게는 대상자가 이미 있다는거지요. 그럼 빨리 결혼식을 하고 그 처녈 함흥으로 데려내오자. 그랬더니 시동생말이 그 동문

아버지때문에 함흥으로 올수 없다는거지요. 참, 일이 이렇게두 딱하게 꼬인다구야. 결국 시동생이 데릴사위노릇을 해야 한다는거지요. 만일 데려온다고 해도 어떻게 두 사돈이 한집에서 살겠어요. 그렇게야 할수 없지요. 동무들사이엔 이미 약속이 있은 모양인데 시동생은 이 문제로 막 고민하고있어요. 어머니냐 처녀냐 연구소냐 산골병원이냐.—문제가 심각하지요. 동무도 알겠지만 우리 시동생은 마음이 참 비단결같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동생생각을 하면 잠이 다 안온답니다. 난 시동생의 그 심정을 충분히 리해해요. 시동생은 끝내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 동무한테로 올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 시동생은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저 늙은 어머니가 불쌍하지요. 요즘 둘째네 집에서도 말썽이 생긴 모양이예요. 어머니가 무척 속을 썩이고있지요. 절망에 빠진 어머닌 모든 기대를 막내에게 걸고있답니다. 나와 한창 사이가 나쁠 땐 모르겠더니 지금은 막 동정이 가는군요. 그 산골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어머니생각을 하면 눈물이 다 난답니다.》

미애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 손수건으로 천천히 눈굽을 찍었다. 그것은 뜻밖에 저절로 흘러나온것이였다.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 모양이지. 자기 감정상태란 이런 경우를 말하는게로구나. 피뜩 이런 생각이 미애의 머리를 스쳤다.

시어머니에 대하여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심심한 동정을 체험하면서 미애는 목소리까지 갈려버렸다. 어조도 자못 격조를 띠였다.

《자식은 길러서 뭘 해요. 다 필요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에게 가있고 아들의 마음은 처녀에게 가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늙음이란 제홀로 오는게 아니더군요. 꼭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데리고오지요. 맏이와 이미 멀어지고 둘째네에게서도 랭대를 받고 이젠 막내에게 마지막기대를 걸고있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참, 우리 시어머닌 팔자도 왜 그리 기구한지. 시동생은 그 모든걸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고통을 참아나가며 동무를 변함없이 사랑할거예요.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동생이 이 산골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설사 무엇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애로가 많

겠어요. 또 어머닌 막내에 대하여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일생 원한을 품게 될거예요. 시동생의 마음에도 어머니의 원한이 아픈 상처로 남을게고… 왜 건물의 기초처럼 이번 일에선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의 불행이 필요할가요? 절대 오해는 마세요. 솔직한 말로 우리 부부는 떠나면 다랍니다. 10년 있다 올지 20년 있다 올지 그건 누구도 모르지요. 어머니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시동생의 재능이 묻히우는게 참말 아쉬워서 그러는거예요… 동무에게 무엇을 설복하자고 온것은 아니예요. 사랑이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게고 막아도 안되는거지요. 행복이란 누가 선물하는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필사적으로 쟁취해야 하는거예요. 모든건 동무의 결심에 달렸지요. 그렇지만 사랑도, 행복도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가요. 량심과 의리에 기초할 때만이 그 모든것이 진정 아름다운것으로 되지 않을가요. 내가 할 말은 이게 다예요.

내가 여기로 온줄은 누구도 모른답니다. 한가지 부탁은 내가 왔었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달라는거예요. 시동생이 알면 쓸데없는 간섭이라 노엽게 생각할수 있지요. 내자신도 뭣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리적인 도구, 례들어 망치같은것으로 뇌수나 심장을 직접 타격하기는 어렵다. 그것들은 두개골이나 흉곽이라는 《천연의 성새》속에 보호되여있다. 그러나 언어의 타격앞에 《천연의 성새》는 전혀 무력하다. 에네르기적견지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미미한 공기의 파동에 지나지 않는 음성화된 언어가 심장이나 뇌에 얼마나 강한 타격을 가할수 있는가. 그것이 정확히 타산된 적중한 말마디들일 때 그 효과는 놀라운것이다. 이런 분야에서 미애의 재능은 실로 비상한것이였다.

대학때의 성적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랴. 사람의 재능은 일정한 분야에 국한된것이다.

명희는 미애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공동연구에 착수한이래 명희는 정순에게 외국어편지를 점차로 동안이 뜨게 써보내다가 종당에는 미처 거기에까지 관심을 돌릴 여유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시간이 없은데도 있었지만 그때쯤에 이르러 그 언어를 자유자재로 활

용할수 있는 수준에 이른 때문이기도 했다. 정순은 명희로부터 편지가 없는 리유를 정확히 리해했고 처녀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하여 정순과 명희사이에 직접적인 교감의 다리로 되고있던 편지거래는 끊어졌다. 그것이 그 집에서 가정불화가 생겨 정순과 준수가 고민에 빠져있다는 미애의 말을 명희가 쉽게 믿을수 있게 한 하나의 요인으로 되였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처럼 남을 생각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쉽게 믿는 법이다. 그것은 물론 약점이겠지만 쉽게 속아넘어간다는 바로 거기에 명희의 사람됨의 한 측면이 있는것이다.

미애의 말을 들으면서 명희가 체험한 심리는 너무나도 뒤엉킨것이여서 한두마디로 이렇다 하게 정의할수 없는것이였다. 처음에는 그 녀자의 이야기가 하나의 쇠사슬로 변하여 차츰 뻗어나가는듯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다. 명희의 불안이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얼마 지나서부터 그 사슬은 명희의 심장을 얼기설기 둘러싸더니 점차 악착스레 조여드는것이였다. 그때부터 처녀는 아득한 높이의 벼랑에서 날아떨어지는 사람과 같이 모든 감각기는 초긴장상태에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공백인 그런 모순된 상태에 놓여있었다. 명확히 의식되는 감각은 세가지였다. 그것은 심장을 비트는듯한 모진 아픔, 어지럼증 그리고 무릎사이에 끼워놓은 두손에서 저릿저릿 퍼져오르는 전류와도 같은 전률이였다. 머리는 터져나갈듯 무엇으로 꽉 차오르는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급속히 빨려나가 텅 빈 진공상태로 되는것 같기도 하였다.

미애는 세운 한쪽 무릎을 치마로 감싸고 그 우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숙인채 말을 해나갔다. 그로서도 차마 처녀의 눈을 마주보기가 두려웠던것이다. 이야기를 마치고 처녀의 얼굴에 얼핏 눈길을 돌린 미애는 더럭 겁이 났다.

처녀의 얼굴은 백지처럼 하얘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차겁게 내돋아있었다. 두눈은 멍하니 초점을 잃었고 약간 벌려진 입술은 차디찬 물속에서 건져낸 사람의것처럼 새파랗게 죽어있었다.

《아니, 왜 그래요? 몸이 편치 않아요?》

처녀는 어디서 나는 말소리인지 가늠해보려는듯 걷혀오르는 무대막처럼 천천히 눈길을 들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모진 아픔이 실렸는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섬찍하게 했다.

《좀 누워요.》

미애가 베개를 가지러 일어서려고 하자 처녀는 그제서야 약간 정신이 드는듯 왼손을 들어 만류했다. 자기의 심중을 잠시나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보인것이 스스로도 못마땅한지 쓰거운 웃음에 처녀의 입가가 알릴듯말듯 찌프려졌다. 처녀는 인차 자기자신을 수습하고 침착한 태도를 지었다.

《괜찮아요. 말씀의 뜻을 잘 알았어요.》

미애가 예상했던 그 많은것중에서 처녀는 가장 품위있고 고상한 태도를 취했다.

미애는 녀성특유의 예민한 감각으로 이 처녀가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고있는가를 깨달았다. 이런 사랑은 흔치 않다. 바로 그런 사랑이기때문에 처녀는 애인에게 울며불며 매달리지도 않을것이다.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미애의 위구는 어느정도 가벼워졌다. 시동생의 완강한 반대가 무엇때문인지도 이제와서는 어렴풋이나마 리해가 되였다. 과연 처녀에게는 매혹될만한 용모와 함께 고상한 인품이 있었다. 미애의 머리속에 내가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자책이 갈마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찌할수가 없었다. 명절날이면 함흥의 중심거리들은 사람들의 흐름으로 꽉 찬다. 그속에 끼이면 앞사람보다 더 빨리 걸을수도, 뒤사람보다 더 천천히 걸을수도 없다.

그것은 마치 물우에 뜬 가랑잎이 물결보다 더 빨리 혹은 더 뜨게 흘러갈수 없는것과도 같았다.

미애는 지금 자기가 그런 경우에 처하였다는것을 알았다. 물목은 이미 터졌다. 미애는 자기를 떠밀고나가는 불가항력의 힘을 느꼈다. 어쨌든 일을 성사시키고 볼 판이다. 그 다음에야 될대로 되라지. 일단 발걸음을 내짚은 이상 끝까지 나가보자.

명희는 가겠다는 미애를 구태여 붙잡지 않았다.

가까스로 문밖까지 바래고난 명희는 침대에 쓰러지고말았다. 침

대가 화들짝 놀라나며 몸부림을 쳤고 용수철들이 드르릉－하고 떠는, 동굴속의 메아리와도 같은 웅글은 소리가 긴 여운을 끌며 울렸다. 그 소리는 깊이를 알수 없는 천길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는듯한 고통스러운 환각에 실감을 주며 불길하게 들리였다. 악몽과도 비슷한 그 괴로운 환각에서마저 깨여나고싶지 않았다.

갑자기 귀가에 울리는 차거운 말마디가 혼몽세계로 끝없이 날아떨어지고있는 명희를 멈춰세워 현실로 끌어내였다.

《어머니냐 처녀냐 연구소냐 산골병원이냐—문제가 심각하지요.》

명희는 신음소리를 지르며 피가 나도록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모진 아픔이 심장을 비틀었다.

명희의 눈앞에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도 연구사업에만 전심전력하고있는 준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편지들에는 주저와 동요의 그림자조차 없지 않았는가. 준수의 새로운 인간적인 면모를 깨달은 심정이였다. 동시에 그와 련결된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들이 영화화면들처럼 련이어 지나갔다. 래일에 대한 절망이 검은 절벽처럼 앞을 막어선 지금 아름다운 옛말과도 같은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은 더욱 절절히 가슴에 사무쳐왔다.

아름답고 즐거웠던 그만큼 그 추억들이 지금은 미여지는듯한 상실의 아픔을 안겨주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처녀는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꾸고있었던가. 그런데 그 꿈은 무서운 폭풍우속의 난파선처럼 산산이 부서져버린것이다.

설음이 터져올랐다.

명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베개잇을 짓씹으며 흐느낌을 심키려 애썼다. 참으면 참을수록 그것은 가슴속에서 더욱 크게 자라올랐다.

명희는 마침내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다.

명희는 준수외에 그 어떤 다른 남자를 사랑할수 있다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바로 사랑하기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어머니쪽으로, 연구소쪽으로 떠밀어 보내리라. 그리고 나는 홀로 사랑없는 일생을 보내

리라, 사랑없는 일생을 보내리라—

다지고 또 다지는 아픔과 슬픔의 맹세가 눈물로 되여 베개잇을 적시고 또 적셨다…

준수의 눈에 비쳐진 자기의 모습에 단 한점의 티도 없기를 바라는 처녀의 마음이 그처럼 순결한것이 아니였더라면 일은 달리 되였을지도 모른다.

대체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생활에서 잃는것이 많을지언정 그 대가로 인간적인 긍지를 크게 산다. 작은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솔하다고까지 할수 있는 그런 단호한 태도로 하여 많은것을 잃을 때도 있다. 지금 명희는 그 긍지를 위하여 너무나도 큰것을 잃고있었다.

통근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장범의 마음은 날아갈듯 하였다. 그의 시집이 출판되였던것이다. 아직 눅눅하고 인쇄잉크냄새까지 풍기는 시집을 받아쥐는 순간 장범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환희로 고동쳤다. 한생의 피타는 노력이 이 한권의 책에 응축되여있는것이다. 이 책은 이 세상에 남기게 될 그의 이름이였고 심장이였고 넋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조심히 어루쓸었다. 툭툭 치기라도 하면 책의 갈피갈피에서 짚신과 운동화, 군화를 신고서 다음에는 지팽이를 짚고 밟고 또 밟은 조국땅 곳곳의 아름다운 산촌풍경과 거기에서 알게 된 수많은 잊을수 없는 사람들이 마구 쏟아져나올것만 같았다. 또 한번 치면 고향들판의 봄종다리소리도, 불타는 고지의 폭음과 폭연도, 건설장들의 호각소리와 혼합기소리도, 깊은 밤 명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볼 때 아우성치던 눈보라소리도, 당의 은덕으로 휴양을 갔던 바다가의 절벽을 치던 파도소리도 쏟아져나올것만 같았다. 아니, 벌써 쏟아져나온 그 모든것들이 강물이 되여 장범을 떠싣고 집으로, 집으로 흘러가고있었다.

장범은 행복했다. 목소리도 변변치 못한 자기를 당의 가수로 키워준 따사로운 품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으로 하여 그는 눈굽이 저려들었다. 위대한 어머니당이여, 이 아들은 영원히 그대만을 따르

오리다!

문득 해방후 어느 겨울날 읍거리확성기로 자기의 첫 작품을 듣고 흥분에 싸여 집으로 돌아가던 일이 어제런듯 생생히 떠올랐다.

명희가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가. 시집을 받아쥐고 티없이 밝게 웃는 딸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 하였었다. 《아버지, 축하해요. 오늘은 제가 한상 차리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부엌에 내려서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었다.

그는 명희를 남달리 사랑했다. 온 집안에 가정적인 향기를 가득히 채우는 한떨기 아름다운 꽃이여서만이 아니였다. 언제 어디서나 당과 운명을 같이할수 있는 풍부한 감정과 높은 지성을 가진 참된 인간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기대와 믿음때문이였다. 자기가 하려다 못한 《ㅈ》약물연구를 기어이 해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며 아글타글 애쓰고있는 딸이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딸은 참으로 훌륭한 청년과 사랑을 나누며 아름답게 꽃피우고있었다. 그는 준수라는 청년과 자기 딸이 공동으로 진행하고있는 연구사업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였다. 딸이 그 연구를 하게 된것은 나의 부탁때문이다치고 그 젊은이를 거기에로 떠밀어준것은 무엇인가? 혹시 공명심은 아닌가? 아니였다. 결코 아니였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우리 당이 키워낸 새 세대지식인들의 당과 혁명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감의 자각이였다. 그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은 얼마나 열렬한것이며 그들의 희망과 꿈, 행복에 대한 지향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장범은 이러한 인간들을 키워낸 위대한 우리 당에 다시한번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렸다.

장범에게는 그 청년이 마치 자기의 마음속까지 헤아리고 그 연구에 착수한것만 같았다. 그들을 돕는것은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공민으로서 자기의 의무라는것을 그는 자각하고있었다.

다른 측면에서도 장범은 그 젊은이와 그의 가정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있었다. 여기로 오겠다고 했다는 젊은이의 말이

몹시도 가슴을 울렸던것이다. 딸의 나이가 차갈수록 어차피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있었으나 솔직한 말로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명희를 보내고 빈집에 홀로 있을 생각을 할때면 외로움이 가슴가득 차오르군 했었다. 그러던중 젊은이의 말을 듣고보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마왔다.

한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친혈육의 정으로 돌보아주었다. 그들모두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장범은 속다짐했다. 장범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선물하려고 시집을 수십권 싸들고온다. 그중 한권은 준수의 몫이였다.

집마당에 들어서니 섬돌아래 길게 누워 기운없이 졸고있던 누렁이가 꼬리를 치며 반기였다. 《명희야!》 하고 소리쳐 부르려던 장범은 퇴마루에 놓인 낯선 연보라빛 고급구두를 보고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바람한점없는 고요속에서 방안의 말소리는 열려진 창문을 넘어 장범의 귀에까지 똑똑히 들려왔다. 장범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

그 손님이 누구이며 무엇때문에 찾아왔는가를 리해한 순간 장범의 가슴은 저며내는듯이 아팠다. 나때문에 벌어진 일이로구나!

장범은 개울가로 발걸음을 돌렸다. 명희가 빨래를 하군 하는 부근의 돌배나무밑 풀밭에 누워버린 장범은 다시금 좀전의 일들을 떠올려보고나서 괴로움에 저도모르게 눈을 감았다. 위를 앓는 때부터 장범은 좀처럼 맨땅에 눕는 법이 없었다. 몸을 차게 하면 병이 도진다는것을 느꼈기때문이다.

지금은 그런것을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

뭇매를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땅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배속에 들어있는 칼이 위를 쑤시며 밖으로 솟아오르는 악몽에 장범은 악— 소리를 치며 정신을 차렸다. 꿈에서 깨여보니 정말로 배가 아팠다. 심한 배아픔에 장범은 허리를 새우처럼 구부렸다. 꿈에서 본 환각이 불길하게 되새겨졌다. 위수술후에도 장범은 이런 고통을 수없이 겪어왔지만 이번은 어딘지모르게 징조가 나빴다.

이때에야 비로소 이렇게 차고 습한데 누워있으면 안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까딱 몸을 움직일 기운이 없었다. 배아픔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장범은 다시 혼몽한 망각상태에 빠져들었다. …

다시한번 엄습하는 지독한 배아픔에 정신을 차려보니 저녁이였다. 명희는 지금 울고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준수가 여기로 오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물론 고맙게는 생각했지만 또 명희와 헤여진다는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허전해지는것도 사실이였지만 그런 사사로운 감정때문에 딸의 앞길을 막아서거나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바랄 장범이 아니였다. 다만 장범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은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게 된 딸의 가긍한 처지였다.

장범은 아무것도 모르는체 흔연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저녁상을 차리는 딸의 안색은 밝았다. 차리리 울기라도 했으면…

그날밤 웃방에서는 날마다 하루도 번짐이 없이 밤새껏 그치지를 않던 책장번지는 소리, 액체를 쏟아붓는 소리, 유리그릇 부딪치는 소리가 일체 들려오지 않았다. 생의 활력과 보람, 앞날에 대한 희망이 불꽃처럼 튕겨올라 온밤 아름다운 별무리처럼 반짝이군 하던 웃방에 싸늘하고 괴괴한 정적만이 검은 안개처럼 서려있었다. 딸애는 지금 웃방의 침대에서 모포깃을 짓씹으며 흐느낌을 참고있겠지…

장범은 가슴이 아팠다.

그날로부터 등교를 떠나기까지 근 열흘동안 명희는 얼빠진 사람처럼 멍청히 지내며 《ス－12》에는 거의나 손을 대지 못하고있었다.

다만 참혹한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에게 숨기려고 명랑하고 쾌활한체 해보이려고 애쓰고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장범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충고를 해주려고도 해보았으나 그러면 모든것을 이미 알고있다는것이 드러날가봐 그리고 그것이 딸애에게 모욕감을 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며 더 혹심한 절망과 고통속에 몰아넣게 될가봐 마음이 씌여 그러지도 못하고있었다.

생각을 굴리고 또 굴려보던 장범은 드디여 준수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고 펜을 들었다.

다음날 그는 시집과 편지를 등기로 부쳤다.

그것은 준수가 통신등교를 위하여 함흥으로 출발한 다음날에야 병원에 전달되였다.

장범은 통신등교를 위하여 대학으로 떠나는 명희를 바래주러 역에 나가면서도 편지와 시집에 대해서는 아무말로 하지 않았다. 미애가 왔다간 이후부터 장범은 위아픔으로 모진 고통속에 있었지만 가뜩이나 얼굴이 해쓱해다니는 딸에게 내색을 하지 않았다. 기차가 떠나간 다음 장범은 집에 돌아와 집일을 명희네 병원의 약국장네에게 부탁하고서는 곧장 군인민병원으로 향했다.

2

통신등교를 위하여 함흥에 도착한 준수는 맏형네집에 들렸다가 즉시 대학으로 향했다.

이제 대학에 가면 명희를 만나게 된다는 기쁨에 그의 가슴은 몹시도 두근거렸고 온몸은 날아갈듯이 가벼웠다.

이번에 떠나올 때 어머니는 이렇게 당부했다.

《이번 등교가 끝나면 명희네 집에 들리거라. 아버지가 승인하면 명희와 함께 오도록 해라. 언제부터 내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 종시 짬을 못내겠구나.》

둘째형수도 덧붙였다.

《삼촌, 한번 데리고오세요. 나도 한번 보고싶군요.》

할머니에 의해 목욕물통에 몰리워들어간 손자애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야, 좋다!》 하고 환성을 지르며 물장구를 쳐대는 바람에 온 집안에 웃음이 터지고 준수는 어머니앞에 절을 하는 명희의 모습을 그려보며 미소를 지었었다.

버드나무가로수들의 우듬지우로 약학대학의 청사들이 바라보

였다. 반가왔다. 손을 흔들며 《그동안 잘 있었니?》 하고 소리라도 치고싶을 정도로 반가왔다.

준수는 통신교무과에 들어가 도착보고를 하고 나오던 길에 1층복도에서 학급의 녀동무 두명을 만나 명희가 지금 호실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순간 속이 후두둑 떨리였다. 준수를 커다란 구리종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그 종을 때린 망치였다.

《뗑—》 종은 들을수 없는 소리를 내며 전률하였다. 박사원생들과 연구원생들이 들어있는 2층을 지나 3층에 올라섰다. 량끝에 있는 창문으로 해빛이 들어오고있었지만 하도 길다보니 복도는 좀 어두웠다. 두 녀동무는 함께 들어가지고 팔소매를 잡았으나 녀자호실에 선뜻 들어가게 되지 않았다.

채 닫지 않은 문은 반쯤 열려져있었다. 방금 들어간 녀동무들이 명희에게 롱담을 하는것 같았다. 조용하던 방안이 금시 떠들썩해졌다. 그속에서 《누가?!》 하는 맑으면서도 놀란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수는 문가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서있었던것만큼 또 여럿이 떠드는속에 묻혀버리다싶이한 약한 목소리였던것만큼 다른 사람이라면 결코 가려듣지 못했을 그 소리를 분명 들었다. 구리종은 다시 한번 전률하였다. 그것이 진짜 종이였다면 온 대학이 그 소리를 들었을것이다. 설사 누가 준수의 귀에다 대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고 해도 그 약한 소리의 천분의 일의 효과도 내지 못했을것이다.

얼마후 명희가 나왔다. 처녀는 굵직한 붉은 줄과 검은 줄이 엇바뀐 뜨개옷을 입고있었는데 방금 뜬 김 자욱한 부엌에서 나오는듯 퍼그나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였다. 복도의 한끝에서 비쳐오는 해빛이 처녀의 몸매를 판화에서처럼 또렷이 새겨내였다.

준수는 소곳이 인사하는 명희에게 자기것 같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 도착했습니까?》

《어제 왔습니다.》

잠시동안 가슴이 찌르르 저려드는듯한 침묵이 흘렀다.

준수가 침묵을 깨뜨렸다.
《좀 나갔다 옵시다.》
《어델요?》
《기초의학연구소에요.》
《…》
명희는 연구소라는 말에 가슴이 떨렸다. 거기엔 무엇때문에 가자고 할가. 《…연구소냐 산골병원이냐—문제가 심각하지요.》 이 말이 명희의 귀가에 다시금 울렸다.
명희의 기분을 눈치채지 못한 준수는 제먼저 돌아서 밖으로 나왔다.
기숙사마당의 오른쪽 측면에는 대학도서관이 솟아있고 왼쪽 측면에는 두그루의 오동나무가 짙은 그늘을 던지며 서있었다. 그 그늘밑에 서서 기다리며 아무리 되새겨보아도 방금 만났던 명희의 얼굴모습이 어떠했던지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비록 처녀가 빛을 등지고 서있긴 했지만 복도가 그렇게 어두웠던것도 아니였다. 문득 자기가 명희의 어깨나 목이상으로 눈길을 들지 못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내가 명희를 두려워하누나…
준수는 웃으면서 주먹으로 오동나무줄기를 몇번 쳤다.
현관을 나선 명희는 손채양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것이였다. 그 모습은 4년전 시험장을 나서던 모습과 신통히도 같았다. 사방을 둘러보던 명희는 준수에게로 곧추 다가왔다. 롱담으로 처녀를 맞으려던 준수는 그것이 이자리에 어울릴것 같지 않은 감촉을 느꼈다. 너무 오래간만에 만난 때문인지, 아니면 명희가 너무 어른스럽게 느껴진 때문인지…
명희는 많이 달라졌다.
특히 눈이 그러했는데 거기에는 가을날의 아침호수처럼 서늘하고 고요한 기운이 어려있었다.
그들은 말없는 가운데 강당을 지났다. 대학정문도 벗어났다.
사람들은 말없는 속에서 더 깊이 리해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 준수와 명희사이의 침묵은 그렇지 않았다.

준수의 침묵은 명희에게 바치는 아름답고 열렬한 사랑의 증거였다.

어떤 말로써도 자기의 심중을 다 나타낼수 없다는 바로 그때문에 준수는 침묵하고있었다. 그저 이렇게 묵묵히 걷는것이 좋았다. 그는 명희도 자기와 같은 심정이리라고만 여기고있었다.

그러나 명희의 심정은 괴롭고 슬픈것이였다.

대체로 불치의 병을 선고받은 환자는 말없이 고뇌속에 잠겨든다.

그 역시 준수의 침묵을 제나름대로 짐작하고 가슴이 미여지는듯했다.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침묵이 두사람사이를 동시에 지배하며 흐르고있었다. 그것은 한쪽은 낮이고 반대쪽은 밤인 지구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컴컴한 우주공간을 미끄러져가고있는것과도 흡사하였다.

《이것이 제가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공업대학앞에 이르렀을 때 명희가 두툼한 책 두권을 내밀었다.

준수는 걸으면서 가방에 그 책들을 받아넣었다.

《고맙소. 인차 토론해봅시다.》

《그런데 기초의학연구소에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실험을 한건 의뢰하자고 합니다.》

《어떤 실험인데요?》

《난 그전부터 A약물의 방사선피해방지작용이 모핵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시안기에 의한것인지 검토해보려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안화염들의 독성때문에 주저하고있었지요. 보름전에 인민대학습당에 갔다가 실험용동물에 X선의 치사량을 쪼여주기직전에 시안화나트리움 0.1미리그람을 복강내에 주사하여 80프로의 생존률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읽었습니다. 흥미있지요? 그 동물은 견디여냈거든요.

나는 한걸음 더 나가보자는것입니다. 실험용동물을 20마리씩 4개조로 묶어 각각 A약물, 우리가 연구하고있는 《ㅈ－12》약물, 《ㅈ－12》약물의 시안화물, 증류수를 주사한 다음 X선을 쪼여보자는겁니다. 과연 생존률이 어떻게 나타나겠는지…》

명희가 머리를 기웃거렸다.

《A약물의 모핵과 〈ス－12〉약물의 모핵은 엄격히 따진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준수는 열이 올랐다.

《구조류사작용이라는것도 있지요. 동일한 성적이 나온다면 구태여 모핵의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을겁니다.》

건늠길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통보안원의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었다.

준수는 은행나무의 가지를 휘여당기며 길쪽을 바라보고있었다.

명희는 준수의 옆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불현듯 4년전 여름 그들이 처음 알게 된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들은 여기서 신호를 기다렸던것이다. 불행이란 즉시에 느껴지게 되는것이지만 행복이란 지나간 후에야 뚜렷하게 의식되는 법이다.

그때의 자기가 행복에 겨운 천진스러운 어린애였다면 지금의 자기는 인생의 고뇌와 시름에 겨운 어른이 되여버린것이다. 그렇다, 그 무지개같던 시절과는 영영 리별이다. 다만 변함없는것은 준수에 대한 감정뿐이였다. 그 감정이 그때는 그토록 명희를 즐겁고 행복하게 했고 지금엔 미여지는듯한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고있는것이다.

준수동무와 정녕 헤여져야 한단 말인가. 조금도 내색은 하지 않고있지만 지금 그의 심정도 얼마나 복잡할가. 내가 모든것을 알고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모를것이다.

준수가 문득 나무가지를 놓아버리면서 말했다.

《명희동무, 난 이번 등교가 끝나면 아버지를 만날가 하오. 우리들의 사이를 이야기하고 정식으로 승낙을 받아야겠소.》

나무가지도 응당 그래야 한다는듯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있다.

명희는 눈물이 핑 도는것을 느끼고 얼른 입술을 감쳐물었다. 무엇인가 차거운것이 사르르 녹아버린다. 단지에서 진득진득하게 굳어진 소기름을 한숟갈 듬뿍 떠내여 화끈 단 지짐판에 떨어뜨려보면 즉시 소리도 없이 이리저리 미끄러져다니면서 점점 키가 낮아진다. 어딘가 지짐판속으로 스며들어갈 구멍이라도 없나 찾는듯이.

명희는 얼어있던 자기의 심장이 스르르 녹으면서 끊임없이 미끄러져달리는것만 같았다. 무엇때문일가?

순간 명희는 자기가 준수의 이 말을 은근히 바라오고있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것은 무엇인가?

처녀는 수치감에 질렸다. 아니다,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애인의 면전에서 나의 도덕성이 여지없이 떨어져버리는것이다.

명희는 용기를 냈다.

《아버진 지금 집에 없습니다.》

기껏 나온 말이 이것이다. 명희는 아래를 굽어보며 공포에 질려있는 자신을 느꼈다. 리성은 몇번이고 뛰여내릴것을 명령하고있지만 알수 없는 힘이 그를 절벽에 억척같이 붙잡고있는것이다.

《어데 가셨소?》

《예.》

《언제 돌아오시오?》

《그건 모릅니다.》

《그럼 후에라도 가겠소. 어쨌든 인차 아버지를 만나야겠소.》

준수는 어머니의 당부를 상기하고 특별한 의미없이 한 말이였지만 명희는 가슴이 쿡 찔리우는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슬아슬한 순간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아직도 그 알지 못할 힘이 입을 막는다. 내가 왜 이러는가? 어떤데 희망을 걸고있는가? 동정을 바라는가? 그런 동정은 어느때인가에 가서는 후회와 경멸로 바뀌울지도 모른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는 순간 명희의 온몸에 소름이 끼쳐졌다. 지금이다. 순결한 영생을 위해 나의 사랑은 지금 죽어야 한다. 나는 그와 영원히 헤여져야 한다.

《준수동무, 아무래도 우린 서로 동무로만 지내야 할가 보군요.》

《?!》

준수는 갑자기 꿈속에 빠져든듯한 느낌이였다.

명희가 아득한 멀리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고있는것 같

았다. 무슨 말을 하는것일가? 명희의 모습도 또렷하기는 했지만 마치 망원경으로 바라보고있는듯이 끝없이 작게만 느껴졌다.

《전 이번에 약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어찌나 고집하시는지 끝내 우겨낼수가 없더군요.》

《?!》

준수는 첫순간 이 말의 의미를 리해할수 없었다. 숨막히는 몇초가 흘렀다. 심장이 꽉 조여든다. 그것이 사태의 참혹함을 먼저 알아차린 모양이다. 금시 온몸에 랭기가 뻗친다. 무슨 꿈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을 비벼보기까지 했다. 머리는 아직도 얻어맞은 뒤처럼 띵 하였다.

약간 고개를 숙이고 눈길을 내리깔았던 처녀가 머리를 들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두눈과 바르르 떨리는 코날개, 설음에 일그러져버린채로 파들파들 경련하는 입술,… 순간 그가운데로 무엇인가가 회오리쳐 지나갔다.

준수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절망과 아픔에 몸부림치는 넋이였다.

공기란 볼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름높이까지 돌멩이를 말아올리는 둥근 기둥을 이루며 미쳐날뛸 때 누구나 그것을 볼수 있는것이다.

준수는 공포에 온몸이 졸아드는듯 하였다. 준수는 처녀의 말보다도 그의 참혹한 표정에서 어떤 비상하고도 파멸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였다. 처녀의 넋의 회오리를 보지 못했더라면 준수는 보다 침착했을런지도 모른다. 처녀의 표정에는 준수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아버지가?! 나와 토론도 없이?!》

준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장 아버지를 만나겠소.》

명희는 더럭 겁이 났다.

《이젠 이미 늦었어요. 모든것이 늦었어요. 준수동무, 절 용서하세요. 그러나 전 동무의 연구를 마지막까지 돕겠어요. 일생을 바쳐 돕겠어요. 이것만은 약속해요.》

준수는 군대때 젖은 손이 고압이 흐르는 철조망을 다친적이 있다. 내리치는 함마에 맞아 손가락이 전부 짓이겨지는것 같은 아픔이 손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피뢰침을 따라 달리는 번개와도 같이 팔을 따라 달리다가 어깨부위에서 밤알만한 살점을 뜯어내며 밖으로 튀여나갔다.

그때와 비슷한 일이 지금 준수에게서 일어나고있었다. 명희의 이 말은 준수를 순간에 감전시켰다. 휘두르는 함마에 머리를 얻어맞은것만 같았다. 무수한 별찌가 소나기의 줄기들처럼 그의 눈앞에 어지러운 점선을 그렸다. 머리에서 발생한 충격은 번개처럼 그의 목과 어깨를 지나 손끝으로 줄달음쳤다. 그것이 손목쯤에 이르렀을 때 준수는 발작적으로 머리우의 나무가지를 휘여잡고 잡아챘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그것은 부러져나갔다.

드디여 충격이 밖으로 튀여나간것이다. 여기서 명백히 해둘것은 살점을 튕겨보낸 힘이 체내의것이 아닌것처럼 나무가지를 부러뜨린 힘도 근육의 힘이 아니라 명희의 말이라는것이다. 준수는 손에 쥐여진 나무가지를 동강내여 힘껏 땅에다 내리쳤다.

명희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멎는것만 같았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동안 그를 쏘아보던 준수는 홱 발걸음을 돌려 건늠길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오른쪽에서 쏜살같이 미끄러져내려오던 여러대의 승용차와 그쪽으로 올라가던 대형화물자동차 두대가 자기의 바로 량옆에서 다급한 경적을 울리며 련속 급정거하는것도, 명희가 엉거주춤 팔을 내밀며 비명을 지르는것도, 귀청을 째는듯한 교통보안원의 호각소리도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채 준수는 약간 비척거리며 건늠길을 지나갔다. 사람들도, 운전사들도 아연하여 멍하니 그를 바라만볼뿐이였다. 일시에 발걸음을 멈추고 준수를 위태로운 눈길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대낮에 술을 마시다니. 젊은 사람이. 쯧쯧.》

여기저기서 울리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명희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절반으로 동강난 나무가지가 눈에 띄였다. 명희는 그것들을 하나씩 손에 쥐였다. 이것들을 다시 붙여낼수 없듯이 우리들도

영원히 갈라지고마는가.

처녀는 얼굴을 싸쥐였다. 나무가지가 맥없이 떨어졌다. 동그란 두어깨가 하들하들 떨며 물결쳤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

손가락새로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하얀 손등에 맺혔다가 은행나무의 동그란 잎새우에 점점이 떨어졌다.

3

준수는 처음 한동안은 명희와 갈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었다. 지금까지의 명희에 대한 파악이 불충분한것이였다면 준수가 그처럼 격분하고 놀라지는 않았을것이다.

며칠동안 준수는 명희와 마주서지도 않았다. 그러나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흥분이 차츰 사그라들면서 내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지나치게 행동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과 회오가 갈마들었다.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의 무례한 행동이 부끄러웠다. 내가 옹졸하다, 경솔하다, 차근차근 리유를 알아봤어야 했다, 명희를 믿어야 한다, 그 처녀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명희도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것이 틀림없었다.

처녀는 웃는 일이 없었고 머리를 숙이고다녔다. 휴식시간에는 창밖만 얼없이 내다보고있는 처녀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다. 본래의 활발하고 명랑하던 명희는 사라지고 슬픔에 잠긴 그의 환영만 조용히 미끄러져다니는듯 했다.

이런 변화는 자기만이 느꼈을수도 있다. 가슴이 아팠다.

마침내 준수는 명희를 만나 모든 사연을 정확히 들어보리라 결심했다.

강의휴식시간때였다.

준수는 교원에게 유리전극의 안면과 바깥면에서 전위차가 생기는 원인을 물어보았다. 교과서를 몇번이고 읽어보았으나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있었던것이다. 준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창가에 서있던 명희가 《그거야…》 하면서 얼결에 외마디소리를 냈다. 휴식시간이라 교실은 소란스러웠다. 하여 교원도 다른 동무들도 명희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준수만은 그 소리를 가려들었으며 한순간 명희의 얼굴에 떠올랐던 불꽃같은 활기도 예민하게 감촉하였다. 그러나 인차 명희는 머리를 숙이더니 창밖으로 눈길을 돌려버렸다. 교원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준수의 마음은 퍼그나 서글펐다. 그전같으면 우리 둘은 얼마나 이런 문제로 활발히 론쟁을 벌렸겠는가. 그런데 지금 명희는 나와 눈길이라도 마주칠가봐 두려워한다, 무엇때문일가? 그는 명희에게서 무엇인가 해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분을 보는것으로 하여 한층더 괴로왔다. 명희는 무엇인가를 그에게 숨기고있는것이 확실했으며 그것으로 해서 고민하고있는듯 했다. 명희를 만나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만은 정확히 알고싶다.

그 다음시간에 《얇은층크로마트그라프법에 의한 아편알칼로이드에서 개별성분들의 정성》실험을 했다.

학급이 4명씩 8개의 실험조로 나뉘였는데 우연히도 준수와 명희가 한조에 망라되였다.

그런데 명희는 슬그머니 다른 동무와 조를 바꾸는것이였다. 준수의 심정은 복잡했다.

휴식시간에 준수는 서글프고 쓸쓸한 마음으로 공원을 거닐었다.

보슬비가 내리고있었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니 잊을수 없는 그 수삼나무옆이였다.

준수는 그 나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명희는 이 나무에 기대여서서 내 말을 들었었지. 그때는 얼마나 희망에 넘쳐있었던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눈굽이 저려들었다. 가을바람에 밤알이 떨어지듯 이따금씩 나무잎에 맺혀있던 물방울들이 휙— 공기를 가르며 세멘트블로크를 깐 걸음길과 잔디밭, 긴걸상들에 날아떨어졌다. 머리를 들어보니 하늘은 재빛으로 흐렸는데 오는지마는지 가는 실비가 얼굴에 느껴졌다. 새소리가 머리우에 차넘쳤다. 명희가 그리웠

다. 그와 여기를 천천히 거닐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 이야기라도 나누었으면! 아니, 묵묵히 함께 거닐기라도 했으면! 그전에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일인데 지금은 간절히 소원해도 불가능하다, 어떤 존재의 진가는 그것을 잃었을 때에야 다 알수 있다, 상실의 아픔과 절망이 가슴을 찢는것만 같았다. 왜 이렇게 되였을가? 무엇때문에? 알수가 없었다. 아무리해도 알수가 없었다.

하여튼 오늘은 그를 만나보자. 마침 공원의 한쪽구석에 놓인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명희가 눈에 띄였다. 준수는 그리로 다가갔다. 준수를 본 명희는 인차 일어나더니 맞은켠에서 교원의 이야기를 듣고있는 예닐곱명의 학생들속에 끼워서는것이였다. 준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모욕감으로 하여 가슴이 떨렸다. 명희가 이렇게도 속이 좁은 처녀란 말인가. 이런 녀자였단 말인가. 난 무엇을 강요하자는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나를 피하기만 하는가. 그래, 벌어진 일을 나에게 설명해줄수도 없단 말인가, 그것은 지금까지의 관계로 보아도 초보적인 의리이며 도리가 아니겠는가.

문득 준수는 명희와 약혼을 했다는 남자가 여러면에서 자기보다 훨씬 나으리라는 짐작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명희가 약혼을 했다는 사실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준수는 설음과 아픔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였다. 남을 나무라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소경 개천 탓하는 격이다. 명희의 눈에 비쳐진 내가 과연 무슨 존재란 말인가. 설사 나와 무슨 약속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보다 더 유리한 곳에 시집가려는 처녀에게 어째서 멍에로 되여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아버지가 강요했다 해도 처녀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약혼이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 처녀가 어떤 남자를 택하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거기에 간섭한단 말인가.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처사이겠는가. 나는 단지 모욕당한 자존심으로 하여 성을 내고있는것이 아닌가. 명희에 대한 원한과 자신에 대한 노여움, 감정들이 준수의 가슴속에서 꼬리를 물고 연방 용솟음쳐올랐다.

드디여 준수는 명희와 헤여지지 않을수 없는 불가항력의 현실을

인정하게 되였다. 이 최종적인 판단이 준수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은 참으로 쓰라린것이였다. 준수는 한없는 고독감에 휩싸였다. 자기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 없으며 무맥한듯이 느껴졌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세상사가 갑자기 의미를 상실한것만 같았다. 쥐죽은듯한 괴괴한 정적이 그의 주위를 흐르고있었다. 아니 단지 준수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있을뿐이였다. 그전에는 그토록 가깝고 정답고 소중하게만 느껴지던 공원의 나무들도 대학의 건물들도 지금에는 멀고 차겁게 느껴졌다. 그것들도 어딘가 모르게 풀길없는 고뇌와 슬픔에 잠긴듯 하였다.

명희와의 첫 충돌이 준수를 몹시 격분시키고 절망하게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명희가 자기를 피한다는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부터 준수는 모든것을 단념하였다. 희망은 절망으로, 기쁨은 슬픔으로, 자신감과 긍지감은 좌절감과 위축감으로 변해버렸다. 밤마다 괴로운 꿈에 시달렸고 밥맛도 잃었다. 애써 생각을 돌리려고 책을 들군 했지만 단 몇줄도 읽기 어려웠다. 아무런 창조도 없는 무의미한 나날이 흘러갔다. 이것은 타락이였다. 이런 나날속에서 준수는 처음으로 불면증이라는것을 체험하였다. 준수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모자랐다. 따라서 항상 잠도 모자랐다. 꿀처럼 달콤한 잠과 싸우면서 수도꼭지밑에 머리를 들이민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건강의 의식이였다. 쇠약해진 정신에는 잠조차 깃들지 않았다. 신경의 쇠약이 의식될수록 잠에 들려고 애썼고 잠에 들려고 애쓸수록 정신은 더욱 맑아만 졌다. 그 맑음이란것이 몹시 기분 나쁜것이였다. 그것은 아침공기와 같이 신선하고 명쾌한것이 아니라 바늘에 찔리워서 각성되였을 때와 비슷한 불쾌한 신경의 예리성이였다. 그 맑음에는 아무러한 정신적 및 육체적로동의욕도 동반되지 않았으며 전신의 쇠약과 피로를 바탕으로 하고있었다. 책을 보기도, 몸을 까딱 움직이기도 싫었다. 그러한 밤들에 이러저러한 잡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수없이 솟아오르군 하였지만 어느것 하나 똑똑히 의식할수 없었다. 검은 안개처럼 피여오르는 이 잡념이 마침내는 뭉게구름이 되여 준수를 삼켜버리군 했다. 꿈

이랄지, 잠이랄지 하여튼 그 혼몽한 의식속에서 준수는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인가를 찾아 안타까이 헤매고 또 헤매였다…

오늘도 준수는 새벽녘에야 겨우 정신이 흐릿해졌는데 인차 꿈속에 빠져들었다. 준수는 무슨 일로 해서인지 벌을 받고있었다. 누군가가 무거운 바위돌을 준수의 가슴우에 올려놓았다. 어떻게 알게 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준수는 이것이 명희 아버지의 소행이라는것을 짐작하고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다. 그 돌은 동화에서처럼 커지면서 더욱더 무겁게 가슴통을 압박하였다. 저쪽에서 명희가 랭담한 눈길로 바라보며 서있었다. 준수에게는 명희의 무관심성이 서럽고 아팠다. 또 무어라 말할수없이 억울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명희에게 결코 도움을 청하지는 않으리라, 어떻게든 내 힘으로 밀어내보자, 그는 몸을 뒤틀며 그 바위돌밑에서 빠져나가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는 동안에도 돌은 점점 더 자라올라 어느덧 집채만 해졌다. 이제는 숨까지 막힐것만 같다. 정말 더 이상 견디지 못할것만 같았다. 있는 힘을 다해 모지름을 쓰다가 문득 악몽에서 깨여났다. 얼결에 가슴부위를 더듬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실제로 무엇에 짓눌리운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얼얼했으며 상체를 까딱 움직일수 없었다. 이마에서는 차디찬 식은땀이 느껴졌다. 입안은 모래알이 들어찬듯 깔깔했고 온몸은 그저 땅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가슴부위의 얼얼한 압박감은 명희와의 첫 충돌이 있은 날 밤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있는데 많은 꿈의 발단으로 되고있었다. 그 불쾌한 감각은 오래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

부엌쪽에서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억철이삼촌, 식사하자요.》

이때 세면장에서 나오던 맏형이 한마디 했다.

《자는 모양이요. 그냥 놔두오.》

준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7시였다. 창문에 친 무거운 창가림때문에 방안은 아직도 캄캄한데 전실쪽에서 밝은빛이 문틈사

이로 스며들고있었다. 부끄러웠다.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그렇다고 이제 일어나 초췌한 꼴을 보이고싶지도 않았다. 형네가 출근한 다음 일어나기로 작정하고 누운채로 손을 뻗쳐 탁상등을 켰다. 오전 9시부터 첫 시험이 있다. 어제저녁에 보던 책이 펼쳐진채로 머리말 책상우에 있었다. 시험에 대한 근심때문에 몇페지 주의를 집중해 읽어나가던 준수는 《정상상태에서의 피속농도를 리용한 약물투여계획》에 이르러서 탈선해버렸다. 《ス－1211》호를 주사약으로 만들고 그의 유효량을 결정할 때 이 방법을 써보자. 명희의 연구가 빨리 완성되여야겠는데… 명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것일가. 순간 명희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것은 방금 꿈속에서 본 랭담하고 무표정한 모습이였다.

준수는 책을 책상우에 던져버리고 두팔을 이마우에 엇걸은채 눈을 감아버렸다.

얼마후 시계를 보니 8시였다. 그는 급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에 가서 식탁에 마주앉았다. 하얀 가제로 된 밥보를 벗기고 정성스레 떠놓은 갖가지 음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형수앞에 미안스러웠다. 기름이 둥둥 뜬 생선국과 기름에 볶은 찬들을 보니 시원하고 쩡한 김치와 국수생각이 간절했다.

억지로 몇술 뜨고 난 준수는 신발을 신다말고 다시 들어와 랭동기의 문을 열었다. 극동칸에서 수정처럼 투명한 얼음쪼각 한개를 꺼내 입에 물고 집을 나섰다. 돌멩이처럼 굳어져버린 그것은 잘 깨여지지도 않았다.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물이 이처럼 돌로 되다니. 함흥에 도착했을 땐 따뜻한 물과도 같던 내 마음이 지금엔 이 얼음처럼 되여버렸구나.… 준수는 쓸쓸한 마음으로 길을 걸었다.

준수는 시험은 가장 적극적인 교수의 한 형태라는 말에 공감하고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시험전 며칠은 귀중한 시간이였다. 준수는 일상적으로도 그러했지만 특히 등교기간 그 어느때나 길을 다니면서 손에서 책을 놓아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앞두고는 너무나도 머리가 혼란되여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였다. 지금도 머리속에서는 시험에 대한 근심이 가득했지만 책

을 보게 되지는 않았다.
준수는 5분전 9시에 대학에 도착하였다. 그가 교실에 들어서니 학급동무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시험관이 들어서는줄로 알았던것이다. 오직 명희만이 눈길을 들지 않고있었다. 그렇지만 준수는 그가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고있음을 느꼈다. 학급동무들의 긴장은 인차 가벼운 웃음과 한숨으로 변해버렸다.
준수가 책상에 앉자마자 시험관들이 들어섰다. 시험표를 받아쥐고 준수는 당황하였다. 첫째 문제가 자신없었던것이다. 먼저 떠오르는 문제부터 써나가는 습관대로 그는 둘째와 셋째 문제에부터 달라붙었다. 간단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들에도 몇군데 애매한 점이 있어 시간이 적지 않게 들었다. 다시 1번문제 《정맥주사시 2구획모형약물동력학》에로 돌아왔다. 이 문제가 아침에 읽어보던 그 문제의 바로 뒤에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페지에 떨어진 청색잉크얼룩은 눈앞에 선한데 전일적인 내용이 안겨오지 않았다. 준수는 정신력을 최대로 집중하였다. 무엇인가 어렴풋이 떠오를듯 했다. 준수의 머리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1번문제의 내용은 무거운 벽돌장우에 씌여있다. 그런데 그 벽돌장은 어둠에 덮인 책상의 한끝에 있다. 준수는 지금 지력의 줄로 그 벽돌을 밝은 곳으로 조심히 끌어당기는중이다. 벽돌은 무겁고 실은 너무나도 가늘다. 실은 한껏 팽팽해졌는데도 벽돌은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있을수도 없고 더 이상 당기면 끊어질것 같은 아슬아슬한 손맛!
시간은 사정없이 흐른다. 마침내 움직인다. 한모서리가 불빛속에 드러났다. 준수는 번개처럼 펜을 달려나갔다. 한동안 달리던 그의 펜이 갑자기 멈춰섰다. 미카엘스―멘텐식에서 상수 Km과 Tm을 유도해내는 과정이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다시 실당기기가 시작되였다. 한 과목이라도 우등이나 보통으로 미끄러지면 전과목 최우등결의는 물거품이 되고만다. 손에 땀이 내돋았다. 벌써 많은 동무들이 시험지를 바치고나갔다. 그냥 바치고말가? 아니다. 마지막까지 생각해보자. 그러나 벌써 초조감에 머리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시계를 보니 5분전이다. 눈길은 자꾸 시계

쪽으로 갔다. 준수는 자신을 다잡으면서 처음부터 침착히 더듬기 시작하였다. 마감까지 거의 훑었을 때 벽돌이 불쑥 환한 불빛속에 들어섰다.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준수가 펜을 달리려는 순간 마감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할수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복도의 여기저기에 동무들이 모여 방금 마친 시험을 두고 기뻐도 하고 아쉬워도 하면서 떠들썩했다.

그러나 준수만은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자기 불만에 싸여 밖으로 나와 공원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번 시험을 잘못쳤기때문만도 아닌 딱히는 그 원인을 알수 없는 심각한 불안과 위구에 싸여 향방없이 걸었다. 갑자기 들려오는 《준수동무!》라는 부름에 그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놓인 긴 걸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있던 교무과 부과장이 그를 손짓하며 부르고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는 환한 웃음을 짓고 《대단히 기쁜 소식이 실렸소!》 하며 보던 신문을 준수에게 넘겨주는것이였다. 준수는 얼결에 그것을 받아쥐고 부과장이 오른손의 길다란 둘째손가락으로 가리켜주는 곳을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어제 즉 6월 28일 판문점에서 오전 10시부터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있었는데 접촉에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장소와 시기가 합의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실려있었다. 즉 북남최고위급회담은 평양에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열리게 된다는것이였다.

준수는 지진에라도 접한것 같은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조국이 갈라져 근 5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 북남최고위급회담은 열려보지 못했던것이며 또 일촉즉발의 전쟁직전에 이른 지금의 정세하에서 이번 회담이 가지는 민족사적의의는 실로 커다란것으로 될것이기때문이였다.

6월에 접어들면서 조미대결은 핵문제를 놓고 극한점에로 치달아올랐다. 미제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성명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즉시 탈퇴하며 기구의 사

찰원들을 추방하며 《유엔제재》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지구는 다시한번 뒤흔들렸으며 온 세계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마지막단계에 선 조미대결을 손에 땀을 쥐고 주시하고있었다. 드디여 이러한 초긴장이 실린 온 세계의 주시속에서 6월 15일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평양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으러 왔다. 미국은 드디여 어버이수령님앞에 무릎을 꿇고 유엔에 제출하였던 우리에 대한 제재결의안의 철회를 약속하였다. 그 연장선우에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7월 첫주에 제3단계조미회담을 열기로 그리고 평양에서 7월 25일～27일 사이에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조미와 북남사이에 각각 합의가 이룩되였던것이다. …

부끄럽게도 준수는 명희와의 충돌이 있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열흘이 넘도록 절망과 고민에 빠져 외부세계와는 차단되여있다싶이 했던것만큼 그동안의 정세변화에 대해서는 부과장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알게 되였다. 물론 부과장은 준수 역시 알고있으려니 생각하면서 오늘 받은 충격적인 소식에 흥분한김에 그 기간의 경과에 대하여 제나름의 해석을 달아 쭉 내리엮었던것이다.

부과장은 떠나갔지만 준수는 가슴을 저미는듯한 자책감에 싸여 천천히 공원을 거닐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밤잠인들 제대로 주무셨으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두분께서 이 기간에 쌓으신 업적만 해도 어찌 말과 글로 다 헤아려낼수 있으랴. 그런데 그동안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해왔는가. 사랑의 고민에 빠져 병자처럼 지내오지 않았는가. 물론 명희와의 결렬이 《ス－1211》호연구에 커다란 난관으로 되는것은 사실이며 그에 대한 의식이 그동안 나의 절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도 한갖 변명이며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제대군인이 아닌가. 내가 군대에서 《ス－1211》호연구를 결심할 때 이쯤한 타격도 예상하지 못했더란 말인가. 나는 탈선했다, 나약해졌다, 이번 시험에서의 패배가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된다. 나는 요즈음 신문 한장, 책 한권 보지 않고있다. 강의시간에도 교원에게 주의

를 집중하지 않는다.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기초의학연구소에 가보지 않았다. 이런 생활이 반년, 1년 아니 그이상 지속된다면 이번에는 시험에서 패배하였지만 그때에 가서는 인생의 패배자로 되여버릴것이다. 과연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끝까지 해낼수 있겠는가. 이번 시험은 하나의 경종으로 된다. 이 경종의 의미는 심각하다. 물론 명희와의 결렬은 커다란 타격이다. 그러나 타격에 부스러져버린다면 나는 한갖 유리쪼각에 불과하다. 강철의 검은 때릴수록 더욱 서슬푸르러지는 법이다. 검이 되여야 한다. 반드시 강철의 검으로 되여야 한다. 여기서 꺼꾸러져버린다면 내가 무슨 남자이겠는가. 무슨 뜻을 품은 사람이라 하겠는가.

문득 아침에 랭동기에서 본 얼음쪼각생각이 났다.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온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물처럼 살수 없다. 나는 환경에 맹목적으로 순응할수 없다.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내가 세운 뜻을 기어이 성취하리라!

이런 연방 솟구쳐오르는 생각의 소용돌이속에서 준수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걷고있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부지중 눈을 들어보니 그 사연깊은 수삼나무곁이였다. 준수는 손목시계를 벗어들고 품속에서 만년필을 꺼내여 그것들을 오래도록 어루쓸었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수삼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수삼나무 역시 그를 꾸짖는듯 엄엄히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렇다. 나는 여기서 달빛아래 사랑을 속삭인것이 아니다. 그날 나는 내 일생의 사명을 한 처녀에게 이야기했고 그의 도움을 청하였다. 지금 그 처녀는 곁에서 떠나가버렸지만 일생의 사명은 나에게 남아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외롭더라도 결코 애원은 하지 않으리라. 나를 키워준 위대한 우리 당과 어머니조국앞에 다진 맹세가 남아있는 한 절대로 쓰러지지도 않으리라!

그 어떤 숭고한 감정이 준수를 휩싸안았다. 높은 경지에 올라선 자기가 좀전의 자기를 내려다보는 심정이였다. 리성은 드디여 일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였으며 고상한 감정이 거기에 합류되였다.

어떤 사람들은 리성과 감정이 모순대립될 때도 간혹 있는듯이 말

한다. 준수 역시 절망감과 리성의 모순대립속에서 모대기다가 끝내 리성이 이기지 않았는가. 이것이야말로 감정과 리성이 모순대립된 경우가 아니겠는가—그들은 이렇게 말할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준수에게서 모순대립되여있은것은 리성과 리성, 감정과 감정이였다. 명희가 없는 나의 삶은 비참할것이라는 리성에는 절망감과 자포자기의 감정이 동반되였고 당과 조국앞에 지닌 나의 의무는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더 높은 수준의 리성에는 숭고하고 고상한 감정이 합류되였던것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리성과 감정이 보다 낮고 일면적인 리성과 감정을 극복한것이다.

옳은 리성이란 사회적존재로서의 자기의 생명에 대한 의식이다. 사회적집단이 준 이 생명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만이 참으로 인간적인 삶일것이다.

4

손에 심한 상처를 입어 피부가 전부 벗겨지고 뻘건 피가 슴배인 살과 허연 뼈가 드러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될수록 아무것도 집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설사 종이장 같은것이라 해도 모진 아픔을 줄것이기때문이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심리상태에 있는 법이다.

미애를 만난 그날 명희의 마음은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전에는 그처럼 정답고 아름다우며 달콤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던 모든것,—준수의 편지라든가, 앞날의 행복을 꿈꾸던 빨래터, 첫사랑을 언약하던 대학공원의 수삼나무, 책갈피마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준수의 필적 등이 상처입은 마음에는 아픈 자극으로 될뿐이였다. 사실 명희의 생활에서 준수와 련결되여있지 않은것이란 거의나 없었다. 그중에서도 준수와의 상봉과 필연코 그뒤에 따를 리별에 대하

여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수는 없었다.

그때 명희는 준수의 두눈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것을 보았다. 그 눈빛이 명희의 마음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그것의 의미는 얼핏 보건대는 절망이였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사랑이였다. 그처럼 짧은 순간에 그처럼 비상한 형식으로 준수는 자기의 심중을 드러낸것이다.

명희는 자기에 대한 준수의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미애와 헤여진 후 명희는 준수가 처한 곤난한 립장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보았고 충분히 리해하였다. 그는 고민에 빠져 동요하던 준수가 약혼통지에 대하여 다행으로 여기지는 않을지라도 자포자기할것으로 적어도 이처럼 격분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목격한것은 그의 두눈에 서리운 경악과 안타까움, 슬픔의 검은 구름장들이였으며 그속에서 번뜩인 분노의 푸른 번개였다. 그 분노는 등교전기간 사그라질줄 몰랐다.

명희는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문에, 순결하고 열렬한 사랑을 확인한 때문에 명희는 그를 더욱 랭담하게 아니 모욕적으로 대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머니쪽으로, 연구소쪽으로—행복이 기다리는쪽으로 떠밀어보내자는것이였다. 언젠가 명희는 어떤 소설을 읽고 감동되였던적이 있다. 두 애인이 북극탐험에서 돌아오고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있는 식량으로는 도저히 인가가 있는데까지 갈수 없었다. 처녀는 깊은 밤 애인을 위하여 편지 한장을 남기고 눈보라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때는 자기가 그 주인공과 동일한 운명의 길을 걷게 되리라 상상도 못했었다.

드디여 명희의 목적이 성취되였다. 첫 시험인 《생물약제학》을 치른 다음날부터 준수는 우울과 고민에서 벗어나 쾌활하고 명랑해졌다. 그러나 명희에게만은 적의와 원한이 서린 랭랭한 태도를 취했다. 명희는 준수의 심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짐작할수 있었다. 명희 역시 눈보라속으로 사라지고있었지만 소설의 주인공이 체험했던 고상한 자기희생으로 인한 숭고한 환희는 맛볼수 없었다. 그는 자기가 취한 행동의 정당성을 확신할수 없었을뿐

더러 오히려 의혹과 동요, 번민속에서 모대기였다. 내가 비겁하고 나약하기때문일가? 그런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에 대한 준수의 태도에서 무엇인가 종잡을수 없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그의 분노와 고민은 너무도 커서 과연 그가 어머니냐 처녀냐 하는 물음앞에 모대겨온 사람인가를 의심하게 하였던것이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직도 모든것이 종전대로 회복되였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있기때문이지. 그 희망이 빚어낸 신기루일뿐이지. 명희는 다만 마음이 괴로왔을뿐만이 아니라 지금껏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신상태앞에 두려운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겁내는지 그것조차 분간할수 없었다. 모든것이 뒤엉키면서 혼돈되여버리는것이였다.

그 괴로운 속에서 어느덧 규정된 등교기일인 20일이 지나갔다. 폐강모임이 끝나고 명희네 학급만 강당에 남았다.

강당청소를 맡았던것이다. 청소가 다 끝났을 때 준수는 강당 한구석에 놓여있는 풍금에로 다가갔다. 학급동무들이 그 둘레를 에워쌌다. 《눈이 내린다》의 사색적이며 장중한 선률이 흘러나왔다. 악기의 특징인 맑고 화려한 음색과 능숙한 연주가 악상을 잘 살려내고있었다. 손에 비자루나 밀대, 바께쯔 등을 쥔채로 동무들은 혼성합창에로 넘어갔다.

명희만이 오직 명희만이 멀찍이 출입구결에 떨어져 눈물어린 눈으로 그쪽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5.1절날 동흥산공원에서 그와 함께 이 노래를 듣던 일이 떠올랐다. 4년동안 그와 함께 누린 행복의 순간들 지어 그 당시에는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것들까지도 휘황한 빛을 뿜으며 그의 기억속에 무수히 되살아오르는것이였다.

어쩌면 오늘 난 준수동무와 영원히 리별하게 될지도 몰라. 격분한 준수동무는 추호의 미련도 없이 인차 함흥으로 올라올것이며 결혼도 이이상 미루지 않을게야.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니까…

명희는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이렇게 헤여지고싶지는 않았다. 그에게 무엇인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싶었다. 물론 언제인가

에 가서는 그도 모든것을 리해하게 되겠지만 마지막날인 오늘 이렇게 헤여지고싶지는 않았다. 그를 어떻게 만날것인가? 이제는 서로 만나는것마저도 거의나 불가능한 일로 되여버렸다. 지금 준수가 앉아있는 개인걸상은 주석단의것이였다. 풍금의 씌우개를 씌우고 걸상을 주석단에까지 올려다놓느라면 그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게 될것이다. 그때 강당에서 잠간 만나자.

명희는 학습장 한권을 긴 걸상에 떨구어두고 밖으로 나왔다.

얼마후 학급동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였다. 거의다 나왔다고 생각될무렵 명희는 강당안으로 들어갔다. 예견했던대로 준수가 주석단에 걸상을 올려다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출입구를 향하여 걸어오고있었다. 강당안에는 그들 둘뿐이였다. 가슴이 몹시도 활랑거렸다. 명희는 처음 책을 찾으러 들어온체 하려 했으나 그러는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여 똑바로 서서 침착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뚜벅뚜벅 묵중한 발걸음소리와 함께 그는 명희를 향하여 다가오고있었다. 이제는 거의 몇걸음앞까지 왔다. 명희는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말도 목에서 울려나오지 않았다. 다만 무슨 용서라도 비는듯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을뿐이였다. 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랭랭한 시선을 앞쪽에만 박은채로 그의 옆을 지나쳤다. 그의 태도, 표정 그리고 눈길은 칼끝처럼 날카로왔고 얼음처럼 차거웠다.

명희는 온몸의 힘이 발밑으로 새여버리는것만 같았다.

밖으로 나오니 앞마당에 벌써 학급이 모여있었다. 학급반장이 그동안의 학급사업을 간단히 총화한 다음 서로들 인사를 나누며 헤여졌다. 명희는 10메터쯤 떨어져있는 학급반장과 방금 인사를 하고난 준수에게로 대담하게 다가갔다. 그 눈치를 차린 준수는 급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집이 함흥인 학급처녀에게 말을 걸더니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란히 걷기 시작하였다. 무슨 우스운 말을 들었는지 그 처녀는 폴싹 허리를 접으며 깔깔거리는것이였다.

명희는 그자리에 멈춰섰다.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였고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누가 볼세라 급히 눈물을 삼키며 명희는 기숙사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렇게밖에 될수 없는 일이지.

명희는 무슨 급한 일이나 있는듯 머리를 깊이 숙이고 황황히 걸음을 다그쳤다.

기숙사에 들려 볼 일을 다 보고난 명희는 역으로 향했다. 4년전 잊을수 없는 그 여름의 나날부터 지금까지 매번 등교가 끝날 때마다 준수는 명희를 역까지 바래주군 하였다. 지금 명희는 홀로 외로이 역으로 가고있다. 저앞에서 푸르른 버드나무가로수들이 바람에 조용히 설레이고있었다. 명희는 문득 그 버드나무사이로 나란히 걸어가고있는 어제날의 자기와 준수의 환영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은 무엇인가 다정히 담소하며 역으로 가고있었다. 태양은 눈부시게 내려쪼이고 푸르른 실버들가지는 소리없이 흐느적이는데 그사이로 분홍색샤쯔를 입은 자기와 회색양복을 입은 준수가 나란히 걷고있다. 그 환영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명희는 이름할수 없는 애수와 슬픔 그리고 신비한 정서를 체험하였다. 명희가 그쪽으로 다가가면 그들은 그만큼 앞으로 나아간다. 명희는 꿈속이런듯 언뜻거리는 그 환영을 뒤쫓아나갔다. 그들은 구름을 밟으며 별빛을 등지고 하늘가 한끝으로 아득히 사라지고있었다. …

저 멀리 함흥역이 바라보였다. 얼마나 많은 잊을수 없는 추억들이 저 역과 얽혀있는가. 고등중학교(당시)시절 도 수학경연에서 1등을 하고 수학선생과 나란히 이길을 걷던 일, 전문학교 입학통지서를 받고 올라온 날 저 역앞에 서서 희망에 넘쳐 사위를 둘러보며 흥분하던 일이 떠올랐다.

전문학교시절 방학때마다 발걸음도 가벼이 집으로 들어가는 큰 대문인 저 역으로 난 달려가군 했었지, 기차는 저 역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뻗어간 움직이는 복도로 생각될 정도로 난 언제나 역에만 오면 마치 집마당에나 들어선듯한감을 느끼군 했었지.

명희가 전문학교 첫 학기의 성적증을 집에 가져갔을 때 아버지가 어찌도 기뻐하고 대견해하던지 그것은 명희가 전문학교 전과정을 10점최우등(당시)으로 마치게 한 추동력중의 하나로 되였다.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자. ―명희는 이런 심정에서도 아글타글 공부했던것이고 그 선물을 안고 기쁨에 넘쳐 집으로 달려

가군 했던것이다. 준수를 알게 된 후 그와 함께 저 역을 향해 걸을 때마다 명희는 얼마나 약동하는 생의 환희를 맛보았던가. 그 시절 그가 느낀 짜릿짜릿한 기쁨은 소녀시절의 그것들과 질적으로 다른것이였다. 그들은 이 역에서 서로 헤여지군 하였지만 언젠가는 영원히 함께 있게 되리라는것을 믿어마지 않았다. 그들은 헤여질 때마다 가까와졌다는것을 특히 강하게 깨닫군 하였다. 그래서 명희는 기쁜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한 렬차의 차창밖으로 손을 내젓군 하였다. 그러나 지금엔 집으로 재촉하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다. 집으로 가고싶지도 않았다.

갑자기 귀청을 때리는 고함소리에 명희는 흠칫 몸을 떨며 멈춰섰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역전려관앞 네거리건늠길인데 자전거를 타고오던 중년의 키 큰 사나이가 바로 명희옆에서 급정거를 하며 소리를 친것이다. 정신없이 걷다나니 자전거와 부딪칠번 한것도 미처 몰랐던것이다. 얼결에 량해를 구하던 명희의 머리속에 바로 이자리에서 4년전에 벌어졌던 이와 비슷한 일이 번개치듯 떠올랐다. 그때는 너무도 큰 기쁨과 즐거움때문에, 지금엔 너무도 큰 슬픔과 절망때문에 주위를 잊은것이다. 그때는 준수가, 믿음직하고 억센 청년이 날쌔게 명희를 막아나섰다. 자전거의 앞바퀴가 그의 다리를 들이쳤건만 그는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웃으면서 명희를 대신하여 미안하게 되였다고 말을 했다. 자건거를 타고있던 사나이도 알만하다는듯 의미깊은 웃음을 지었었다. 그러나 지금엔 준수가 없다. 그처럼 의지가 되던, 그처럼 사랑하던 사람을 영영 잃어버린것이다. 살아가느라면 얼마나 많은 자건거들과 부딪치게 될것인가. 이제는 명희를 막아나설 사람도, 명희를 대신하여 사과를 해줄 사람도 없다. 명희는 이 세상에 홀로 남은것이다.

이 별치 않은 사건이 명희에게 준수의 의의를 새삼스레 절절히 깨닫게 해주었다. 상실의 아픔에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갈았다. 자전거를 탄 키 큰 사나이 어깨너머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있는 명희의 두눈에 갑자기 눈물이 가득가득 고여올랐다. 그 남자는 어리벙벙하여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제먼저 가버렸다. 누가

볼세라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역으로 걸음을 다그치는 명희의 두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혼잡한 기다림칸에 들어서면서 명희는 소용돌이를 련상시키는 사람들의 흐름에 휩싸였다.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지하홈으로 내려가는 사람, 거기서 올라오는 사람, 역안의 상점쪽으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아는 사람을 만난듯 반갑게 소리를 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치며 명희는 물음칸앞으로 다가갔다. 거기에 설치된 안내텔레비죤에서는 렬차시간표가 자막으로 반복되여 방영되고있었다.

《…평양—청진행은 정시입니다. …》

얼마쯤 기다려야 했다. 명희는 다시 사람들사이를 헤치며 아득히 보이는 왼쪽 기다림칸의 한쪽구석으로 향해갔다. 가방을 옆에 놓고 자리에 앉은 명희는 초점없이 앞만 바라보았다.

준수동무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이것이 진정 영원한 리별일가, 우리 둘의 관계는 장차 어떻게 될가.

갖가지 생각들이 명희의 머리속에 떠올랐다. 명희는 앞으로 자기가 처하게 될 처지의 모든 상세한 점들을 세밀히 그려보았다. 그러자 절망과 고통이 뒤섞여 가슴을 갈피갈피 저며내는듯 아프게 하였다.

아버지는 깜짝 놀랄테지, 왜 준수동무와 갈라졌는가고,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한다?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애초에 준수동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걸 … 병원사람들도 왜 내가 시집을 안가는가고 수군거릴테지, 제나름으로들 짐작할거야. 아무렇게나 생각하라지, 언젠가 준수동무가 모든걸 알게 된다면 그의 심정이 어떠할가, 그는 나를 찾아오겠지. 그래서 혼자 사는 나를 보게 된다면…

명희의 얼굴에 자신에 대한 동정과 련민의 쓸쓸한 미소가 얼룩이고있었다. 그는 왼손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에 찬 시계의 둥근유리를 거듭 문지르며 사태의 본질을 알게 된 이후 준수의 감정을 이모저모로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바쳤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아마 준수동무는 머리를 숙이게 될거야, 그땐 이미 모든것이 돌이킬수 없는것으로 되고만 다음일테지…

명희는 가까스로 참고있는 흐느낌이 당장이라도 다시 터질것만 같아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악물었다.

준수는 명희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나 미련이 소용없는것임을 확인한 때로부터 그와의 일체 관계를 끊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생물약제학》시험이 있은 날, 밤이 깊었을 때 준수는 보던 책을 한구석에 밀어놓고 편지지를 꺼내였다.

《명희동무, 동무에 대한 나의 믿음은 동무가 정신적으로 훌륭한 녀성이리라는 확신에 기초한것이였습니다. 나는 그 믿음이 영원한것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꺼져버렸습니다.》

준수는 여기서 펜을 놓았다. 명희를 둘러싸고있던 무지개같은 빛이 서서히 꺼지고 초라한 그 녀자의 보잘것 없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것은 가벼운 환멸과 함께 가슴아픔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바라는 그런 녀성은 없을가? 명희는 아니다. 정녕 없겠는가? 좋다, 없다면 좋다. 그러면 결혼도 없을것이다. 절대로!

준수는 후두둑 가슴이 떨리면서 전신에 힘이 뻗쳐감을 느끼였다. 온몸의 근육이 팽팽히 긴장되는것 같았다. 함께 노를 젓던 명희가 비렬하게도 사라져버렸다는 경멸과 원한의 감정은 준수의 힘을 배가시키는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절망을 불러일으켰다면 지금엔 그것이 엄숙한 책임감으로 되여 비장한 각오를 가지게 해주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배를 몰아야 한다.

준수는 불쑥 눈물이 솟구침을 느꼈다. 그는 입술을 악물었다. 그렇다, 나는 혼자다. 그러나 절대로 굴하지 않을것이다.

준수는 명희를 알게 되여 지금까지 그와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았다. 내가 그앞에서 부끄럽게 처신한것은 없었는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런것은 없었다.

《ㅈ－1211》호 연구를 끝까지 돕겠다? 흥, 돕지 않아도 좋다,

나혼자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말테다.

다시한번 읽어보고 더 써나가려던 준수는 의혹에 잠겼다.

이것이 졸렬한짓이 아닐가? 내가 옳게 행동하는것일가? 그럼 훌륭한 녀자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나를 멀리 하면 곧 나쁜 녀자로 된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자기 중심의 독선적사고방식이 아닌가. 하지만 명희가 연구에 겁을 먹고 나에게서 물러서는것이라면?…그럴수도 있을가? 그에게서 이번에 받은 《1단계연구보고집》을 보면 명희는 등교 올라오기 열흘전부터 실험에서 일체 손을 떼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새 실험의 구상을 한것일가? 그렇지도 않다. 그 실험일지의 마감장에는 분명히 《상골》이 떨어져 더 이상 검토를 해볼수 없었다고 씌여져있지 않는가! 《상골》에 대한 연구는 중도반단되여있는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상골》을 제껴놓고 다른 실험을 계획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명희는 왜 《상골》을 가지러 가지 않았을가? 명희가 그려놓은 략도를 보면 그 동굴까지 그닥 먼 거리도 아니다. 이 모든것을 미루어보면 그날 즉 실험이 중단된 그날 명희에게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난것이 분명하다. 틀림없이 그날 돌발적으로 약혼이 제기되였을것이고 그 약혼은 등교 올라오기 전까지의 열흘사이에 벼락치듯 강행된것이다. 그러느라니 명희로서는 언제 《상골》에 대해 다시말하여 《ス－1211》호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를 가질수가 없었을것이다. 도대체 그것은 어떤 약혼일가? 어떤 유리한 물질적조건때문에 이루어진 약혼일가? 아니다. 명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것자체가 명희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욕으로 된다.

무엇때문일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앞에 뒤걸음 치는것일가? 그런것 같지도 않다. 실험일지의 마감장을 보면 《상골》의 선택적인 흡착능력을 두고 명희는 얼마나 환희에 넘쳐있었는가! 그럼 무엇때문일가? 아버지의 강요로?… 만일 그렇다면 순전히 아버지의 강요만으로 명희의 마음이 움직일수 있었을가?…

준수는 편지를 와락 줌안에 넣어 구기였다가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난 그에게 아무런 말도 안할것이며 편지도 안할테다.

그때로부터 등교기일의 마감날인 오늘까지 준수는 명희를 거

들떠보지도 않았다. 폐강식이 끝났을 때 준수는 명희가 두번씩이나 자기에게 무슨 말인가 하려고 접근하는것을 보았으나 외면하고말았다. 명희에게서 당한 배신을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었던것이다.

맏형네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렇게 명희와 헤여지고마는가?

준수는 저도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맏형네 집에 돌아온 그는 책상에 마주앉았다. 《방사선의학》이란 책을 펼쳐들었으나 책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방금전에 명희의 두눈에서 깊은 고뇌와 번민을 보았던것이다. 명희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물에 얼기설기 감겨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안타까이 몸부림치는 작은 새를 련상시켰다. 이상한 일이였다. 확신하건대 자기에 대한 명희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것 같았다. 약혼도 그의 의사는 아닌것 같았다. 자기에게 다가서며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던 명희의 표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들었다. 처녀가 가엾게 느껴졌다. 동시에 명희에 대한 원한은 가신듯이 사라지고 그 녀자에 대한 애정이 다시금 서서히 솟구쳐올랐다.

준수는 쓰겁게 웃었다. 차라리 내가 명희를 미워할수 있다면 마음이 이처럼 괴롭지는 않으리라. 내가 명희를 너무 랭담하게 아니 모욕적으로 대한것이 아닌가. 이런 자책이 들면서 준수는 명희를 마지막으로 만나보고싶었다. 시계를 보니 명희가 탈 제1렬차가 출발하려면 두시간정도 시간이 남아있었다.

준수는 밖으로 나섰다. 5분쯤 걸어가던 준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할것인가? 이미 약혼을 했다는데야. 잘못하면 그가 나를 오해할수도 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오래동안 가로수밑에 서있던 준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이 뒤숭숭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30분정도 까딱 않고 책상앞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던 준수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 녀자는 나에게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만나주는것이 응당한 례의일것이다.

기다림칸에 들어선 준수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빼곡이 꽉 들어차 바람맞은 숲처럼 끊임없이

움실거리며 소용돌이치는 사람들속에 휩싸이자 별안간 자신이 보잘것 없는 존재인듯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명희를 노엽게 생각하는 자기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느모로 보든지 난 남들보다 뛰여난 점이 없다. 그러니 처녀한테서 이런 대접을 받는것도 응당하지.

기다림칸을 주의깊이 훑어나가던 준수는 저쪽구석에 앉아있는 명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리로 다가갔다.

명희는 자기에게로 다가오고있는 준수를 보았다. 처녀는 그쪽으로 머리를 돌릴 용기도 일어설 기운도 없어 깎아앉힌 돌처럼 앉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온 정신은 그에게 쏠려있었다. 준수의 발자욱소리가 점점 뚜렷해지며 가까와짐에 따라 명희의 심장의 박동도 더욱 높아졌다. 마침내 준수의 발걸음소리가 바로 옆에서 멎었을 때 명희는 가슴이 터질듯이 고동치고 목이 짓눌리운것처럼 숨이 가빠지는것을 느꼈다.

거의 두메터가까이에서 멈춰선 준수는 명희를 주의깊이 바라보았다. 명희는 눈길을 앞쪽의 유리창너머에 박은채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명희는 일체 주위세계를 잃은듯이 느껴졌는데 지어 숨조차도 쉬고있는것 같지 않았다. 이 처녀에게서 지금 육안으로 알아볼수 있는 유일한 움직임은 기다림칸의 굉장히 키 높은 창문으로 엇비스듬히 쏟아져들어오는 해빛에 머리둘레에 흩어져있는 머리칼 오리오리들이 눈부시게 타오르고있는것뿐이였다. 아득한 저 멀리 지평선너머로 사라져가고있는 자기의 넋을 망연히 바라보고있는듯한 처녀의 자태는 첫눈에는 환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자아냈고 찬찬히 바라보고난 후에도 비애와 절망을 무게있게 형상한 조각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처럼 털어버릴수 없게 해주었다. 하지만 준수는 벌써 그 처녀가 자기의 존재를 감촉하고있음을 알아차렸다. 준수는 한동안 묵묵히 서있었다.

웅성웅성하는 소음이 뭉게구름처럼 떠도는 소란스러운 기다림칸이였으나 이 순간 두사람사이에는 견디기 어려운 정적이 흐르고있었다.

준수는 마치 온몸을 압박하는듯한 침묵을 깨뜨리려고 하였으

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러한 괴로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였는지 모른다. 시간이란 어떤 경우에나 고르롭게 흐르는것이지만 인간의 시간에 대한 감각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불과 1～2분정도의 침묵이였지만 준수에게는 그이상의 시간이 흐른듯이 느껴졌다.

마침내 준수는 침묵을 깨뜨렸다.

《그래, 가겠소?》

《…》

명희는 힘없는 공허한 눈길로 앞만 바라보며 아무말도 없었다.

《명희, 무슨 일이 있었소? 나에게 말해줄수 없소?》

《…》

준수는 이 말에 명희가 흠칫 몸을 떠는듯이 느껴졌다. 처녀는 눈길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였을뿐 대답이 없었다.

《명희, 동무와의 충돌은 나에게 커다란 정신적인 짐으로 되오. 더군다나 우리의 연구는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있지 않소. 나에게 꼭 이러한 짐을 지워야 하겠소? 난 견디기 어렵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갈라져야 하오?》

《…》

명희는 얼핏 눈길을 들었는데 두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리고 다시한번 그의 얼굴에 형언할수 없는 고뇌의 회오리가 일순간 새겨졌다가 사라지는것이였다.

이때 방송원의 부드럽고 랑랑한 목소리가 제1렬차의 개찰을 알렸다.

명희는 일어섰으나 준수를 향해 차마 잘 있으라는 작별의 말을 할수가 없었다. 얼굴의 표정은 그것을 말하고있었다.

《그래 정말 가오? 한마디의 말도 없이?!》

《부디 용서하세요.》

명희는 그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준수를 꼭 만나려고 했으며 그때 할 말들을 이것저것 생각해보기까지 한 명희였으나 정작 그를 만난 지금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러나 준수는 명희의 마음을 깊이 리해하였다. 그 약혼으로 하

여 명희가 불행해졌다는것과 지금도 여전히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심장으로 느꼈다. 왜 명희가 불행해졌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박차고 나올 힘이 그에겐 없단 말인가? 그는 이에 대해서 따져묻고싶었으나 차마 그 말이 입밖에 나가지 않았다. 명희가 절망과 고민에 빠져있는것을 목격하면서 그 녀자가 몹시 가엾은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부디 행복하길 바라오.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준수는 명희를 홈까지 바래주려고 했었으나 저도모르게 튀여나간 자신의 지나치게 감상적인 말에 스스로 화를 내며 갑자기 홱 돌아서서 기다림칸의 출입문쪽으로 향해 갔다.

명희는 그를 불러세우고 모든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싶었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또 울고싶었다. 그러면 이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과 절망감은 환희로 바뀌울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를 예상하면서 명희는 단념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날 잊지 말아주세요. 전 준수동무 한사람만 사랑할뿐입니다.》

명희는 터지려는 흐느낌을 삼키며 멀어져가는 그를 향해 속으로 뇌이였다.

제9장 행복송가

1

《ㅈ－1211》호연구에 《ㅈ－12》를 리용해볼데 대한 준수의 착상에 접하게 되였을 때 정순은 대번에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발견인가를 리해할수 있었다. 그날 정순은 연구의 전망을 확신할수 있게 되였고 눈에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늘 마음속에 품고있던 불안을 적으나마 털어버릴수 있게 되였다.

정순은 그날부터 흥분하여 연구에 더욱 전심전력하였고 그러다나니 자연히 눈을 혹사하였다.

더우기 로년기에 들어서면서 정순의 혈압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것이 록내장의 병리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었다. 이러저러한 원인들이 겹쳐 요즈음 정순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였다.

정순은 입맛을 싹 잃어 며칠째 밥술을 드는둥마는둥 하고있었다.

그러나 어느 하루도 연구사업을 중단해본적은 없었다. 그것은 정순이 자기가 임의의 순간에 쓰러질수도 있다는것을 어렴풋이 의식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죽기 전에 나의 의무를 할수 있는껏 다하자.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정순은 삶의 한초한초를 긴장한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이어나가고있었다. 그 의무란 두가지였는데 첫째는 《ㅈ－1211》호를 하루빨리 성공시키는것이였고 둘째는 맏아들과 맏며느리를 옳바른 길에 들여세우는것이였다. 그래서 정순은 준수와 명희의 결혼을 빨리 성사시키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그렇게 되면 준수에게 믿음직한 방조자가 생기게 되고 자기는 한동안 맏아들네 집에 가있을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얻게 될것

이다.

다가오는 준수와 명희의 결혼전에 조금이라도 더 연구를 전진시키기 위해 정순은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고있었다. 그러다가 어제 저녁부터는 자리에 누웠다. 전신에 맥이 하나도 없고 눈앞이 빙빙 돌면서 뒤목이 뻣뻣해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눈은 송곳으로 쑤시는듯 아프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도 그냥 자리에 누워있는데 오전 11시쯤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나가보니 준수와 함께 일하는 류달리 큰 눈으로 해서 유순한 인상을 주는 약국의 녀선생이 찾아왔다.

《준수동무한테 등기로 책 한권과 편지가 왔습니다. 조금만 빨리 왔어도 본인이 받는건데…》

준수는 등교때문에 이틀전 함흥으로 출발하였다.

그가 돌아간 다음 발신인의 주소를 읽어본 정순은 흠칫 놀랐다.

《함경남도 ○○군 영북로동자구 25반 신장범》

명희 아버지의 이름이 신장범이였는가?

준수와 명희는 지금까지 서로 병원주소로 편지를 해왔다. 명희가 정순에게 보내온 편지들에도 언제나 《함경남도 ○○군 영북철도병원 약국 신명희》로 되여있었으며 정순 역시 그 주소로 답장을 써보내군 하였다. 틀림없이 이 주소는 명희네 집주소이며 신장범이란 명희의 아버지일것이다. 신통히도 같은 이름이 있구나.

정순은 준수에게서 명희가 아버지의 시집이 출판되면 인차 한권을 보내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편지는 안되겠지만 시집이야 보아도 일없겠지.

정순은 시집을 돌돌 만 두터운 종이를 찢어내였다. 뚜껑의 한가운데에 《두번째 전호》라는 표제가 갈색으로 박혀있었다.

《두번째 전호》라… 영예군인이니까 이런 제목을 단게로군…

무심히 차례를 들여다보던 정순의 손이 가늘게 떨리였다. 온몸에 얼음물을 들쓴것만 같았다.

《불타는 강》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였던것이다. 장범이 언젠가 병원예술소조 공연때 이 시를 소리내여 읊은적이 있다. 불타는 락동강을 시에 담으면서 불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넋이 흐른 강이였

다는 장범의 절절한 웨침에 정순은 깊이 감동했었다.

그럼 명희아버지가?! 설마?!

정순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그는 급히 책장을 넘겼다. 맞았다. 바로 그 시였다. 련이어 낯익은 시들이 나왔다. 《후방병원의 밤》, 《시의 총창을 들고》, 《잘 싸우라 전우들이여》…

이 시들도 예술소조공연때 장범이 직접 무대에서 랑송한 자작시들이였다. 그렇구나, 그는 살아있었구나…

정순은 한동안 자신을 잊고 멍청히 앞만 바라보았다. 처음 명희의 사진을 보았을 때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던 일, 아버지가 영예군인이라는 말을 듣고 장범을 련상하던 일, 장범 역시 살았으면 윤수나 준수쯤의 아들이나 딸이 있었을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한숨짓던 일…

분산되여 큰 의미를 띠지 못하던 이 모든 개개의 토막들이 지금 정순의 머리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완전한 련계를 이루면서 머리를 석연하게 해주었다.

그때 절벽아래로 강이 흐르고있었지. 아마 장범은 폭풍에 날려 강물에 떠내려갔을것이다.

그의 시체를 본 사람은 없다지 않았는가.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한페지 한페지 번져나갔다. 장범의 시집—거기에는 그의 일생이 비껴있었다. 정순은 그가 자기와 헤여진 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생히 그려볼수 있었다. 영예군인보양소의 침대우에서 몸부림치던 그, 지팽이를 짚고 2.8비날론공장(당시)건설자들을 찾아서, 흥남의 비료전사들을 찾아서, 주체사상탑과 서해갑문, 5월1일경기장건설장들을 찾아 걷고 또 걸으며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하던 그의 자욱자욱이 페지마다에 새겨져있었고 진할줄 모르는 그의 열정이 갈피마다에서 열풍처럼 내풍기고있었다.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대형정찰기《EC—121》사건, 《판문점》사건때마다에는 온밤 잠들지 못하고 비수같은 시편들을 써냈으며 조선로동당제6차당대회의 주석단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처

음으로 뵈옵던 날과 영명하신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날들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찬란한 래일을 확신하며 얼마나 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불덩어리같은 시들을 썼는가!

정순의 가슴은 한없이 높뛰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름을 받고 대학으로 오던 날 차우에서 흥분에 넘쳐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귀가를 쟁쟁히 울리는것만 같았다.

《저 별들이 보입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 나라에 재더미밖에 없지만 저 별들처럼 반짝이는 무수한 도시와 마을들이 조국의 대지우에 솟아오를 날은 올것입니다. … 그 락원을 위하여 지금 우리의 전우들이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있는것이며 그 락원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대학으로 가고있는게 아닙니까. 그때에 가서 우리는 후대들앞에 떳떳이 말하게 될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 우리의 청춘을 바쳤으며 일생을 참답게 바쳐왔다고!》

그렇다, 장범은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다.

그의 일생은 후대들앞에 떳떳하다.

그리고 딸은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가.

정순은 명희에 대한 육친의 정 비슷한것을 느끼면서 그를 하루빨리 만나보고싶었다.

이제 20일만 지나면 준수와 함께 명희가 올것이다.

정순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피여올랐다. 나는 너의 아버지와 한부대에서 싸운 전우라고 말해주면 명희가 얼마나 놀랄것이며 또 기뻐할것인가. 장범의 시집을 펼쳐놓고 전쟁시기 시들을 읊으며 명희에게 그 시절의 일들을 감회깊이 이야기해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여졌는가를, 아버지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우들의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의 한몸을 내댔는가를 이야기해주자.

벅찬 흥분에 휩싸인 정순은 자리를 차고일어나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정순은 어찌하여 명희가 《ㅈ》약물을 연구하게 되였겠는가를 충

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준수와 명희의 결합에는 우연보다도 필연이 더 크게 작용한것이 아니겠는가!

준수와 명희의 사랑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인가!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리상적인 한쌍인것이다.

정순은 자기의 온몸에서 청춘의 정열이 되살아남을 느꼈다. 그 속에서 그는 자기를 괴롭히던 병마와 육체적로쇠를 잊었다. 아니, 그것들은 휘황히 타오르는 감격의 불길에 의해 타버리고만것이다.

정순은 다시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날로부터 보름남짓한 기간 정순은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연구에 몰두하였다.

더우기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즉시 탈퇴한다는 외교부 대변인성명을 계기로 극한점에 이르렀던 조미핵대결이 또다시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였다는 소식은 정순을 무한한 환희에 잠기게 하였다. 미제는 드디여 무릎을 꿇고 전 대통령 카터를 평양에 보내였다.

이 땅에 무겁게 드리웠던 전쟁의 검은 구름은 조국통일의 밝은 서광으로 바뀌였다. 특히 한달후에 열릴 북남최고위급회담소식은 정순의 가슴을 몹시도 설레이게 했다.

이 기쁜 소식들은 정순의 정신을 고도로 앙양시켰고 그로 하여금 병마며, 로쇠며 모든것을 잊고 오로지 연구에 심혈을 쏟아부을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미애에게서 편지가 날아왔다.

이제 인차 준수가 돌아오면 그곳 소식을 알게 되겠는데 새삼스레 편지를 하다니…

정순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속지를 펼쳤다.

《존경하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저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용서를 비는것보다 다투지 않는 편이 낫다지만 참 후회란 언제나 때늦은 법이군요.

지나간 일들을 곰곰히 되새겨보느라면 제자신이 혐오스럽고 막 엎드려 빌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별려오던 사죄의 기회마저 차례지지 않을것 같군요. 시동생한테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뜻밖에도 우리 부부가 외국에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상급의 조치지만 전 처음에 반대했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맏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모시려던 저의 계획이 틀어지고마니까요. 한번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고나서 전 저의 생각이 짧았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보다 나은 동생이 없다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 시집의 세형제가운데서 준수시동생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도 막내를 제일 사랑하시는게고… 이번 기회에 집이 나게 될터이니 어머님이 시동생과 함께 함흥으로 나오도록 합시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흥이 그곳보다는 살기가 훨씬 날겁니다.

바다가 가깝지, 날씨도 따뜻하지… 여기는 대화학공업도시이니 어머니가 하고계시는 연구에도 퍽 유리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마음도 한결 편해질것 같습니다. 만분지 일에도 못미칠줄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제가 어머님께 끼친 마음고생을 속죄하는 심정에서 우린 가산을 전부 시동생에게 넘겨주고가렵니다.

대상자는 억철이 아버지랑 나서서 골랐습니다.

함흥대극장에 있는 처녀인데 억철이 아버지는 아주 마음에 들어합니다. 퍽 온순하고 얌전하답니다.

처녀의 오빠는 저의 둘째 오빠네 부국장입니다.

처가집신세를 지자는것은 아니지만 그쯤한 사람이 막내매부의 전도하나 열어주지 못하겠습니까.

본인도 똑똑하지, 제대군인에 당원이지, 인차 대학졸업증을 쥐게 될터이고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겠으니 시동생은 꼭 크게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보았더니 시동생은 막무가내로 반대예요. 약속한 처녀가 있다나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요?! 그 처녀는 아들없는 집의 외딸인데다가 어머니마저 안계신답니다.

아버지는 운신을 자유로이 못하는 불구의 몸이여서 시동생이 고생살이에 빠질것도 걱정이지만 모처럼 차례진, 어머님을 기쁘게 해

드릴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기대가 아쉽기 그지 없더군요. 데릴사위는 또 그렇다치고 처녀의 집이 산골이라는데 시동생의 재능이 빛을 못보고 묻힐 생각을 하면 잠이 다 안오는군요.

어머니, 시동생을 함흥에 데려내와 과학원 함흥분원이나 그 비슷한 연구소에 넣어 연구를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은 곬을 내주는데로 흐르고 사람의 발전은 길을 내주기에 달린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동생이 지금 중요한 연구를 하고있는데 산골에서 고생살이에 빠지면 무슨 연구가 되겠어요. 그 연구를 위해서도 함흥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시동생이 그 처녈 사랑한다는데야 우리로선들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아쉬운대로 단념하고말았지요. 이젠 근 1년이 되여온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최근에 와서 그 처녀가 맘을 달리 먹은것 같습니다. 아니 틀림없습니다.

시동생은 이번 등교에 올라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에 빠져있답니다. 옆에서 보기가 딱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화가 복으로 된게 아닐가요?

제스스로 물러서는 처녀를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동생한테 자존심이란게 없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 시동생이 집에 돌아가면 잘 타일러서 옳은 길로 이끌어주십시오.

어머님이 함흥으로 나오시고 시동생도 제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들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럼 어머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씁니다.

6월 ××일 맏며느리 올림》

맏아들네가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였다. 정순은 그에 대해 준수로부터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윤수가 동생의 소개에 나선다는것은? 명희가 준수를 배반했다는것은? 준수가 고민에 빠져있다는것은?

정순의 마음은 불안으로 떨렸다. 그에 대한 회답이 장범의 편지

에 있을것만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야 갑작스레 명희 아버지가 준수에게 편지를 쓸 리유가 없을것이다.
정순은 주저없이 봉투를 뜯었다.

《준수동무에게!
비록 첫 편지지만 나에겐 이미 서로가 구면인듯한 느낌이 드는군.
어제 오전 동무의 형수가 우리 집에 왔댔소.
그래서 동무네 집과 우리 집사이에 나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는것을 알게 되였소. 하지만 나로 해서 문제는 없을것이요. 공연한 걱정이요. 지금 동무와 우리 명희가 하고있는 연구사업의 중요성을 보아서도 서로 헤여져서는 안되겠기에 서둘러 펜을 들었소. 명희가 동무를 얼마나 사랑하고있는지 동무는 다는 모를거요. 여러모로 보아 연구사업을 하는데는 함흥이 여기보다는 유리할거요.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바라오. 어머니에게 인사를 전해주시오.
6월 ×일 명희 아버지로부터》
정순은 그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있음을 감촉하였다. 미애가 명희네 집에는 왜 간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무엇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 숨기는가. 혹시 그 때문에 명희가 마음을 달리 먹은것은 아닐가? 윤수는 왜 동생에게 다른 처녀 붙여주려고 하는가? 명희 아버지때문에 두 집사이에 오해가 생겼다는것은?
정순은 두 편지를 몇번이나 거듭 읽어보았다.
섬찍한 예감에 가슴이 얼어들었다. 근 20일동안이나 휘황히 타오르던 그의 흥분은 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는 실험대앞에서 천천히 물러나 온몸에 엄습하는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며 침대로 다가가 쓰러지듯이 그우에 누웠다.
그리고는 두눈을 감고 죽은듯이 까딱 않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듯 하고 정신이 몽롱한데 파들파들 떨고있는 심장의 존재만이 강하게 느껴졌다. 이것도 역시 흥분일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장범의 시집과 조미핵대결전에서의 우리의 승리에 대한 소식으로 인한 흥분과는 정반대의것이여서 정순을 정신

적인 앙양과 환희의 절정으로부터 끝없이 깊은 암흑의 미궁속으로 날아떨어지게 만들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끝없이 곤두박히고있는듯한 불쾌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순은 하던 실험과 자료조사작업이나 마저 끝내고 편지를 보았을걸 하고 후회하였다.

가뭇없이 잊고있던, 아니 사라져버렸던 눈과 머리의 아픔, 그리고 왼쪽의 반신마비에 대한 감각이 희미하게 되살아올랐다.

2

창밖에 어스름이 깃들무렵 정순은 기차시간을 알아보려 역으로 나갔다. 밤 12시차와 새벽 3시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새벽차를 타라고 안내원은 친절히 조언을 주었다.

제○○렬차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신안주에 내려야 하는데 새벽차를 타면 인차 맞물리지만 밤차를 타면 붐비는 기다림칸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것이였다. 정순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자정이 되여 오는무렵 그는 밤차를 타기로 결심을 달리 하고 역으로 나갔다.

벽시계소리만 뚝딱거리는 고요한 빈방에 누워있노라니 갖가지 불안스럽고 무서운 예측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면서 견디기 어려웠던것이다.

차라리 굉장히 소란스럽다는 신안주역에서 시간을 보내는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할것 같았다.

그 소란속에서 잠시라도 망각을 맛보고싶었다.

정순이가 영북역에 내렸을 때는 다음날 오후 4시경이였다. 그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왼쪽다리때문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홈에 내려서고 있는데 《명희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순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소리가 난쪽을 바라보았다. 바께쯔와 밀대를 쥐고 저켠 야외수도쪽으로 가고있던 철도제복을 입

은 처녀가 방금 렬차에서 내린, 흰샤쯔에 까만 치마를 입은 몸매가 날씬한 처녀쪽으로 달려가고있었다.

몇마디 이야기를 들은 처녀는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한 렬차에 다시 올랐다. 명희인것만 같았다.

정순이 그쪽으로 급히 다가가는데 렬차는 이미 속력을 내기 시작하였다. 정순은 철도제복을 입은 처녀에게 다가갔다.

《미안하지만 좀 물읍시다. 이자 다시 기차에 오른 처녀의 이름이 신명희이지요?》

《예.》

처녀는 의문이 실린 눈길로 정순을 바라보았다.

《명희가 여기 병원에 다니지요?》

《예.》

《명희네 집이 어뎁니까?》

《왜 그러십니까?》

《난 명희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명희 아버진 지금 집에 없습니다. 군인민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명희도 지금 읍에 갔습니다.》

《읍에 가는 기차는 언제 또 있습니까?》

《1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정순은 버드나무그늘밑에 있는 긴 걸상에 앉아기다렸다. 장범이 이곳에서 산단 말인가.

정순은 유정한 눈길로 산이며 하늘이며 구름이며를 바라보았다. 저 나드는 곳을 거쳐 장범이 평양으로 함흥으로 남포로 아니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다녔겠구나. 한시바삐 그를 만나보고싶었다. 가슴속깊이에서 솟구쳐오르는 격한 정때문에 목이 메고 눈주위가 활 달아오르는것만 같았다.

명희 아버지가 왜 입원했을가?

정순의 마음은 다시금 무거워졌다. 분명히 명희네 집에 검은 구름이 드리웠다. 미애가 그 구름을 몰아간것이나 아닌지…

한시간후 군인민병원에 당도한 정순은 접수실에서 외과입원실 의사가 공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원은 둥근 타래를 지으며 무성한 구기자넝쿨이 생울타리처럼 네모나게 구획을 짓고있었다.

그안에 천궁, 독활, 당귀, 익모초 등 갖가지 약초이름을 써넣은 산뜻한 표말들이 박힌 뙈기밭들이 두부모처럼 정방형을 이루고 여러줄로 나란히 배치되여있는데 그사이로 세멘트블로크를 깐 포장도로가 가로세로 뻗어갔고 곳곳의 그늘길은 곳마다에 걸상들이 놓여있었다. 흰꽃과 보라색꽃들이 활짝 핀 도라지뙈기밭앞에 놓인 긴 걸상에 쉰살쯤 되여보이는 의사가 앉아있었다.

《…환자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듯 합니다. 무엇인가로 고민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친척이라 했던가요? 아니라구요?… 어쨌든 될수록 그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에 류의해야 합니다. 몇년전에 도인민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재수술을 될수록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뜻대로 잘되지 않습니다. …

간호원동무, 이 손님을 8호실에 안내하시오. 그다음 내 방에 들리시오. 책상우에 처방을 써놓았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타오시오. 오늘 오전 병원 협의회에 약국장선생도 참가했댔으니 다 보장해줄거요. 비카일은 당분간 끊으시오. 남은것은 약국에 반환하시오.》

간호원은 한손에는 검체함을, 다른 한손에는 가제관을 들고있었다. 정순은 사양하는 그에게서 끝내 가제관을 받아들고 나란히 걸었다. 가제관에서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주사기, 주사바늘, 핀세트, 침 등이 부딪치는 소리였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듣는 그 소리가 삽시에 전쟁때의 모든것을 떠올려주었다. 장범과 나란히 12호병동쪽으로 걷던 비내리던 그 저녁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시랑송을 해보자고 나를 설복하였지… 정순은 자기가 금시 쌍태머리를 한 간호원이 되여 그때의 옛부대를 찾아간것만 같았다.

그 시절의 생신한 감정이 그대로, 아니 보다 강렬히 되살아나서 정순의 온몸을 사로잡았다.

마치 목이 꽉 조여드는것 같았다.

아아, 그때로부터 40여년이 흘렀구나. 그런데 이제 몇분후이

면 그를 만나게 된단 말이지.
  정순의 마음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떨리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불안과 무서운 예측들을 순식간에 잊어버렸다.
  거의나 본능적인 기쁨이 모든것을 잊게 만들었다. 가제관안에서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났다. 정순은 자기의 손이 떨리고있음을 알아차렸다. 외과입원실건물앞에까지 왔을 때 정순은 간호원을 돌려보냈다. 현관복도에서 신발을 벗고 비닐실내화를 갈아신었다.
  복도정면에 하얀 위생복을 입고 위생모를 쓴 간호원이 왼손 두번째 손가락을 입술에 세로 댄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있는데 그 밑에 《조용히!》라고 붉은 글자가 씌여져있었다. 입원실전체가 쥐죽은듯 고요한데 이따금씩 억제한듯한 가느다란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복도는 길고 어둑시근하였다.
  복도의 좌우켠에 난 문들은 대체로 꼭 닫겨져있었지만 어떤것들은 조금 열려져있었는데 거기서 비쳐나온 빛이 복도를 가로지르는 흰 띠처럼 바닥에 새겨졌다. 열려진 문들로 머리에 붕대를 감았거나 팔이나 다리에 키브스를 한 환자들이 누워있는것이 보이였다.
  검게 번들거리는 차거운 바닥에서 풍겨오르는 서늘한 기운이 확확 달아오르는 정순의 두볼을 다소나마 식혀주었다.
  4호실, 5호실… 그러니 저 세번째 호실이구나. 가슴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려오는듯 하였다.
  정순은 머리칼을 쓰다듬고 옷매무시를 바로 잡으며 문가에 섰다. 차마 선뜻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방싯이 열린 문틈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체구가 장대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정순은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앗! 정순은 저도모르게 소리를 칠번 하였다. 틀림없는 장범이였다.
  넓고 시원한 이마, 짙고 수북한 눈섭, 든든하고 날이 선 코, 네모지고 약간 앞으로 내밀린 턱, 그 모든 낯익은 얼굴모습을 정순은 대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두눈을 감고있었다. 그의 이마와 량볼에는 전에 없던 굵은 주름살들이 패여있었지만 청춘시절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정순의 손가락 마지막마디들마다가 쩌릿이 저려들었다.

이마우에 올려놓은 그의 왼손에서 흐르는 이상한 윤기가 정순을 놀래웠다. 어째서 저럴가? 찬찬히 바라보니 그것은 굳고 매끈한 수지의 윤기였다.

아 의수를 했다지, 사납게 날치던 황소도 꼼짝 못하게 틀어쥐던 그 손, 나에게 억지로 비옷을 씌워주던 그 손, 나를 버쩍 안아 자동차에서 내려던지던 그 억센 왼손이 영영 없어졌단 말인가.

억이 막혔다. 정순의 눈앞에 그날의 모든 광경이 생생히 떠올랐다. 충천하는 화광, 얼굴까지 끼쳐오는 화염과 열풍, 고통에 무섭게 일그러진 장범의 얼굴, 《피하라!》고 마지막으로 목터지게 웨치던 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 그 잊을수 없는 눈빛!

아, 과연 이것이 꿈이 아니란 말인가?! 바로 그 장범이 몇메터 앞에 누워있단 말인가?! 그는 이렇게 정녕 살아있었단 말인가?!

정순이 감격으로 하여 떨리는 손으로 막 문고리를 잡고 당기려는 순간 방안에서 장범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나에게 숨길 필요는 없다. 난 그날 밖에서 다 들었다.》

무슨 하던 이야기의 계속인듯 했다. 그제서야 명희가 와있을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조금 발걸음을 내짚고 기웃이 들여다보니 과연 침대옆에 걸상을 놓고 앉아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겨우 가늠이 되였다. 명희가 틀림없었다.

《듣다니요?!》

처녀의 놀란 목소리가 울리였다.

장범과 명희사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정순은 미애가 무엇때문에 명희네 집에 갔댔는가 하는것을 낱낱이 헤아릴수 있게 되였다. 예리한 칼끝이 정순의 가슴에 박히는것만 같았다. 모진 아픔에 정순은 저도모르게 눈을 감으며 터져나오는 신음을 씹어삼켰다. 몇분전만 하여도 장범과의 감격적인 상봉만을 그려보면서 감감 잊고있던 그 무서운 예측이 이제는 적라라한 사실로 되여 날카로운 창끝인양 정순의 가슴을 들이치는것이였다.

무서운 절망, 뼈저린 수치감, 가슴의 모진 아픔에 정순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였다.

모든것이 끝장난것만 같았다. 다음순간 이상야릇하고 고통스러운 공허감과 허탈을 느꼈다.

《네가 그 형수라는 녀자가 왔다간 날 저녁부터 절망에 빠져 연구를 집어던지고있는 꼴을 나는 다 지켜보고있었다. 다만 쓸데없는 동정에 사로잡혀 지금껏 모르는척, 못본척 하고있었을뿐이다. 이번 등교기간에 네가 공부를 어떻게 했으리라는것도 네 얼굴에 다 씌여있다. 네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해나간다면 결코 연구에서 성공할수가 없다.

물론 나는 지금 너의 심정이 어떠하리라는것을 충분히 리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쳤으며 자기의 자식마저도 남의 집문전에 놓고 혁명의 길로 떠나간 항일혁명선렬들이나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으면서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하고 웨친 영웅전사들이 지녔던 그 신념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연구를 끝까지 해낼수 없다. 그것은 〈ㅈ〉약물연구가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는것 못지 않게 어려운 일이기때문이다.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병원이 아니다. 이 아버지의 곁이 아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가 아버지의 곁에 붙어있다고 해서 내 병이 빨리 낫는것도 아니다. 나는 병세를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엔 좀 오래 걸릴것 같다.

그러면 너는 내가 완치될 때까지 여기 남아있을셈이냐?

네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위하려거든 당장 이자리를 떠나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완치되여 집에 돌아갈 때까지 다시는 병원문앞에 얼씬거리지 말아라. 알겠느냐?》

《…》

《알겠느냐?》

《알겠어요, 아버지.》

명희의 목소리는 갈려있었다. 그 목소리만 듣고도 명희의 눈가에 눈물이 어려있음을 감촉할수 있었다.

이제 당장이라도 명희가 밖으로 나올것만 같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 순간이 천년인듯 싶었다.

정순은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얼마나 만나보고싶었던 두사람인가! 그러나 그들앞에 이런 수치스러운 꼴로는 나타나고싶지가 않았다. 정순은 자기의 얼굴과 온몸에 더러운 오물이 게발려져있는것 같은 심정이였다. 그들앞에서 자기의 맏며느리인 미애가 한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까밝혀야 할 자기의 가긍한 처지에 절망하였다. 그들이 과연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하는 나를 어떤 눈길로 바라볼것인가.

정순은 당원으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뼈저린 자책을 느꼈다. 아, 내가 왜 미리 이런 위험을 예감하지 못했던가, 어째서 맏아들, 맏며느리가 그릇된 길을 걷는다는것을 느끼면서도 강건너 불보듯 해왔던가. 당에서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상이 우리 내부에도 침습해들어올수 있다는것과 그 엄중한 후과에 대해 얼마나 경종을 울렸던가.

나는 설마 우리 집안에까지야 하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모든것이 내 잘못이다. 책임은 다름아닌 나자신에게 있다!…

정순은 중죄판결을 받은 죄인인듯 고개를 푹 수그리고 되돌아섰다.

차마 입원실안으로 들어설수가 없었다.

명희에게 들키기라도 할가봐 허둥거려지는 심정이였지만 두다리는 마치 남의 다리인듯이, 나무토막으로 만들어붙인것이기나 한듯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가까스로 건물밖으로 나서니 하늘에는 검은구름장들이 낮게 드리워있었다.

비방울들이 후둑후둑 떨어졌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길가의 먼지가 회오리를 쳤다.

번개가 번쩍이더니 얼마후 꾸르릉—하는 먼 천둥소리가 들려왔다.

저 멀리 영북역사가 바라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창대같은 비줄기가 쏟아져내렸다.

정순의 온몸은 비에 흠빡 젖어버렸다.

길 량옆에 줄지어서있는 가로수들의 잎사귀들이 비방울에 맞

아 흠칫흠칫 떨고있었다.

그밑의 아담하게 가꾸어진 화단에도 굵은 비방울들이 련이어 떨어져내렸는데 그것에 얻어맞은 꽃들이 흐느껴울기라도 하듯 애처롭게 흔들거렸다.

말을 잘 듣지 않는 다리를 겨우 끌며 뽀얀 비발속을 걸어가는 정순의 얼굴에서도 비물만이 아닌것이 두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3

명희한테 다녀온 뒤로 미애는 늘 불안에 시달리고있었다. 특히 남편이 두려웠다. 동생과 충돌한 후 남편은 말이 없어졌다. 확실히 남편의 태도는 서서히 변해가고있었다. 그 침묵은 미애자신에 대한 경멸일수도 있었다. 만일 이번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경멸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여 폭발할런지도 모른다.

미애는 무서웠다. 그때에 가서 시동생과 그 처녀와의 결혼은 이루어질것이며 그들은 이 일을 일생 잊지 않을것이다. 소문은 삽시에 온 동네로 퍼져나갈것이며 직장에도 인차 알려질것이다. 처녀의 아버지는 영예군인이다.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 할것이다. 지어 어머니와 오빠들까지도 나를 용서치 않으며 일생 나를 멸시의 눈길로 바라볼것이다. 지금껏 둘째오빠한테 시동생에게는 아무런 애인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오지 않았는가.

견딜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나날속에서 미애는 진심으로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종전의 생활이 회복되였으면! 외국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시동생은 그 처녀와 결혼하고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가고… 그이상은 필요없다. 그것이면 만족하다. 제발 그렇게 되였으면! 어떤 도깨비가 날 씌였는가.

그전에는 도저히 느낄수 없었던 안정된 생활의 행복함과 귀중함이 그것을 잃을수도 있게 된 지금에야 절절히 느껴졌다. 이제라도

다시 처녀를 찾아가 솔직히 털어놓고 용서를 빌자. 몇번이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댔으나 선뜻 용단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그런 순간이면 생각은 다시 뒤바뀌였다.

내가 잘못한것이 뭔가, 시동생이 향순이와 결혼하고 과학원(당시) 함흥분원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하고있는 연구에도 밝은 전망이 열릴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늘 그 연구때문에 속을 태우고있는 시어머니도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또 시어머니자신도 대도시로 나와 이 좋은 집에서 여생을 편히 즐길수 있지 않는가. 그건 그렇고 모든것이 비밀의 장막에 가리워지고 일이 다 제대로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는것은 아니였다.

내가 쓸데없는 근심에 잠겨있는것이 아닐가, 아니다. 서뿔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 좀 더 기다려보자. 언젠가 가서는 오늘의 이 고민을 웃게 될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가까스로 끌어다놓은 안도감은 또다시 두려움으로 바뀌여버리는것이였다. 만일 모든것이 드러난다면?! 어쨌든 거짓말을 한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러한 상반되는 감정은 미애를 허영의 상상봉과 불안의 심연사이로 끊임없이 오르내리게 했다. 아무리 심장이 든든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련속되는 급강하와 급상승을 견디여내기 어려울것이다.

미애는 다시금 결심했다. 시동생이 인차 등교때문에 올것이다. 그때 모든것을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빌자. 남편이나 시어머니, 명희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지금은 체면같은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결심하고나니 밥맛도 생기고 잠도 잘수 있었다. 사람 사는것 같았다.

그렇게도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건만 실지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시동생을 보았을때는 흠칫 몸서리를 쳤다.

그가 원한에 찬 눈길로 쏘아보며 곧추 다가와 《형수가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요?!》라고 씹어뱉듯이 말했을 때 미애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해졌다. 그 말이 폭탄처럼 터지면서 온몸이 가루로 되여 흩날려가는것만 같았다. …

《그동안 건강했습니까? 그런데 어데 아프세요?》

시동생의 근심어린 목소리가 그 녀자를 무서운 환각에서 깨여나게 했다. 그제서야 미애는 인사말도 없이 전실 한가운데 넋을 잃고 서있는 자신을 의식하였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번개쳤다. 미애의 얼굴에 인차 상냥한 웃음이 그려졌다. 시동생은 고사리, 고비를 비롯한 산나물들과 이름난 술 몇병을 내놓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내는 손자의 옷과 그림책, 깨엿 등도 전달하였다. 미애는 매번 손자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있는 시어머니가 고마왔다. 시동생은 쾌활하고 씩씩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면 어떤 태도로 나올것인가? 그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지고 쓰겁게 나를 바라볼것이다. 《형수가 그런 사람이였군요.》 이렇게 말할런지도 모른다.

이 따뜻한 분위기를 깨고싶지 않았다. 잠시라도 지속시키고싶었다. 식사나 시킨 다음 모든것을 털어놓고 그의 용서를 빌자.

아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미애는 머리칼을 쥐여 뜯고싶을 정도로 절망에 잠겼다.

《아직 식사를 못했지요?》

《기차칸에서 먹고 내렸습니다.》

수건을 들고 세면장으로 들어가며 시동생은 대답했다.

《그래도… 잠간 기다리세요. 내가 이제 시원한 국수를 받아올게.》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가 국수집에 갔다오니 목욕을 하고있던 시동생이 없어졌다. 대학에 간 모양이였다.

명희는 시동생에게 어떤 말을 할것인가? 무서운 공포와 절망에 가슴이 얼어들었다. 그 녀자는 급히 밖으로 뛰여나갔다. 그러나 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들속에서 어떻게 시동생을 찾는단 말인가.

혹시 뻐스를 탔는지도 모른다. 미애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밀치우며 걸음길의 한복판에 얼나간듯이 오래도록 서있었다. 내가 무슨 망할놈의 국수생각을 했던가. 집에 있는것으로 차려도 충분할텐데… 끝내 일은 터졌구나. 이제는 운명에 맡길수밖에 없었다. …

남편이 한잔 나누려고 오래동안 기다렸으나 밤이 깊어서야 나타

난 시동생은 이미 취해있었다.

남편은 이 전례없는 일에 몹시 놀랐으나 미애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순식간에 알아차릴수 있었다.

그날부터 보름 남짓한 동안 미애는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시동생의 일거일동을 살피고있었다. 거기에는 명희의 태도가 정확히 반영되여있었다.

미애는 모든것이 자기가 바라던대로 되여가고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는 차츰 대담해졌다.

그리하여 정순에게 편지를 썼다. 지금쯤은 받았을것이다. 미애는 정순이 자기의 편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

오늘 아침 직장으로 둘째오빠의 전화가 왔다.

미애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아무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인차 좋은 소식을 알리겠어요.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상정시켰다구요. 꼭 부탁해요. … 예예, 그 문젠 마음을 놓으래두요. 제가 인차 한번 평양에 가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녁때 미애는 남편과 마주앉았다. 어제까지 시동생의 등교기일도 다 끝났다. 며칠 더 일을 보고는 가겠다고 한다.

시동생이 집으로 가기 전에 그를 돌려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남편을 움직여야 한다.

시동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억철이 아버지, 이번에 동생이 이상하지 않아요?》

《…》

윤수는 보던 책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주의는 분산되여버렸다. 이번 등교기간 막내동생은 얼굴이 해쓱해다니고 끼니를 건늬다싶이 한다.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책상앞에 앉아있거나 침대에 엎디여 베개에 얼굴을 묻고있는 막내동생을 자주 볼수 있었다. 그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였다. 처음에는 그닥 대수롭지 않게 여겼댔는데 좀처럼 우울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있었다. 한번 만나서 원인을 알아보고싶었지만 괜한 로파심인 것 같아 그만두었다. 요 며칠새는 좀 나아진듯 하지만 밥맛은 여전히 잃고있었다.

한편 남편이 자기의 말은 들은척도 않고 계속 책만 읽고있는데서 미애는 일종의 무시를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발끈할 때가 아니다. 인차 시동생이 들어서겠는데 그전에 남편과 호흡을 일치시켜야 한다. 오늘은 끝장을 보자.

《제 생각엔 동생이 실련을 당한것 같애요.》

《?!》

비로소 윤수는 눈길을 들었다.

《여보, 그따위 어리석은 소린 하지도 마오.》

《아니, 소리는 왜 쳐요. 생각나는것을 말했을뿐인데 당신은 동생이 저렇게 고민하는게 가슴아프지도 않아요? 실지 처녀가 생각을 달리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할게 아니예요.》

《흥, 그럴 처녀가 아니요. 당신은 거기에 끼여들 생각을 마오.》

《억철이 아버지, 다른 사람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무엇때문에 동생이 저렇게 서리맞은 꼴이 되였겠어요. 틀림없다니까요.》

《…》

윤수는 지금까지 한번도 동생이 막내풀이 죽은 원인을 이렇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처의 말을 듣고보니 쉽게 부정해버릴수 없는 론거가 느껴졌다. 다른 일로라면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을것이다.

《오늘 저녁 동생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실이 그러하다면 향순이 말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윤수는 그만에야 왈칵 성을 냈다.

《당신은 그렇게 되길 바라고있었소?》

미애는 달래는듯 부드럽고 침착한 태도를 취했다.

《누가 그런걸 바라겠어요. 저도 처음엔 동생의 마음을 잘 몰랐댔어요. 그러나 처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동생과 결혼할수 없다면 동생은 일생 혼자 늙겠어요? 그럴수야 없겠지요? 어차피 결

혼은 해야 할게고 또 결혼을 하는바에는 여러모로 향순이가 유리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

윤수는 다시는 막내동생의 결혼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은지 오래였다.

그것이 닭알로 바위를 치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깨달은 때문이였다. 막내동생은 천하를 준대도 처녀와 갈라지지 않을것이다. 그들의 사랑과 지향은 참으로 아름다운것이고 그처럼 굳은 정신적뉴대로 결합된다면 그들은 일생을 행복하게 보내게 되리라는것을 믿게 되였던것이다.

굳어진 관습으로 하여 종전의 생활을 반복하고는 있었지만 내가 과연 행복한가고 의문을 품을 때가 많았다. 윤수도 결혼전에야 이비슷한 환경에 처하였었다. 그때 어떻게 행동했던가? 동생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던것이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한가? 윤수는 막내동생이 옳은 길로 나가고있으며 자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처녀가 막내동생을 진심으로 깊이 리해하고 있을가? 막내동생과 동등한 정신적높이에 올라있을가? 모든 곤난과 희생을 각오하고있을가? 사랑이 언제나 사랑을 낳는것은 아니다. 그 처녀가 막내동생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수 있다. 1년동안의 공동연구에서 겁을 먹고 뒤걸음치는것이나 아닐가?

미애는 남편의 침묵을 제나름으로 리해하고 말을 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린 전번에 동생의 마음을 잘 몰랐댔어요. 동생의 사랑이 그처럼 열렬한것인줄 몰랐댔어요. 또 일생을 연구사업에 바치기로 한 사람에게 약품공급소니 뭐니 하였으니 우리말을 들을리 있었겠어요? 이젠 환경이 달라졌어요. 모든것이 예측대로라면 더는 그 처녀에게 기대를 걸 필요가 없을게 아니예요. 향순이와 결혼시켜 과학원분원같은데 넣으면 동생의 소원도 풀릴게거든요. 그까짓 산골에 일생 박혀있기보다 잘됐지 뭐예요. 운신이 불편하다는 가시아버지때문에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하겠어요.

우리가 외국에 간 다음 어머니를 동생네 집으로 모셔올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미애는 잠시 말을 끊고 아침에 걸어온 둘째오빠의 전화이야기를 꺼낼가말가 망설이였다.

자칫하면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었다. 그러나 미애는 남편이 외국가는 문제에 전혀 무관심할수는 없을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침에 둘째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어제 향순이 형님을 만났댔는데 몹시 초조해하더래요.

제가 아직까지 자세한 이야길 하지 않은탓이예요. 오늘 알아봐서 동생과 처녀와의 관계가 변함없다면 래일 당장이라도 그 집에 단념하라고 일러야지요. 이제라도 동생이 향순이와의 결혼에 스스로 동의해나선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이 문젤 끌어오길 잘했지요. 내가 일이 이렇게 되길 고대해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이예요.

연분이란 말이 있지 않아요. 아마 이게 동생의 운명이겠지요.》

《…》

윤수는 막내동생과 향순이라는 처녀와의 결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아직도 믿고있는 처가 한심스러웠다. 설사 동생이 명희와 갈라진다 해도 결코 안해가 간절히 바라고있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 그는 근 1년이 되여오는 동안 몇번이고 막내동생과의 론쟁을 거듭 되새겨보았던것이다.

막내동생에게서는 아득한 높이로 날아가는 세찬 정신의 퍼덕임이 느껴졌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였다. 그런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것이다. 설사 성공하지 못하고 쓰러진다 해도 후회없을 삶이다. 그것을 리해하고 받들어주어야 할 처녀가 배신하다니. 막내동생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열렬하고 굳센것이였던가. 지금 막내동생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가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낼것인가. 그는 막내동생을 믿었다. 막내동생에게 용기를 주고싶었다.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수가 들어섰다.

준수는 서재로 들어서다가 자기때문에 이야기가 끊어졌음을 알

아차리고 인차 돌아섰다.
《거기 좀 앉거라. 너를 기다리던참이다.》
윤수가 준수를 불러세웠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뭐 에두를것도 없지. 한가지 물어보자. 너 명희와 무슨 일이 있었니?》
《…》
《말해라. 나도 알아야 할게 아니냐.》
《…》
《처녀가 연구사업에서 물러서니?》
《아닙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은것 같은데…》
《명희는 다른 사람과 약혼을 했답니다.》
불쑥 말해버리고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것만 같았다. 숨길 필요도 없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한달도 안된것 같습니다.》
윤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예상은 했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험악해졌을줄은 몰랐다.
미애는 눈을 감았다. 이자리에 있는 셋중에서 오직 그 녀자만이 그 약혼이 언제 결정되였는지 안다. 그것은 불과 한달전의 일이다.
《내가 한번 만나볼가?》
윤수가 침묵을 깨뜨렸다.
《필요없습니다.》
《그럼 처녀의 아버질 만나볼가?》
미애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아이, 아버지의 동의없이 그런 일을 했을가? 당신이 나선다고 이제 파혼이 되겠어요?》
《옳습니다. 이젠 늦었습니다. 동의한 정도가 아니랍니다. 약혼은 아버지의 의사였다고 합니다.》

윤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묵묵히 자기를 지켜보는 동생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가슴을 찌르는듯한 가엾은것을 느끼였다. 윤수는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위로할수 없는 불행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였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탓이겠지요.》

《앞으로 어떡하겠니?》

《결혼같은건 생각하고싶지 않습니다. 억지스러운 말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일생 홀로 있고픈 심정입니다.》

《앞일은 예측할수 없는게다. 그러나 일단 뜻을 높이 세운바에는 물러서지 말아라.》

미애는 속이 한줌만 해졌다.

《아니, 그럼 일생을 혼자 보내라는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요. 높이 세운 뜻을 진심으로 긍정하고 도울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서뿔리 서두르지 말라는 소리요.》

윤수는 준수에게 머리를 돌렸다.

《곤난을 같이 헤쳐나갈 사람이 못된다면 미리 떨어지는것도 좋다. 하지만 난 왜서인지 명희를 믿고싶구나.》

준수는 형이 고마왔다. 코등이 찡—하니 저려들어 얼른 고개를 숙였다.

미애는 뜻밖의 사태발전에 아연해졌다.

《아니 여보,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동생의 생각을 들어보자요. 억철이 삼촌, 그 집에선 지금도 계속 동생의 대답만 기다리고있어요. 결혼하고 과학원분원같은데 들어가면 되잖아요. 동생이 하고있는 연구를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일이예요. 또 어머니도 함흥으로 데려올수 있잖아요.》

미애는 너무나 흥분해서 말까지 더듬거렸다.

《형수님, 그 심정은 리해됩니다. 물론 결혼문제에서 다른것들도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본은 본인이 아닐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지향하지요.

향순이란 그 처녀와 저의 행복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많

이 지내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 처녀는 저의 행복을 리해하지 못할게고 저 역시 그 처녀의 행복을 납득하지 못할겁니다. 어느 하나가 견해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 고통스러울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좀 어렵습니다. 제 행복을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가지도 못할겁니다. 지향의 일치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가요?》

미애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녀자는 격분과 절망,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시동생이 처녀의 배신을 벌하는 의미에서도 자기 말에 선뜻 응할것이라고 타산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는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그토록 동분서주했단 말인가. 더군다나 남편까지 이런 태도를 취할줄은 예상을 못했었다. 미애는 어찌할바를 몰랐다.

준수는 한켠구석으로 가서 거기에 놓여있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동생의 거동을 지켜보던 윤수는 의아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아니, 어딜 가려니?》

《예.》

《어디에 가려니?》

《…》

준수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그는 사실 영북구에 가려는참이였다. 명희의 연구일지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된 《상골》에 커다란 흥미를 느꼈기때문이였다. 준수는 《상골》에 대한 기록을 몇번이고 주의깊이 읽어보면서 그것이 《ㅈ－1211》호연구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으리라는것을 예감하고있었다. 명희의 연구일지는 등교 올라오기 열흘전부터 일체 기록이 중단되여있었다. 준수는 그것을 보고 그날부터 약혼문제가 일정에 오른것으로, 그래서 연구를 걷어치운것으로 오해하고있었다. 다행히도 연구일지에는 그 동굴로 가는 략도가 자세히 그려져있었다. 준수는 이 길로 직접 영북구 무채리로 가 그 《상골》을 구해가지고 성룡구에 들어가 연구를 심화시킬 결심을 했던것이다. 하지만 영북구에 가려 한다고 하면 형이 명희를 찾아가는것으로 오해를 할

것 같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였다.

《어딘가에 들려 시료를 얻어가지고 성룡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윤수의 가슴은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 충격으로 하여 쩌릿이 울리였다. 그는 명희와 갈라지기로 결심한 막내동생의 마음이 어떠하리라는것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당분간은 막내동생이 아무 일에도 손을 대지 못할줄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윤수는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네가 옳다. 너는 나보다 훨씬 강의하고 옳은 사람이다. 그런 각오와 강의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해낼수 없다. 이것이 전번 론쟁에 대한 나의 최종적인 대답이다. 어서 가거라.》

윤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가 빼람을 열고 손전지를 꺼내 동생의 가방에 넣어주었다.

준수는 형의 진심어린 고무격려에 가슴이 뜨거워올라 한동안은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4

준수가 떠나간 다음 얼마 안있어 바깥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억철이겠거니 생각하며 누구도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사실 그럴 경황도 없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것은 어머니가 아닌가. 윤수와 미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수는 몹시 놀랐다. 어머니가 오시다니?! 몇년만에 보는 어머니였다. 성에라도 내불린듯 이마둘레는 샛하얗다. 얼굴에는 굵고 깊은 주름살들이 새겨졌고 연갈색의 검버섯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등도 구부정해졌다. 그동안 퍼그나 늙으셨다.

윤수는 어머니의 백발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그 오리오리마다에 얼마나 깊고도 하많은 사연들이 깃들어있는것일가. 이 못난 아들때문에 희여진 오리들은 얼마이랴.

윤수는 지금에 와서 모든 점에서 어머니가 옳았다는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있었다.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을 눈앞에 대하니 그 자책이 더욱 마음속에 사무쳐왔다.

곤경에 처해있던 미애는 어머니가 오신것이 반가왔다.

내 편지를 보고 오신게로구나. 그 불같은 성미에 그냥 앉아 기다릴리가 없지. 시동생도 어머니의 말이라며는 감히 거역하지 못할것이다.

《어머니, 먼길에 수고하셨겠어요.》

미애는 활짝 웃는 얼굴로 마주 나갔다.

정순은 한동안 차거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도 없이 탁자앞에 마주놓인 걸상에 앉았다.

방안의 공기는 삽시에 얼어버렸다.

미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혹시 명희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것이 아닐가? 그럴수도 있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미애는 어머니가 이미 모든것을 알고있다는것을 깨달았으며 공포에 질렸다.

윤수는 마음이 아팠다. 그전 일들이 얼마나 가슴에 맺히셨으면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어머니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을가. 모든게 다 나때문이지. 내가 제구실을 했더라면…

윤수는 저도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한동안 거북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정순은 이들의 마음속을 손금보듯 읽고있었다.

그는 눈빛이나 어조의 사소한 변화로써도 맏아들이나 맏며느리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예민하게 감득할수 있었다.

사실 이 방에 들어서기 전에 정순은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활짝 웃으며 반기는 미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절대로 어루만져서는 안된다. 이번 일이 일생 잊혀지지 않게 강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진정 맏아들과 맏며느리를 옳바른 길에 들여세우는 채찍질인것이다. 쓸데없는 동정과 맹목적인 모성

애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해로울뿐이다.
《다들 앉아라. 난 지금 마음을 다잡기 어렵구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들도 나를 리해하게 될게다. 요 며칠동안 나는 우리 가정과 나의 일생을 두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다. 난 지금 수십여년전에 헤여졌던 전우의 집에 갔다가오는 길이다. 그는 억철이 아버지도 잘 알고있는 사람이다. 억철이 어머니는 모를수 있겠기에 이야기하련다. 그래야만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를 똑똑히 깨달을수 있겠기때문이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정순의 이야기는 그대로 생동한 화폭으로 되여 윤수와 미애의 눈앞으로 련이어 흘러갔다. …
《그때가 엊그제만 같은데 이렇게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데 20일전에, 그러니 준수가 여기로 출발한 다음날 난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줄로만 알고있던 그로부터 새로 출판된 그의 시집을 받았다.》
윤수와 미애는 모두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윤수는 아무리 해도 리해가 가지 않았다.
《어머니, 그분이 어떻게 어머니를 찾았을가요?》
정순은 급히 손을 내저었다.
《가만,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 시집은 나에게가 아니라 준수에게로 온것이였다. 명희 아버지가 바로 그 군의였구나.》
윤수와 미애는 거의 동시에 부르짖었다.
《명희 아버지가요?!》
《그렇다.》
방안에 한동안 숭엄한 침묵이 흘렀다.
정순이 다시 말을 이었다.
《명희 아버지는 내가 누구라는것을 전혀 모르고있더구나. 그때 내 심정이 어떠했겠는지 너희들은 짐작할수 있을게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싶었지만 난 준수가 명희를 데리고 나타나기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건 내가 이번에 준수가 떠날 때 당부했던것이니까. 명

희가 정말이지 친딸처럼 느껴지더구나. 명희와 준수를 앞세우고 나타나면 그가 얼마나 감개무량해 하겠니… 준수가 명희 아버지를 잘 모셔 그의 여생을 편히 해드린다면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것 같더구나. 개인적으로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니냐. 그가 일생 불편한 몸으로 지내오도록 나는 물 한바께쯔도 길어주지 못했구나. 난 왜 그토록 쉽게 그의 죽음을 믿었댔는지…》

윤수는 가슴이 떨렸다. 나는 그가 그처럼 념원하던 《ス－1211》호연구를 중도에서 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영웅전사를,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을 나는 또 어떻게 수술했던가…

정순의 목소리는 계속 울렸다.

《그런데 나는 명희가 준수를 멀리한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내 가슴은 몹시 아팠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정순은 맏아들에게 미애의 편지를 내주었다. 그것을 읽어나가는 윤수의 머리가 점점 수그러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자기자신이 그런 말들로 막내동생을 설복하려 했던것이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약품공급소대신 연구소를 운운하고있는것이다.

《나는 어머니이긴 하지만 아들한테 온 편지에 손을 대본적이 없었다. 난 시집과 함께 준수에게로 보내온 명희 아버지의 편지를 뜯지 않을수가 없었다. 명희가 준수를 멀리하는 리유가 거기에 있을것 같더구나. 준수가 내 심정을 리해하리라 본다. 그것을 읽어보고 불길한 예감에 내 마음이 떨렸다.》

미애는 흠칫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정순의 목소리는 계속 울렸다.

《명희 아버진 자기는 부담을 주지 않겠으니 준수에게 명희와 헤여지지 말라고 했더구나.》

윤수는 깜짝 놀라 저도모르게 부르짖었다.

《부담을 주다니요?! 그건 무슨 터무니없는 말이예요?!》

《너도 그 리유를 모르고있니?》

《?!》

윤수는 어머니의 어조에서 차거운 비웃음을 느꼈다.
정순은 가방에서 편지봉투 하나를 꺼냈다.
《명희 아버지의 편지다.》
편지를 다 읽고난 윤수는 미애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거기에는 분노가 번뜩이고있었다. 미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한껏 옹송그리고있었는데 전신이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나는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느끼고 그날 밤차로 영북에 갔다. 명희 아버지는 입원해있는데 상태가 매우 중하다.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이 그를 쓰러뜨렸던것이다.》
《어떤 불행인가요?!》
정순은 윤수의 그 물음은 들은척도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명희 아버지편지에도 있지만 6월초에 억철이 어머니가 명희를 찾아갔다. 왜 갔겠니? 그는 애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와 헤여져야 한다고 명희에게 말했을것이다.》
《전 헤여지라고 말한적은 없어요.》
미애가 발작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래, 그런 말이야 안했겠지. 다만 너는 그 결혼이 준수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를 불행에 빠뜨리게 될것이라고 했을것이다. 내 이름까지 껴들어서 말이다.》
윤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하였다.
《어머니, 구체적으로 다 말해주십시오.》
정순의 눈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입에 담고싶지도 않다. 네 처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날카로운 윤수의 눈길이 미애에게로 향해졌다. 하건만 그 녀자는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럼 내가 말해주지.》
정순은 자기가 알게 된 모든것을 터놓았다. 너무나도 정확한 것들이여서 미애는 한마디의 변명도 할수 없었다.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흘렀다.
드디여 정순이 침묵을 깨뜨렸다.

《명희 아버지는 병문안을 하러 병원에 찾아온 명희를 그자리에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ㅈ〉약물연구에 바치라고 하면서 말이다. 억철이 어머니로 해서 명희 아버지와 명희가 받은 정신적타격이 얼마나 심각하고 참혹한것인지를 너희들은 결코 다 알수 없을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오로지 당과 혁명의 리익만을 생각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을 억세게 누를줄 아는 명희 아버지앞에서 나는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도 수치스러워 그들앞에 나설수가 없었다. 억철이 에미가 하는 이야기를 명희 아버지가 마당에서 들었단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니. 나는 몸서리를 쳤다. 명희가 무엇을 결심했겠는지 또 그 결심을 어떻게 실행했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억철이 에미는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댔던 영예군인을 모욕했으며 당과 혁명이 그처럼 절박하게 요구하는 〈ㅈ〉약물연구에 잠시나마 제동을 걸었댔다.

정말이지 똑바로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한다.》

윤수는 숨이 꺽 막히는것만 같았다. 그의 볼편이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켰다. 윤수는 머리를 싸쥐고 고개를 푹 수그렸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지경에까지 굴러떨어졌는가.…

미애는 미애대로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있었다.

지금껏 자기가 누구를 모욕했으며 무엇에 제동을 걸었댔다고는 꿈에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공포와 수치속에서 미애는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미애는 자기의 온몸이 가랑잎처럼 되여버리고 어머니의 말은 그대로 폭풍이 되여 그 가랑잎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있는듯한 환각을 느꼈다. 밑에는 천길나락이다. 컴컴한 심연이 아가리를 벌리고있다. 수천개의 날창들이 그 심연의 둘레에 비죽비죽 수풀처럼 솟아있다. 아니, 그것들은 자기를 가리키며 저주를 퍼붓는 수많은 사

람들이 내뻗친 무수한 손가락들이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 사회와 집단은 나를 용서치 않을것이다!

정순은 퍼그나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이번 일을 두고 이모저모로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

억철이 에미로서도 자기나름으로는 시동생이나 나에게 잘 해주자는 마음이 있었을게다. 이를테면 주관적으로는 이러이러하게 되면 시동생이나 내가 틀림없이 행복해질수 있을것이라고 믿고 있었을거란말이다. 나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니? 그것은 억철이 에미가 진정한 행복에 대한 옳은 견해를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이다.

사람의 한생이 고결하고 아름다워지는가 아니면 너절해지는가 하는것은 행복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는가 하는데 따라서 결정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작은 어깨에 한손을 얹으시고 명희 아버지의 행복에 대한 견해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참된 행복관을 지닌 사람들은 한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보낼수 있으며 그들의 생애는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남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준수와 명희는 그 가르치심대로 살아가고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지경에 굴러떨어져있니?… 가슴아픈 일이다. 심각하게 자기반성들을 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얼마후 정순은 비통한 어조로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간호원의 말을 들으니 명희 아버지는 자주 의식을 잃는다고 한다. 내가 이제 어떻게 명희 아버지나 명희앞에 얼굴을 들고 나타나겠니…》

윤수는 심장이 싸늘하게 얼어드는것만 같았다.

의식을 잃다니?! 혼수상태에 이르군 한단 말인가?! 그런 상태라면 재수술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과연 환자가 그 부담을 견디여낼가? 만일 잘못된다면?! 아, 내가 왜 그때 절제수술을 하

지 않았던가! 그것이 지금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가!

윤수는 신음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제가 당장 명희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명희 아버지의 병상태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맥없이 자리에 주저앉은 윤수는 어머니에게 모든것을 털어놓았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있었다.

바로 그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수는 문쪽으로 나갔다. 문밖에는 과의 간호원이 서있었다.

《선생님, 구급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술협의회때문에 급히 나오시랍니다.》

《알았소. 인차 나가겠소.》

이때 정순이 불현듯 섬찍한 예감이 들어 간호원에게 물었다.

《가만, 그 환자가 영예군인이 아닙니까?》

《예, 영예군인입니다.》

《영북구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구급차로 방금 실려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급한가요?》

《예, 위급합니다. 아는 사람인가요. 어머니?》

《예…》

윤수가 웃옷에 팔을 꿰며 황급히 문밖을 나서려는데 정순이 그를 불러세웠다.

《가만, 수술을 잘해라.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당조직을 찾아가 솔직히 자기비판을 해라.》

《알겠어요, 어머니.》

윤수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미애는 두손으로 싸쥔 얼굴을 쏘파의 팔걸이에 묻으며 목놓아 흐느껴울었다. 정순에게서 들은 전화의 날 이름없는 령길에서의 이야기는 미애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물론 미애는 지금껏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나 소설에서

적지 않게 보아왔고 읽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받은 흥분과 감동은 류다른것이였다. 그토록 평범해보이던 시어머니와 명희 아버지가 미애 자기를 품어키운 이 제도를 지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영웅들이라는 사실이 그 녀자를 놀래웠다. 그리고 《ス-1211》호연구에 얽혀있는 심각한 사연들이 그 녀자의 심혼을 뒤흔들었다. 자기는 그토록 당과 혁명에 긴절한 준수와 명희의 연구사업에 제동을 걸었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인 명희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의 생명을 사경에 처하게 하지 않았는가!

《아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미애는 심각한 정신적고뇌에 빠져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환영을 정면으로 응시하고있었는데 정신의 온 공간에 타오르고있는 그 령길에서의 화광이 그 환영을 둘러싸고 적라라하게 조명하고있었다. 너무나도 큰 심리적고통때문에 더이상 그것을 바라보고있을수가 없었다.

그는 그 환영을 털어버리려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정순이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나에게가 아니라 명희에게 빌어라. 어서 함께 영북으로 가자. 아마 명희는 지금 빈방에서 울고있을게다.》

5

아버지의 꾸짖음을 듣고 군인민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명희는 자책에 잠겼다.

준수동무의 형수가 왔다간 이후로 나는 거의나 연구사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있다. 무채리의 동굴에서 나는 《상골》의 불순물제거효과도 아직 확증하지 못하고있지 않는가, 또 이번 통신공부는 얼마나 어설프게 하였는가. 따져보니 한달이라는 귀중한 기간이

연구사업을 위해서는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명희는 호― 한숨을 쉬였다.

집에 돌아온 명희는 그동안 집일을 돌봐준 건너편 약국장네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집안팎을 대충 거둔 다음 실험대앞에 마주앉았다. 그전의 실험일지들을 뒤적거리며 사색을 정돈하려고 해보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런대로 《상골》의 흡착능력을 검토해보아야겠다는데 주의가 미치였다. 전번에 가져왔던 《상골》은 다 써버린 뒤였다. 실험을 계속하자면 《상골》이 있어야 했다.

명희는 약국장네에게 열쇠를 맡기고 지체없이 길을 떠났다. 일에라도 정신을 돌려 준수와의 가슴아픈 리별에 대해서 잊고싶은 심정도 있었다. 명희네 집에서 무채리까지는 거의 40리가 되는데 호수가를 에돌고 령길을 오르내려야 하는 험한 길이였다. 군데군데의 숲속엔 지름길들이 있는데 그런 오솔길들은 더 험했다. 명희는 빈 배낭 하나를 메고 떠났다. …

드디여 동굴에 이른 명희는 깜짝 놀랐다. 붕락으로 해서 동굴의 입구가 꽉 막혀버렸던것이다. 지금으로써는 어디로든지 다람쥐 한마리 기여들어갈 틈도 없었다. 붕락의 길이가 어느정도인지도 가늠할 길이 없었다. 틈새기를 내자고 돌들을 끄집어낸다는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였다. 그러다가 와르르― 돌들이 무너져내리면 영낙없이 깔려죽을 판이였다. 위험을 각오한다 해도 높이만 해도 6～7메터는 실히 되게 천정까지 꽉 메운 이 산더미같은 붕락을 쳐내고 거기에 통로를 낸다는것은 사람의 힘으로써 어림도 없는 일이였다. 《상골》이란것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도 있기나 한지, 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으므로 이것은 연구사업앞에 참으로 엄중한 난관이였다. 그렇다고 칼벼랑과 절벽으로 이루어져 맨몸으로도 발붙이기가 힘든 여기까지 굴착기나 불도젤을 끌어올수도 없는 일이였다.

명희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눈앞이 아뜩했으나 하여튼 당장은 돌

아설수 밖에 없었다.

먹장구름에 뒤덮인 하늘에는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인적이 없는 산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갔다. 동시에 명희는 점점 무서워졌다. 문득 짐승의 발자국소리가 들리는것 같은 착각이 들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걸음을 옮기면 무엇인가가 뒤를 따르는것 같기도 했다. 숲속의 바위들은 웅크리고있는 짐승의 형체처럼 보이고 키낮은 관목들은 머리칼을 풀어헤친 귀신들처럼 느껴졌다. 어둠과 숲이 뒤엉켜 갖가지 무섭고 괴이한 환영들을 빚어내고있었다.

10리쯤 와서 명희는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얼마쯤 내리막길로 내려가던 명희는 길을 헛들고말았다. 아무리 이리저리 헤메며 길을 찾아보아도 도무지 어느쪽인지 알수가 없었다. 나무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옷이 여러군데 찢어졌다. 물이 사품치는 골짜기의 개울을 건느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물참봉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손더듬, 발더듬을 하며 마을쪽이라 짐작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또 갔다. 이렇게 서너시간쯤 헤메이다가 기진맥진하여 좀 쉬여가려고 개울옆의 바위우에 걸터앉아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있던 명희는 깜짝 놀랐다. 바위앞에 비스듬히 드러누워있는 진대나무가 낯이 익었던것이다. 한시간쯤전에 개울을 건는 다음 그 진대나무를 타고넘으려다가 자꾸만 미끄러져내리는 바람에 할수없이 그밑으로 빠져나왔는데 그자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것이다. 돌이랑 밀어내고 썩은 나무가지랑 한쪽으로 비껴치운 그자리를 명희는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명희는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겁이 더럭 나기도 하였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길을 찾아 헤메기 시작하였다. 캄캄한 어둠속을 소경처럼 더듬어나가던 명희는 어느 둔덕에서 떨어졌다. 명희는 땅바락에 나뒹굴었다. 어디라없이 온몸이 얼얼했다. 일어날 기력마저 없었다. 한동안이 지난 후에야 명휜 왼쪽볼과 왼쪽손목 그리고 오른쪽발목부위에서 참기 어려운 아픔을 느꼈다. 자기가 물이 질벅하게 고인 습지의 한가운데 쓰러져있다는것을 비로

소 알게 된 명희는 가까스로 기여 몇메터쯤 마른 땅을 향하여 비탈지쪽으로 옮겨갔다. 그리고는 거기에 맥없이 누워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윽고 기력을 모은 명희는 머리를 들었다. 다시 마을을 찾아가려고 일어서던 명희는 오른발목에 아픔을 느끼며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상태로는 걷기가 힘들었다. 한참 방도를 생각하던 명희는 지팽이에 몸을 의지하면서 가기로 마음 먹었다.

명희는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잡관목을 헤치며 걷고 또 걸었다. 오른발목이 돌같은것에 부딪칠 때마다 예리한 아픔이 전류처럼 전신에 퍼져올랐지만 명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긁히고 찢어진 얼굴에서는 피와 비지땀이 뒤섞이며 흘러내렸다. 그렇게 헤메이다가 산릉선에 오른 명희는 그만 미끄러운 바위를 헛짚어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반대쪽산골짜기로 나뒹굴었다. 거기는 급경사를 이룬 비탈이였는데 바위돌들이 마치 폭포처럼, 급류처럼 산중턱에서부터 골짜기밑바닥까지 물결인양 흘러내려있었다.

한동안 처녀는 축축한 이끼에 얼굴을 박은채 까딱 않고 누워있었다. 문득 내가 여기서 헤매고있는것을 누구도 모르겠구나, 그러니 찾아다닐 사람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아버지는 병원침대에 누워계신다. 그리고 준수동무와는 영영 헤여졌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슴을 미여지게 했다. 더 이상 《ス—1211》호연구를 계속해나갈 의지도, 힘도 남아있는것 같지 않았다. 더군다나 방금 붕락을 보고난 뒤여서 더 맥이 풀렸다. 이젠 《상골》을 얻을 길이 막혀버리지 않았는가. 《상골》이 없으니 어떻게 연구를 진척시킨단 말인가.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버렸으면 하는 절망이 가슴을 미여지게 했다.

명희는 소리내여 흐느끼며 울었다. 두볼로는 짜디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얼마후 고개를 든 명희는 문득 맞은편 산중턱에서 타오르고있는

한점의 불꽃을 보았다. 처음에는 환각으로 알았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분명히 그것은 불빛이였다.

무슨 불빛일가? 탐사대원들이 피웠을가? 아니면 약초 캐러다니는 사람들이?…

하여튼 반가왔다.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거기로 가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은 다음에 길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명희는 그 불빛을 향해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다. 마치 풍랑을 만나 배가 파괴되고 먹물같은 어둠과 짙은 안개속에서 배길마저 잃고 헤매이던 난파선의 배군들이 뜻밖에 등대의 불빛을 보고 오로지 그것을 향해 한치두치 노를 저어가듯이…

가까이 가보니 그것을 예상과는 달리 모닥불이 아니라 거세차게 타오르는 홰불이였다. 그 홰불은 《상골》이 있는 그 동굴의 입구에서 타오르고있었다. 동굴의 왼켠에는 기발모양의 절벽이 솟아있는데 그 절벽이 홰불의 붉은빛에 물들어 붉은 기발처럼 보였다. 그 절벽이 끝나는 곳에 꼿꼿이 서있는 키큰 소나무 한그루가 마치 기발대처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붉은 기발이라는 느낌을 한결 더 실감있게 해주었다. 그 붉은 기발을 배경으로 어떤 사나이가 커다란 바위돌을 그러안고 한걸음, 두걸음 힘겹게 발걸음을 내짚고있었다. 아직은 너무나도 먼거리여서 그 사나이가 누구인지 가려볼수 없었다.

피끗 준수에게 함흥에서 넘겨준 연구일지에 끼워넣었던 동굴략도에 대한 기억이 번개처럼 명희의 뇌리에 떠올랐다. 순간 처녀의 심장은 쿵— 하고 세차게 울렸으며 이름못할 흥분과 격정으로 온몸이 떨렸다.

명희는 어푸러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허둥지둥 정신없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

틀림없었다. 그것은 준수였다. 지금쯤은 성룡구에 가있으리라고만 생각했던 준수였다. 그는 결사적으로 붕락무지에서 바위돌들을 안아내오고있었다. 붕락구간에 돌파구를 뚫고있는것이였다.

명희는 크나큰 경탄과 감동에 휩싸였다.

커다란 바위들을 안고 한걸음, 한걸음 내짚으며 나아가는 준수의 모습은 참으로 영웅적이고 비장하였다. 땀에 푹 젖은 머리카락, 움푹 패인 눈확, 그속에서 열기를 띠고 이글거리는 눈, 악문 입, 청동으로 부어내고 기름이라도 칠한듯 구리빛으로 번들거리는 상체와 팔뚝의 팽팽히 긴장된 근육들! 그런 그가 마치 폭탄을 안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영웅전사로, 죽음을 각오하고 적의 총구를 맞받아나아가는 불사신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그것은 항일유격대의 김진영웅의 모습이기도 하였으며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영웅의 모습이기도 하였고 김광철영웅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불사신의 영웅전사가 결사의 싸움을 벌리고있는것으로 하여 명희에게는 좀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절망만을 안겨주던 그 붕락무지와 동굴입구가 지금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펄럭이는 붉은 기발에서 《적기가》의 장중한 노래가 울려나오고있는것만 같았다. 아니, 준수가 목터지게 그 노래를 부르고있는것만 같았다.

그래,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난 비겁분자였어. 좀전에 나는 붕락으로 막힌 동굴입구에서 절망하여 뒤걸음쳤댔고 골짜기의 바닥에 어푸러져 동요하면서 값싼 눈물을 쥐여짜고있었지…

명희에게는 자기의 그 꼬락서니가 동요분자, 투항분자의 수치스러운 몰골로 안겨왔다. 이렇듯 숭고하고 장엄하며 비장한 세계에 비해볼 때 자기의 이른바 사랑의 고민따위는 보잘것 없고 시시해보이기까지 하였다.

준수의 형수가 왔다간 이후로 한달동안이나 연구에서 손을 떼고있은것도 당과 혁명앞에 죄악으로 느껴졌다.

명희는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커다란 정신적충격에 휩싸여있었다. 준수는 온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명희의 시야를 제한하고있던 장벽을 깨뜨려버린것만 같았다.

명희는 깨여져나간 장벽너머로 새 세계를 바라보고있는것만 같았다.

자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단념하고 뒤걸음 친 곳에서 준수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지 않는가. 준수와 자기와의 아득한 차이가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다.

과연 제대군인이란 어떤 사람이며 군인정신이란 무엇인지, 전사가 어떻게 수령을 결사옹위해야 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해야 하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심정이였다.

타오르고있는 홰불은 마치 준수의 심장인듯 하였다. 아니, 그의 넋이 통채로 휘황히 타오르고있는듯 하였다.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앞에서 꽁다리초불의 빛발이 무색해지듯이 이 장엄하고 숭고한 광경앞에 서있노라니 요즈음 자기의 생활이 수치스럽게 안겨왔다.

비록 명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똑바로 서있었지만 처녀의 넋은 준수앞에 무릎을 꿇은채로 깊이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한편 준수는 돌을 안아내면서도 요즈음 자기의 생활에 대해 뼈아프게 돌이켜보았다. 나약하게도 한동안 명희로 해서 비틀거리며 동요했던것이다. 준수는 《スー1211》호연구에 돌입한 이래 자기가 두번 비틀거렸다는것을 깨달았다. 첫번은 형의 배신으로 해서였다. 그때는 동요의 싹이 나타나려고 할때 정봉철초급당비서가 아픈 매를 들어 제때에 정신을 차렸었다.

정봉철초급당비서가 못견디게 그리웠다. 그때 정봉철초급당비서는 뭐라고 말했던가. 마음의 기둥이 굳건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의 말이 옳다. 내가 어째서 한동안이나마 그의 준절한 타이름을 망각했었던가. 이번에 다시금 비틀거리던 내 꼴을 보았더라면 그가 얼마나 실망하고 가슴아파했겠는가.

당비서동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준수는 마치 정봉철초급당비서가 앞에 있기라도 한듯 그때처럼 용서를 빌었다. 준수는 이제 병원에 돌아가면 정봉철초급당비서를 찾아가 꼭 자기비판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준수는 명희에게로 생각을 돌리였다. 지금에 와서 그 처녀에 대해 느껴지는것은 배신감이였다.

명희가 나를 멀리하는것은 결국 《ㅈ－1211》호에서 물러서려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명희가 《ㅈ－1211》호의 성패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걸고있다면 나와의 약속을 배반하고 《ㅈ－1211》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에게 시집가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이 사실은 명희의 의식에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의미한다. 명백히 찍어말한다면 명희에게 《ㅈ－1211》호가 그 결혼보다 중요치 않게 된것이다. 《ㅈ－1211》호를 일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을 차버리고 그것을 조금도 리해 못하는(준수는 그렇게 생각됐다.) 다른 사람을 자기일생의 의지로 삼으려 한다는것은 《ㅈ－1211》호에 대한 명희의 관심이 덜해지고 열정이 식어버렸다는것을 말해준다.

준수는 쓰라린 절망감, 상실감, 배신감을 느꼈다.

아, 가장 큰 시련은 제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일일것이다.

지금껏 내가 명희에게 걸어왔던 꿈과 희망, 기대가 결국에는 이런 배신감을 맛보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원한과 경멸이 용솟음쳐올랐다. 만일 명희가 진정한 동지로, 전우로 될수 없는 처녀라면 절대로 애인으로도 될수 없다.

나는 결코 너의 동정을 바라지도 않으며 용서하지도 않을것이다. 배신자, 변절자, 도망병! 비겁하다!…

바로 그때 아래쪽에서 녀자의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준수는 잘못 들은줄로 알았었는데 그 흐느낌소리와 함께 그에게로 한 녀자가 다가오는것이였다.

한순간 준수는 환영을 보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조차 품었댔으나 그것은 틀림없이 실체였으며 그것도 명희였다.

명희가 지금 이 시각 자기앞에 나타난것이 믿기 어려울만치 기이한 일이였지만 명희생각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있던 준수는 대학구내에서나 만난듯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마음속에서 끓어번지고있던 원한과 울분을 거침없이 내뿜었다.

《배신자, 도망병! 썩 사라지시오! 〈ㅈ－1211〉호가 어떤 연구

과제요? 우리들스스로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받아안은 전투명령이라는것을 잊었소?! 동무가 나를 버린것은 얼마든지 용서할수 있소. 그러나 〈ス－1211〉호를 버린것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단 말이요!》

가장 모진 타격이 가장 부드러운 애무로 느껴지는 때도 있다. 준수의 이 무서운 규탄에서 명희는 오히려 준수의 자기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느꼈다. 흰눈처럼 순결하고 불길처럼 뜨거우며 영원히 변치 않을 애정을 지닌 사람만이 배반을 당했을 때 저처럼 격분할수 있는것이다.

명희는 미애의 모든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이순간 명백히 간파했다. 명희의 가슴은 더없는 행복감으로 그들먹이 차올랐다. 차라리 더 호된 꾸중을 듣고 종아리라도 몇대 맞고싶은 심정이였다.

명희는 준수앞으로 몇발자국 더 다가갔다.

그제서야 준수는 명희를 찬찬히 살펴볼수 있었다.

명희의 얼굴은 이마의 상처와 여기저기의 긁힌 자리에서 슴배여나온 피로 범벅이 되여있었고 타박을 받았는지 한쪽눈두덩은 부어있었으며 땀에 푹 젖은 머리카락은 방금 물속에서 끄집어낸듯 헝클어진채로 머리에 찰싹 달라붙어있었다. 옷은 온통 찢어지고 흙탕이 게발라져있는데 발을 절룩거리기까지 했다.

준수는 지금껏 명희와 몇년을 사귀여오지만 처녀의 이처럼 초라한 모습은 처음 보았다. 하지만 왜서인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깊은 밤 《상골》을 얻으러 여기로 오다가 길을 잃고 이 꼴이 되였을 명희!

약혼따위는 없었어요. 난 지금도 《ス－1211》호를 그리고 준수동무를 변함없이 열렬히 사랑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거예요!

처녀의 흉하고 초라한 외모는 분명히 이렇게 부르짖고있었다. 그 목메인 부르짖음이 준수의 고막을 세차게 울리고 온 산발에 메아리치고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처녀가 이처럼 깊은 밤 험한 산속에서 이런 몰골로 헤메고있을수 있겠는가!

준수의 마음속에서 방금전까지의 분노와 원한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리며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명희를 품에 꽉 껴안고 이마의 상처자리며 부어오른 눈두덩이며 젖은 머리칼이며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싶었다.

한편으로는 도저히 그속내를 알아낼 길없는 수수께끼같은 태도로 약혼이니 뭐니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기를 고통속에 몰아넣은 명희가 한대 쥐여박고싶을 정도로 얄밉기도 했다. 꽉 껴안아주고싶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애처롭기도 하고 이 안타깨비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시원히 말 좀 하려무나 하고 한대 쥐여박고싶기도 한 명희!

명희에 대한 애정과 련민으로 가슴이 뭉클했지만 준수는 다시한번 거칠게 부르짖었다.

《왜 왔소. 가시오. 당장 가시오!》

명희는 준수앞에 무릎을 꿇었다.

《준수동무, 절 용서해요. 약혼같은것은 애당초 없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던거예요. 한동안 제 마음이 흔들렸댔어요. 〈ㅈ—1211〉호는 저의 목숨과도 같아요. 절대로 버릴수 없어요.》

《?!》

준수는 어찌할바를 몰랐다.

몸을 일으킨 명희는 준수에게로 다가가 그의 억센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제발 제말을 믿어줘요. 저에겐 이 세상에 준수동무 한사람밖에 없어요. 그동안 속을 태운 이 철부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아무것도 더 이상은 캐묻지 말아요.》

명희의 눈물어린 두눈의 깊은 곳에서 티없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반짝이고있었다.

그것은 맑은 샘의 밑바닥에 가라앉아있는 금강석이 해빛을 받아 찬연히 빛을 뿌리는것과 흡사했다. 행복과 격정에 넘친 그의 눈은 이런 심장이 목소리를 담고 있는듯싶었다. 《사랑해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준수동무의 곁을 떠나지도 않고 또 놓아주지도 않을래요.》…

준수와 명희는 함께 결사적으로 통로개척에 달라붙었다. 그들의 온몸은 땀으로 푹 젖었다. 폐유가 다 떨어지자 그들은 자기들의 신발을 벗어 홰불로 삼았다. 하여 그들의 발은 날카로운 청석의 모서리들에 찢겨 피투성이로 되였다.

떨어지기도 하고 굴러내리기도 하는 돌에 맞아 그들의 머리와 몸에도 여러 군데씩이나 상처가 났지만 그들은 피 흐르는 상처를 옷을 찢어 대충 싸매고는 순간의 쉼도 없이 결사전을 벌렸다.

드디여 동이 터오는 무렵 준수와 명희는 온몸의 힘을 다해 함께 마지막바위를 제껴버렸다.

그러자 동굴안으로 겨우 기여들어갈수 있을만큼의 틈새기가 뻥 — 하니 뚫렸다.

바로 그 순간 초인간적인 긴장이 풀렸는지 명희가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위급한 찰나였다. 붕락무지아래로 굴러내리면 위험하였다.

준수는 급히 한발을 내짚으며 명희를 부둥켜안았다. 얼결에 짚은것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청석의 모서리였건만 아무런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준수는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귀중하고 또 귀중한 처녀를 품에 꼭 껴안았다. 준수로부터 처음 받아보는 그 포옹에 화답하여 두팔로 다정하게 준수의 목을 그러안으며 명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행복의 미소였다.

그들의 둘레에서는 빛광이런듯 수천만개의 별들이 반짝이고있는듯 하였으며 발밑에는 축복의 령롱한 오색구름이 자욱히 깔려있는듯 하였다.

종　　장

동흥산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준수와 명희가 뜻밖에도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비분에 가슴을 치며 기어이 《ㅈ—1211》호를 연구해내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리겠다는 철석의 맹세를 다진 때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흘렀다. …

준수는 새벽 4시가 되였을 무렵 이미 변론까지 마친 학위론문을 다시한번 읽어보다가 깜박 졸았다. 얼마후 깨여나 시계를 본 그는 20분쯤 걸상에 앉은채로 잠들었댔다는것을 알았다. 그 잠이 밤사이의 피곤을 말끔히 씻어버린듯 온몸이 거뜬하였다. 그야말로 집약된 밀도가 강한 잠이였다.

어느덧 창가가 환해졌다. 준수는 아직도 켜둔채로 있는 탁상등을 급히 껐다. 그는 걸상에서 일어나 온몸을 쭉 펴면서 두팔을 힘껏 휘둘러댔다.

서재의 세벽은 천정까지 책으로 꽉 찼다. 나란히 줄지어세워진 책들은 마치 사열을 받으려고 정렬한 전사들 같았다. 실험대우에는 각종의 실험기구들과 계기들, 각양각색의 유리병들과 유리그릇들, 교반기, 항온목욕물통, 원심분리기, 건조기, 탑크로마토그라프… 등등이 꽉 차있었는데 그것들 역시 오늘의 성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한 전사들이였다.

그래, 미더운 전사들이여,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얼마나 힘겨운 전투를 치르어왔는가! 자, 이제는 승리의 열병식을 할만도 하지. 내가 사령관이라면 명희는 참모장이다. 참으로 충실하고 유능한 참

모장이다.

(나란히! 우로 밧! 참모장에게 경례!)

《참모장》은 어떤 영광이 자기에게 차례졌는지도 모르고 앞치마를 두른채로 건너편 책상에서 콤퓨터와 마주앉아있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국이 끓고있었다. …

준수네를 소개한 편집물이 방영된다는 전화를 받고 윤수네 온 집안은 연신 시계를 쳐다보며 긴장해서 텔레비죤화면만 지켜보고 있었다.

드디여 시간이 되자 화면에 준수와 명희의 모습이 나타났다. 억철이는 《삼촌이다, 삼촌어머니다!》 하고 집이 떠나갈듯 환성을 질렀다. 《조용해라.》 하고 미애가 가볍게 나무랐다.

그러자 정순이 웃으면서 손자의 편을 들었다.

《놔두어라. 얼마나 좋으면 저러겠니.》

마침내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는 준수의 목소리가 방안에 울려퍼졌다.

윤수로서는 텔레비죤으로 혈육의 목소리를 듣는것이 이번이 처음이여서 그런지 막내동생과 방안에 마주앉아있는듯한 이상한 착각에 빠졌고 그때문에 한동안은 막내동생의 말을 잘 가려들을수 없었다. 그는 조절기로 음량을 크게 했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사들도 아닌 우리들에게 난관과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드릴 한마음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연구해내기 위하여 청춘의 정열을 다 바쳐 굴함없이 돌진했으며 그길에서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였습니다.》

준수의 기자와의 회견은 계속되였고 준수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온 나라로 울려퍼졌다.

마침내 소개편집물이 끝나자 미애가 흐느껴울며 정순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줘요.》

정순은 맏며느리의 잔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었다.

《용서는 무슨 용서. 준수와 명희의 이번 성공에는 너의 노력도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네가 억철이 애비랑 그 많은 실험기구들과 시약, 자재, 책들을 이고 지고 들고 오죽이나 많이 그 먼델 찾아갔댔니. 난 널 친딸처럼 여긴지 오래다.》

《어머니, 고마와요!》

미애는 여전히 가볍게 흐느끼며 목멘 소리로 나직히 뇌였다. 거기에는 다함없는 고마움과 진정이 어려있었다.

다음날 저녁 윤수는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로 뒤산에 올랐다. 그는 자기를 반성하는 의미로 짐을 싸가지고 어머니한테 내려왔던것이다.

아버지의 묘앞에 이른 윤수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준수가 끝내 성공했습니다.》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고있다가 그는 덧붙였다.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저는 맏이구실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

한동안 고개를 떨구고 서있던 윤수는 모자를 쓰고 솜옷주머니에 두손을 찌른채 묘앞의 공지를 천천히 거닐었다.

어느새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재빛으로 흐려진 광막한 우주의 깊디깊은 곳에서 재빛먼지 비슷한것들이 자욱히 쏟아져내리고있었다.

가까이 내려올수록 그것들은 커지고 흰빛을 띤다. 눈들어 올려다보면 눈송이들이 공간을 빽빽히 메워 마치 하늘이 통채로 쏟아져내리는것 같다. 그러나 정작 눈앞을 바라보면 그것들사이도 듬성듬성하고 어느것이든 흰 티 몇개가 가까스로 붙어서 이루어진듯 갸날프기가 그지없다. 어떻게 그 먼길에서 부서지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올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자 눈송이들은 사선으로 비껴날리기 시작했다.

윤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비껴날리고있는 눈송이들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시퍼렇게 언 무수한 나무들의 바늘잎들에 부딪친것들은 창끝에 떨어진 유리장처럼 산산이 부서진다.

나의 일생도 저렇게 사라지고 마는가? 나에게 남은것은 무엇인가?

마음은 한없이 쓸쓸했다. 돌이켜보건대 그래도 일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보람찼던 시기는 《ㅈ－1211》호때문에 뛰여다니던 때인것 같았다.

나는 행복에 대하여 너무나도 경솔하게 생각했다. 나는 작은 것을 위해 큰것을 버렸다. 청춘시절에 잃은것을 장년기나 로년기에 되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젊어 고생은 금 주고도 못산다고 하지 않는가.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투지도 랑만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리상과 꿈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버리면 생활은 살아가는것으로 되고 만다. 투쟁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청춘시절을 허송세월한 인생은 이 땅우에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못하고 풀잎우의 이슬방울처럼 사라져버릴것이지만 온몸에 열정과 투지가 넘쳐나고 피끓는 그 시절에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고귀한 창조물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길이 남을것이며 그 재부를 창조해낸 주인공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

윤수는 저 아래켠 소나무숲속에서 자기를 찾으러올라온 미애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고있는줄도 모르고 돌로 깎아세운듯 까딱않고 서있었다.

만수대의사당에서 각각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김준수와 신명희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려 만수대언덕으로 향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들이 서로 귀속말로 속삭이는 《부부박사인 모양이지?》, 《야, 멋진 한쌍이구나!》라는 말마디들이 준수와 명희의 귀에까지도 들려왔다.

조선혁명박물관의 측면으로 오르는 경사길에 들어섰을 때 꽃매대옆에 서있던 사진사가 그들을 멈춰세웠다.

《가만, 이 기쁜날 사진을 찍지 않겠습니까?》

준수와 명희는 서로 미소를 짓고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사는 그들을 여기에도 세워보고 저기에도 세워보고 이런 각도에서도 찍어보고 저런 각도에서도 찍어보며 사진을 잘 찍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때는 4월의 명절을 며칠 앞둔 화창한 봄날이였다. 맑게 개인 하늘에서는 한낮의 태양이 진한 빛을 아낌없이 뿌려주고있었고 만발한 꽃속에 묻힌 그들의 얼굴은 분홍빛으로 물들어있었다. 꽃나무가지와 그들의 그림자가 록보석처럼 빛나는 진록색의 잔디우에 판화에서처럼 또렷이 새겨져있었다. 준수와 명희의 모습에서는 다함없는 환희와 긍지가 빛발인듯 뿜어나와 노을처럼, 향기처럼 그들을 휩싸안고있어서 보는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했고 마음을 취하게 했으며 부러움과 감탄을 자아냈다. 그것은 정말이지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훌륭하게 형상한 한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드디여 사진사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이젠 됐습니다.》

그들이 사진값을 물려고 하자 사진사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 난 창작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야심작을 하나 구상하고있었는데 오늘 뜻밖에도 그 주제와 딱 들어맞는 박사부부를 만나는 행운을 지녔지요. 예술사진이라 해도 의도적인 표정을 짓게 하고 찍은것과 실지 마음속에서 피여오르는 감정에 물든 표정을 찍은것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예술사진을 만들던중 이번처럼 생활적으로 찍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미리 성공을 예감하기도 처음입니다.》

옆에서 듣고있던 꽃매대처녀가 웃으면서 물었다.

《사진의 제목이 뭔가요?》

사진사는 대답했다.

《〈행복〉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삼가 꽃다발을 드린 준수와 명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들어 가리키시는 저 멀리 찬란한 래일을 바라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달려나갈 굳은 맹세로 가슴 불태우면서 오래도록 서있었다.

장편소설

그들의 청춘시절

저 자	김정현		
편 집	박성보	표 지	박철남
편 성	정향애	교 정	오향선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7월 2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7월 30일

ㄱ—16308 값 200원

DPRKorea

ISBN 978—9946—21—260—9